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1 장 건곤일기대(乾坤一氣袋) 속의 장무기

장무기는 그 광경을 보며 어느 쪽이든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한쪽은 아버지 쪽이고 한쪽은 어머니 쪽이 아닌가! 그는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한 명씩 쓰러져 나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괴로왔다.

은이정이 상황을 살펴보고 입을 열었다.

"적은 예금(銳金), 홍수(洪水), 열화(烈火) 삼기(三旗)로구나. 청서야, 이쪽은 공동파가 맞서고 있고. 화산, 곤륜에서도 당도했으니 우리도 가세하자."

그러면서 장검을 허공에다 휘두르자 검에서 윙! 윙! 예리한 바람소리가 들렸다. 송청서가 즉시 입을 열었다.

"육숙님, 잠깐 저길 좀 보세요. 저쪽에도 많은 적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장무기는 슬쩍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니, 과연 싸움터 밖 수십 장 되는 거리에 사람들이 까맣게 깔려 있었다. 삼대(三隊)의 인마가 질서 정연하게 배치돼 있었던 것이다. 일 열의 숫자는 적어도 백 명은 넘어 보였다.지금은 삼파와 삼기의 세력이 서로 균등하지만, 이 삼 열의 인마들은 시종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멸절사태와 은이정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이정이 청서에게 물었다.

"저 자들이 왜 꼼짝 않고 구경만 하고 있지?"

송청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주아가 갑자기 그들의 대화에 끼어 소리쳤다.

"척하면 삼천리지, 그것도 모르세요?"
그 말에 송청서는 아무 대답도 않고 얼굴만 붉혔다.
은이정이 주아에게 다시 물었다.
"낭자의 가르침을 받고 싶소!"
"저 삼대인마(三隊人馬)는 천응교입니다. 천응교도 사실 명교의 지파(支派)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행기(五行旗)와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불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네들이 오행기를 모두 처치하면 천응교에선 오히려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천정이 명교의 교주가 될 수 있을 터이니까요."
모두는 그제서야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영문을 알게 됐다.
"낭자의 가르침, 정말 고맙소."
하고 은이정이 인사를 하자, 멸절사태는 그녀를 노려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금화파파의 무공이 심오하니 과연 그의 어린 제자마저도 대단하군."
정현이 송청서에게 물었다.
"송소협, 포진(佈陣)이라면 누구도 소협을 따를 자가 없소. 우리 모두 소협의 호령에 따를 것이니, 사양치 말고 어서 적을 퇴치할 수 있는 분부를 내리세요!"
"육숙님, 이 조카가 어떻게 감히 명령을 합니까?"
멸절사태가 입을 열었다.
"지금같이 위급한 처지에 무슨 겉치레를 따지느냐. 어서 명령을 내리게!"
송청서는 지금 전체가 급박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곤륜파 예금기와 맞서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었고, 화산파는 홍수기를 맞아 막상막하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공동파는 점점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열화기에 포위당한 체 처참하게 죽어가

고 있었다.
"세 방향으로 갈라져 공격합시다. 모두 예금기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사태님께선 동쪽으로, 육숙님은 서쪽, 그리고 저와 정현사숙은 남쪽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의 명령에 정현은 의구심이 생겨 물었다.
"곤륜파는 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지만 공동파는 당장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소!"
"네, 그렇습니다. 곤륜파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린 전력을 다해 일시에 예금기를 섬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열화, 홍수 양기는 그만 기가 죽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공동파를 도우러 갔다가는 일시에 그들의 위세를 꺾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천응교만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낭패가 아닙니까?"
정현은 그의 설명에 탄복을 했다.
"송소협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군요."
그들은 송청서의 명령에 따라 세 곳으로 나눠 쳐들어갔다.
주아는 장무기의 팔을 잡아 당기며 말했다.
"오빠, 우린 여기서 더 지체해 봤자 아무 이득도 없으니 그만 여길 떠나요."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송청서가 달려와 검으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낭자, 잠깐!"
"아니, 왜 저를 막는 겁니까?"
"아가씨의 내력이 의심스러워 그것을 알기 전엔 여길 떠나게 할 수 없소?"
주아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내력이 이상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죠?"
멸절사태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마교를 모두 죽이고 싶은 이

때, 송청서가 주아와 입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자 어느새 달려와 주아의 등, 허리, 다리 세 곳의 혈도를 찍었다. 그녀가 어찌 멸절사태의 초수(招手)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그만 무릎의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 버렸다.

멸절사태는 장검을 휘두르며 외쳤다.

"오늘 이 사악한 무리들을 모두 섬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들은 각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금기를 향해 쳐들어갔다.

곤륜파의 하태충과 반숙한 부부는 예금기를 맞아 싸우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무당과 아미파에서 가세를 하자 성세(聲勢)가 더욱 대성하였다.

멸절사태의 검법은 얼마나 예리한가! 명교의 제자들은 누구든 그의 삼 초식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훤칠한 몸집이 동서 할 것없이 사람들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휘젓고 다녔다. 삽시간에 일곱 명이나 그녀의 검에 목숨을 바쳤다.

예금기의 장기사 장정은 전세가 완전히 불리해지자 직접 낭아봉을 쳐들고 달려가 멸절사태와 맞부딪쳤다. 둘은 눈깜짝할 사이에 십여 초를 주고 받았다. 멸절사태의 아미검법은 점점 예리해지면 그에게 쉴새없이 공격을 가했지만, 장정의 뛰어난 무공도 만만치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은이정, 정현, 송청서, 하태충, 반숙한, 그들도 모두 종횡무진으로 검을 휘두르고 다녔다. 예금기에도 무예가 뛰어난 고수들이 많지만 그들이 어찌 무당, 아미, 곤륜 삼 파의 협공을 막아내겠는가? 순식간에 살상자는 늘어만 갔다.

이때 펑! 펑! 펑! 하고 장정이 온 힘을 다해 낭아봉을 내리치자, 멸절사태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장정은 그녀에게 숨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다시 낭아봉을 내리쳤다. 위세가 당당했다.

멸절사태는 잽싸게 몸을 피하는 동시에 검으로 순수추주(順水推

舟)의 초식을 그의 낭아봉을 겨냥해 밀쳐냈다. 그러나 장정은 명교에서나 무림에서나 손꼽히는 고수였다. 그는 천부적으로 뚝심이 강했고 내공이나 외공이 모두 상승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낭아봉을 통해 상대의 내력을 느끼자 놀란 기합과 동시에 정면으로 검을 후려치자, 멸절사태의 검은 그만 세 동강으로 부러져 버렸다. 멸절사태는 팔에 약간의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으나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잽싸게 팔을 뒤로 젖히며 의천검을 뽑아들었다. 순간 그녀의 검에서 한기와 더불어 싸늘한 검빛이 번쩍이는데 흡사 번개와 같았다. 멸절사태는 철쇄횡강(鐵鎖橫江)의 초식으로 검을 휘두르며 밀고 나가자, 장정은 손에 쥔 낭아봉이 갑자기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시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낭아봉 끝이 싹뚝 하고 잘려 나간 것이었다. 동시에 그의 목도 의천검에 의해 절단되었다.

예금기 부하들은 장기사 장정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며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들었다. 그 바람에 삼 파의 제자들이 몇 명 희생당하고 말았다.

홍수가 진중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우리의 장기사께서 순교(殉敎)를 했다! 우리 홍수기가 뒤를 받을 테니 예금, 열화 양기는 후퇴하시오!"

그러자 열화기진의 깃발이 바뀌며 그 말대로 서쪽으로 퇴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금기에선 한 명도 물러서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더욱 맹렬하게 덤벼들고 있었다.

홍수기에서 다시 큰 소리가 들려왔다.

"홍수기 장기사의 명령이요! 전세가 불리하니 예금기도 일단 후퇴하고 다음에 복수할 기회를 노립시다!"

이번엔 예금기에서 몇 명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홍수기에서 먼저 후퇴하시오! 그리고 훗날 꼭 우리 대신 복수를 해주시오. 우리는 장기사처럼 목숨을 바쳐 싸우겠소!"

그러자 홍수기 진중의 깃발이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누군가 벼락같이 외쳤다.

"예금기 형제들, 걱정마시오! 우리 홍수기가 꼭 복수를 해드릴테니!"

그러면서 그들도 서쪽으로 퇴각하는 것이었다.

"당기사, 고맙소."

하늘을 찌르는 듯이 예금기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댔다.

화산, 공동 두 파에서는 적들이 질서 정연하게 퇴각하면서 십여명이 손에 금빛이 번쩍이는 둥그런 원통(圓筒)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도대체 무슨 병기인지 이상해 더 이상 그들을 뒤쫓지 않고 모두 방향을 바꿔 예금기를 향해 집중 공격해 갔다. 싸움은 이미 판가름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당파에서만 두 명이 왔을 뿐 나머지 네 파에선 모두 정예들만 뽑아 오지 않았는가! 그 반면에 예금기 쪽에서는 장기사가 이미 죽었으니 지휘자를 잃고 우왕좌왕 하여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의리를 지켜 죽음을 무릅쓰고 장기사의 뒤를 따라 순교할 결의가 되어 있었다.

은이정은 몇 명을 쓰러뜨리고 나자 사실 더 싸울 흥을 잃었다.

"마교의 무리들은 듣거라! 너희들은 지금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병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

그러자 예금기의 부장기사가 광소를 날렸다.

"하하핫.....! 너희 눈엔 명교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우리는 장사형께서 전사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은이정이 다시 소리쳤다.

"아미, 곤륜, 화산, 공동파 친구들은 마교 무리들이 항복을 하게끔 뒤로 십보(十步)를 물러나시오!"

그 말에 모두 뒤로 물러났으나 멸절사태만이 검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교에게 뼈속 깊이 한이 맺혀 있었다. 그의 의천검(倚天劍)이 부딪치는 곳이면 검이고 칼이고 성해 남지 못하고 모두 부러져 나갔다. 팔, 다리, 머리 할것없이 사방에 피를 뿌리며 떨어져 나갔다.

아미파 제자들은 스승이 혼자서 싸우고 있자 다시 앞으로 쳐들어가 병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되니 아미파에서만 예금기와 싸우게 된 것이다.

명교 예금기엔 아직도 육십여 명이 살아 버티고 있었고, 그 중에는 무공이 뛰어난 이십여 명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부장기사 오경초(吳勁草)의 지휘 아래 아미파 제자 삼십여 명과 이대 일로 싸우며 버티었다. 사실 인원수로 보아 우세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멸절사태의 의천검이 너무나도 예리했다. 그리고 그녀의 검초 또한 얼마나 날카로운가! 그녀의 의천검 앞엔 그저 모조리 쓰러지는 것뿐이었다. 예금기에서는 또 순식간에 칠, 팔 명이나 되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장무기는 더 이상 처참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주아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떠나자."

그러면서 해혈수법으로 그녀의 혈도를 풀어 주려 했으나, 웬일인지 몇 번이고 그녀의 등과 허리를 주물렀는데도 주아는 다만 마비되는 느낌만 더 할 뿐 좀처럼 혈도가 풀리지를 않았다. 멸절사태의 내력이 워낙 심후해서 가볍게 점혈(点穴)했는데도 혈도 깊숙이 찍혀,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장무기는 장탄식을 하며 다시 고개를 돌려 싸움을 살펴보니 예금기 부하들의 손에 들은 병기는 모두 부러져 있었고, 화산, 곤륜, 공동파에게 사방으로 포위당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추호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맨손으로도 아미 제자들과 맞서고

있었다.

멸절사태는 아무리 마교와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갖고 있다 해도 일파의 장문으로서 병기를 잃고 적수공권으로 버티고 있는 적들을 죽일 수 없었다. 멸절사태는 갑자기 날으는 듯이 적진을 휘젓고 다니더니 어느새 오십여 명이나 되는 마교인들의 혈도를 모두 봉(封)해 버렸다. 그러자 마교인들은 모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뚝처럼 서 있게된 것이다. 그녀의 이런 상승 점혈수법에 모두 갈채를 보냈다.

이때 동쪽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천응교의 삼대인마(三隊人馬)가 동쪽, 남쪽, 북쪽 세 방향으로 나뉘어져 접근해 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십여 장쯤 떨어진 곳까지 접근해 왔다. 그러나 역시 구경만 하고 공격을 취하지 않았다.

주아가 갑자기 장무기에게 말했다.

"오빠, 만약 천응교의 손에 잡히는 날이면 큰일이예요. 우린 빨리 여기를 떠나요."

장무기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천응교에게 친근감을 갖고 있었다. 천응교는 바로 자기 어머니의 교파가 아닌가. 장무기는 어머니가 비록 세상을 떠나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언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을 한 번 만나 뵐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었다. 그는 천응교의 인마가 가까이 접근해 오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떠나고 싶지 않았다.

송청서는 멸절사태의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선배님, 예금기를 빨리 처치하고 나서 다시 천응교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게 됩니다."

멸절사태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르자 몽롱한 햇살이 멸절사태의 큰키를 비추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며 우뚝 서 있는 자세는 왠지 처절하기도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감마저

들게 하였다. 그녀는 마교인들을 그렇게 쉽게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곧 싸늘하게 외쳤다.

"마교인들은 들어라! 누구든 살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빌어라. 그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예금기 부하들은 모두 광소를 터뜨릴 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자 그 소리는 산야를 진동시켰다.

멸절사태는 울화가 치밀었다.

"무엇 때문에 웃느냐?"

오경초가 큰 소리로 대꾸했다.

"우린 모두 장기사를 따를 각오가 돼 있다. 어서 우리를 죽여라!"

"흥, 좋다! 너희들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가증스럽게 영웅호걸인 척하는구나. 그렇게 쉽게 너희들을 죽일 줄 아느냐!"

그는 장검을 휘둘러 야멸차게 오경초의 오른팔을 잘라 버렸다. 즉시 시뻘건 핏줄기가 뻗쳤다.

오경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외쳤다.

"우리 명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제세구민(濟世救民)하며 만인에게 봉사하는 교파다! 죽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늙은 계집중아, 우리를 항복시킬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멸절사태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다시 세 명의 팔을 잘라 버리고 나서 살기띤 음성으로 다음 사람에게 다그쳤다.

"이래도 넌 살려달라고 빌지 않겠느냐?"

명교의 제자는 대뜸 욕설을 터뜨렸다.

"이 늙은 도적승아! 개소리 마라!"

어느새 정현이 앞으로 나서 그 자의 오른팔을 잘라 버렸다.

"사부님, 제자가 이놈들을 모두 처치하겠습니다."

그녀가 물어봐도 살려달라고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현사태도 칼을 휘둘러 몇 명의 팔을 절단시켰으나 반항할 힘을 잃은

저들에게 더 이상 잔인한 수단을 전개할 수 없었다.

"사부님, 이놈들은 정말 고집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현의 눈빛은 사부에게 용서해 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멸절사태는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다시 말했다.

"먼저 이놈들의 오른팔을 모조리 잘라 버려라! 그러고도 버티면 다시 왼팔을 잘라 버릴 것이다."

장무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느새 몸을 날려 정현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잠깐 멈추시오!"

그 바람에 정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장무기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잔인무도한 짓을 하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아미파의 제자들은 그의 너무나 당당한 기세에 눌려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일순간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다른 문파의 제자들도 갑작스레 남루한 옷차림의 소년이 나타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곧이어 정현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나 죽이고 싶어하는 사악한 놈들을 처치하는데, 무엇이 잔인무도하다는 거냐?"

"이 사람들은 모두 의리를 지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봐 영웅호걸임에 분명한데, 어째서 사악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놈들이 사마외도(邪魔外道)의 무리들이 아니란 말이냐? 그래 네 눈으로 청익복왕 위일소가 나의 사제, 사매의 피를 빨아 죽인 것을 직접 보고도 요사가 아니란 말이냐? 그럼 뭣이 사악한 놈들이냐?"

"그 청익복왕은 두 사람만 죽였지만 당신네들은 벌써 그 열 배

나 더 죽였습니다. 그리고 위일소가 이빨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죽이는 거나, 당신의 사부께서 의천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가 아니요?"

정현은 화를 벌컥 냈다.

"네 놈이 감히 내 사부님을 요사들과 같이비교하다니!"

팍! 하고 정현은 그의 얼굴을 향해 다짜고짜 일장을 뻗었다. 장무기는 재빨리 피했으나 정현은 아미파에서 사문진전(師門眞傳)을 전수받은 대제자가 아닌가!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가 장무기의 얼굴을 향해 뻗은 일장은 사실 허식(虛飾)이었다. 장무기가 잽싸게 피하는 바로 그 순간 힘껏 장무기의 가슴을 걷어찬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뿌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오히려 정현의 몸이 뒤로 수 장 밖이나 튕겨져 나뒹굴며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사실 장무기는 가슴을 차였지만, 상대방의 발이 가슴에 와 닿는 동시 체내의 구양신공이 자발적으로 저항력을 일으켜 그녀를 진퇴(進退)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정현이 스스로 자신을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행히도 그녀는 장무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성(五成)의 내공만 발휘했기 때문에 다리만 부러지고 내상은 입지 않았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장무기는 재빨리 뛰어가 그를 부축했다.

정현사태는 눈을 부라리며 다시 화를 버럭 냈다.

"비켜라!"

장무기는 아무 말도 않고 뒤로 물러섰다. 아미 제자들이 뛰어가 정현을 부축했다.

주위에 있는 군호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루한 차림의 소년이 단 일격에 아미파의 고수인 정현사태를 격퇴시킨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멸절사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소년의 신분은 도대체 뭐지? 며칠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이 소년이 이런 상승 무공을 지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 소년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절정고수란 말인가? 나 자신도 정현을 반탄지력으로 저렇게 멀리 진퇴시키기 힘든데.....'
멸절사태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졌다. 그녀는 물론 장무기를 가벼운 상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려운 존재로는 더욱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장무기의 아래위를 유심히 훑어보고 있었다.
장무기는 예금기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는 잘라진 팔에서 피가 흐르지 않게 혈도를 봉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의 수법은 매우 숙련돼 보였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물론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점혈수법(点穴手法)에 능통한 호수(好手)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의 수법이 장무기의 수법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그가 점혈한 부위는 거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오경초가 정중하게 말했다.
"소협의 의협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협의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
"소인은 증아우라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멸절사태의 낭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 녀석아, 이리 가까이 와서 나의 검식(劍式)을 세 번 받아보겠느냐?"
"사태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더 급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장무기는 여전히 상처를 치료하며 마지막 한 명까지 붕대를 갈

아 주고 비로소 몸을 돌려 포권의 예를 올렸다.

"멸절사태님, 소인은 사태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만 쌍방이 모두 원한을 씻어 버리고 싸움을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가 말하는 쌍방은 사실 자기 부모나 다름없었다. 소위 명문정파는 자기 아버지 쪽인 무당이고, 사마외도라 불리워지는 천응교는 자기 어머니쪽이 아니던가!

"네까짓 놈이 감히 싸움을 멈추라 말라 하다니, 하핫! 네가 무림지존이냐?"

"무림지존이 무슨 별것입니까?"

"만약 네가 도룡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나의 의천검과 겨뤄 이겨야만 무림지존이라 할 수 있다. 그 때 가서 명령을 내린다면 또 모를 일이지!"

하! 하! 핫! 하고 모두들 장무기를 비웃었다. 장무기도 물론 자기의 나이나 신분으로 싸움을 말릴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자기를 조롱하듯 웃자 그만 화가 치밀었다.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들은 모두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이들의 식구들은 어떡합니까? 사태님께선 속세를 떠난 사람이니 자비심을 베풀어 이 사람들을 살려보내 주십시오."

멸절사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네놈이 심후한 내력(內力)을 믿고 여기서 큰 소리치는 모양인데, 좋다. 네놈이 나의 삼장(三掌)받아낼 수 있다면 모두 살려보내 주겠다!"

"소생은 귀파 제자의 일장도 감당해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태님의 삼장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겨뤄 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데, 자비심을 베풀어 이 사람들을 살려 주십시오."

오경초가 큰 소리로 외쳤다.
"증상공, 이 늙은 도적승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죽으면 죽었지 그의 거짓된 자비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멸절사태는 장무기를 노려보며 물었다.
"너의 스승은 누구냐?"
장무기는 아버지나 의부한테 무공을 배운 적은 있지만 그들을 자기의 스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저의 스승은 없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장무기가 정현사태를 진퇴시킨 것을 보고 필시 어느 고인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 무림에서는 사도(師道)를 제일 존중한다. 가끔 자기의 스승 이름을 밝히지 않는 피치 못할 경우도 있지만, 있는 스승을 없다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무기가 스승이 없다고 하니,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다.
"자, 내 초식을 받아라!"
멸절사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가볍게 일장을 떨쳐냈다.
장무기는 도저히 그의 장풍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손을 내밀어 정면으로 그의 장풍을 막았다. 그러나 자기를 향해 뻗쳐오던 멸절사태의 손이 갑자기 밑으로 미끄러지며 마치 물고기처럼 장무기의 두 손 사이로 빠져나가 탁! 하고 가슴을 후려치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의 체내의 구양진공이 자연적으로 멸절사태의 장풍과 부딪치려는 찰나 갑자기 멸절사태의 손이 밑으로 빠져나가자 어떻게 할 줄 몰라 멈칫거리는 순간, 쇠망치와 같은 엄청난 힘이 자기의 가슴을 후려친 것이다. 장무기는 벌렁 뒤로 나동그라지며 입에서 선혈을 토했다.

멸절사태도 장력을 자유자재로 뻗고 거두고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일단 상대의 내력을 유도해 내고 나서 그 빈틈을 타 다서 내력을 뻗은 것이다. 실로 내가(內家) 무학 중에서도 제일 오묘한 수법이었다.

그의 그런 묘수에 모두는 갈채를 보냈다. 주아는 크게 놀라며 뛰어가 장무기를 부축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마비되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장무기가 당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급해 뛰쳐나갔지만 아직 혈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아우 오빠.....!"

장무기는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아를 향해 손을 휘젓휘젓 흔들었다.

"난 괜찮아.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이 남은 요인들의 오른팔을 모두 잘라 버려라!"

하는 멸절사태의 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당신의 장풍을 세 번 받아내면 이 사람들을 모두 살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아직 두 번 남았소이다!"

멸절사태는 일장을 뻗고 나서 예측한 대로 장무기의 내력이 심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무기가 절대로 이 요사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이 소년의 내력이 자기가 배운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마저도 들었다. 그것은 실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멸절사태는 장무기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너하고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넌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옳고 그릇된 것은 분별해야 할 게 아니냐? 방금 전개한 일장은 단지 삼성(三成)의 공력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아느냐?"

장무기는 가가 한 문파의 장문인으로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처음 일장에 삼 성의 공력을 사용했으니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웅후한 공력을 전개할 게 뻔했다. 그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장무기가 아니었다. 예금기의 사람들이 제대로 반항도 못한 채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장무기는 이를 악물었다.

"분수를 모르는 놈이라 비웃어도 좋으니, 다시..... 다시 사태님의 장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다급해진 것을 오히려 오경초였다. 그는 황급히 소리쳤다.

"증상공! 우린 상공의 은덕에 깊이 감사를 하고 있소. 그 의협심에 탄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시오!"

한편, 멸절사태는 주아가 장무기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눈에 거슬리는지 왼쪽 소매를 살짝 떨쳤다. 그 즉시 주아의 몸이 그의 소매에 말려 뒤쪽으로 날아갔다. 주지약이 얼른 앞으로 한 걸음 내딛어 그녀의 몸을 받아 천천히 땅에 내려놓았다.

주지약이라는 것을 확인한 주아가 급해 소리쳤다.

"주 언니, 그가 무모한 짓을 못하게끔 말려 주세요. 언니가 만류하면 틀림없이 들을 거예요!"

주지약은 멍해졌다.

"그가 왜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는 마음 속으로 언니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언니는 그것을 모르고 있나요?""

주지약은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때 멸절사태의 냉랭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네가 정녕 영웅호걸의 흉내를 내겠다면,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

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저승에 가서라도 날 원망하지 말아라!"
 말을 내뱉기 무섭게 그녀의 오른손이 허공에 떨쳐졌다. 거기에 따라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일며 한 갈래의 무지막지한 힘줄기가 장무기의 가슴팍으로 향해 휘몰아쳐 갔다.
 장무기는 이번에 감히 정면으로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그녀의 장풍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될 리가 만무했다. 멸절사태의 오른팔이 곡선을 그리며 급회전되더니 도저히 불가능한 각도에서 가로 뻗쳐왔다. 팍! 그녀의 장풍이 정확하게 장무기의 등줄기를 강타했다. 순간, 장무기의 몸뚱아리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처럼 허공을 붕 떠올라 급속도로 땅에 떨어졌다. 모래밭에 묻히듯이 쓰러진 장무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진 것 같았다.
 멸절사태가 전개한 이 초식은 절묘하기 이를데 없어 주위에서 갈채가 터져나와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무기의 협의지심에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터라 그가 불행을 당하자 놀란 외침을 토하거나 탄식을 할 뿐 좋다고 법석을 떠는 자는 없었다.
 가장 안타까와하는 것은 역시 주아였다.
 "주 언니, 제발 부탁이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가서 보살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주지약은 가슴이 철렁했다. 더욱이 주아의 간곡한 부탁을 듣자 당장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 큰 처녀가 한 젊은이의 상세를 보살펴 준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자기 스승님에 의해 젊은이가 부상을 당했으니, 달려나간다면 설령 사문에 대한 배반 행위가 아니라 해도 스승님에 대한 불경임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하여,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내딛다가 다시 움츠렸다.
 이 즈음, 날이 환하게 밝아와 눈부신 햇살이 사장(沙場)에 뿌려

졌다. 그 찬란한 햇살 아래 장무기가 쓰러져 있었다. 향 반 자루가 타는 시간이 경과되자 장무기의 몸이 꿈지락거리더니 곧 안간힘을 쓰며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팔로 몸을 버티는 순간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하며 다시 스러졌다. 그는 의식이 흐릿했다.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그냥 누워 있고만 싶었다. 그러나 아직 일장을 더 받아내야 예금기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만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 한 모금의 숨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버텨야만 했다. 그는 길에 숨을 들이키며 끝내 몸을 일으켜 앉았다. 하지만 고주망태가 된 것처럼 상체가 흐느적거리며 언제라도 다시 고꾸라질 것만 같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를 주시했다. 주위엔 수백 명이 서 있었지만 바늘이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시간마저 정지된 듯한 이 조용한 순간에 장무기는 불현듯 구양진경에 적혀 있는 몇 마디가 뇌리에 떠올랐다.

----- 강하면 강한 대로 내버려 둘지어다. 바람은 산을 훑고 지나가느니라, 사나우면 사나운 대로 내버려 둘지어다. 달빛이 강을 어루만지느니라. -----

골짜기에 있을 당시엔 이 몇 마디에 담긴 참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한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불현듯 깨달은 것이다. 멸절사태는 강하고 사나워 자기로선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구양진경에 수록된 그 참뜻은 상대가 제 아무리 강하고 사나워도 산을 훑고 가는 바람과 강을 어루만지는 달빛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절대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단지 스쳐갈 뿐 파괴를 하진 못할 것이다.

장무기는 경문의 다음 귀절을 떠올렸다.

-----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한 모금의 진기로 대항할지어다. -----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막힌 강둑이 터지듯 지혜의 물결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단정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경문에 수록된 방법에 따라 운공조식(運功調息)하자, 단전으로 부터 훈훈한 기운이 용트림하며 삽시간에 사지백해로 번져 나갔다. 구양진경의 진정한 위력이 비로소 그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피를 토할 정도로 심한 외상을 입었지만 내력과 진기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멸절사태는 그가 스스로 운공료상(運功療傷)하는 것을 보자 과연 범상치 않은 소년이라 생각하며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처음 전개한 일장은 표설천운장의 한 초식이며, 두 번째로 전개한 것은 절수구식(截手九式) 중에 제 삼식으로써, 모두 아미파 장법의 정예였다.

첫 번째 출수에는 삼 성의 공력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공력을 칠 성으로 끌어올려 설령 장무기를 죽이지 못한다 해도 전신의 뼈마디가 으스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책상다리를 한 채 운공조식을 하고 있으니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정민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증가야! 나의 스승님의 세 번째 장력을 받을 자신이 없으면 일찌감치 멀리 꺼져 버려라! 네가 거기 쪼그리고 앉아 평생토록 운공조식을 한다면 우리도 평생토록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주지약이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나직이 말했다.

"조금 더 쉬도록 내버려 둬도 상관 없잖아요?"

정민군은 대뜸 눈을 부라렸다.

"뭐라고? 네가 우리의 적을 감싸다니 혹시 저 녀석에게....."

그녀는 원래 모독적인 말을 내뱉으려 했다. 그러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주위 사

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었다.

주지약은 부끄럽고 당황해져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한데, 그녀는 변명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소매는 단지 본문과 사존의 위명을 생각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한 말씀 드린것 뿐이예요."

정민군은 아연해졌다.

"쓸데없는 말이라니?"

주지약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분문의 무학은 이미 천하에 그 명성을 날리고 있어요. 게다가 스승님은 당세에서 으뜸을 다투는 선배고인이시니, 저런 젊은 후배에게 출수하는 것조차 위신에 손상될 거예요. 단지 그가 워낙 건방지고 겁없이 날뛰는 바람에 윗어른으로서 훈계를 하려는 것이지 정말 그의 목숨을 앗아가겠어요? 본문의 협의지도(俠義之道)는 이미 백 년을 이어왔으며, 스승님의 너그러움 또한 모르는 자가 없어요. 저 젊은이는 한낱 촛불에 불과하니 어찌 일월(日月)과 같으신 스승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가 설령 앞으로 백 년 동안 무공을 연마한다 해도 역시 우리 스승님의 적수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운공조식을 조금 더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것 같았다. 멸절사태는 더욱이 기뻐했다. 이 작은 제자가 각파의 고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본문을 널리 빛낸 것이라 생각했다.

체내에 진기가 유전(流轉)하자 장무기는 이내 정신이 맑아졌다. 그는 주지약의 말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귀담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녀가 자기를 위해 스승님으로 하여금 살수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미리 말로서 묶어놓은 것이다. 장무기는 내심 감격하며

곧 몸을 일으켰다.

"사태님, 소생은 끝내 군자를 흉내내야겠으니 마지막 남은 일장을 마저 전개해 주시오."

멸절사태는 그가 짧은 시간 동안 운공조식을 하여 멀쩡하게 회복되자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이 녀석의 내력은 정말 불가사의하군. 대관절 어디서 저런 내력을 쌓은 것일까?'

"넌 왜 나한테 공격을 하지 않느냐?"

장무기는 고개를 내둘렀다.

"소생의 이 쥐꼬리만한 무공으로는 사태의 옷자락조차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멸절사태는 냉소를 날렸다.

"네 주재를 안다면 일찌감치 떠나야 할 게 아니냐? 내 손아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만, 오늘 만큼은 너의 그 젊은 패기를 높이 평가해 파격적으로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

장무기는 예의를 잃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몸을 숙였다.

"호의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금기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까?"

멸절사태의 축 늘어진 눈썹이 더욱 아래로 처졌다. 그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나의 법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선배님의 법명은 '멸'자, '절'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됐다. 사악한 무리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멸절이란 법명을 벌써 바꾸었을 것이다."

장무기는 더 이상 말해 보았자 시간 낭비임을 알았다.

"정녕 그러하시다면 어서 세 번째 장풍을 발출하십시오."

멸절사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

로선 여지껏 이렇게 완고한 젊은이를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지만 문득 연민의 정을 느꼈다.

'내가 세 번째 장풍을 격출하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보아하니 사악한 무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이대로 죽는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세 번째 출수는 장무기의 단전 요혈(要穴)을 노릴 작정이었다. 내력을 적당하게 전개해 그의 단전을 격타하면 즉시 숨이 막혀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마교 예금기의 무리들을 전부 처치한 후에 다시 정신이 들게 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왼쪽 소매를 떨치며 막 출수를 하려는데 홀연 이상한 외침이 들려왔다.

"멸절사태, 잠깐만 손을 거두시오!"

이 음성은 흡사 뾰족한 바늘처럼 듣는이의 고막을 찔렀다. 꼬집어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모두들 꺼림직했다.

여럿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서북쪽으로부터 흰 장삼을 입은 남자가 손에 쥘부채를 흔들며 느긋하게 걸어나왔다. 걸음을 내딛음에 있어 먼지 한 점 일지 않고 마치 구름에 달가듯 하였다. 이 백의인의 옷깃 왼쪽에 날개를 활짝 편 작은 검은 독수리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만 보아도 천응교의 지위가 높은 인물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알고보니, 천응교도의 복장은 명교와 같이 흰 장삼이었다. 단지 명교도의 장삼에 붉은 불길이 수놓아져 있는데 반해 천응교는 한 마리의 검은 독수리가 수놓아져 있었다.

백의인은 멸절사태와 삼 장의 간격을 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운 채 공수의 예를 취했다.

"사태, 공연히 끼어들어 미안하오만 그 세 번째 장풍을 이 몸이 대신 받으면 어떻겠소?"

멸절사태는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대관절 누구요?"

백의인의 대답도 간단했다.

"성은 은(殷), 자는 야왕(野王)이라 하외다."

은야왕! 군호들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명성이 강호에 알려진 것은 이미 이십 년 전의 일이었다. 무림인들은 그의 무공이 부친인 백미응왕 은천정과 거의 비슷하다고들 말했다. 그는 천응교 천마당의 당주로서 바로 교주 다음가는 권좌였다.

멸절사태는 날카롭게 그를 훑어보았다. 나이는 줄잡아 사십, 눈에서 쏟아지는 정광만 보아도 내공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멸절사태는 그를 감히 얕잡아볼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터라 냉랭하게 물었다.

"이 녀석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대신 일장을 받겠다는 거요!"

장무기는 속으로 외쳤다.

'그는 나의 외삼촌이요! 외삼촌! 혹시 그가 날 알아본게 아닐까!'

은야왕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말했다.

"난 그와 생면부지요.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에 그 협의지심을 내세워 온갖 추잡한 짓을 자행하는 작자들과는 달리 진정한 장부의 기개를 지녔기에 도와주려는 것뿐이오. 그리고 사태의 공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소."

그의 마지막 한 마디는 실로 당돌하며 멸절사태를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았다.

멸절사태는 별로 화를 내지 않고 장무기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몇 년 더 살고 싶으면 어서 떠나거라!"

장무기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다.

"소생은 죽음 따위가 두려워 의리를 저버리진 않습니다!"
멸절사태는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나서 이번에는 은야왕에게 말했다.
"이 녀석은 아직 나에게 일장을 빚진 것이 있소. 우선 이 쪽 빚을 청산하고 나서 귀하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은야왕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멸절사태, 그렇게도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으면 이 소년을 죽여도 좋소. 그 대신 만약 이 소년이 죽으면 아미파의 사람도 모조리 이곳에 뼈를 묻히게 될 것이오!"
말을 끝낸 그는 즉시 표연히 뒤로 물러나 짤막하게 외쳤다.
"나와라!"
그의 외침을 신호로 하여 돌연 모래를 뚫고 무수한 사람머리가 솟아나왔다. 그들은 각자 방패 하나를 앞에다 세우고 시위에 화살을 걸어 군호들을 겨냥했다. 천응교의 제자들은 모래 속에 땅굴을 뚫어 벌써 군호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호들은 멸절사태와 장무기의 장풍 대결에 정신이 팔려 다른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송청서 등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도 단지 천응교도들의 기습에만 대비했을 뿐 그들이 부드러운 사토(沙土)를 이용해 삽시간에 땅굴을 뚫으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군호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화살 촉이 햇볕 아래 파르스름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미루어 맹독이 묻어 있는 게 분명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만약 은야왕이 공격 명령을 내린다면 각 문파의 무공이 고절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을 것이다.
멸절사태의 성격은 매우 고집스러운데다가 오기 또한 대단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장무기에게 독살스럽게 말했다.
"이놈! 저승에 가서라도 날 원망 말아라!"

갑자기 그녀의 몸에서 으드득 하는 소리가 연거푸 들리며 마치 전신의 뼈마디가 모조리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오른손을 장무기의 가슴을 향해 격출해냈다. 이 일장은 바로 아미파의 절학으로서 불광보조(佛光普照)였다.

어떠한 장법, 혹은 검법이라 할지라도 여러 개의 동작이 이어짐으로서 하나의 완벽한 형태가 이루어진다. 많은 것은 수백 초식에 이르며, 최소한 서너 초식은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매 초식마다 변화가 숨겨져 있어 그 세세함을 따진다면 최소한 십여 개의 동작을 주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불광보조의 장법은 오직 한 초식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한 초식은 별다른 변화도 없었다. 일 초식을 쭉 뻗어내 상대방의 가슴팍을 노리든, 등줄기를 노리든, 아니면 어깨 혹은 면상을 노리든 간에 초식 자체는 평범할 뿐 기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위력은 아미구양공에 바탕을 둔 것이니 만치 불가사의했다.

일단 일장을 전개하면 적은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재간도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그 위력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당금 아미파에서도 멸절사태를 제외하고 이 초식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멸절사태는 본디 장무기의 단전을 공격해 잠시 그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끔 만들려 했다. 그러나 은야왕이 나서서 노골적인 위협을 하는 바람에, 오기로 뭉쳐진 멸절사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성깔로선 당연한 일이었다. 만약 처음 생각대로 장무기에게 관대함을 베푼다면 은야왕의 위협에 굴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장을 장무기의 목숨을 거두기로 작정한 것이다.

한편, 장무기는 그녀의 전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자신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된 사실을 감지했다. 바로 이 순간 경문의 한 귀절을 다시 뇌리에 떠올렸다.

-----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한 모금의 진기로 대항할지어다. -----

그의 생각은 곧장 행동으로 옮겨갔다. 그는 피하거나 정면으로 맞설 생각을 않고 한 갈래의 진기를 흉복(胸腹)으로 끌어모았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펑!

하는 굉음이 터지며 멸절사태의 일장이 정확하게 장무기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놀란 외침을 토했다. 장무기는 영락없이 전신의 뼈마디가 산산조각으로 으스러지거나, 아니면 몸뚱아리가 사분오열될 것이라 생각했다. 한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빗나가고 말았다. 장무기는 비록 만면에 의아한 빛이 역력했지만 멀쩡하게 서 있었고, 오히려 멸절사태의 안색이 죽은 송장의 낮가죽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허공에 들어올린 그 오른손마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알고보면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멸절사태의 불광보조 초식이 아미구양공에 바탕을 둔 것에 반해, 장무기가 연마한 것은 그 뿌리가 되는 구양신공이 아닌가!

아미구양공은 왕년에 곽양이 각원대사가 읊조린 구양진경의 귀절을 주어 들어 나름대로 편성한 것이니 진정한 구양신공과 비교해 위력이 판이하게 달랐다. 물론 당사자의 내공에 따라 위력의 높낮음이 있겠지만 본질은 같았다. 아미구양공이 구양진공과 맞부딪치게 되자 흡사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듯 이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멸절사태가 앞서 전개한 표설천운장과 절수구식은 구양신공에

속한 무학이 아니므로 장무기로 하여금 부상을 입고 피를 토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무기는 물론 망연자실했고 멸절사태 역시 상대방의 내력이 워낙 심후하여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이라 단정할 수 밖에 없었다.

주위에 있는 수백 명은 나름대로 더욱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멸절사태가 젊은 인재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꼈으며 오파의 사람들이 천응교의 독화살에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아 취한 행동이라고 풀이했다. 물론 일부분의 사람은 멸절사태가 겁을 집어먹고 은야왕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장무기는 몸을 숙여 읍을 했다.

"사태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멸절사태는 어색한 입장을 감추려는 듯 연방 냉소를 날렸다. 그녀는 장무기에게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순순히 천응교에게 굴복하기에는 심사가 뒤틀렸다.

그녀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에 은야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역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가 현명한 자요. 멸절사태는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당세의 고인이구료."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활을 거두어라!"

천응교의 교도들은 즉각 몸을 굴리며 뒤로 물러났다. 거기에 따라 방패와 즐비한 활이 질서정연하게 이동되었다. 은야왕은 병법(兵法)에 대하여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멸절사태는 어느 때보다도 입장이 난처했다. 자기가 일부러 장무기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설령 침을 튀기며 변명한다 해도 군호들은 믿지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의 고지식한 성깔로 누구에게 변명 따위를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장무기를 한 차례 무섭게 쏘아 보고 나서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은야왕! 정녕 내 장력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당장 앞으로 나오시오!"

은야왕은 입가에 미소를 걸고 공수의 예를 취했다.

"오늘은 사태께서 나의 체면을 살려 주셨는데 어찌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겠소. 다음에 필시 기회가 있을 것이외다."

멸절사태는 손을 획 내두르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서쪽을 향해 떠나갔다. 곤륜, 화산, 공동 각 문파의 사람들과 은이정, 송청서도 곧 뒤를 따랐다.

주아는 아직 혈도가 풀리지 않아 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급히 장무기에게 외쳤다.

"어서 날 데리고 이곳을 떠나세요!"

그녀는 은야왕과의 대면을 피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무기는 은야왕과 그냥 헤어질 수가 없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는 곧 은야왕에게 다가갔다.

"선배님, 도움을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은야왕은 그의 손을 잡고 유심히 살피며 물었다.

"너의 성이 증이냐?"

장무기는 당장 그의 품안으로 뛰어들어 '삼촌!'하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다. 그러자니 눈시울만 붉어졌다. 외숙을 대하기를 어머니같이 하라는 말이 있다. 무기는 부모를 잃은 후 은야왕이야말로 십 년 만에 처음 대하는 혈육이었다.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은야왕도 그의 격앙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도와준데에 대한 고마워하는 감정이려니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장

무기로부터 땅에 누워 있는 주아에게로 옮겨지더니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리야. 그 동안 잘 있었느냐?"
번쩍 고개를 쳐드는 주아의 눈엔 원독(怨毒)이 가득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힘없이 떨구어 잠시 동안 입술을 움직이더니 나직하게 불렀다..
"아버지!"
그 한 마디를 듣는 순간 장무기는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의 뇌리엔 여러 가지 생각이 한데 어우러져 주마등처럼 돌아갔다. 그러자 먹장구름을 뚫고 햇볕이 쨍 하고 비치듯 일순간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보니 주아는 외삼촌의 딸이었군. 그렇다면 나의 사촌동생이 되는 셈이고..... 그녀는 작은 어머니를 죽였고 생모마저 죽게 만들었으며, 아버지가 자기만 보면 죽이려 한다는 것도..... 맞아! 그녀는 천주만독수를 전개해 은무록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들 형제는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니 주아 모녀에게 푸대접을 한 모양이군. 은무복과 은무수는 비록 그녀에 대한 미운 감정이 끓어올랐지만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셋째 아가씨였군' 하는 말을 남긴 채 은무록을 안고 떠나갔던 거야.....!'
그는 새삼 주아를 유심히 살피며 다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어쩐지 그의 거동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느꼈는데 역시 나하고는 한 핏줄이며, 나의 어머니가 바로 그의 친고모가 되는 셈이군.'
이때 은야왕의 냉소가 들려왔다.
"넌 아직도 날 애비라 생각하고 있느냐? 흠! 난 네가 금화파파를 따라간 후로부터 애비와 천응교를 완전히 잊은 줄로만 알았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네 어미와 어쩌면 그렇게도 닮았느냐? 그 무슨 천주만독수를 연마한다고? 흥! 거울이 있으면 너의 꼬락

서니 좀 비쳐보아라. 그 꼴이 뭐냐? 우리 은씨 집안엔 너 같은 못난이가 없다."

주아는 원래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었으나 갑자기 고개를 쳐들어 똑바로 부친을 응시하며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아버님이 지난 일을 언급하시지 않았다면 저도 들춰내지 않을 거예요. 이왕지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분명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버젓이 어머님을 아내로 맞았으면서도 다시 작은 어머니를 끌어들였죠?"

은야왕은 대뜸 눈을 부라리며 발끈했다.

"이런..... 이런..... 죽일 년이 있나? 사내 대장부 치고 삼처사첩(三妻四妾)을 거느리지 않는 놈이 어디 있느냐? 너는 천륜을 거역하는 불효를 저질렀으면서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어른들이 하는 일에 미주알고주알 하니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는 즉시 손을 휘둘러 은무록, 은무수에게 명했다.

"이 계집을 데려가라!"

장무기는 얼른 주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은..... 선배님, 은 낭자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은야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저 계집은 내 친딸이지만 서모를 살해하고 생모마저 죽게 만들었으니,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을 어찌 살려 둘 수가 있겠는가?"

장무기가 얼른 주아를 위해 변명을 해 주었다.

"그 당시 은낭자는 나이가 어려 철이 없는 탓으로, 모친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으니 선배님께선 부녀의 정분을 생각하셔 가벼운 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은야왕은 앙천광소를 터뜨렸다.

"하하핫..... 넌 대관절 뭐하는 녀석인데 모든 일에 참견을 하려는 거냐? 이것은 엄연히 우리 집안 일이야. 네가 정말 모든 일

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 무림지존이라도 된단 말이냐?"

장무기의 마음이 다시 격동되었다.

---- 저는 남이 아니예요! 저는 바로 당신의 생질입니다! ----

장무기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은야왕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이놈아, 넌 오늘 목숨을 그냥 주워온 거나 다름없다. 앞으로도 계속 강호의 일에 끼어들어 참견을 한다면 모가지가 열 개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다시 손을 떨쳐보이자 은무복과 은무수가 주아를 번쩍 들어올려 은야왕의 등 뒤로 데려갔다.

장무기는 다급해졌다. 주아가 이런 상태로 잡혀간다면 십중팔구 요행을 바라지 못할 것이다. 장무기는 자세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오직 주아를 빼앗아 와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은야왕은 대뜸 눈살을 찌푸리며 왼손을 쭉 뻗어내 그의 멱살을 잡고 살짝 밖으로 던져냈다. 거기에 따라 장무기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모래사장에 떨어졌다. 그는 구양신공으로 몸을 호위하고 있으므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눈, 코, 입, 귀에 모래가 들어가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앞으로 달려왔다.

은야왕은 코웃음을 쳤다.

"이놈아, 첫번이라 사정을 봐 줬지만 다시 시건방지게 남의 집안일을 참견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장무기는 애원을 했다.

"그녀는..... 선배님의 딸이 아닙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선배님은 안아도 주고 몹시 귀여워했을 겁니다. 제발 그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야왕은 그의 말에 마음이 동요됐는지 짤막하게 숨을 들이키며 다시 주아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푸르퉁퉁하게 부어

오른 얼굴을 보자 절로 혐오감이 생겨 차갑게 소리쳤다.

"저리 비켜라!"

장무기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제자 주아를 빼앗아 오려 했다. 이번에는 주아가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아우 오빠, 날 내버려 두세요. 오빠가 날 잘 대해 준 것은 잊지 않을 거예요. 어서 떠나세요. 오빠는 나의 아버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바로 이때였다. 황사 속에서 느닷없이 한 사람이 치솟아 올라 다짜고짜 은무복과 은무수의 목덜미를 잡아 냅다 박치기를 시켜 버렸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화였다. 은무복 형제같은 내노라 하는 고수들도 아예 손 한 번 못 써보고 서로 머리를 부딪쳐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았다. 불현듯 나타난 자는 잽싸게 주아를 안아 올리더니 질풍처럼 달아났다.

은야왕은 즉시 성난 음성으로 외쳤다.

"위복왕! 너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작정이냐?"

청익복왕 위일소는 광소를 날리며 주아를 안은 채 계속 앞으로 질주해 갔다. 그의 이름은 일소(一笑)지만 결코 그의 웃음은 일소(一笑)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광소는 계속 이어지며 메아리쳐 퍼졌다.

은야왕과 장무기는 일제히 신법을 전개해 뒤쫓아갔다.

그러자 위일소는 일부러 원을 그리며 돌지 않고 곧장 서쪽을 향해 날을 듯이 달려갔다. 그의 신속무비한 신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은야왕은 내력(內力)이 심후하여 경공 또한 뛰어났다. 그리고 장무기는 체내에 구양진기가 흐르고 있어 달릴수록 그 속도가 빨라졌다. 하지만 속도로 따진다면 역시 위일소가 한 수 위였다. 처음에 쌍방의 간격은 서너 장에 불과했지만 갈수록 멀어져 나중

에는 이십 장, 삼십 장으로 벌어지더니 끝내 그림자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은야왕은 화가 치밀어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장무기가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리며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도저히 위일소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무기의 경공을 시험해 볼 생각으로 내력을 끌어올렸다. 그러자 그의 몸은 시위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튕겨져 나갔다. 그런데도 장무기는 시종 그림자처럼 그의 보조를 나란히 했다. 달리는 도중에 홀연 장무기가 입을 열었다.

"은 선배님, 청익복왕의 경공술이 뛰어났다 해도 오래 버티는 뚝심은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쫓아간다면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은야왕은 흠칫 놀라 즉시 걸음을 멈추고 내심 중얼거렸다.

'나는 평생 동안 쌓아올린 내공을 끌어올려 경공을 전개했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숨을 다시 들이킬 수도 없었는데, 이 녀석은 날 따라오면서도 태연하게 말을 하니 이게 대관절 무슨 무공이란 말인가?'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장무기는 몇 장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서야 얼른 고개를 돌려 다시 은야왕 곁으로 되돌아왔다.

은야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좀전과는 달리 말을 약간 높여 물었다.

"증형제, 자네의 사부님은 어느 고인인가?"

장무기는 황급히 두 손을 내두르며 당치도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안 됩니다. 절대 저를 형제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어디까지나 후배입니다. 얼마 전에 멸절사태에게도 말했지만 저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멀리서 갑자기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들려왔다. 은야왕은 이내 안색이 변했다. 호각소리는 바로 천응교에 비상 사태가 생겼다는 신호였다.

'틀림없이 홍수, 열화기의 녀석들이 내가 예금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한바탕 벌인 모양이군. 이 녀석을 살려두면 나중에 우리에게 화근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이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 녀석이 혼자서 위일소를 쫓아가면 자연히 죽게 되겠지.....'

그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천응교가 강적을 만난 모양이니 난 속히 돌아가 봐야겠네. 자네 혼자서 위일소를 쫓아가게. 그 사람은 흉악하기 이를데 없으니 일단 따라잡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먼저 공격을 해야 하네."

장무기는 멋적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의 실력으로서 어떻게 그를 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적이라면 대관절 누구죠?"

은야왕은 계속 들려오는 호각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연 생각했던 대로 명교의 홍수, 열화, 후토 삼기가 모두 출동했군."

장무기는 진지하게 말했다.

"모두 명교의 일맥인데 왜 서로 아옹다옹하며 싸워야 하죠?"

은야왕은 즉시 차가운 표정으로 변해 쏘아붙였다.

"조그만한 녀석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또 그 못된 버릇이 발작해 남의 일에 참견하려 드는구나!"

그는 이내 몸을 돌려 오던 길로 달려갔다.

장무기는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주아가 대악마 위일소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큰일이구나. 만약 목의 피라도 빨려먹는다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텐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크게 당황해졌다. 그는 곧 한 모금의 진기를 끌어올려 있는 힘을 다해 달려나갔다. 위일소는 경공술이 빼어난 인물이지만 주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막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장무기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다졌다.

'네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난 쉬지 않을 것이며 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난 계속 뒤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사흘이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뜨거운 뙤약볕 아래 쉬지 않고 사막을 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입술이 바싹 바싹 마르고 비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한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리가 뻑적지근한 느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수년 동안 축적된 구양신공이 조금씩 발휘되어 힘을 쓸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샘을 찾아 뱃속에 물을 잔뜩 채우고 나서 계속 위일소의 발자국을 따라 질주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갔다. 중천에 떠 있는 초승달의 희뿌연 달빛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장무기는 왠지 으시시한 느낌이 들었다. 피를 빨려 앙상한 피골만 남은 주아의 시체가 곧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바로 이때 등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체할 수 없어 다시 앞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 즉시 등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장무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두 번째로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사람의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자세히 살펴본 결과 사막에 세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

는 위일소,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임에 분명한데 나머지 하나는 누가 남긴 발자국이란 말인가?! 장무기는 반사적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앞쪽을 살펴보니 위일소의 발자국뿐이었다.

그는 곧 상황이 확연해졌다. 누가 자기를 뒤쫓아오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런데 뒤돌아볼 때마다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장무기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안고 다시 걸음을 날렸다. 영락없이 등 뒤에서 그 기분 나쁜 발자국소리가 다시 따라다녔다.

장무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구냐?"

그가 다그치자 뒤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대관절 귀신이냐, 사람이냐?!"

역시 반응이 똑같았다.

"대관절 귀신이냐, 사람이냐?!"

장무기는 계속 앞으로 달리다가 느닷없이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한 줄기의 그림자가 연기처럼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비로소 상대방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빠른 신법을 전개해 이미 자기의 등 뒤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몸을 돌린다면 상대방도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신법을 전개할 게 뻔했다. 장무기는 구태여 조롱을 사서 당할 필요가 없었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그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지 않았다.

"내가 왜 널 따라가겠느냐?"

장무기는 어처구니 없게 웃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래서 묻는 게 아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너에게 묻는 게 아니냐?"

장무기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껏 쫓아오는 동안에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설불득(說不得) 이다."(* 說不得은 말로해서 안 된다는 말로서 즉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무기는 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어째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설불득이면 설불득인 줄 알고 말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는 줄 알지. 꼬치꼬치 따질 게 뭐가 있느냐? 너의 이름은 뭐냐?"

"나는..... 증아우라 하오."

상대방이 다시 물었다.

"오밤중에 무엇 하려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쏘다니느냐?"

장무기는 이 사람이 절세무공을 지닌 기인이라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청익복왕이 내 친구를 잡아갔기에 구하려 가는 길이오."

"그렇다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구해 내지 못할 거다."

"어째서....."

"청익복왕의 무공은 너보다 고강해 넌 그의 적수가 못 된다."

"적수가 못 돼도 싸울 생각이오!"

"좋아. 제법 패기만만하군. 내가 구하려는 친구가 혹시 낭자가 아니냐?"

"그렇소. 그걸 어떻게 알았소?"

"낭자가 아니라면 새파랗게 젊은 네가 목숨까지 걸고 구하려 하겠느냐? 아주 예쁘게 생긴 낭자인가 보지?"

"그 반대로 아주 못 생겼소."

"그 낭자는 무공을 배웠느냐?"

"그렇소. 바로 천응교 은야왕의 딸이며 영사도의 금화파파로부터 무공을 배웠소."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 뒤쫓는 걸 포기하는 게 낫겠군. 위일소가 그녀를 잡았으니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그렇소?"
상대방은 코웃음을 날렸다.
"너는 아우라는 이름처럼 정말 황소같이 미련하구나. 머리를 쓰지 않으면 녹슨다는 것을 명심해라. 은야왕과 은천정은 어떤 사이냐?"
장무기는 시종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부자지간이 아니오!"
"백미응왕 은천정과 청익복왕 위일소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무공이 높다고 생각하느냐?"
"모르겠소. 혹시 알고 있으면 가르침을 주시오."
"각자 장점을 지니고 있지.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세력이 큰지는 말할 수 있느냐?"
"백미응왕은 천응교의 교주이니 비교적 세력이 크겠죠."
"맞았다. 그러니 위일소는 은천정의 손녀를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녀를 미끼로 삼아 은천정을 굴복시키려 할 게 뻔하다."
장무기는 고개를 내둘렀다.
"아미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오. 은야왕 선배님께선 한사코 자기의 딸을 죽이려 하고 있소."
이번에는 상대방이 장무기의 말에 의문을 느꼈다.
"어째서 그러지?"
장무기는 주아가 아버지의 애첩을 죽이고 생모마저 지쳐 죽게끔 만든 경위를 대충 얘기해 주었다.
상대방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혀를 차며 칭찬을 했다.
"훌륭해, 정말 대단해. 잘만 키우면 큰일을 해낼 수 있겠어. 아주 좋은 재목이야."

"뭐가 좋은 재목이라는 거요?"

"어린 나이에 직접 서모를 죽이고 생모마저 죽게 만든데다가 영서도에서 금화파파의 고약한 성깔을 모조리 배웠을 테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질 정도로 호감이 가는구나. 그런 훌륭한 재목이라면 위일소가 제자로 삼으려 할 게 틀림없다."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소?"

"위일소는 나의 절친한 친구야. 난 그의 생각을 손금보듯이 잘 알고 있다."

장무기는 눈빛이 변했다.

"맙소사! 그렇다면 큰일났군!"

그는 냅다 위일소의 발자국을 따라 달려갔다. 상대방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장무기는 달리면서 물었다.

"왜 자꾸만 날 따라오는 거요?"

"그야 호기심 때문이지. 심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위일소를 쫓아갈 생각이냐?"

장무기는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주아는 그렇지 않아도 요사스러운 면이 있는데, 위일소를 스승으로 모셔 다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한다면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오!"

"너는 주아를 몹시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왜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나의 어머님을 좀 닮았다는 사실이오."

"음..... 이제보니 너의 어머니는 저팔계처럼 못 생겼구나!"

장무기는 얼른 변명을 했다.

"당치도 않은 말이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잘 생기셨소."

상대방은 혀를 끌끌 내찼다.

"아깝다, 아까와.....!"

"뭐가 아깝다는 거요?"

"너는 젊은 패기에다 뜨거운 가슴까지 갖고 있어 장래가 기대되는데, 아깝게도 머지 않아 체내의 피가 몽땅 빨린 송장으로 변할 테니 말이다."

장무기는 그의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맞는 말이다. 설령 위일소를 따라붙는다 해도 무슨 수로 주아를 구한단 말인가? 나까지 개죽음을 당할 게 뻔할 텐데.....'

그는 넌지시 물었다.

"당신이 날 도와줄 수 없겠소?"

"안 된다. 위일소는 나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은 고사하고 난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위일소가 당신의 친구라면 잔인한 짓을 못하게끔 왜 타이르지를 못하죠?"

상대방은 대답에 앞서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아무리 타일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위일소 자신도 흡혈귀 노릇을 하고 싶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자신인들 어찌 괴롭지 않겠느냐?"

장무기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뇨?

"위일소는 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입마되어 그 후로부터 매번 내력을 끌어올릴 때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동사할 것이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더니 불쑥 물었다.

"혹시 삼음맥락(三陰脈絡)에 손상을 입은 게 아니오?"

상대방은 의아해 했다.

"아니.....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단지 추측일 뿐 맞는지 모르겠소?"
"난 불두꺼비를 잡아 그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세 번이나 장백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세 번 다 헛수고였다. 첫 번째는 그래도 운이 좋아 불두꺼비를 발견했는데 놓치고 말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예 불두꺼비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이번 눈앞에 닥친 난관만 넘긴다면 다시 장백산으로 들어가 볼 생각이다."
"나도 함께 가고 싶은데 되겠소?"
"음..... 너의 내력은 충분하지만 경공술이 형편없으니..... 그때 가서 다시 논하기로 하자. 참 그런데 불두꺼비를 잡는일에 돕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두꺼비를 잡는다면 위일소의 병을 치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일소가 다시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아도 되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선배님, 그가 이렇게 오랫 동안 달렸으니 내력이 많이 소비되어 어쩌면 주아의 피를 빨아 먹을지도 모르겠군요?"
상대방은 약간 주춤하더니 입을 열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물론 상황이 다급하면 설령 자기의 친딸이라 해도 피를 빨아먹겠지만....."
장무기는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나갔다. 그 때 상대방이 별안간 놀란 음성으로 소리쳤다.
"아니?! 너의 뒤에 있는 게 뭐냐?"
장무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 했다. 그 순간 돌연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이 커다란 주머니에 씌워져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려졌다. 장무기는 당황하여 주머니를 찢으려 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 주머니는 비단도 아니고 가죽도 아닌 것이 매우 질겼다. 손에 닿는 촉감은 포대 같았으나 도무지 찢어지지가 않았다.

상대방은 들어올렸던 포대를 땅에다 팽개치며 껄껄 웃었다.
"네가 그 포대속을 뚫고 나온다면 네 재주를 진짜 인정해주마."
장무기는 내력을 끌어올려 두 손으로 힘껏 밀었으나 포대자체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도무지 힘을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발로 걷어찼으나 마대가 약간 바깥쪽으로 불룩해졌을 뿐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가 제아무리 밀고 당기고 뒹굴어도 헛수고였다.
상대방이 낄낄 웃으며 한 마디 던졌다.
"자, 그만 하면 굴복하겠느냐?"
장무기는 별 수 없었다.
"완전히 두 손 들었소!"
상대방은 포대속에 들어 있는 장무기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또 낄낄 웃었다.
"이놈아, 얌전히 내 건곤일기대(乾坤一氣袋) 속에 있어라. 널 데리고 좋은 데로 가겠다. 네가 쓸데없이 입을 열어 다른 사람한테 발각되는 날엔 내 능력으로 널 살리진 못할 것이다."
"대관절 날 어디로 데려갈 작정입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넌 내 건곤일기대 속에 들어 있으니 목숨을 나한테 내준 거나 다름이 없다. 얌전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 너한테 손해볼 게 없다."
장무기는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았다.
상대방은 제법 우쭐대며 말했다.
"네가 내 포대 속에 들어간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포대를 번쩍 어깨에 짊어지더니 신법을 전개해 달리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자신보다도 주아가 더 염려되었다.
"주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다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면 당장 포대에서 꺼내 팽개쳐 버리겠다!"

장무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포대 속에서 꺼내 팽개쳐 주기만 한다면 오죽 좋으련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생각일 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상대방의 달리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장무기의 느낌으로 몇 시진이 지난 것 같았다. 포대안은 찌는 듯이 무더웠다. 햇볕이 내리쬐는 대낮이려니 생각했다. 아마도 산 위로 오르는 듯 싶었다. 산에 오르는 데만 다시 두 시진 가량이 경과되었다. 한낮의 무더위와는 반대로 장무기는 차츰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높은 산 위에 오른 것이라 추측되었다.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허공으로 붕 날아올랐다. 장무기는 흠칫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의 몸이 곧 사뿐이 착지했다. 그는 상대방이 절벽 같은 곳을 뛰어오른 것이라 짐작했다. 피부로 느끼는 차가운 기운으로 미루어 주위엔 필시 빙설이 깔려 미끄러울 텐데, 만약 상대방이 자기를 짊어진 체 약간만 실수하여 발을 헛딛는다면 영락없이 분신쇄골될 게 아니겠는가? 생각만 해도 오싹했다. 상대방은 그의 노파심 따위는 아랑곳 않고 계속 몸을 날렸다. 장무기는 포대 안에서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단지 지세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지며 그런 상황이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다.

장무기는 그저 갑갑하기만 했다. 상대방은 대관절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 제 4 권 1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2 장 괴짜들의 모임

장무기의 몸이 다시 허공을 날아오르는 순간 홀연 멀리서 낭랑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설불득, 왜 이제서야 오는 거요?"

장무기를 포대에 짊어지고 있는 자가 대꾸했다.

"도중에서 사소한 일이 생겨 늦었소. 위일소는 벌써 와 있소?"

먼곳에 있는 자가 다시 말했다.

"아직 오지 않았소. 거참 이상하단 말야. 그가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설불득, 혹시 오는 도중에 그를 보지 못했소?"

그 자는 물으면서 차츰 가까이 다가왔다.

장무기는 내심 별일이 다 있다고 느껴졌다.

'이제 보니 이 사람의 이름이 정말 설불득(말못해)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름을 물었을 때 말 못해(설불득)라고 대답했군.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

그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게다가 그는 이곳에서 위일소와 만나기로 약속한 모양이야. 주아가 과연 무사할까? 그는 위일소와 친한 친구인 것 같은데 과연 날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설불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철관도형(鐵冠道兄), 우리 위형을 찾아봅시다. 아무래도 무슨 변고가 생긴 것 같소."

철관도인이란 자가 그의 말을 받았다.

"청익복왕은 누구보다도 꾀가 많고 무공도 탁월하니 별다른 사고가 없을 것이오."

"이제까지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소."

이때 아랫쪽으로부터 제 삼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설불득, 땡중과 철관도사인지 돌팔이도사인지 몰라도 거기서 한가롭게 잔소리만 늘어놓지 말고 어서 이리 내려와 좀 도와 줘야겠소! 큰일났소! 아주 큰일이 생겼소!"

설불득과 철관도인은 일제히 놀란 음성으로 외쳤다.

"주전(周顚) 형이오? 대관절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소?"

이어 설불득이 혼자 중얼거리듯이 다시 말했다.

"음성에 힘이 없는 것을 보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그는 철관도인의 대답도 듣지 않고 곧장 장무기를 짊어진 채 아랫쪽으로 뛰어내려갔다. 철관도인도 그의 뒤를 따랐다. 이어 철관도인의 놀란 음성이 터졌다.

"앗! 주전이 업고 있는 자가 누구요? 아니..... 저건 위일소가 아니오?!"

설불득도 소리쳤다.

"주전, 당황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와 주겠소!"

주전이란 자가 대뜸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당황하긴 내가 왜 당황해! 곧 숨을 거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위일소인데!"

설불득이 그의 말을 받았다.

"위형이 어떻게 된 거요? 어디에 부상을 입었소?"

이렇게 물으며 걸음을 빨리 했다.

장무기는 포대안에서 흡사 구름을 타고 날으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 나직이 한 마디 내 뱉었다.

"선배님, 일단 날 내려놓고 사람부터 구하는 게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설불득은 갑자기 포대를 허공에서 세 바퀴 돌렸다. 장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만약 설불득이 포대를 휘두르다가 손을 놓는 날

엔 그 결과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설불득도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이놈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나는 포대화상(布袋和尙) 설불득이고, 뒤에 있는 자는 철관도인 장중(張中), 그리고 아래 있는 자는 주전이다. 우리 세 사람에다가 냉면선생(冷面先生) 냉겸(冷謙)과 팽영옥 화상을 합하면 바로 명교의 오산인(五散人)이다. 넌 명교가 뭔지 아느냐?"
 "압니다. 이제보니 당신도 명교의 사람이었군요."
 "그렇다. 나하고 냉겸은 사람 죽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철관도인, 주전, 팽화상은 살인을 밥먹듯이한다. 그들이 만약 네가 포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 즉시 묵사발로 만들 것이다."
 "난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맹랑한 녀석 봤나?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느냐? 죽고 싶지 않거든 그 속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알겠느냐?"
 장무기는 한 마디 쏘아붙였다.
 "나더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불득은 멍해지는 모양이었다.
 "아니..... 이런 고약한 녀석, 네가 알았다면 됐다.... 앗! 위형은 어떻게 됐소?"
 마지막 한 마디는 주전에게 묻는 것 같았다. 과연 주전의 꺼칠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그는 끝장났소! 이젠 끝장이야!"
 설불득의 음성이 이어졌다.
 "음..... 위형의 심장이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군. 주전, 당신이 위형을 구해 줬소?"
 "두말하면 잔소리지. 아니, 그럼 그가 날 구해 준 거라 생각했

소?"

이번엔 철관도인이 입을 열었다.

"주전, 그가 대관절 어딜 다친거요?"

주전의 대답은 간단했다.

"난 그가 송장처럼 빳빳하게 노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소. 그래서 모처럼 자비심을 베풀어 살려 주려고 몸을 만져 봤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왔소. 그의 체내에 진기를 주입시켜도 소용이 없었소. 바로 그렇게 된 거요."

설불득이 말했다.

"주전, 자네의 말대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좋은 일을 했군."

"빌어먹을,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그를 살리려다가 한독(寒毒)이 내 체내로 주입되어 오히려 나까지 목숨을 잃게 될 것 같소."

철관도인이 흠칫 놀라며 말했다.

"체내에 스며든 한독이 그렇게도 심하단 말이오?"

주전은 코웃음을 쳤다.

"흥! 이 모든 게 인과응보가 아니겠소. 나하고 흡혈복쥐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나쁜 일만 행하다가 모처럼 마음을 곧게 먹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꼴을 당했으니....."

설불득이 그에게 물었다.

"위형도 무슨 좋은 일을 했단 말이오?"

"그렇소. 그는 체내의 한독이 발작돼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했소. 당시 곁에 분명 계집애가 하나 있었는데도 피를 빨아먹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로 한 것이오."

장무기는 위일소가 주아의 피를 빨아 먹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심 뛸 듯이 기뻐했다. 설불득은 포대를 툭 치고 나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그 계집애는 도대체 누구요?"

주전이 대답했다.

"흡혈복쥐의 말에 의하면 백미 늙은이의 손녀라고 합디다. 그는 지금 우리 명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 그녀의 피를 빨아먹을 수 없다고 했소."

설불득과 철관도인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건 정말 옳은 예기요. 백응(白鷹)과 청복(靑蝠) 즉, 백독수리와 청박쥐가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고 손을 잡는다면 우리 명교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오!"

설불득은 위일소의 몸을 받았다.

"몸이 이렇게 차가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주전이 뜻밖의 제의를 했다.

"지금으로선 생사람의 피를 빨아먹게 하는 수밖에 없소. 한데 이 주위엔 잡아먹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설불득, 당신 포대 속에 있는 녀석을 위형에게 주는 게 어떻겠소?"

장무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보니 내가 포대속에 있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군.'

설불득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이 녀석은 본교에 대해 큰 은혜를 베푼 바가 있소. 위형이 만약 그를 잡아먹는다면 오행기가 모두 목숨을 걸고 위형과 생사결단을 낼 것이오!"

철관도인이 그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오행기를 굴복시키기 위해 그 녀석을 포대속에 넣어왔단 말이오?"

설불득은 자못 진지하게 말했다.

"본교는 현재 사분오열되어 있소. 이런 어려운 판국에 천응교는 멀리서 도우러 왔다가 엉뚱하게도 오행기와 지난 일을 갖고 다시 맞붙게 되었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린 자멸하고 말 것이오. 포대 속에 있는 자는 본교의 형제들이 다시 협심합력하는데 큰

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소."

여기까지 말한 그는 위일소의 등 뒤 영대혈(靈坮穴)에 손바닥을 붙여 내력을 주입시켰다. 그것을 본 주전이 한숨을 내 쉬었다.

"설불득, 당신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하구료."

철관도인도 앞으로 나섰다.

"나도 그를 돕겠소."

그는 설불득의 왼손을 잡았다. 설불득을 통해 자신의 내력을 역시 위일소의 체내에 주입시켜 주었다.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경과되었을까? 위일소는 나직이 신음을 토하며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몸뚱아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왔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주전, 철관도형, 도와줘서 고맙소."

그는 설불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생사지교를 맺은 사이이므로 구태여 일부러 고맙다는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철관도인은 공력이 심후하지만 위일소의 체내에서 배출된 한독을 저항하느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설불득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동쪽 산봉우리 쪽에서 홀연 금성(琴聲)이 쨍쨍 울리며 간간이 맑은 기합소리가 들려왔다. 주전은 이내 그 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았다.

"냉면선생과 팽화상이 온 모양이오."

그는 곧 음성을 높여 외쳤다.

"냉면선생, 팽화상,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 빨리 오시오!"

금성이 다시 쨍쨍 울렸다. 알았다는 표시인 것 같았다.

팽화상이 묻는소리가 들려왔다.

"누..... 가..... 부..... 상을..... 입..... 었..... 소?"

그의 외침소리가 멀리서부터 차츰 가까이 들려오며 산울림이 되

어 퍼져 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가까이 달려왔다.

"아니..... 위일소가 부상을 당했단 말이오?"

주전이 대답했다.

"그렇게 허둥대지 말고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오. 냉면형, 아무래도 당신이 수를 강구해 줘야겠소."

냉겸은 고개를 한 번 끄덕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물론 자세한 경위도 묻지 않았다. 팽화상이 틀림없이 세세하게 물을 것이므로 자기는 구태여 기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과연 팽화상이 연방 질문을 내뱉고 주전은 뒤죽박죽 대꾸해 주었다. 그간의 경위를 다 얘기해 주었을 무렵 철관도인과 설불득도 운기조식을 마쳤다. 이번에는 팽화상과 냉겸이 내력으로 위일소의 한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위일소와 주전의 원기가 약간 회복되자 팽화상이 말했다.

"나는 동북쪽에서 달려오는 도중, 소림의 장문인 공문이 사제와 공지, 공성 그리고 백여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광명정(光明頂)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소."

냉겸이 즉시 그의 말을 이었다.

"동쪽, 무당오협!"

그의 말은 매우 간략했다.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쓸데없는 말은 한 마디도 더하지 않는 성미였다. 그가 방금 내뱉은 여섯 글자는 '동쪽에선 무당오협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무당오협이 바로 송원교, 유연주, 장송계, 은이정, 막성곡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여 입을 더 놀리지 않은 것이다.

팽화상이 다시 말했다.

"육파가 합세하여 진격해 오며 차츰 포위망을 좁히고 있소. 오행기가 몇 차례 접전을 했지만 상황이 매우 불리하오.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광명정으로 가야 할 것 같소."

주전이 버럭 화를 냈다.

"빌어먹을, 개 같은 소리 작작하시라고! 양소 그 녀석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오산인이 자발적으로 그를 도우러 가란 말이오?!"

팽화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전, 만약 육파가 광명정을 공파하여 성화(聖火)를 꺼뜨린다면 앞으로 우린 무슨 낯을 들고 살아가겠소? 양소가 우리 오산인의 비위를 건드린 건 사실이오. 하지만 우리가 광명정을 지키자는 것은 양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교를 위한 일이 아니겠소?"

설불득도 한 마디 거들었다.

"팽화상의 말이 맞소. 양소는 비록 무례하고 건방지지만 그와의 사적인 원한보다도 명교를 수호하는 일을 앞세워야 할 것이오."

주전이 욕설을 터뜨렸다.

"개소리야, 개소리! 두 땡중이 한꺼번에 개소리를 하니 개소리가 요란하군. 철관도인, 양소 그 녀석이 왕년에 어깨뼈를 으스러뜨린 일을 벌써 잊었소?"

철관도인은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다.

"교를 수호하여 외적을 퇴치하는 일이 더 시급하오. 양소와의 빚은 외적을 물리친 후에 따져도 늦지 않소. 그 때 가서 우리 오산인이 힘을 합친다면 양소도 굴복할 것이오."

주전은 흥! 하고 냉소를 날리며 이번엔 냉겸의 의사를 물었다.

"냉겸,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냉겸은 지체없이 한 마디 내뱉었다.

"같이 갑시다!"

주전은 대뜸 눈꼬리를 치켜올렸다.

"당신도 양소에게 굴복하겠다는 거요? 당시 우리 오산인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교의 일을 관여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게 모두 개소리였단 말이오?"

냉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개소리요!"

주전은 발끈하여 벌떡 일어났다.

"모두 개소리를 한 모양인데 난 짖은 일이 없소이다!"

철관도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오. 어서 광명정으로 갑시다!"

팽화상도 주전을 달랬다.

"주전, 왕년에 교주의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것은 물론 양소의 흉금이 좁았던 탓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외다."

주전이 다시 눈을 부라렸다.

"닥치시오! 우리 오산인 중에 어느 누구도 교주의 자리를 탐낸 자가 없거늘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요?"

설불득이 나섰다.

"본교에서 일어난 과거지사에 대해 옳고 그릇됨을 따진다면 아마 석달 열흘 동안 논쟁을 벌여도 결과가 나지 않을 것이오. 주전, 내가 한 마디만 묻겠소! 당신은 명존화성(明尊火聖)의 제자가 아니오?"

"누가 아니라고 했소? 왜 갑자기 그걸 묻는거요?"

"오늘 본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소. 그런데 우리가 수수방관만 한다면 죽은 후에 무슨 면목으로 명존과 양교주(陽敎主)를 대할 수 있겠소? 당신이 만약 육파를 겁낸다면 가지 않아도 좋소. 우리가 광명정에서 죽거든 나중에 유해라도 묻어 주시구료."

주전은 펄쩍 뛰며 냅다 설불득의 뺨을 후려쳤다.

"개소리!"

철썩 하는 소리가 들리며 설불득은 그에게 뺨을 맞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벌려 부러진 이빨 몇 개를 뱉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빰은 이내 불그죽죽하게 부어올랐다.
 팽화상 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놀란 것은 주전 자신이었다. 설불득의 무공은 주전과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빰은 맞은 것이다. 주전은 오히려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설불득! 어서 내 빰을 때리시오! 만약 때리지 않으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오!"
 설불득은 담담하게 웃었다.
 "힘을 아껴 두었다가 적을 때려야지 왜 한집안 식구를 때리겠소?"
 주전은 대노하여 손을 들어올리더니 다짜고짜 자신의 빰을 때렸다. 찰싹! 그도 곧 퉤! 하고 부러진 이빨 몇 개를 내 뱉었다.
 팽화상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주전, 이게 무슨 짓이오?"
 "무슨 짓이냐고? 흥! 애당초 내가 설불득을 때린 게 잘못이었소. 그래서 내 빰을 때리라고 했는데, 출수를 하지 않으니 내 스스로 자신의 빰을 때려 속죄하는 도리밖에 더 있겠소!"
 설불득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주전, 당신과 나는 형제나 다를 바가 없소. 이제 우리 네 사람은 광명정으로 달려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까짓 빰을 한 대 얻어맞은 게 뭐가 대수롭소?"
 주전은 격한 감정이 북받쳐 그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함께 가겠소! 양소와의 옛 일은 당분간 따지지 않겠소!"
 팽화상은 매우 기뻐했다.
 "정말 생각 잘 했소. 역시 우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형제임에 틀림없구료!"
 장무기는 포대 안에서 이들의 대화를 한 자도 빠짐없이 똑똑히

들었다. 그는 이 다섯 사람이 무공도 고강하지만 그보다 의리가 돈독한데 경의를 금치 못했다. 명교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사악한 무리라는 강호의 일반 인식과는 다른 것 같았다. 아울러 명교에 이러한 고수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무기가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포대가 위로 올려졌다. 아마 설불득 일행이 광명정으로 향하는 모양이었다. 이제 주아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한 가지 걱정을 덜어낸 셈이다. 광명정에 당도하면 어릴 적에 헤어졌던 양불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녀가 자기를 알아볼는지? 또한 육대문파가 광명정을 공격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무기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설불득 일행은 이날 밤새도록 길을 재촉했다. 장무기는 포대 속에서 갑갑해 죽을 지경이었다. 설불득은 가끔 포대의 끈을 풀어 그로 하여금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게 해 주었다. 다음날도 계속 길을 재촉했다. 오후쯤 되었을까, 장무기는 갑자기 포대가 땅에 질질 끌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우연히 고개를 쳐들다가 머리가 암석에 부딪치자 비로소 낮은 동굴, 혹은 산중턱을 꿰뚫은 통로 안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통로 안은 한기가 대단하여 몸이 움츠러질 지경이었다. 약 반 시간이 지나서야 통로를 빠져나와 다시 높은 지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낮은 통로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모두 다섯 군데 통로를 지났다.그제서야 주전의 냉랭한 외침이 들려왔다.

"양소! 흡혈복쥐와 오산인이 당신을 찾아왔소!"

잠시 후, 앞쪽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

"청익복왕과 오산인이 행차를 하셨는데, 이 양소가 미처 마중나가지 못해 죄송하오."

주전이 다시 말했다.

"그 따위 마음에도 없는 말은 듣고 싶지 않소! 속으로는, 이 녀석들이 다시는 광명정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제 발로 달려왔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겠지?"

양소는 껄껄 웃었다.

"육파가 사면팔방에서 협공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청익복왕과 오산인이 대의(大義)를 위해 나와의 사사로운 감정을 접어두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따름이오."

주전이 냉소를 날렸다.

"그게 진심이라면 다행이군!"

양소는 곧 그들을 안내했고 나이 어린 동자를 시켜 향차와 술을 대접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동자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비명소리에 포대 속에 있는 장무기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다. 잠시 후 위일소가 웃으며 말하는 게 들려왔다.

"양좌사(陽左使), 당신이 부리고 있는, 어린 동자를 상하게 한 데 대하여 나중에 필히 보답을 해 드리겠소."

그의 음성은 정기가 넘쳐 흘렀다. 장무기는 이내 깨달은 바가 있어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그는 동자의 뜨거운 피를 빨아 먹어 체내의 한독을 억제시킨 거로구나.....'

양소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보답은 무슨 보답이오? 청익복왕이 와 주신것만 해도 나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오."

이 일곱 사람은 모두 명교의 절정 고수들이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새로운 힘이 샘솟는 것 같았다. 술을 곁들여 식사를

마치자 이들은 적에 대항할 대책을 의논했다. 설불득은 포대를 한쪽에다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었다. 장무기는 목이 마르고 허기를 느꼈으나 설불득의 충고를 되새기며 감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일곱 명은 잠시 상의를 하고 나서 팽화상이 말했다.

"광명우사(光明右使)와 자삼용왕은 행방불명이고, 금모사왕 또한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 그들을 제쳐놓고서라도, 현재로서 가장 불행한 일은 오행기와 천응교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오. 며칠 전 정면 대결을 벌여 쌍방이 모두 큰 피해를 입었소. 만약 그들도 광명정으로 달려와 손을 잡고 적과 대항한다면 육파가 아니라 십 이 파라 할지라도 우리 명교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텐데....."

설불득이 한쪽에 놓여 있는 포대를 발로 살짝 걷어차며 말했다.

"이 포대 속에 있는 녀석은 천응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한편, 최근에 오행기에게도 은혜를 베푼 바가 있소. 나중에 어쩌면 이 녀석을 통하여 쌍방의 질분을 해결하게 될지도 모르오."

위일소가 냉랭하게 입을 열었다.

"새로운 교주가 정해지기 전에는 본교의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이 녀석이 제아무리 하늘을 날으는 재주가 있다 한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이오. 양좌사, 내가 한 마디 묻겠는데 허심탄회하게 대답해 주시오. 일단 강적을 퇴치한 후에 누구를 교주로 내세우겠소?"

양소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당연히 성화령(聖火令)을 갖고 있는 자를 교주로 추대할 것이오. 그것이 바로 본교의 교칙이기 때문이오. 한데 왜 갑자기 그것을 묻소?"

위일소가 즉시 그의 말을 받았다.

"성화령을 잃은 지 벌써 백 년이 가깝소. 그렇다면 성화령을 되

찾기 전에 명교는 교주를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니오? 육파가 감히 광명정으로 침공해 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본교에 통솔자가 없고 내부가 사분오열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소?"

설불득이 나섰다.

"위형의 말이 맞소. 나는 어느 계파에도 소속돼 있지 않소. 누가 교주가 되어도 좋으니 하루속히 교주를 정해야 하오. 설령 교주가 아니더라도 좋소. 부교주 라도 있어 형제들을 호령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오."

철관도인이 모처럼 입을 열었다.

"나도 설불득의 말에 동감이오."

양소는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들은 날 도와 외적을 퇴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오, 아니면 날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오?"

주전이 대소를 터뜨렸다.

"하핫.....! 양소, 당신이 교주를 새로 추대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뭔지 난 잘 알고 있소. 명교에 교주가 없는 한 광명좌사의 직책이 가장 높기 때문이 아니오? 흥! 그러나 직위가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아무도 당신의 호령에 따르지 않으니 혼자의 힘으로 오행기를 움직일 수 있나, 아니면 사대호교법왕(四大護敎法王)을 지휘할 수가 있나? 우리 오산인만 하더라도 광명좌사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소!"

양소는 대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오늘 막강한 외적을 맞이해 나 양소는 여러분들과 이런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소. 그러니 명교의 존망에 대해 수수방관하겠다면 당장 하산을 하도록 하시오. 요행히 나 양소가 죽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을 일일이 방문하겠소이다!"

팽화상이 얼른 나서서 만류했다.

"양좌사,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시다. 육파가 명교를 협

공하는 이 마당에 본교의 제자라면 누구나 교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소. 이건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외다."

양소는 냉소를 날렸다.

"본교 중엔 눈에 가시를 없애기 위해 이 양소가 육파의 손에 죽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을 것이오!"

주전이 즉시 따지고 들었다.

"방금 그 말은 누굴 겨냥해서 한 것이오?"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게 아니오?"

"그럼 날 지칭해서 한 말이란 말이오?"

양소는 다른 곳에 시선을 준 채 그를 외면했다.

팽화상은 주전의 눈에서 이상한 광채가 발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어쩌면 양소에게 출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나섰다.

"옛말에 이웃과의 싸움 때문에 집안 싸움 사라진다는 말이 있지 않소? 자, 우선 외적에 대항할 대책을 상의합시다."

양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팽대사는 생각이 깊구료."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얼씨구! 그렇다면 팽땡중은 생각이 깊고 이 주전은 옹졸하다는 뜻이외까?!"

그는 황소고집이 발작돼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쳤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주를 정해야겠소! 난 위일소를 교주로 추천하겠소. 흡혈복쥐는 무공도 높고 지모(智謀)도 뛰어났으니 본교에서 그를 따를 인물이 없을 것이오!"

사실 주전은 평상시 위일소와 별로 교분이 두텁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이 더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일부러 양소의 심사를 긁어놓기 위해 위일소를 교주로 앞세운 것이다.

양소는 즉시 광소를 날렸다.

"하핫..... 내가 보기엔 주전을 교주로 내세우는 게 더 좋겠소! 명교는 현재 사분오열되어 있으니 내친 김에 우리의 추대 교주를 내세워 아예 풍지박산을 면하면 만사가 깨끗이 해결될 게 아니겠소!"

주전의 눈에서 짙은 살기가 튀어나왔다.

"개 주둥아리에서 상아가 나올 리 없다더니 이런 죽일 놈의........"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냅다 양소의 면상을 향해 쌍장을 뻗어냈다. 양소는 설불득처럼 순순히 당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도 지체없이 우장(右掌)을 밀어내 주전이 뻗쳐낸 손을 맞이해 갔다.

위일소는 양소의 무공을 잘 알고 있었다. 주전은 비록 체내의 한독이 제거됐다고 하나 원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양소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위일소는 다급한 나머지 잽싸게 일장을 뻗어 주전 대신 양소의 장풍을 맞받았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허공에서 맞닥뜨려졌다. 뜻밖에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알고 보니, 양소는 비록 주전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으나 같은 명교의 형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차마 살수를 전개할 수 없어 이번에 전개한 일장에 전력을 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위일소로 바뀔 줄이야! 위일소의 한빙면장(寒氷綿掌)과 맞닥드리는 순간, 양소는 오른팔에 심한 충격을 느끼며 한 갈래의 음한지기(陰寒之氣)가 팔을 통해 체내로 뻗쳐 들어왔다.

이렇게 되자 양소의 생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주전등이 광명정에 나타난 것은 외적을 대항하는데 협력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구실삼아 자기를 제거하려는 걸로 오해하게 되었다. 하여 즉각 내력을 끌어올려 정면으로 맞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주전이 상식 밖의 행동을 취했다.

"양가야! 내 장풍의 맛을 보아라!"

그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가 내 뻗은 두 번째 장풍이 곧장 양소의 가슴을 향해 휘몰아쳐 갔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양소의 오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설불득이 황급히 소리쳤다.

"주전, 이게 무슨 짓이오!"

팽화상도 외쳤다.

"양좌사, 위복왕! 어서 손을 거두시오!"

그는 자세히 생각을 굴릴 겨를도 없이 왼손을 쭉 밀어내 주전의 우장에 붙였다.

설불득이 다시 소리쳤다.

"주전, 둘이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법이 어디있소!"

그는 손을 뻗어서 주전의 어깨를 나꿔잡았다. 그를 뒤로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한데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주전의 몸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내상을 입은 게 분명했다. 설불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광명좌사의 공력이 대단하여 본교의 절정 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단 이장에 주전에게 내상을 입힌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주전의 우장과 양소의 좌장이 계속 맞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소리쳤다.

"주전, 형제끼리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싸울 필요가 있겠소?"

그는 상대방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이번에는 양소에게 말했다.

"양좌사, 속히 손을 거두시오!"

이 순간, 주전의 몸이 비틀거리며 한 갈래의 뼈를 에일 듯한 한기가 손바닥을 통해 곧장 가슴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흠칫했다.

'이것은 위일소의 독특한 한빙면장인데, 어찌 양소가 주전에게 전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서둘러 공력을 끌어올려 한기에 저항했다. 그러나 한기가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져 이내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철관도인과 팽화상도 일제히 출수하여, 한 사람은 주전을 돕고 한 사람은 설불득을 호위했다. 네 사람이 힘을 합치니 그런대로 한기를 견뎌낼 것 같았다. 그러나 양소의 장심(掌心)을 통해 뻗쳐오는 힘줄기가 엄청나게 강해졌다가 다시 느슨해지며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네 사람은 감히 손을 거둘 수가 없었다. 장을 거두는 순간 양소의 손에서 뻗쳐오는 엄청난 힘줄기에 설령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중상을 입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팽화상이 안타깝게 소리쳤다.

"양좌사! 강적을 눈앞에 두고 우리끼리 이게 무슨....."

그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입을 열어 말을 내뱉는 새에 무지막지한 한기가 체내로 스며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태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냉면선생 냉겸은 줄곧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한쪽에서 냉철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가 보기에 위일소와 사산인의 표정이 모두 긴장으로 굳어 있는 반면, 양소는 태연자약했다. 이 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양소의 무공이 비록 높다 해도 위일소와 백중지세일 것이다. 한데, 설불득 등 넷까지 합세했으니 양소가 당해 내지 못해야 당연하데 어째서 도리어 여유작작한 것일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군.....'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다.

이때 주전이 소리쳤다.

"냉면귀(冷面龜)! 어서..... 녀석의 등을..... 공격....."

냉겸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선불리 출수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설령 자기가 합세한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은으로 정

교하게 만들어진 다섯 자루의 작은 붓을 꺼내 손에 꼬나쥐었다.

"이 오필(五筆)로 곡지, 거골, 양곡, 오리, 중도 다섯 군데 혈도를 노리겠소!"

그가 사전에 명시한 다섯 군데 혈도는 모두 손과 발 부위에 있어 치명적인 요혈이 아니었다. 게다가 사전에 그것을 밝힘으로써 양소로 하여금 손을 거두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미리 통지한 것이다.

양소는 빙긋이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냉겸이 다시 외쳤다.

"그럼 실례해야겠소!"

말을 내뱉자마자 손을 살짝 떨치니 다섯 줄기의 은빛 광채가 양소를 향해 날아갔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양소는 뻗어냈던 왼팔을 갑자기 가슴 안쪽으로 모으며 주전 등 네 사람을 끌어당겨 방패로 삼았다. 순간, 주전과 팽화상의 나직한 신음이 터졌다. 다섯 개의 소필 암기가 그들 두 사람의 몸에 꽂힌 것이다. 주전이 두 개, 팽화상이 세 개를 맞았다. 다행하게도 냉겸은 양소를 상하게 하기 위해 암기를 발출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당한 부위가 또한 혈도가 아니므로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지장이 없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못 되었다.

진짜 놀란 일은 팽화상의 외침에서 비롯되었다.

"앗! 건곤이위신공이다!"

그의 외침에 냉겸 등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건곤이위신공!

그것은 명교 역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무공 중에 가장 무서운 무공이었다. 그 근본적인 이치는, 자신의 잠재력을 우선 격발시켜 상대방의 힘을 흡수해 다시 제 삼의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별로 오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신기한 변화는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전임 교주였던 양정천(陽頂天)이 세상을 떠난 후로부터 명교에서 이 신공을 구사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팽화상 등 여섯 명은 양소에 의해 이 신공이 재현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확연히 알았다. 양소가 위일소의 장력을 흡수해 사산인의 공력을 이용해 위일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양소가 시종일관 태연자약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냉겸은 스스로 턱을 끄덕이며 말했다.

"축하! 무악의!"

그의 말은 간단했다. '축하'라는 말은 양소가 명교에서 실전된지 오래 된 건곤이위신공을 터득했다는 것을 축하한다는 뜻이며, '무악의'는 피차 악의가 없으니 어서 손을 거두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양소는 그가 평소에 말수가 적은 반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악의'라는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곧 껄껄 웃으며 말했다.

"위형, 사산인, 내가 하나, 둘, 셋을 셀 테니 동시에 장력을 거둡시다!"

위일소와 사산인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천천히 외쳤다.

"하나, 둘, 셋!"

셋을 내뱉는 것과 동시에 양소는 건곤이위신공을 거두었는데, 그 찰나 한 갈래의 비수처럼 예리한 지풍이 등심 신도혈을 파고들었다.

양소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런 악랄한 위복왕! 비겁하게 기습을....."

그는 반사적으로 장풍을 떨쳐내려 했는데 위일소도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다. 누구에게 암수를 당한 게 분명했다.

양소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숱한 싸움을 치루어 왔으므로 창졸간에 생긴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앞으로 미끄러지며 일단 등 뒤에서 다시 뻗쳐올 암습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돌렸다. 순간, 주전, 팽화상, 철관도인, 설불득도 모두 땅에 쓰러져 있고 냉겸이 회색 장포를 입은 자에게 장풍을 떨쳐내는 게 시야에 잡혔다.

회의인과 냉겸의 장풍이 맞닥뜨러지자 냉겸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양소는 냉겸을 돕기 위해 또 한 모금의 진기를 끌어올리며 앞으로 몸을 솟구치려 했는데, 돌연 한 줄기의 빙백 같은 차가운 기운이 신도혈로부터 급상승하여 삽시간에 신주, 도도, 풍부 등 전신의 독맥(督脈) 각 혈도로 퍼지는 것을 의식했다.

양소는 내심 아뿔사를 토했다. 상대방의 무공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고강하며, 수단 또한 악랄하기 이를데가 없었다. 적은 자기와 위일소, 사산인이 일제히 공력을 거두는 그 간발의 기회를 노려 전광석화처럼 기습을 전개한 것이다. 양소는 얼른 진기를 끌어모아 체내에서 유동되는 한기에 대항해야 했다.

그런데 이 한기는 위일소가 전개한 한빙면장의 장력과 판이하게 틀렸다. 한 갈래의 실처럼 가느다란 빙선(氷線)이 독맥을 따라 급속도로 유동되며 혈도를 지날 때마다 마비 현상이 왔다. 만약 정면으로 적을 맞이했다면 호신진기(護身眞氣)가 있어 절대 어떠한 지풍도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암습을 당했으니 억지로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우장을 떨쳐내려 했으나 돌연 온몸에 극렬한 진동이 일며 끌어올렸던 장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 무렵 냉겸은 이미 상대방과 이십여 초식을 겨루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같이 위태로왔다. 양소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냉겸이 오른쪽 발을 걷어차 내는 순간 상대방은 잽싸게 옆으로 미끄러지며 그의

팔에 지풍을 적중시켰다. 냉겸은 비틀거리더니 곧 뒤로 쓰러졌다.양소는 놀라움과 분노가 겹쳐 체내에 남은 마지막 진력을 모조리 끌어올려 상대방의 가슴팍을 강타해 갔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회의인이 튕겨낸 지풍에 팔꿈치 부위 소해혈이 적중돼 이내 전신이 나무토막처럼 굳어져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회의인이 냉랭하게 말했다.

"광명좌사는 과연 명불허전이군. 나의 현음지(玄蔭指)를 두 번씩이나 당하고도 스러지지 않으니 정말 대단하오."

양소가 이를 갈아부쳤다.

"너의 탄지공(彈指功)은 소림의 수법임에 분명하지만, 이 현음지는..... 흠! 소림파엔 이런 음독한 무공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너의 정체가 대관절 무엇이냐?"

회의인은 껄껄 웃어제쳤다.

"빈승은 원진(圓眞)이라 하외다. 빈승의 스승은 법명이 공견(空見)이시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소. 이번에 육대문파가 손을 잡고 소탕군마에 나섰으니 여러분들이 소림제자 손에 죽음을 당하는 건 당연지사가 아니외까?"

양소의 눈가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육대문파라면 정정당당하게 한 판 승부를 걸어야 할 게 아니냐? 공견신승은 협의지심으로 천하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너같이 비겁한 제자가 있을 줄이야....."

여기까지 말한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 앉았다.

원진은 다시 광소를 터뜨렸다.

"하핫..... 기습을 노리는 것도 병법 중에 하나이거늘. 나 혼자의 힘으로 명교의 칠대고수(七大高手)를 쓰러뜨렸는데 뭐가 억울하단 말이오?'

양소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어떻게 이곳 광명정까지 잠입해 들어왔느냐? 이 비밀 통로를 어떻게 알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준다면 나 양소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양소로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광명정까지 올라오는 비도(秘道)에는 수십 군데 관문이 있어 관문마다 명교 제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사히 이곳까지 올라와 기습을 전개한 것일까?

원진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당신네 마교에선 광명정을 난공불락의 절지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소림승이 보는 견지에선 탄탄대로에 불과하오. 당신네들은 모두 나의 현음지를 당했으니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이승으로 가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오. 빈승은 곧 좌망봉으로 달려가 수십 근의 화약을 매복시킨 후 다시 마교의 마화(魔火)를 종식시킬 작정이오. 그러면 그 무슨 천응교니 오행기가 허겁지겁 달려올 것이고, 빈승은 때맞추어 화약을 터뜨리면 한때나마 세상을 주름잡던 마교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오."

양소 등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대방의 행동거지로 보아 방금 한 말을 필히 행동에 옮길 것이다. 그의 흉계가 성공을 거둔다면 삼십 삼 대(代)를 면면히 이어온 명교의 오랜 명맥이 이 소림승에 의해 멸하게 될 것이다.

원진은 갈수록 득의양양해졌다.

"명교에는 비록 고수가 많지만 서로 아웅다웅하며 내분이 그칠 날이 없으니 자멸을 당하는 게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겠소? 오늘 일만 해도 만약 당신네 일곱이 서로 다투지 않았다면, 내가 제아무리 광명정까지 무사히 잠입해 들어온들 일격에 당신네들을 전부 굴복시킬 수야 있었겠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니 과히 날 원망하지 마시오."

양소, 주전 등은 자신들의 죽음과 명교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말을 듣자, 지난 이십 년간의 일을 생각하며 모두 후회막급했다. 솔직히 말해 원진의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었다.

주전이 갑자기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양소! 내가 죽일 놈이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은 비록 내 맘에 안 들지만 교주로 추대하였다면 오늘과 같이 교주가 없이 명교가 멸망하는 것보다야 나았을 것이오!"

양소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무슨 덕을 쌓았다고 감히 교주의 자리를 탐하겠소? 잘못은 모든 사람에게 있소. 우린 이제 구천에 가더라도 역대 교주를 뵐 면목이 없을 거요!"

원진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왕년에 양정천이 마교의 우두머리를 하면서 그 얼마나 기고만장했소이까? 그가 살아서 오늘 명교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하는 건데..... 으악!"

여기까지 말한 그는 별안간 짤막한 비명을 내질렀다. 실로 뜻밖의 변화였다. 원진은 위일소가 난데없이 전개한 일장에 등줄기를 강타당한 것이다.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위일소도 원진이 반사적으로 전개한 지풍에 가슴 부위 당중혈이 찍혔다. 두 사람은 모두 비칠비칠 뒤로 몇 걸음씩 물러났다.

위일소는 앞서 원진의 지풍을 맞아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내력이 남보다 한 수 위인지라 그 즉시 반항할 힘을 완전히 상실한게 아니었다. 단지 기절한 척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원진이 득의양양해 있는 틈을 타서 결정적인 기습을 가한 것이다. 그는 은천정, 사손 등과 함께 명교의 사대호교법왕 중에 한 사람이니 만치 공력이 대단했다. 게다가 명교의 존망이 달려 있으므로 자

신의 목숨 따위는 도외시한 채 사력을 다해 일장을 전개한 것이다.

한빙면장의 장력이 체내로 스며들자 원진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비릿한 기혈이 가슴팍으로부터 목구멍으로 용솟음쳐 올라 심한 구역질을 느꼈다. 그는 진력을 끌어올려 몸을 고정 시키려 했으나 천지간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기하며 한빙면장의 한독에 저항했다.

한편, 위일소는 거듭 현음지를 당하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뒤로 벌렁 나자빠져 움직이지 않았다. 삽시간에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덟 명의 고수들은 모두 중상을 입어 꼼짝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제각기 운기료상하며 한 순간이라도 먼저 회복되길 바랐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양소 등으로서는 명교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명교의 제자가 나타난다면 설령 무공을 모른다 해도 몽둥이로 간단히 원진을 때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는 자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양소는 위일소 등과 조용히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부름이 있기 전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분부를 해 두었다. 게다가 양소의 시중을 들어온 유일한 동자를 위일소가 잡아먹었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멀찌감치 달아났기 때문에 설령 부름이 있어도 선뜻 달려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제 4 권 2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3 장 벗겨지는 비사(秘事)

장무기는 포대 안에서 비록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경위를 똑똑히 들었다. 지금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만 짙은 살기가 감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갑자기 설불득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봐, 포대 안에 있는 친구! 우릴 좀 도와줘야겠다!"

장무기는 멍해서 물었다.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원진은 단전의 진기가 차츰 모아지고 있는 차에 포대안에서 사람의 음성이 들리자 소스라치게 놀라 진기가 즉시 역류하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위일소 등을 상대하는데만 신경을 집중시켰을 뿐 한쪽에 놓여 있는 포대 속에 사람이 들어 있으리라곤 전혀 예상 밖이었다. 그 역시 중상을 입어 꼼짝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젠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설불득이 다시 소리쳤다.

"그 포대를 천사백결(天絲百結)로 묶었으니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풀 수 없다. 하지만 넌 일어설 수 있겠지?"

장무기가 대답하며 포대 속에서 일어났다.

설불득이 다시 말했다.

"네가 의협심을 앞세워 예금기 형제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듯이 우리의 목숨도 네 손에 달려 있다. 이쪽으로 걸어와 악승(惡僧)을 때려 죽여라!"

장무기는 망설이며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설불득은 재촉했다.

"이 악승이 우리에게 저지른 비겁한 행위를 넌 전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네가 만약 주저한다면 명교의 수만 명이나 되는 인명이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를 죽이는

것만이 공덕을 쌓는 일이며, 지용(智勇)을 겸비한 협의도의 본분이다."

장무기는 그래도 엉거주춤하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진이 소리쳤다.

"소형제, 자네도 이들에게 붙잡혀 온 모양이군. 게다가 난 자네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어떻게 날 죽일 수 있겠나? 이번 기회에 이들 마교의 무리들을 모두 처치해 준다면 자네야말로 무림의 겁난(劫亂)을 구한 소년 영웅이 될 걸세."

쌍방은 모두 숨을 헐떡이며 장무기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장무기는 입장이 매우 난처했다. 그가 판단하기로는 원진 화상이 기습을 가한 행위는 비겁했다. 그렇다고 해서 반항할 힘을 잃은 그를 무턱대고 죽일 수도 없었다. 만약 자기가 원진에게 일장을 내리친다면 영원히 명교 편에 서서 육대문파와 적대시하게 될 것이며, 태사부와 무당육협, 주지약과도 등을 돌려야 할 입장이 된다.

설불득이 다시 재촉을 하자 장무기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설불득 대사, 솔직히 말씀드려 저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이 소림의 대화상을 상해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법에 따르겠습니다."

설불득이 내심 투덜거렸다.

'지금의 형국은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할 판이데 어떻게 쌍방을 다 보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팽화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형제, 자네의 인의지심(仁義之心)에 대해 경의를 표하네. 그럼 우선 원진 가슴의 옥당혈(玉堂穴)을 찍게. 그러면 단지 몇 시진 동안 자력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 우리

사람을 시켜 그를 광명정 아래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하겠네. 옥당혈이 어딘지 알고 있겠지?"

장무기는 의술에 능통하므로 옥당혈을 찍으면 단전의 진기를 끌어올리는데 얼마 동안 지장을 줄 뿐 그 이상 신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곧 대답을 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원진이 소리쳤다.

"소시주, 절대 저들에게 속지 말게. 저들이 약속을 지킬 것 같나? 일단 내력이 회복되면 즉시 날 죽일 걸세."

주전이 대뜸 욕설을 터뜨렸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널 살려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어찌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겠느냐? 명교의 오산인을 장터의 잡배로 취급하느냐?!"

장무기는 양소와 오산인이 한 번 한 약속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단지 위일소가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위 선배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일소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꾸했다.

"나도 이번만은 그를 살려 보내겠다. 다음에 만나 다시 생사결단을....."

그의 음성은 차츰 미약해졌다. 장무기는 그에게 다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좋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은 모두 당세의 영웅호걸이니 약속을 어기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원진대사, 그럼 후배가 실례를 범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원진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포대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굼벵이처럼 걸음이 느렸다. 그러나 원진 앞에 이를 수는 있었다. 포대를 뒤집어 쓰고 천천히 옮겨오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으나 아무도 웃는 자가 없었다. 장무기는 원진의 호흡소리

를 듣고 두 자의 간격을 유지한 채 걸음을 멈추었다.

"원진대사, 후배는 쌍방 어느 쪽이 상해를 입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올렸다. 원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 보아라!"

접곡의선 호청우가 죽은 후로부터 혈도를 분별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장무기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는 비록 포대 속에 들어 있었지만 정확하게 원진의 옥당혈을 향해 찍어갔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느닷없이 양소 등의 놀란 외침이 들려왔다.

"앗! 어서 손을 거둬라!"

그러나 장무기는 이미 손가락에 충격을 느끼며 한 갈래의 냉기가 손가락 끝을 통해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흡사 감전된 듯 이내 몸이 움츠러들었다. 주전, 철관도인 등이 일제히 욕설을 터뜨렸다.

"이런 죽일 놈의 땡중아! 끝까지 비겁한 수를 쓰다니.....!"

장무기는 전신이 오들오들 떨렸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원진은 비록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안간힘을 다해 손가락을 자기의 옥당혈 앞에 세워놓은 것이다. 장무기는 포대 속에서 그것을 알 리가 만무하여 결국 쌍방의 손가락 끝이 맞부딪치는 순간 원진이 현음지력이 포대를 사이에 두고 그의 체내로 뻗쳐온 것이다. 이번에 원진은 체내에 남은 모든 진력을 손가락에 집결시켰으므로 쌍방의 손가락 끝이 맞부딪치자 이내 온몸이 축 늘어지며 안색이 푸르죽죽하게 변해 송장과 같았다.

대청 안에 본디 여덟 명이 중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제 장무기 하나가 더 늘어났다.

주전은 성질이 급해 숨을 제대로 쉬기도 곤란한 상태인데도 계속 원진에게 욕을 퍼부었다.

원진은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탈진했지만,

속으로는 양양해 했다. 포대 속에 있는 녀석은 자기의 현음지를 맞아 반나절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는 한 시진 후면 흩어진 진기를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역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대청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반 시진쯤 지나자 네 자루의 촛불마저 꺼졌다. 주위는 이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양소 등은 원진의 호흡이 차차 정상을 되찾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었다. 운공을 시도할 때마다 현음지의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단전으로 침투해 몸을 심하게 떨어야만 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자꾸 흐름에 따라 실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이젠 오히려 원진이 좀더 빨리 회복되어 자기들을 속시원히 죽여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오랜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설불득이 처연하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팽화상, 우린 몽고 오랑캐를 중원에서 쫓아내기 위해 노심초사해 왔지만 결국 이 모양이 되었구료. 보아하니 한족(漢族)의 겁난이 얼마 동안 더 지속되어야 할 모양이오."

장무기는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한 가닥의 열기로서 현음지의 한기를 저항하며 설불득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절로 이상하게 느껴졌다.

'몽고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 분주해 왔다니? 그럼, 악명이 높은 마교가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이바지해 왔단 말인가?'

팽화상의 입에서도 한숨섞인 말이 내뱉어졌다.

"설불득, 내 일찌기 뭐라고 했소? 몰아낼 수 없으니 천하의 영웅호걸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의 사형 노성구(盧聖求)와 구로파(九老波)의 임창식(林昌植), 종우산인(鐘佑散人), 석부거사(錫父居士) 등 칠불도옹(七不倒翁)이 왕년에 의

거를 일으켜 실패한 것도 외부의 세력을 흡수하지 못한 탓이 아니었겠소?"
주전이 우악스럽게 소리쳤다.
"빌어먹을!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두 땡중이 입방아를 찧고 있군. 내가 듣기엔 다 개소리야! 우리 명교는 집안 식구끼리 대가리가 터져라 싸움질하는데 무슨 수로 오랑캐를 몰아낼 것이며, 팽화상은 다른 문파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기랄, 손을 잡지 않아도 우리를 몰살시키려는데 아예 호랑이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라는 말이오? 그 모든 게 개나발이 아니고 뭐겠소?"
철관도인도 끼어들었다.
"만약 양교주만 살아 있었다면, 육대문파를 벌써 굴복시켜 우리 휘하에 예속시켰을 것이외다!"
주전이 광소를 터뜨렸다.
"하핫..... 호랑말코 같은 철관도사의 개나발은 더욱 못 들어주겠군. 제기랄, 양교주만 살아 있었다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으윽.....!"
현음지의 한기가 다시 폐부 깊숙이 뚫고 들어갔는지 주전은 갑자기 신음을 토했다. 때맞추어 냉겸이 소리쳤다.
"닥쳐!"
이 한 마디를 내뱉자 찬물을 끼얹은 듯 모두 조용해졌다. 장무기의 뇌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뒤죽박죽 어우려졌다.
'보아하니 명교가 항간에 마교로 낙인 찍힌 것은 그릇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확실한 것이 알고 싶어졌다.
"설불득 대사, 귀교의 교리(敎理)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불득은 다소 의아해 했다.
"응? 자네 아직 죽지 않았군. 따지고 보면 자넨 명교 때문에 공

연히 목숨을 잃게 된 셈이니 미안하게 생각되네. 어쨌든 자네는 얼마 살지 못할 테니 본교의 비밀을 털어놓아도 상관없겠지. 냉면선생, 그렇지 않소?"

냉겸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이런 경우에서 묵인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설불득이 다시 말했다.

"소형제, 우리 명교의 뿌리는 파사국(波斯國:페르시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대(唐代)에 중원으로 전해져 왔네. 당시만 하더라도 도처에 대운공명사(大雲光明寺)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명교의 사원(寺院)이라네. 우리 명교의 근본 취지는 행선제악(行善除惡)으로 중생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금은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육식과 술을 멀리하며 명존(明尊)을 숭배하네. 명존은 바로 화신(火神)이며, 또한 선신(善神)이지. 그러나 역대 왕조에 거쳐 탐관오리들이 본교를 핍박하였기에 형제들이 왕왕 분연히 거사를 일으켜 북송(北宋) 방랍(方臘) 방교주 이래 그러한 예가 부지기수였네."

장무기도 방랍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었다. 방랍은 북송 선화(宣和) 연대 사대구(四大寇) 중에 하나로서, 송강(宋江), 왕경(王慶), 전호(田虎)등과 같이 명성을 날렸다.

"이제보니 방랍이 귀교의 교주였군요."

설불득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렇다네. 본교의 형제들이 조정관부와 대립해 왔기 때문에 조정에선 우리를 마교로 몰아 모든 행동을 엄히 금지시켰네. 우린 관부의 이목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일거일동에 은밀을 기해야 했네. 그러한 과정에서 각 문파와도 원한이 누적되어 물불과 같은 사이가 형성된 걸세. 물론 본교 형제들중에 자신의 무공을 믿고 살인, 방화, 간음 등의 비행을 일삼아 온 자도 있었기에 본교의 명예가 갈수록 나빠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설불득은 말끝을 흐렸다. 이때 장무기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앗? 어째 내 몸에 한기가 사라졌지.....?'

그가 처음 원진의 현음지를 당했을 때는 오한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그 한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열 살 때 현명패천장을 맞아 열 일곱 살이 되어서야 그 음독이 제거되었다. 그 칠 년 동안 밤낮으로 한독과 씨름해 왔기 때문에 호흡서부터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한독을 대항하는 일과 결부되었다. 하여 구태여 의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한을 퇴치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그가 수련한 구양신공이 비록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체내의 양기(陽氣)가 팽배되어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자 음독이 스스로 말끔히 제거된 것이다.

설불득의 말이 계속되었다.

"송조(宋朝)가 몽고 오랑캐 손에 멸망한 후 명교는 더욱 조정과 맞서게 되어 오랑캐를 중원에서 몰아내는 것을 과업으로 삼게 되었네. 그런데 전임 교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교내의 고수들이 교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암투를 벌여 기강이 일락천장된 결세. 아울러 각 문파와 원한도 더욱 깊어졌고. 원진 화상, 내가 여지껏 한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겠지?"

원진은 냉소를 날렸다.

"물론 인정하고 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가 구태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소?"

이렇게 말하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양소와 오산인 등은 모두 크게 놀랐다. 그들은 원진이 자기네들보다 먼저 회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빨리 닥쳐오리라곤 뜻밖이었다. 원진의 공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후한 게 분명했다.

양소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공견신승의 제자답게 과연 대단하군. 자, 이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앞서 내가 궁금하게 여긴 일을 솔직히 얘기해 주겠느냐?"
 원진은 징그럽게 웃으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그의 말투는 부상을 당하기 전보다 거칠어졌다.
 "죽어서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니 얘기해 주겠다. 내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교주였던 양정천과 그의 부인이 친히 날 이곳으로 데려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양소는 이내 낯빛이 변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진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진의 말을 받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주전이 이미 욕설을 터뜨렸다.
 "이런 낯도깨비가 물어갈 놈 같으니라고! 그 무슨 당치도 않은 개소리냐? 이 비밀 통로는 본교의 성역으로 양교주가 살아계셨을 때는 양좌사와 사대호교법왕도 와본 적이 없다. 단지 교주만이 이 비밀 통로를 이용했는데 어떻게 너 같은 놈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원진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나서 울적하게 입을 열었다.
 "네가 그렇게도 꼬치꼬치 캐묻겠다면 이십 오 년 전의 비사(秘事)를 털어놓으마. 어쨌든 너희들은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테니..... 주전, 너의 말대로 이곳은 명교의 성지로써 역대 교주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설령 교주라 해도 절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었지. 그러나 양정천은 스스로 교율을 어기고 그의 부인을 몰래 비도(秘道)로 데리고 들어갔다....."
 여기까지 들은 주전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팽화상

은 그더러 조용히 하라고 호통쳤다.
 원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양부인이 다시 날 데리고 들어왔다....."
 철관도인이 심각하게 물었다.
 "양부인이 무엇 때문에 너를 비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느냐?"
 원진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자세한 것을 말하자면 사연이 길어진다. 난 올해 고희를 넘긴 늙은이지만 젊었을 때는..... 좋다. 모든 것을 얘기해 주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양부인은 바로 나의 사매였고, 난 불문에 귀의하기 전에 속세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성곤(成崑)이며 외호가 혼원벽력수였다."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내뱉어지자 양소는 물론 모두가 자지러지게 놀랐지만 더욱 놀란 것은 포대 속에 들어 있는 장무기였다. 빙화도에서 그날 밤 의부께서 들려준 얘기가 뚜렷하게 뇌리에 떠올랐다. 의부의 스승이었던 성곤이 어떻게 해서 부모와 처자식을 살해했으며, 그로 인해 의부가 성곤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살검을 자행한 일 등등..... 장무기는 청천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이 컸다. 아울러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다.
 '이제 보니 그 당시 저 악랄한 성곤은 이미 공견신승을 사부로 모셨구나. 공견신승은 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의부를 감화하기 위해 강호로 나서 결국 애매하게 목숨을 잃었으니, 이 또한 성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이 아니겠는가!'
 그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의부께서 가끔 광성이 발작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각 문파가 무당으로 달려와 나의 부모님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은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이 성곤의 농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순, 장무기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온몸이 불덩어리 처럼 달아올랐다. 설불득이 이 포대는 바람이 통하지 않아 장무기는

벌써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갑갑한 것을 억지로 참아왔다. 심후한 내력과 구식지법(龜息之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한데, 지금 심신이 흐트러지자 단전에 축적돼 있는 구양진기도 제어를 잃어 이내 온몸이 불덩어리로 변한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신음을 토했다.

그러자 주전이 호통을 치듯 외쳤다.

"소형제, 조금만 견디면 우린 모두 숨이 끊어져 편안해질 테니 대장부답게 이를 악물고 신음 따위는 내지 말게나!"

장무기는 '네'하고 대답하며 곧 구양진경의 운공지법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러나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이 있었다. 그가 공력을 운용할수록 사지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해 오고 전신의 각 혈도를 흡사 빨갛게 달군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것은 언젠가는 그에게 닥칠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는 몇 년간 구양신공을 연마했지만 스승의 가르침이 없어 스스로 일깨운 것이므로, 비록 체내에 축적된 구양진기는 갈수록 많아지지만 그것을 정석대로 운용하여 마지막 생사현관(生死玄關)을 뚫는데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물론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한 상태로 오래 머물수도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진의 음독한 현음지를 맞은 것이다. 그 한독에 대항하기 위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양신공이 격발되었고, 더욱 공교롭게도 그의 몸이 밀봉된 건곤일기대 속에 들어 있어 격발된 구양진기가 발산될 곳이 없어 다시 그의 몸에 충격을 가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우연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수도연기(修道練氣)하는 사람들이 일생을 두고 가장 험난하고 위해한 순간을 졸지에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반 무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꿈에도 갈망하는 생사현관이 뚫리는 순간이

었다. 이 순간에 생사성패(生死成敗)가 결정될 것이다.

주전 등은 그가 이런 죽음의 갈림길에서 또 하나의 생사투(生死鬪)를 겪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해 단지 그가 현음지를 당한 고통으로 인해 신음을 내뱉은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는 견디기 어려운 극양(極陽)이 열기와 싸우며 원진의 말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었다.

"나와 사매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친교를 맺어온 터라, 둘은 어려서부터 혼인지약이 있었다. 그런데 양정천도 나의 사매를 짝사랑해 오다가 명교의 교주가 되어 천하에 명성을 떨치자, 내 사매의 부모는 익속이 밝은 위인인데다가 사매 역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결국 그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그러나 혼인을 한 후에 그녀는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가끔 나하고 만나게 되었으며 그 횟수가 잦아질수록 우리에겐 은밀한 장소가 필요했다. 양정천은 내 사매의 요구라면 무조건 따라 주었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를 틈타 그녀가 이 비밀 통로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양정천은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끝내 그녀의 청을 들어 주게 되었다. 그 후로 이 광명정의 비도, 명교가 수백 년간 신성불가침으로 생각해 온 성벽이 우리의 밀회 장소로 변했다. 그 동안 나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이곳을 무상 출입해 왔으니, 이번에 손쉽게 올라온 것도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

주전, 양소 등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치로 인해 단지 눈에서 원독의 불길이 뿜어질 뿐 할 말을 잃었다.

원진은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에 매우 만족해 했다.

"너희들이 흥분해 할 것은 없다. 근원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 양정천이 나의 정인(情人)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난 양정천과 사매가 혼례를 올리는 날 하객으로 나타나 희주(喜酒)를 마시며 내심 맹세를 한 바가 있다. 양정천을 죽이고 명교를 멸망시키겠

다고! 그 맹세가 사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하핫.....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양소는 눈앞에 닥친 죽음과는 상관없이 말투가 냉랭했다.

"내가 여지껏 마음 속으로 풀지 못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주어서 고맙다. 양교주가 갑작스레 죽음을 당한 것이 이제보니 너의 소행이었구나!"

원진의 음성은 표정만큼이나 차가왔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물론이거나와 왕년에도 난 도저히 양정천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나의 사매는 내가 행여나 암암리에 독수를 전개할까봐 부단히 나에게 경고를 했다. 내가 만약 양정천을 죽인다면 그 자신은 결코 살아남지 않겠다고! 그녀는 비록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지만 양정천을 유일한 남편으로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양정천,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뭐라고!?"

"그럴 리가....."

양소, 팽화상 등은 모두 놀란 외침을 토했다.

원진은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자기가 할 말을 계속해 나갔다.

"만약 양정천이 내 손에 죽었다면 명교를 용서할지도 모르지....."

그의 음성은 차츰 낮아졌다. 그는 이십 오 년 전의 일을 회상하듯 눈을 가늘게 집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날 밤에도 나는 사매와 비도 안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소스라치게 놀라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양정천이 어느 작은 석실에서 손에 양피지를 쥐고 얼굴이 핏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는 순간 코웃음을 치며 얼굴이 다시 푸르스름하게 변하는가 싶더니 재차 핏빛으

로 바뀌었는데, 순식간에 세 번이나 변했다. 양좌사, 넌 그게 무슨 무공인지 알고 있겠지?"

양소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것은 본교의 건곤이위신공이다."

주전이 즉시 물었다.

"양소, 당신도 그 신공을 터득했소?"

양소의 입가에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터득했다고는 할 수 없소. 왕년에 양교주는 나를 잘 봤는지 그 신공의 기초적인 구결(口訣)을 일러주었소. 난 그 동안 꾸준히 연마해 왔지만 겨우 제 이단계밖에 터득하지 못했소. 더 연마하고 싶었지만 체내의 진기가 역류하여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찢어질 것만 같아 중단했던 것이오. 양교주가 순식간에 얼굴색이 세 번 변했다면 그건 제 사단계까지 터득했다는 증거요. 그의 말에 의하면 본교 역대 교주 중에 제 팔 대 종(鐘)교주만 건곤이위신공을 오단계까지 연성했다는 거요. 그러나 연성한 날 그만 주화입마되어 목숨을 잃었소. 그후로 아무도 제 사단계까지 이룩한 사람이 없다는데....."

주전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그렇게도 연마하기가 어렵단 말이오?"

철관도인이 불쑥 나섰다.

"만약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본교의 호교신공(護敎神功)이라고 할 수 있겠소?"

이들 명교의 무학고수들은 건곤이위신공에 대해 오래 전부터 흠모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 신공이 거론되자 비록 위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다.

팽화상은 시간을 끌 속셈으로 원진에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의 양교주께서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됐다는 거냐?"

원진은 냉소를 날렸다. 그도 팽화상 등의 속셈을 모르는 바 아

니었다. 하지만 숨쉬는 걸 보아 한 두 시진 이내에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었다.

"당시 사매와 나는 양정천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사매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내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양정천은 단지 눈을 부릅뜬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몸이 빳빳하게 굳어갔다....."

양소 등은 그게 바로 주화입마의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양교주는 건곤이위신공을 연마하다가 긴급한 순간에 아내와 성곤이 밀회를 하는 것을 발견해 그 엄청난 충격으로 그만 주화입마된 게 분명했다. 당시 성곤이 양교주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양교주는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한 거나 다를 바 없었다.

원진의 말은 계속되었다.

"사매는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별안간 뒤쪽을 향해 '누구냐' 하고 소리쳤다. 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틈을 타서 사매는 이미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흐흣....."

여기까지 말한 원진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렸다. 차라리 울음이라 해야 더 어울릴 웃음이었다.

"양정천은 그녀의 육신을 소유했지만 마음을 소유하진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마음을 얻었지만 결국 그녀를 차지하진 못했다. 나는 사매의 시신 앞에서 통곡을 했다. 동시에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명교를 멸망시키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난 한시도 그 맹세를 잊은 적이 없다. 따지고 보면 나 성곤도 불행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남한테 빼앗기고 하나뿐인 제자마저 날 불공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니....."

장무기는 그가 사손을 거론하자 더욱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이때, 체내의 구양진기가 더욱 팽배되어 사지백해가 터져나

갈 것 같고 머리카락마저 배로 팽창되는 것 같았다.
 원진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광명정을 떠나 중원으로 돌아가 오랫 동안 보지 못한 제자를 찾아갔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가 그가 마교의 사대호교법왕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전에 난 비록 사매와 자주 만났지만 마교 내부의 일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매 역시 교내의 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사손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면 그가 마교에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전혀몰랐을 것이다. 생각 같아선 당장 사손을 죽이고 싶었지만 난 내색을 하지 않고 그를 이용하기로 작심했다. 뿌리가 깊은 명교를 송두리채 멸망시키려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원진은 양양하게 웃었다.
 "며칠 후 난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사손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의 부모 형제 온 집안 식구를 살해했다. 난 그 결과에 대해 손금보듯 잘 알고 있었다. 사손은 틀림없이 복수를 하기 위해 길길이 날뛸 것이고, 날 찾아 내지 못하면 갖은 짓을 다 저지를 게 번했다. 하하..... 이 세상에서 나보다 그 녀석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문무를 겸비했지만 쉽게 흥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게 흠이지....."
 여기까지 들은 장무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다.
 '이제보니 의부께서 당하신 모든 불행이 전부 성곤 노적의 계획적인 음모였구나.....'
 원진은 득의양양하게 말을 이어갔다.
 "사손은 내가 바라는 대로 도처에서 살생을 저지르고 내 이름을 남겨 내가 나서기를 바랐지만, 하하..... 내가 쉽사리 나설 것 같느냐? 결국 모든 살겁이 사손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에

게 당한 그 숱한 희생자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명교를 적대시하게 되었다. 때로는 그가 일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내가 암암리에 도와주곤 했다. 나의 유능한 살인도구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지. 어쨌든 마교는 갈수록 적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교주 자리를 놓고 내분이 그칠 날이 없었으니,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었다. 사손이 송원교를 죽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소림의 공견신승, 공동오로 등 각 문파의 고수들을 고루 죽였으니 그보다 더 기특한 제자가 또 어디 있겠나?"

양소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심지어 너의 스승인 공견신승마저도 너의 독계에 걸려 목숨을 잃은 것이란 말이냐?"

"내가 공견을 스승으로 모신 게 진심일 리가 있겠느냐? 그는 비록 나 때문에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더욱 명성이 알려졌으니 오히려 나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이다. 하핫.....!"

원진의 광소가 들리는 가운데 장무기는 극도의 분노로 인해 그만 까무라치고 말았다. 그러나 곧 깨어났다. 그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겪은 온갖 능욕에 초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부가 성곤의 음모로 인해 부모와 처자식을 잃고 무림의 공적으로 몰려 이젠 눈까지 실명된 채 외딴 섬에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심구대한(深仇大恨)을 어찌 갚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노기(怒氣)가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자 전신에 퍼진 구양진기가 더욱 격탕하며 질주하였다. 그 진기가 바깥으로 발산될 수 없자 건곤일기대가 점점 바람을 넣은 공처럼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소 등은 원진의 말에 정신이 집중돼 아무도 그것을 유의하지 않았다.

원진은 이제 모종의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양소, 위일소, 팽화상, 주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있느냐?"

양소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원진, 내 딸만큼은 살려줄 수 있겠느냐? 그의 어머니는 아미파의 기효부이니 반은 명문 출신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아직 정식으로 우리 명교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원진은 야멸차게 대꾸했다.

"호랑이 새끼를 살려두면 후환을 자초하게 된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하는 법!"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양소의 머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어냈다.

장무기는 포대안에서도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알고,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는 것도 무시한 채 소리로서 위치를 간파해 대뜸 몸을 솟구쳐 원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왼손을 뻗어내 포대를 사이에 두고 원진의 손을 노렸다.

원진은 이때 간신히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뿐 원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흠칫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외쳤다.

"이놈! 네가..... 네가 감히!"

그는 포대를 향해 냅다 일장을 떨쳐냈다. 그런데 불룩하게 팽창한 포대에 장풍이 닿는 순간 더욱 강한 힘이 튕겨져 와서 원진을 두 걸음 뒤로 밀어냈다. 원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장무기는 이 무렵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입술이 갈라지면서 정신이 어질어질했다. 체내의 구양진기가 이미 최고봉으로 팽창되어 건곤일기대가 터져나간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렬무비한 진기로 인해 살갗이 갈라지며 온몸이 숯덩어리처럼 타 버릴 것이다.

원진은 이 포대가 해괴하다고 느끼면서 다시 장풍을 격출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원진은 다시 반탄지력에 의해 뒤로 두 걸음 밀려났다. 이 즈음 장무기는 커다란 가죽공처럼 팽창된 포대 속에서 마구 뒹굴었다.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숨을 내쉬기조차 곤란했다. 원진은 거듭하여 출수를 했지만 그때마다 힘줄기가 반탄되어 왔다. 포대 속에 있는 장무기는 그러한 사실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양소 등은 이런 해괴한 현상을 보자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설불득조차 자기의 건곤일기대가 왜 갑자기 공처럼 부풀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순간, 원진은 허리춤에서 비수 한 자루를 뽑아 힘껏 포대를 찔러갔다. 그러나 비수의 끝부분만 포대 속으로 약간 오목하게 패어 들어갈 뿐 뚫리지가않았다. 연거푸 찔러 보았지만 역시 헛수고였다.

원진은 장력과 비수로도 포대를 어떻게 할 수 없자 생각을 달리했다.

'이 녀석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으니.....'

그는 냅다 포대를 걷어찼다. 공처럼 팽창된 포대는 데구루루 문쪽으로 굴러갔다. 한데, 문지방에 부딪친 포대는 즉시 튕겨져 질풍 같은 속도로 원진을 향해 날아왔다. 원진은 몸을 피할 새도 없이 필사의 힘을 다해 쌍장을 떨쳐냈다. 그러자,

펑!

청천벽력과 같은 굉음이 터지는 가운데 포대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 흩날렸다. 원진, 양소, 위일소 등은 모두 한 갈래의 불기둥 같은 기류가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 앞에 남루한 차림새의 젊은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게 보였다.

알고 보니, 끝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사이에 장무기가 연마했던 구양신공이 드디어 생사현관을 뚫고 완성 단계로 돌입한 것이다.

앞서 팽창된 포대 속은 진기로 넘실거려 흡사 수십 명의 고수가 내력을 발출해 동시에 그의 전신에 수백 군데의 혈도를 안마해 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생사현관이 뚫리자 전신 경맥(經脈)속에 수은(水銀)이 굴러가듯 상쾌하기 이를데 없었다. 자고로 이러한 기연(奇緣)을 얻은 사람이 없었다. 이제 건곤일기대가 과열됐으니 앞으로도 이러한 기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진은 이 포대 속에서 나온 젊은이가 얼빠진 모습으로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자, 즉시 현음지의 내력을 끌어올려 그의 가슴팍 담중혈을 찍어갔다.

장무기는 얼떨결에 손을 떨쳐 그의 공격을 막았다. 그는 비록 구양신공을 터득했지만 무공 초식이 극히 평범하여 도저히 원진 같은 정정고수의 맞수가 될 수 없었다. 순간, 그의 손목 부위 양지혈(陽池穴)이 원진에 의해 찍히고 말았다. 그 즉시 몸을 한 차례 오싹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그와 때를 같이하여 그의 체내에 넘쳐 흐르는 진기가 원진의 손가락으로 전해졌다.

쌍방의 힘은 음과 양으로서 마침 서로 상극되었다. 게다가 장무기의 내력은 구양신공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치 웅후하기 이를데 없었다.

원진은 손가락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워지는 것을 의식하며 전신의 경력(經力)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중상을 입은 데다가 공력이 평상시에 비해 일성(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상황 판단이 빨랐다. 눈앞에 전개돼 있는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시 몸을 돌려 달아났다.

장무기는 이내 뒤쫓아가며 소리쳤다.

"성곤! 이 천하의 악적아, 목숨을 내놔라!"

성곤의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잽싸게 옆문으로 달려들어갔다. 장무기는 다급해져 걸음을 재촉하자 갑자기 쿵 하

는 소리가 들리며 몸이 허공으로 떠올라 천정에 머리를 박고 말았다.

'왜 갑자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것일까?'

그 자신은 어리둥절했다. 사실은 구양신공이 연성되어 일거수일투족할 때마다 전에 비해 열 배가 넘는 힘이 발휘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는 얼른 옆문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석실이 펼쳐져 있을 뿐 원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의부를 위해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에 곧장 석실 뒷문으로 쫓아갔다.

석실 밖은 제법 넓은 뜨락이었다. 뜨락 한복판에는 화단이 만들어져 있고 서쪽 어귀에 자리한 아담한 누각에 창문을 통해 불빛이 새어나왔다. 장무기는 지체하지 않고 누각 앞으로 달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순간 회색 그림자가 번뜩이며 원진이 앞쪽에 드리워져 있는 휘장을 젖히며 뛰쳐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장무기도 뒤따라가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멍해지며 주위를 두리번 살폈다. 그러자 비로소 자기가 어느 여염집 아가씨의 규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문 쪽에 화장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붉은 촛불이 밝혀져 주위를 환하게 비춰 주었다. 모든 것이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어 주구진의 집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다른 한쪽에는 자단목으로 짠 침상이 있고 봉황이 수놓아진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침상 앞에 분홍색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여인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 같았다. 이 규방은 문이 하나뿐이며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규방 안으로 들어온 원진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장무기가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속세를 떠난 원진이 여인의 침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뿐이었다. 과연 침상의 휘장을 젖혀 확인을 해보아야 할지, 장무기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

고 망설이는 사이에 홀연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자세히 생각을 굴릴 겨를도 없이 서쪽 벽에 세워놓은 병풍 뒤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장무기는 병풍 뒤에서 슬그머니 엿보니, 두 사람 모두 묘령의 소녀였다. 한 사람은 연분홍빛 비단옷을 입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다소 어리며 청색 무명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녀인 것 같았다. 비녀는 째지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아가씨, 밤이 깊었으니 편히 쉬세요."

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찰싹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라고 불리우는 소녀가 난데없이 비녀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비녀는 비칠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아가씨라는 소녀는 고개를 살짝 돌렸고 장무기는 촛불을 빌려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유난히 큰 눈에 둥그스름한 얼굴, 바로 자기가 불원천리 중원에서 서역까지 호송해 준 양불회였다. 그 동안 세월이 흘러 그녀는 늘씬한 몸매의 성숙한 처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앙칼진 음성이 들려왔다.

"나더러 자라고? 흥! 육대문파가 광명정을 공격해 오는 통에 나의 아버님은 여러 사람들과 밤을 세워가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넌 나의 아버지와 내가 하루속히 죽길 바라고 있겠지만 어림도 없다!"

비녀는 아무 변명도 못하고 그녀를 부축해 침상에 앉혔다. 그러자 양불회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어서 내 검을 갖고 와!"

비녀는 벽 쪽으로 걸어가 그곳에 걸려 있는 한 자루의 장검을 내렸다. 이때 장무기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비녀의 양쪽 발목과 손목에 가느다란 사슬이 묶여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며 등이 곱추처럼 굽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작은데다가 코와 입이 모두 일그러져

괴물처럼 생겼다.
 장무기는 왠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저 소녀의 용모는 주아보다도 추하게 생겼구나. 주아는 중독되어 얼굴이 부었기 때문에 치료될 수가 있겠지만 저 소녀는.....'
 그가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에 양불회는 장검을 받아 쥐었다.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 난 순찰을 돌아야겠다."
 비녀가 얼른 그녀의 말을 받았다.
 "저도 아가씨를 따라가겠어요. 만약 적을 만나게 되면 아가씨를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음성은 모래를 씹은 듯 듣기가 거북했다. 양불회는 대뜸 냉소를 날렸다.
 "흥! 또 무슨 엉큼한 수작을 부리려는 거냐!?"
 그녀는 왼손으로 다짜고짜 비녀의 오른쪽 손목을 나꿔쥐었다. 비녀는 그 즉시 꼼짝 못하게 되었다. 비녀는 겁먹은 표정을 한 채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가씨..... 저는....."
 "닥쳐라! 적이 대거 진격해 오면 우리 부녀는 언제 죽을 지도 모른다. 네년은 틀림없이 적이 이곳으로 보낸 첩자일 것이다. 너에게 당하기 전에 아무래도 내 손으로 널 죽여야겠다!"
 이렇게 야멸차게 말하며 대뜸 비녀의 목을 향해 장검을 들이댔다. 그렇지 않아도 비녀에게 측은한 생각을 갖고 있던 장무기는 생각을 굴릴 겨를도 없이 앞으로 몸을 날리며 소리쳤다.
 "불회누이!"
 양불회는 흠칫 놀라 얼른 검을 거두더니 몸을 돌리기도 전에 격동되는 음성으로 외쳤다.
 "무기 오빠예요?"
 뜻밖에도 그녀는 장무기의 음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부인할 순 없었다.

"그래 나야. 불회 누이, 그 동안 잘 있었나?"
양불회는 비로소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순간 남루한 차림에다 얼굴에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장무기를 보자 멍해지며 눈살을 찌푸렸다.
"다.....당신이 정말 무기 오빠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죠?"
장무기는 자세한 것을 설명할 겨를이 없었다.
"누이의 아버님이 부상을 입었으니 어서 보살펴 줘야겠어!"
양불회는 이내 안색이 크게 변했다.
"아버님이 부상을 당했다고요? 무기 오빠,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내가 곧 갔다 올 께요. 그 동안 별고 없었죠? 난 가끔 오빠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외쳐 대며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무기는 비녀에게 물었다.
"낭자, 화상 한 명이 이곳으로 도망쳐 왔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소. 혹시 여기에 다른 곳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소?"
"그 화상이 어떤 사람이죠? 그를 꼭 쫓아가야 하나요?"
"그 화상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쫓아가야 하오!"
비녀는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하더니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요!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해 줬으니 도와드리겠어요."
그녀는 곧 촛불을 끄고 장무기의 손을 잡더니 앞으로 걸어나갔다.
장무기는 그녀에게 이끌려 걸음을 옮기다 보니 침상 앞에 이르렀다. 비녀는 주저없이 휘장을 젖혀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장무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추하게 생긴 비녀가 자기를 침상으로 끌어들이는 걸로 생각했다. 그로서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무기는 비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비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통로가 바로 침상에 있어요."

장무기는 그 말에 오히려 자신의 경솔함을 쑥스러워했다. 비녀는 다시 그의 손을 잡더니 이불을 젖히고 침상에 누었다. 장무기도 남녀유별을 따질 상황이 아닌지라 그녀와 나란히 침상에 누웠다. 비녀가 어느 곳을 건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침상이 갑자기 뒤집어지며 두 사람이 일제히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그들은 곧장 수장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하게도 바닥에 푹신한 보료가 두껍게 갈려 있어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았다. 윗쪽에서 팍 하는 소리가 들리며 침상 바닥의 열렸던 부분이 원상 복귀되었다. 장무기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실로 절묘한 장치군. 비밀 통로의 입구가 바로 여인의 규방 침상에 있을 줄이야 누가 생각이냐 하겠는가?'

비녀는 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달려갔다. 어디서 광선이 스며들어오는지 몰라도 주위가 어슴프레했다. 장무기는 그녀의 발목에 묶여 있는 사슬이 땅에 끌리는 소리를 듣고 문득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다.

'아니..... 이 낭자는 다리를 저는데다가 양쪽 발목이 사슬에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일까?'

그는 곧 걸음을 멈추었다. 비녀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다리를 저는 것은 주인 어르신네와 아가씨를 속이기 위해 위장한 거예요."

장무기는 원진을 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세한 연유를 묻지 못했다. 꼬불꼬불한 통로를 따라 수십 장 가량 따라 나가자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래도 원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녀가 입을 열었다.

"이 통로는 여기가 끝이에요. 틀림없이 앞쪽으로 연결된 다른 통로가 있을 텐데 찾아 내지 못했어요."

장무기는 어두침침한 주위를 살펴보았다. 알고보니 통로 천장에 작은 야명주가 박혀 있어 희미한 광채를 비춰 주고 있었다. 장무기는 앞쪽을 가로막은 석벽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다. 간혹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긴 해도 틈새라곤 찾아 낼 수 없었다.

비녀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전에도 횃불을 갖고 들어와 수십 차례나 시도해 보았지만, 바위문을 작동하는 단추를 찾아 내지 못했어요. 당신이 말한 화상이 분명 이곳으로 들어왔다면 바위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갔을 거예요."

장무기는 한 모금의 진기를 끌어올려 두 손으로 석벽 좌측부터 힘껏 밀어보았다. 전혀 반응이 없자 다시 우측을 밀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석벽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장무기는 속으로 옳거니 하며 다시 두 모금의 진기를 끌어올려 힘차게 밀자 석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두꺼운 석벽은 또한 육중한 석문(石門)이기도 했다.

이곳 비밀 통로의 구조는 정교하여 때로는 기관 장치가 설치돼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석문에는 아무런 장치도 돼 있지 않았다. 그대신 엄청난 실력(實力)을 가졌거나 상승무공을 지니지 않으면 석문을 열 수 없었다.

석문이 석 자 가량 열리자 장무기는 바깥쪽을 향해 느닷없이 일장을 뻗어냈다. 행여나 원진이 석문 뒤에 숨어 기습을 가할까 봐 신중을 기한 것이다.

석문 밖은 다시 긴 통로와 연결돼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나갔다. 통로는 갈수록 아래로 경사졌다. 약 오십여 장 걸어나가자 뜻밖에도 홀연 왼쪽으로 뻗친 통로 안에서 기침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왔지만 주위가 워낙 조용해 뚜렷하게 들

려왔다.

장무기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이쪽이다!'

그는 앞장서 왼쪽 통로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 통로는 지세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며 지면 역시 울퉁불퉁했다. 얼마쯤 달리자 지세가 나선형으로 계속 아래로 향했다. 게다가 폭이 갈수록 좁아져 한 사람이 간신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우르르 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방금 장무기와 비녀가 지나왔던 천장 쪽에서 육중한 석문이 와르르 떨어져내려 통로를 완전히 봉쇄시켜 버렸다. 졸지에 일어난 변화에 장무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통로가 봉쇄된 곳은 그들로부터 약 열 자 가량 떨어진 지점이므로 얼른 몸을 돌려 간신히 비녀의 곁을 비집고 가까이 다가가 석문을 밀어보았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체내의 진력을 모두 발휘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때 석벽 맞은편에서 원진의 음성이 미약하게 들려왔다.

"이놈아, 그곳은 죽음의 절지다. 이쪽에서 기관 장치를 작동하기 전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물론 이 통로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넌 영락없이 죽게 될 것이다. 계집과 함께 죽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라!"

장무기는 그와 입씨름을 벌여 보았자 하등의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몸을 돌려 다시 좁은 통로를 따라 앞쪽으로 걸어갔다. 이젠 야명주의 광채도 없어 주위가 칠흑처럼 어두웠다. 손으로 더듬으며 삼 장 가량 뚫고 나가자 통로의 끝이 되었다. 그곳은 또 하나의 작은 석실인 듯 싶었다.

"낭자, 혹시 부싯돌이 있소?"

비녀가 있다고 대답하자 장무기는 나무통을 부서뜨렸다. 통 속

에서 많은 분말이 쏟아졌다. 그것은 석회인지 밀가루인지 알 수 없었다. 장무기는 나무 조각 하나를 집었다.

"이제 불을 밝히시오."

비녀는 부싯돌을 꺼내 불을 당겨 나무 조각에 갖다 대었다. 순간 부지직! 소리가 나며 나무 조각에 이내 불이 붙었다. 동시에 불꽃이 튀며 짙은 유황냄새가 풍겼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비녀가 소리쳤다.

"화약이예요."

불이 붙은 나무 조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통 속에서 쏟아진 가루는 모두 시꺼먼 화약이었다. 비녀가 나직이 웃었다.

"만약 저 화약에 불이 붙었다면 우린 죽었을 거예요."

이때 장무기는 그녀를 뚫어지게 주시하며 만면에 경악의 빛이 역력했다. 비녀가 생긋이 웃었다.

"왜 그러죠?"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보니 낭자는..... 매우 아름답구료."

비녀는 입을 삐쭉거리며 웃었다.

"놀란 나머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깜박 잊었군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몸을 똑바로 폈다. 장무기는 비로소 그녀가 곱추도 아니며 다리도 멀쩡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이목구비도 빼어났다. 장무기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소?"

비녀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대꾸했다.

"아가씨는 저를 몹시 미워했어요. 그러니 제가 추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그나마 그녀의 환심을 살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추한 모습으로 위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저를 죽였을 거예요."

장무기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낭자를 죽이려 한단 말이오?"

"아가씨는 제가 주인 어르신네와 자기를 죽일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어요."

장무기는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둘렀다.

"그것 참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장무기는 필시 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이 비녀의 신분에 대해 새삼 흥미를 느꼈다. 그녀가 일부러 추한 모습을 하여 양소와 양불회의 눈을 속여왔다는 게 결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비녀는 그 사연을 밝히려 하지 않으려 하니 장무기도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었다.

비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당..... 아니 공자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을 알면 아가씨께선 더욱 의심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니 우린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겠죠."

이렇게 말하며 불이 붙은 나무를 들고 주위를 유심히 살폈다. 지금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석실에는 녹슬은 무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이곳은 왕년에 명교가 무기를 저장하는 장소로 이용했던 모양이다. 사면의 벽을 유심히 살폈지만 틈새를 찾아 내지 못했다. 원진은 이곳이 사지(死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기침을 하여 두 사람을 유인한 게 분명했다.

비녀는 맥이 풀리는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공자, 저는 소조(小조)라고 해요. 아가씨가 공자를 무기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성함이 무기라고 하나 보죠?"

"그렇소. 나의 성은 장이라....."

여기까지 말한 그는 다시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여기 있는 많은 화약을 이용해 막힌 석문을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소조는 즉시 손뼉을 치며 표정을 활짝 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그녀가 손뼉을 치자 양쪽 손목에 묶여 있는 사슬이 찰랑거렸다. 그러자 장무기가 입을 열었다.
"낭자, 그 사슬 때문에 행동이 불편할 테니 내가 끊어 드리겠소."
소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내둘렀다.
"안 돼요! 어르신네께서 아시면 날벼락아 떨어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슬은 그 어떤 보검이기(寶劍利器)로서도 절단시킬 수가 없어요. 열쇠로 열어야만 하는데, 아가씨가 그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장무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곳을 빠져나가는 즉시 그녀에게 말해 사슬을 풀어 주도록 하겠소."
"아마 아가씨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와 보통 교분이 아니니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이오."
그는 곧 바닥에서 긴 창 한 자루를 집어 석문이 닫힌 곳으로 걸어갔다. 잠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석문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원진은 이미 멀리 떠나간 모양이다.
장무기는 곁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소조에게 말했다.
"한 번으로는 폭파시키지 못할 테니 여러 차례 나누어 시도해 봐야겠소."
그는 곧 예리한 창끝으로 석문 밑 부분을 뚫었다. 곧 이어 소조가 화약을 갖고 왔고, 장무기는 그 화약을 석문 아래 패인 부분에 쑤셔넣었다. 이어 옷자락을 찢어 화약가루를 묻혀 도화선을 만들어 석실까지 연결했다. 그들은 계획대로 곧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도화선이 타 들어감에 따라 잠시 후 요란한 굉음이 터지며 한 갈래의 거센 열기가 몰아쳐 왔다. 석실이 무너질 듯 요동하였다. 소조는 놀라 바닥에 바싹 엎드렸다. 장무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몸 위에 엎어졌다. 그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다.

----- 제 4 권 3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4 장 명교(明敎)의 건곤이위신공(乾坤移位神功)

허공에 흩날리는 뿌연 흙먼지가 가라앉자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소조는 얼굴을 약간 붉히며 장무기를 쳐다보았다.

"공자께선 귀하신 몸인데, 왜 저와 같은 천한 계집을 엄호해 주셨죠?"

장무기는 멋적게 웃었다.

"내가 무슨 귀한 몸이겠소? 난 단지 낭자가 연약한 여자이기에....."

그는 말끝을 흐리며 비탈진 석문 앞으로 걸어나갔다. 아직도 주위에 깔려 있는 뿌연 연기를 뚫고 가까이 가보니 석문은 아무런 손상도 없이 마치 위용이라도 과시하듯 멀쩡하게 제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오히려 석문 우측 벽면 모퉁이가 파괴되어 있었다. 장무기는 실망을 했다.

"아마 대여섯 번 폭파해야지만 석문이 뚫릴 것 같소. 그러나 남은 화약으로 두 번밖에 폭파하지 못할 텐데....."

그는 창끝으로 그 파괴된 벽 모퉁이를 쿡쿡 찔러 보았다. 순간 돌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며 석벽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통째로 흔들렸다. 자연히 그 부분에 틈새가 생겼다. 장무기는 지체하지 않고 창끝을 그 틈새로 밀어넣어 쑤셔 보았다. 그러자 돌덩어리가 빠져나와 비탈진 통로를 따라 아랫쪽 석실로 굴러갔다. 돌이 빠진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렸다.

장무기는 놀라움과 기쁨이 엇갈렸다. 그 구멍은 한 사람이 몸을 숙여 기어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화약으로 석문을 폭파시키지 못한 대신 우측 석벽에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구멍을 통해 살펴보니 또 하나의 통로가 앞쪽으로 뻗쳐 있었다. 장무기는 소조로부터 횃불을 건네받아 앞장서 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소조도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이번에 새로 발견한 통로도 나선 모양으로 아랫쪽을 향해 경사져 있었다. 장무기는 왼손에 창을 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원진의 암습에 신법을 곤두세웠다. 약 사, 오십 장 걸어 들어갔을까, 석문 하나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무기는 창과 횃불을 소조에게 맡기고 장력을 끌어올려 석문을 밀었다. 석문이 쉽게 열리며 또 하나의 석실이 나타났다. 이 석실은 매우 넓었다. 석실 천장에는 종유석이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천연적인 동굴임을 알 수 있었다.

장무기는 횃불을 쥐고 조심스레 앞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돌연 바닥에 두 구의 해골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골의 옷은 아직 완전히 삭지 않아 한 쌍의 남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소조는 겁이 나는지 장무기의 등 뒤에 바싹 붙어섰다. 장무기는 횃불을 높이 쳐들어 석실 안을 한 번 살피고 나서 입을 열었다.

"보아하니 여기가 막바지인 것 같소. 혹시 다른 곳으로 연결된 출구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는 창끝으로 석실의 벽면을 고루 두드려 보았다. 한결같이 둔탁한 반응만 들려올 뿐 공간이 있는 부분을 찾아 내지 못했다.

그는 다시 해골이 널부러져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여자 해골은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죽은 것이다. 순간, 장무기는 원진의 말이 뇌리에 떠올랐다.

"앗! 이 두 사람이 바로 양정천 부부란 말인가?"

다시 남자의 해골을 자세히 살펴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옆에 양피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장무기는 양피지를 집어 살펴보았다. 양피지의 앞면은 매끄럽고 뒷면은 털이 있을 뿐 그 외에는 별로 이상한 것이 없었다.

소조는 그 양피지를 건네받아 유심히 만져보더니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다.

"공자, 정말 축하해요. 이것은 명교의 무상심공(無上心功)이에요!"

이렇게 소리치며 자신의 왼손 식지를 깨물어 양피지에다 선혈을 엷게 발랐다. 그러자 놀랍게도 매끄럽기만 했던 일면에 시나브로 글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 명교성화심법(明敎聖火心法), 건곤이위신공(乾坤移位神功) -----

첫줄에 드러난 건 열 두 글자였다.

장무기는 우연한 기회에 명교의 으뜸가는 무공비급을 발견했지만 별로 기쁘지가 않았다.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소조와 나는 머지않아 죽게 될텐데, 제아무리 천하 제일의 무공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두 구의 시체를 살피며 다시 생각을 굴렸다.

'그 원진은 왜 이 건곤이위신공의 비급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그의 말대로 양부인의 뜻하지 않은 죽음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까?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그냥 떠난 것일까? 아니야! 당시 그는 이 양피지가 무공비급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야. 나도 처음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소조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낭자는 이 양피지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소?"

소조는 잠시 우물쭈물 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인 어르신네와 아가씨가 얘기하시는 것을 엿들어서 알았어

요. 그들은 명교의 교도이므로 감히 교칙을 어기고 이 비도로 들어와 양피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무기는 두 구의 해골을 다시 쳐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저들을 묻어 줍시다."

두 사람은 양정천 부부의 유골을 나란히 옮겨 놓았다. 순간, 소조는 양정천의 해골 밑에서 무엇을 주웠다.

"장공자, 여기 서찰이 있어요."

장무기가 받아보니, 겉봉에 부인친전(夫人親展)이란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탓으로 겉봉은 부식되어 네 글자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장무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양부인이 미처 이 서찰을 뜯어 보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양이군....."

그는 서찰을 정중하게 해골 위에 놓아 주었다. 소조가 얼른 입을 열었다.

"서찰을 뜯어 읽어 보세요. 어쩌면 양교주께서 유언을 남겼을지도 모르잖아요."

"남의 서찰을 뜯어 본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오."

"만약 양교주께서 못다 이룬 뜻이 있다면, 공자께서 저의 주인어르신네와 아가씨께 알려 그들로 하여금 양교주의 소원을 성취케 할 수도 있잖아요!"

장무기는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 곧 서찰을 뜯었다. 그 속에 아주 엷은 흰 비단천이 접혀져 있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 부인, 그 동안 여러모로 소홀히 대해 미안하오. 삼십 이대 의교주(衣敎主)의 유명에 따라 건곤이위신공을 완성하여 형제들을 이끌고 파사(波斯:페르시아)로 가서 성화령(聖火令)을 모셔와야 하므로, 한시도 신공 연마에 소홀히 할 수가 없었소. 본교

의 발원지는 비록 파사국이지만 중원(中原)에서 뿌리를 내딛고 열매를 맺은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소. 오늘날 몽고 오랑캐가 우리 강산을 차지했으니, 본교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소. 그러나 파사국 총교(總敎)쪽에서는 몽고를 받들라고 무리한 명령을 내렸소. 이런 상황에서 성화령만 다시 되찾아온다면 우리 명교는 파사국 총교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오. ----

여기까지 읽은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명교의 총단은 파사국에 있군. 이 의교주와 양교주는 총단의 명령대로 원조(元朝)에 투항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한인(漢人) 남아의 진정한 기개가 아니겠는가!'

그는 명교에 대해 한층 더 경위를 느끼며 서찰을 읽어 내려갔다.

----- 나는 신공을 제 사단계까지 터득했지만, 부인과 성곤의 관계를 알게 되어 혈기가 역류하는 것을 자제치 못해 결국 진력이 흩어지는 주화입마의 길로 들어섰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

장무기는 잠시 서찰에서 시선을 떼며 장탄식을 했다.

"이제보니, 양교주는 이 서찰을 쓰기 전에 이미 양부인과 성곤이 비도에서 밀회를 갖는 것을 알았군!"

소조가 궁금해 하는 것을 본 장무기는 양정천 부부와 성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분개했다.

"모든 게 양부인의 잘못이예요. 그녀가 만약 성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했다면 양교주에게 시집을 오지 않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교주에게 시집온 이상은 절대 성곤과 밀회를 해선 안되죠."

장무기는 턱을 끄덕이며 속으로,

'어린 나이에 제법 생각이 깊군.'

하고 생각하며 서찰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 이제 내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소. 의교주의 유명을 달성하지 못한 채 죽으니 본교의 죄인이라 아니 할 수 없구료. 바라건대 이 친필 유서를 갖고 좌우광명사, 사대호교법왕, 오행기사, 오산인을 소집해 나의 유명을 전달해 주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성화령을 되찾는 자를 본교의 삼십 사 대 교주로 내세워 본교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 주시오. -----

장무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양교주께서 나의 의부를 잠정적으로 부교주에 임명했구나. 의부께서는 문무를 겸비했으니 양교주가 그를 부교주로 꼽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 정말 애석한 일이다..... 양부인께서 이 서찰을 보았다면 명교는 그 동안 서로 아웅다웅하며 내분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서찰을 다시 읽었다.

----- 건곤이위신공은 당분간 사손으로 하여금 계승토록 하여 차후 새로운 교주에게 봉환케 하시오. 부디 오랑캐를 축출하고 행선제악(行善除惡)을 보여 명존의 성화가 천하 제인에게 고루 비치도록 새로운 교주께 나의 당부를 전해 주시오. -----

장무기는 내심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양교주의 유명으로 보아 명교의 교리는 실로 광명정대하다. 각 문파가 사사로운 편견을 앞세워 명교를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서찰의 글이 계속 이어졌다.

----- 나는 체내에 남은 공력으로 석문을 밀폐시켜 성곤과 죽음을 함께 할 것이오. 부인은 비도전도(秘道全圖)대로 이곳을 벗어나시오. 당세에 다시는 건곤이위신공을 터득할 자가 없을 테니 이 무망위(無妄位)의 석문을 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오. 후세 본교의 교주가 신공을 완성해 무망위의 석문을 연다면, 나와

성곤의 해골을 묻어 주시오. -----

서찰 맨 끝에는 양정천의 이름이 적혀 있고 비도 전체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각 통로와 출입문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장무기는 크게 기뻐했다.

"양교주는 본디 성곤과 함께 이곳에서 동귀어진할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좀더 버티지 못하고 먼저 숨을 거둔 게 분명하오. 다행하게도 이 비도 전체의 그림이 있으니 우린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소."

그는 그림에서 우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찾아 내 자세히 살펴보더니, 마치 만년빙굴에 떨어진 듯 온몸이 싸늘해졌다. 알고보니, 유일한 출로의 길목이 바로 원진이 바깥쪽에서 봉쇄시킨 그 통로였다. 그러니 비도를 얻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소조가 그를 위로했다.

"장공자, 조급해 할 것 없어요. 어쩌면 다른 출로가 있을 지도 몰라요."

장무기는 쓴웃음을 지었다.

"양교주의 유서에는 만약 건곤이위신공을 터득하면 석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당세에서 양소 선생만이 그 신공을 연마했지만 아직은 경지가 부족해 설령 이곳에 있다 해도 도움이 돼주지 못할 것이오. 게다가 무망위가 어디인지 설명이 없으니....."

"무망위라면 바로 금시화(金時化)의 육십사괘(六十四卦) 방위 중에 하나이니 쉽게 찾아 낼 수 있을 거예요."

말을 끝낸 소조는 석실 안에서 방위를 신중하게 밟으며 서북쪽으로 걸음을 옮겨갔다.

"바로 여기일 거예요."

장무기는 반신반의했다.

"그게 정말이오?"

그는 곧 무기를 쌓아둔 석실로 달려가 큰 도끼 한 자루를 갖고 와 석벽에 바른 흙을 긁어냈다. 과연 그곳에 석문의 흔적이 드러났다. 그는 곧 새로운 생기(生機)가 생겼다.

'난 비록 건곤이위신공을 모르지만, 구양신공의 위력이 그 신공에 못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곧 단전에 진기를 모아 궁보(弓步)를 취한 자세에서 천천히 석문을 밀었다. 그러나 아무리 밀어도 끄떡하지 않았다. 거듭 대여섯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때, 소조는 다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양피지에다 발랐다.

"장공자, 이 건곤이위신공을 연마해 보지 않겠어요.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장무기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내둘렀다.

"명교의 역대 교주들 중에도 평생을 두고 이 신공을 연성한 분이 몇명 되지 않는다는데 내가 어찌....."

"장공자, 이곳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느니 운에 도전해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장무기는 빙긋이 웃으며 양피지를 건네받아 나직이 읊조렸다. 양피지에 적힌 것은 모두 운기행공(運氣行功) 이궁전위(移宮轉位)의 방법이었다. 장무기가 그 방법에 따라 시도해 보니 뜻밖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양피지에 분명 다음과 같은 주석이 적혀 있었다.

----- 이 제 일단계의 심법을 오성(悟性)이 높은 자는 칠 년, 오성이 뒤지는 자는 십 사 년을 연마해야 완성할 수 있다. -----

장무기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대관절 뭐가 어렵기에 칠 년을 연마해야 터득할 수 있다는 거지?'

이어 제 이단계 심법을 읽어 내려가며 그 방법에 따라 시전했

다.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삽시간에 진기가 관통되어 열 손가락에서 차가운 기운이 줄줄이 뻗쳐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 이단계 심법 뒤에도 오성이 높은 자는 칠 년 만에 완성할 수 있고, 오성이 뒤지는 자는 십 사 년을 연마해야 터득할 수 있다는 주석을 달아놓았다. 아울러 이십 일 년을 연마하여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면 절대 제 삼단계를 연마해선 아니 되며, 만약 무리해서 연마할 경우 주화입마되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장무기는 의아해 하는 한편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이어서 세 번째 심법을 읽어나갔다. 양피지의 글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묻히려 했는데 소조가 앞을 다투어 자신의 선혈을 발랐다.

소조는 옆에서 그의 얼굴이 피빛처럼 붉게 변했다가 파르스름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장무기가 제 오단계 심법으로 돌입하자 얼굴색이 바뀌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아울러 안색이 파랗게 변할 때는 몸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뻗쳐나오고, 얼굴이 빨갛게 변할 때는 열기가 발산되며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소조는 보기가 안타까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 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장무기의 이마에 닿는 순간 팔에 심한 충격이 전해져 와 비틀거리며 뒤로 쓰러질 뻔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장무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매로 땀을 닦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제 오단계를 연성한 것이다.

이 건곤이위신공은 간단하게 말해 내력을 가장 적절하게 운용하는 지극히 절묘한 방법에 불과했다. 그 근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는데 있었다. 모든 사람의 체내에 축적돼 있는 잠재력은 엄청난 것이다. 단지 평상시에

는 그 잠재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었다.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닭 한 마리 잡을 힘조차 없는 약한 자가 왕왕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잠재력이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연마한 후 체내에 축적된 진력이 천하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지 고인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뿐이다. 지금 건곤이위신공의 심법을 배우게 되자 체내에 잠재돼 있는 힘이 둑 터진 강물인 양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라서 일반인으로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심법이 연성하기 어렵고 자칫하여 주화입마되는 이유도, 사실은 운공하는 방법이 복잡 미묘한데다가 심법을 연마하는 당사자의 내력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대여섯 살짜리 어린애가 백 근이 넘는 철추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법(錘法)이 오묘할수록 철추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파열될 가능성이 짙었다.

반면, 철추를 휘두르는 자가 대역사(大力士)라면 절묘한 추법을 쉽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애가 이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자면 계획을 느긋하게 잡아야 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당연지사였다.

명교의 역대 교주 중에 내력의 한계가 있으면서도 억지로 연마하려다 원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물론 그들도 전인후과(前因後果)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앞세워 과욕을 부렸던 것이다.

장무기가 제 오단계를 연성하자 전신에 힘이 고루 퍼지며 생각을 굴리는데 따라 그 힘이 자유자재로 제어되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사지백해가 구름 위를 날으듯 개운하며 표연했다. 그는 여세를 몰아 제 육단계 심법을 답파하고 한 시진 후에는 제 칠단계로 접어들었다.

제 칠단계 심법의 오묘함은 육단계보다 월등히 차이나게 깊고 난해했다. 다행하게도 장무기는 의도맥리(醫道脈理)에 통달하여 어려운 관문에 부딪치면 의리(醫理)에 결부시켜 확연히 깨우침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

제 칠단계 중에 절반 이상을 연성했을 때 갑자기 혈기가 용솟음치며 심장이 극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처음부터 다시 연마해 나갔다. 한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첫 단계 신공을 연마한 이래 이러한 현상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 한 귀절을 건너뛰고 다시 연마해 나갔다. 그러자 막힘이 없이 순조로왔다. 하지만 몇 귀절 후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그 뒤로 막히는 부분이 속출했다. 결국 장무기는 모두 열 아홉 귀절을 연성하지 못한 채 제 칠단계를 마무리지었다.

장무기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양피지를 유해 위에 내려놓고 공손히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제자 장무기 우연한 기회에 명교의 신공심법을 읽게 되어 구상지책(求生之策)으로 연마를 했으니, 위경에서 벗어난 후 필히 이 신공으로 귀교를 위해 이바지할 것이며 역대 교주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맹세합니다."

소조도 큰절을 올리고 나서 진지하게 말했다.

"역대 교주시여, 부디 장공자를 굽어살펴 명교의 위명을 다시 빛내게끔 도와주십시요."

장무기는 몸을 일으켰다.

"나는 명교의 교도가 아니며 또한 태사부님의 엄명이 있어 감히 명교에 가입할 수 없지만, 명교의 교리가 광명정대하다는 것을 각 문파에게 설명하여 쌍방의 질분을 종식시키겠소."

소조는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말했다.

"장공자, 아직 열 아홉 귀절을 연성하지 못했으니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마하는 게 어떻겠어요?"

장무기는 빙긋이 웃으며 그녀의 말을 받았다.

"세상만사가 모두 완벽할 순 없는 법이오. 더군다나 나는 명교의 제자가 아니니 열 아홉 귀절을 남겨놓는 것도 예의라 할 수 있을 것이오."

"공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군요."

소조는 양피지를 건네받아 연성하지 못한 열 아홉 귀절을 지적해 달라고 하더니 몇 번 암송해 뇌리에 새겨 두었다.

장무기는 담담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것을 기억해 무엇 하려는 거요?"

소조는 얼굴을 약간 붉혔다.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장공자께서도 연성하지 못한 귀절이니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궁금해서....."

장무기가 열 아홉 귀절을 연성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애당초 건곤이위신공을 만든 사람도 사실은 제 육단계밖에 연성하지 못했으며, 그가 양피지에 수록한 제 칠단계는 자신의 공력으로선 도저히 수련할 수 없는 상상의 경지에 불과했다. 그것이 어쩌면 구양신공의 경지일지도 모른다. 장무기는 그 고인의 이상(理想)을 실현시킨 셈이다. 그가 연성하지 못한 열 아홉 귀절은 그 고인의 상상이 근본적으로 빗나간 것으로서 현실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경지였다. 만약 장무기가 완벽함을 추구하겠다고 고집했다면 마지막 관문에 이르러 주화입마되거나 경맥이 끊이는 불상사를 겪게 되기 십상일 것이다.

소조와 장무기는 주위에 있는 사석(沙石)을 옮겨와 양정천 부부의 유해를 덮어 주었다. 장무기는 곧 석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번에 그는 석문에 오른손만 붙인 채 방금 터득한 건곤이위신공의 심법에 따라 운공하며 힘을 주자 석문이 삐걱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이어 힘을 한 단계 높이자 석문이 천천히 열렸다.

알고보니 이 석문은 천연적인 대암석으로서 암석 아래 부분에

철구(鐵球)모양의 문추(門樞)를 박아놓았다.
 장무기는 왕년에 명교가 이 성역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을 동원했으며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쳐 심혈을 기울였는지 능히 상상을 할 수 있었다. 그는 통로망이 그려진 비도(秘圖)가 있으므로 쉽게 산동(山洞)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일단 바깥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햇살을 받은 소조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와 전에 위장했던 추한 몰골과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장무기는 한 순간 그녀의 빼어난 용모와 자태에 넋을 잃었다.
 "이젠 그 추한 모습으로 위장하지 않도록 하시오. 지금의 낭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소."
 소조는 얼굴을 붉혔다.
 "그게 정말이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소조의 입가에 천진무구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아요. 공자의 분부이시니 제가 어찌 거역하겠어요. 설령 아가씨가 저를 죽인다 해도 다시는 추한 꼴로 위장하지 않겠어요."
 장무기는 새삼스레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피부색이 유난히 하얀데다가 콧날이 일반 여인들보다 높고 눈동자도 바다의 내음이 풍기듯 파란색을 띠고 있었다.
 "낭자는 혹시 서역의 사람이 아니오? 우리 중원 여인에게선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구료."
 소조는 그의 말에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저는 중원의 낭자와 생김새가 똑같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들은 곧 주위의 지세를 살폈다. 장무기는 건곤일기대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므로 지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자 소조가 서북 방향을 향해 소리쳤다.
 "주인 어르신네와 명교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바로 저쪽이

예요!"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조의 손을 잡고 산길을 따라 질주했다. 지금 그의 체내의 구양진기는 마음먹는대로 유전(流轉)되며 건곤이위신공을 제 칠단계까지 터득했으므로, 비록 소조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신법이 비호철검 민첩했다. 그런데 도중에서 그들은 수십 구의 시체를 발견했다. 육대문파의 제자들과 명교 교도들의 시체였다. 육대문파가 이미 광명정까지 진격해 온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양소 등의 안위가 염려되어 신법을 최고 경지로 전개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병기가 부딪치는 요란한 금속성이 들려왔다. 장무기는 지체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순간, 그의 등 뒤에서는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냉랭한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멈추어라!"

장무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리며 뒤쪽을 향해 손을 살짝 떨쳐냈다. 그러자 그의 등을 겨냥해 날아오는 두 개의 강표(鋼標)가 즉시 거꾸로 날아가며 뾰족한 비명소리가 뒤따랐다.

장무기는 흠칫하여 고개를 돌려보니 회의승인 한 사람이 땅에 스러져 있고, 오른쪽 어깨에 두 개의 강표가 꽂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장무기는 생명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신법을 전개했다.

곧이어 장무기와 소조는 금속성이 들려오는 높은 담장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대청 두 군데를 뚫고 나가자 눈앞에 넓은 광장이 펼쳐졌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서쪽에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수적으로 적었고, 대부분이 선혈이 낭자해 땅에 주저앉거나 누워 있었는데 바로 명교의 교도들이었다.

그들 맞은편 동쪽에 포진하고 있는 인원수는 어림잡아도 명교 교도에 비해 두, 세 배가 더 많았다. 그들은 여섯 무리를 이루고 있어 육대문파가 모두 당도했다는 걸 짐작케 했다. 이들은 반원을 형성해 명교 교도들을 포위한 상황이었다.

장무기가 자세히 살펴보니 양소, 위일소, 팽화상, 설불득 등도 모두 명교 쪽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행동이 불편한 것 같았다. 양불회는 바로 부친 곁에 앉아 있었다. 지금 광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 있어 모두 그곳에 신경이 집중돼, 장무기와 소조가 불쑥 나타난 것을 아무도 유의하지 않았다.

장무기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은 모두 적수공권이었다. 날카로운 장풍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수 장 가량 비껴나가니 그 위력이 대단했다. 두 사람 모두 절정고수였다.

그들의 용모를 확인한 장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몸집이 왜소하고 몸집이 차돌처럼 단단하게 생긴 중년인은 바로 무당칠협 중에 네째인 장송계가 아닌가! 그의 적수는 허우대가 우람한 노인으로서 대머리가 훌렁 벗겨지고 긴 눈썹이 백설같이 희고 매부리코에 입은 독수리처럼 뾰족했다. 장무기는 내심 궁금했다.

'명교에 저런 고수도 있다니 대관절 누구일까?'

이때 화산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냉랭하게 외쳤다.

"백미응왕, 어서 패배를 시인하시오! 당신이 어찌 무당 장사협의 적수가 될 수 있겠소?"

장무기는 백미응왕이란 네 글자에 격동을 금치 못했다.

'앗.....! 그가 바로 나의..... 외조부이신 백미응왕이란 말인가?'

그는 당장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싶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져 장송계와 은천정의 머리 위에서 모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제각기 평생 동안

쌓은 내력과 진기를 전개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한 순간, 그들의 날렵하게 움직여지던 동작이 멎어지며 서로 쌍장을 맞붙였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내력(內力)의 대결로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곧 승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명교와 육대문파는 모두 숨을 죽였다. 내력을 겨루고 있는 당사자들도 돌부처처럼 굳어졌다.

은천정의 눈에서는 형형한 신광이 발해졌다. 장송계는 무당심법 중에 이정극동(以靜克動)의 원칙을 고수한 채 역시 정면으로 은천정의 눈을 주시했다. 그러는 사이에 쌍방은 진력을 최대한으로 뻗어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사투를 계속했다. 만약 어느 한쪽의 진력이 달리면 즉시 승패가 판가름나는 동시 패하는 쪽은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짙었다.

장무기는 안타까왔다. 한쪽은 외조부고 자신의 혈육이며 한쪽은 자기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던 부친의 사형이 아닌가!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앞으로 달려나가 두 사람을 뜯어 말리려는데 때맞추어 은천정과 장송계가 동시에 기합을 내지르며 제각기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났다.

장송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 노선배님의 탁월한 신공에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은천정은 우렁찬 음성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장대협의 내가진력(內家眞力)이야말로 초범입성(超凡入聖)할 경지에 도달해 있으니, 노부로선 도저히 감당해 낼 자신이 없소이다. 귀하는 노부의 사위와 동문이거늘 오늘 꼭 승부를 가려야 되겠소?"

장송계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후배는 조금 전에 한 발짝 더 물러났으니 솔직히 패배를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는 몸을 숙여 읍을 하더니 태연히 뒤로 물러났다.

그 즉시 무당파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다.

"은교주, 당신이 나의 장오협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소이다. 나의 유삼협과 장오협은 모두 천응교로 인해 살상되었으니, 나 막성곡이 그들을 대신하여 한 수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한 자루의 장검을 뽑았다. 햇살에 반사된 검광이 뿌려지는 가운데 그는 만악조종(萬嶽朝宗)의 자세를 취했다. 이것은 무당 제자가 윗사람과 겨룰 때 취하는 기수식(起手式)이었다.

막성곡은 비록 울화가 끓어올랐지만 상대방이 무림에서 상당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인물임을 감안해 예의를 잃지 않았다. 은천정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노부는 딸애가 죽은 후로부터 검을 사용하지 않았소. 그러나 빈손으로 무당대협을 상대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니....."

그는 말끝을 흐리며 한쪽에 서 있는 교도에게 말했다.

"너의 철봉(鐵棒)을 잠시 빌려야겠다."

명교의 교도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철봉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었다. 은천정은 철봉을 받는 즉시 두 동강이로 부러뜨렸다. 반 토막의 철봉으로 막성곡의 장검을 맞이하겠다는 뜻이었다.

막성곡은 그가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먼저 장검을 떨쳐 백조조봉(白鳥朝鳳)의 초식을 펼쳤다. 일순, 검끝이 파르르 떨리며 허공에 검화(劍花)를 떨쳐내는 가운데 상대방의 복부를 노려갔다. 이 초식은 비록 날카롭지만 역시 예의를 갖춘 검법이었다.

은천정은 부러진 철봉으로 막으며 힘주어 말했다.

"막칠협, 겸허할 필요는 없소."

이번에는 그가 부러진 철봉으로 비스듬히 공격을 펼쳐냈다.

삽시간에 쌍방은 십여 초식을 겨루었다. 주위에서 관전하고 있

는 사람들은 모두 눈이 어찔어찔 했다. 막성곡의 검은 살아 있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영활하기 이를데 없었다. 게다가 검광이 종횡으로 절도있게 허공을 수놓으며 일초일식마다 명문의 기상이 서려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은천정의 뭉뚝한 철봉은 느릿하고 둔해 보였다. 그는 마치 선무당이 굿거리를 하듯 철봉을 동쪽으로 떨쳤다가 서쪽으로 내리치며 엉성해 보였다. 그러나 식견이 넓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허중유실(虛中有實)이라 일컬어지는 무학의 높은 경지임을 알고 있었다.

다시 십여 회합이 지나자 막성곡의 검초는 더욱 빨라졌다. 곤륜, 아미 등 검법을 위주로 하는 문파의 제자들도 막성곡이 펼치고 있는 변화무쌍한 검법에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무당 검법은 과연 명불허전이군.....'

그러나 막성곡이 아무리 위력있는 검법을 구사해도 은천정이 펼친 수비망을 뚫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막성곡이었다.

'은천정은 이미 화산, 소림의 고수 세 명을 연파한데다가 사사형과 내력을 겨루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내가 그를 꺾지 못한다면 사문의 체면을 손상시킬 게 분명하다.....'

그는 갑자기 맑은 기합을 토하며 검법을 변화시켰다. 순간, 그의 장검이 부드러운 띠로 변한 듯 유연하게 좌우로 휘어지며 검끝이 어느 부위를 노리는지 허허실실을 종잡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무당의 독특한 검법인 요지유검(繞指柔劍)이었다. 이 검법은 모두 칠십 이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막성곡이 십 이 초식을 전개했을 때 은천정은 더 이상 수세만 취할 수 없었는지 몸놀림이 빨라졌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긴장되어 갔다.

돌연, 막성곡의 장검이 허공을 꿰뚫고 은천정의 가슴을 노리며

뻗쳐나가다가 도중에서 검끝이 파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옆으로 휘어져 오른쪽 어깨로 표적을 바꾸었다. 뜻밖의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의 웅후한 내력을 이용해 도중에서 검을 휘게 만들어 표적을 엉뚱한 부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요지유검의 특색이었다.

중인의 입에서 짤막한 외침이 내뱉어졌다.

"앗!"

그와 때를 같이하여 뭉뚝한 철봉이 은천정의 손에서 벗어나더니, 그의 오른쪽이 마치 별안간 반 자 가량 늘어난 듯 막성곡의 손목을 스치며 그의 장검을 빼앗아왔다. 동시에 왼손으로 이미 그의 견정혈을 눌렀다.

주위에 있는 군호들은 그가 어떠한 수법을 전개했는지 자세히 본 사람이 없었다.

금나수법(擒拿手法)!

백미응왕 은천정의 금나수법은 백여 년 이래 무림일절(武林一絶)로 공인돼 왔으며 당세에 그 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막성곡의 견정혈이 상대방 손아귀에 포착됐으니 은천정이 진력을 뻗어내기만 하면 영락없이 어깨뼈가 으스러져 평생 불구가 될 것이다. 무당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앞으로 뛰쳐나가 그를 돕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은천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어찌 또 하나의 한(限)을 남기겠는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막성곡의 견정혈에 얹힌 손을 풀었다. 그의 왼팔에서는 선혈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그는 손에 쥐어져 있는 장검을 응시하며 다시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노부는 평생 누구에게도 초식을 겨루어 패한 적이 없는데 과연 장삼봉이군! 과연 장진인은 대단해!"

그는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장삼봉이 창출한 요지유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막성곡은 넋빠진 사람마냥 잠시 제자리에 굳어져 있었다. 자기는 비록 먼저 한 초식을 이겼지만 상대방이 마음먹기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됐을 것이다.
"선배님이 자비를 베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천정은 아무 말 없이 장검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막성곡은 자신의 검법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검을 빼앗기자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 검을 받지 않고 물러났다.
장무기는 옷자락을 찢어 앞으로 달려가 외조부의 상처난 팔을 동여매 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무당파 쪽에서 한 사람이 나섰다. 검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무당 칠협의 맏이인 송원교였다.
"제가 선배님의 상처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약을 꺼내 상처에 발라 주고 손수건으로 동여매 주었다. 천응교와 명교의 교도들은 송원교가 절대 공공연히 암수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은천정은 그에게 정중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장무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내심 기뻐했다.
'송사백님은 나의 외조부께서 막칠숙을 살상하지 않은데 대한 보답을 하는 거다. 쌍방이 영원히 저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뜻밖에도 송원교는 상처를 치료해 주고 나서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은 선배님, 무당과 천응교는 원한이 얽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천응교가 불리한 상황하에서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육대 문파는 이번에 명교를 겨냥해 온 것이니 만큼 이미 명교에서 탈퇴한 천응교는 이쯤에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천응교와 정면대결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은천정은 그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다. 양소, 위일소 등 명교의 고수들이 모두 부상을 입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 자기가 물러난다면 그들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은천정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송대협의 호의는 고맙소. 그러나 노부는 비록 스스로 문파를 세웠지만 명교 사대호교법왕 중에 한 사람임이 분명한데, 어찌 이번 일을 수수방관할 수 있겠소?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서슴치 말고 출수를 하시구료."

이렇게 말하며 쌍장을 가슴 앞에 모았다.

송원교는 그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좋습니다. 이 후배는 선배님의 무학이 고심막측하다는 것을 스승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은 이미 여러 사람을 상대하여 진력이 많이 소비된 상태이니, 공평을 기하기 위해 진력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초식만으로 한 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한쪽 발을 걷어차냈다. 물론 이것은 허초(虛招)였다. 쌍방의 간격이 일 장 남짓 벌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송원교의 이 퇴법(腿法)은 실로 절묘하여 만약 쌍방의 간격이 가까운 상태였다면 은천정이 막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퇴법이오!"

은천정은 찬사를 내뱉으며 주먹을 교차시켜 쭉 밀어내는 동시 좌우로 갈랐다. 수비와 공격을 겸한 동작이었다. 송원교는 살짝 옆으로 미끄러지며 일장을 반격했다.

삽시간에 두 사람은 권(拳), 장(掌), 각(脚), 퇴(腿)를 민첩하게 움직이며 물샐 틈 없는 공방전을 펼쳐나갔다. 물론 시종일관 일 장 남짓한 거리를 유지한 채였다. 하지만 그들은 눈곱만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한 초식의 실수를 저지르면 패배를 시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관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았다. 장무기 역시 이들이 전개하는 일초일식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두 사람의 출초는 갈수록 빨라졌다. 잠시 지켜보던 장무기는 내심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외조부와 대사백은 모두 무림의 일류 고수들인데 어째 초식에 저렇게 많은 헛점이 있는 것일까? 외조부께서 방금 전개한 일 장이 만약 조금만 왼쪽으로 기울였다면 틀림없이 대사백의 가슴을 적중시켰을 게 아닌가? 그리고 대사백이 조금만 늦게 금나수법을 썼다면 외조부의 왼쪽 손목을 나꿔잡았을 게 분명한데..... 두 분이 서로 양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앞서 은천정과 장송계, 막성곡이 대결을 벌였을 때는 단지 어느 한쪽이 다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장무기는 그들의 초식을 관찰할 심적인 여유가 없었다. 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쪽도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 유심히 살펴본 결과 납득이 가지 않는 헛점이 많이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 눈에는 헛점이 보일 리 만무했다. 단지 장무기는 건곤이위신공을 제 칠단계까지 터득하여 무학상의 경지가 그들보다 한 수 높기 때문에 헛점이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수가 높은 자가 하수끼리 장기를 두는 것을 지켜보면 헛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홀연, 송원교의 초식이 일변되며 쌍장을 허공에다 연속 휘저었다. 언뜻 보아 무희(舞姬)가 장삼자락을 떨치며 비무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무당파의 정통무학인 면장(綿掌)이었다.
은천정은 거기에 맞추어 광풍노도와도 같은 기세로 장풍을 밀어냈다. 두 사람은 극유(極柔)와 극강(極剛)의 서로 상반되는 절예를 펼치고 있는 것이었다.

곧이어 송원교가 좌장을 밀어내는가 싶더니 한 호흡 늦게 출수한 우장이 좌장을 앞질러 뻗어나갔다. 그와 동시에 좌장이 변화를 일으켜 아래로 긁어내리는 듯하면서 잉어가 수면으로 솟구치는 양 불현듯 위로 튕겨져 올랐다.

은천정은 자신의 상반신과 복부, 하반신이 모두 상대방의 공격권 안에 노출되는 것을 느끼며 대갈일성과 함께 잽싸게 오른쪽 무릎을 세웠다가 앞으로 반 보 내디뎌 기마자세를 취하고, 쌍장을 복부와 가슴의 수평기준으로 쭉 뻗어냈다. 그리고 그 자세에서 돌부처처럼 굳어졌다.

송원교도 마찬가지였다. 쌍방이 모두 망아지경에서 초식을 펼쳐나가다 보니 무의식중에 정면으로 내력을 겨루는 자세가 된 것이다. 서로 일 장 남짓 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자세는 무위한 것이었다.

송원교는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띄우며 뒤로 가볍게 몸을 솟구쳤다.

"선배님의 심오한 무학에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은천정도 자세를 거두었다.

"무당권법은 과연 명불허전임을 깨달았소."

두 사람은 애당초 내력을 겨루지 않기로 약조했으므로 이것으로 대국을 마무리지었다.

무당파 쪽에선 아직 유연주와 은이정이 출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천정이 안색이 불그스름하게 상기된 채, 비록 내력을 겨루지 않았지만 체력이 많이 소비되어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설 수 없었다. 그들 중에 누가 나서더라도 즉시 은천정을 쓰러뜨려 백미응왕을 격패시켰다는 영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 유연주와 은이정은 서로 마주 보며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내둘렀다. 그들은 역시 성인군자다운 풍도를 잃지 않았다.

한데, 엉뚱한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공동파의 체구가 왜소한 노인이었다. 그는 몸을 날려 사뿐히 은천정 앞에 내려서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이 당문량(唐文亮)이 한 수 놀아볼까 하는데, 응해 줄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구료?"
은천정은 그를 힐끗 쳐다보며 냉소를 날렸다.
"평상시라면 공동오로 따위는 감히 내 앞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할 텐데, 호랑이가 덫에 걸리면 들개한데 업신여김을 당한다더니..... 내가 바로 그런 꼴이군..... 그러나 어림없을 것이다!"
그는 내심 괘씸하게 생각하며 흰 눈썹을 치켜세우며 싸늘하게 외쳤다.
"고약한 놈, 어서 공격해라!"
당문량은 은천정의 내력이 이미 고갈 상태에 이르러 몇 초식만 겨루면 스스로 쓰러질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는 행여나 은천정이 말을 번복할세랴 쌍장을 교차시키며 냅다 선제공격을 취했다. 은천정은 간신히 그의 일초를 피하자 당문량은 그에게 숨 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원숭이가 오도방정을 떨 듯 줄기차게 공격을 퍼부었다. 약 십여 초식을 피한 은천정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며 비릿한 기운이 목줄기로 뻗쳐 올라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하고 비칠비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당문량은 뛸 듯이 기뻐했다.
"은천정, 결국 넌 내 손에 죽게 됐구나."
그는 즉시 몸을 솟구쳐 독수리가 모이를 덮치듯 은천정의 정수리를 향해 쌍장을 떨쳐냈다. 이 순간 장무기는 즉시 몸을 날려 외조부를 구하려 했다. 한데 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은천정이 비스듬히 누우며 해를 가리키듯 절묘한 자세로 쌍장을 받아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누군가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져나왔다.
"응조금나수(鷹鳥擒拿手)!"
급속도로 덮쳐내리는 당문량이 신법의 변화를 구사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다음 순간 -----
으드득!
당문량의 두 팔이 응조금나수법에 의해 부러졌다. 이어 다시 으드득 소리가 들리며 그의 양쪽 다리뼈마저 으스러졌다. 그리고 그의 몸은 다섯 자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사지가 부러진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은천정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러한 위력을 발휘하자 모두 아연실색했다.
공동오로 중에 세째인 당문량이 이런 꼴을 당했으니 공동파에서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과연 공동오로 중에 둘째인 종유협(宗維俠)이 싸늘하게 기합을 지르며 다짜고짜 은천정에게 덮쳐갔다. 은천정은 이미 풍전등화와 마찬가지이므로 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일보직전에 놓였다.
바로 이때였다.
"잠깐만!"
장무기가 전광석화같이 몸을 날려 종유협의 앞을 가로막았다.
"반항할 힘을 잃은 자에게 살수를 전개하다니! 천하영웅들의 비웃음을 살 게 두렵지도 않소이까?"
그의 호통소리는 거종(巨種)처럼 주위에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군호들은 모두 멍해지며 그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편, 종유협은 거렁뱅이 같은 녀석이 난데없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자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손을 뻗어 그를 밀어내려 했다. 장무기는 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본능적으로 왼손을 떨쳐냈다.
순간, 한 갈래의 무지막지한 힘줄기가 그의 손에서 격출되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종유협의 가슴에 닿았다. 그 즉시 종유협은 쪼르르 뒤로 석 자 가량 미끄러져 나갔다. 그래도 몸을 고정시킬 수 없어 황급히 발끝으로 살짝 땅을 찍으며 뒤로 일 장 가량 솟구쳤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순간 여력이 아직도 살아 있어 다시 비틀비틀 뒤로 대여섯 걸음이나 밀려나 겨우 몸을 고정시켰다. 그는 마치 귀신에 홀린 느낌이었다. 뒤에서 이 광경을 비켜본 사람들도 어리둥절했다.

'종유협이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을 보이는 거지? 뒤로 물러났다가 몸을 솟구치더니 다시 물러나니 뭘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군.....'

사실 어리둥절한 것은 장무기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가볍게 전개한 일 장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종유협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오며 장무기에게 삿대질을 했다.

"이놈아, 넌 누구냐?"

장무기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증아우라고 하오!"

이렇게 말하며 한쪽 손을 은천정의 등심 영대혈에 붙여 내력을 주입시켰다. 그의 구양진기는 웅후하기 이를데 없어 은천정은 몸을 몇 차례 움찔하더니 곧 눈을 뜨고는 망연한 표정으로 장무기를 쳐다보았다.

장무기는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며 계속 내력을 주입시켰다.

삽시간에 은천정의 가슴 부위와 단전에 진기가 막혔던 곳이 후련하게 뚫렸다. 그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젊은이 고맙네."

그는 곧 몸을 일으켜 종유협에게 분연히 외쳤다.

"종가야, 공동파의 칠상권(七傷拳) 따위는 내 안중에도 없다.

기꺼이 너의 공격을 받아주마!"

장무기는 칠상권이란 세 글자를 통해, 빙화도에서 그날 밤 의부가 자기를 깨워 칠상권으로 공견신승을 죽인 얘기를 들려 준 생각이 퍼뜩 뇌리에 떠올랐다.

이때 은천정은 종유협의 대답도 듣지 않고 소림의 공지대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공지대사, 나 은천정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설마 우리의 약조를 저버리진 않겠죠?"

공지대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그러나 우리가 총공격을 전개할 시각이 곧 눈앞에 닥쳐올 것이오."

알고 보니 -----

은천정이 광명정에 나타났을 때 양소 등이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상황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간파해, 미리 선수를 쳐서 공지대사에게 혼전을 피하게끔 다짐을 받아놓았다. 공지대사는 무림의 법규에 따라 각개투(各個鬪)로 승부를 결정짓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천응교의 각당과 각단, 명교의 오행기, 그리고 광명정에 상주했던 양소의 부하 -- 천(天), 뢰(雷), 풍(風), 지(地), 사문(四門)의 고수들은 줄줄이 부상을 입거나 죽음을 당했다. 맨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바로 은천정이었다. 만약 그마저 패배를 인정한다면 육대문파쪽에선 즉각 총공세를 취할 것이다.

장무기는 외조부의 진력이 비록 다소 회복되었지만 무리하게 진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므로 얼른 종유협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은 노선배님과 겨룰 자격이 없으니 정녕 꼭 겨루어야겠다면 우선 나를 꺾어 보시오!"

종유협이 대노하여 호통을 쳤다.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냐? 네놈은 아직 공동파의 칠상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오늘 원진의 음모를 밝혀야지만 쌍방의 싸움을 말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면대결을 벌어진다면 나 혼자서 무슨 수로 육대문파의 이렇게 많은 고수들을 당해 내겠는가! 더군다나 무당파의 백부님과 숙부님도 이곳에 계신데 어찌 그들과 적대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곧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공동의 칠상권이 무섭다는 것은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소. 소림의 공견신승께서도 바로 귀파의 칠상권에 목숨을 잃지 않았소이까?"

그가 이러한 말을 내뱉자 소림파에서 몇몇이 웅성거렸다. 왕년에 공견대사가 낙양에서 변을 당했을 때 겉엔 아무런 상흔이 없었는데, 시신의 골격이 무수히 파열돼 있었던 것이 바로 공동파의 칠상권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문, 공지, 공성은 며칠간 이 문제를 놓고 비밀리에 협의를 하였었다. 그들이 알기로 공동파엔 금강불괴지신을 연성한 공견사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한 고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견의 치명적인 상세를 보아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이 칠상권이었으므로, 암암리에 제자들을 시켜 알아본 결과, 공견대사가 낙양에서 변을 당하던 날 공동으로 가 모두 서남지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오로를 제외한다면 공동파에선 더욱 공견사형의 적수가 될 만한 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공동파에 대해 품었던 의심이 시나브로 사라졌다. 게다가 당시 낙양 살겁 현장에 성곤이 공견신승을 죽였노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파고들어 결국 사손의 소행이라 판정짓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장무기의 입에서 그 일이 다시 거론되자 소림들은 모두 섬뜩한 느낌이 든 것이다.

종유협이 다시 성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공견대사가 사손 악적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공동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장무기는 당당하게 따지고 들었다.

"사 선배님이 공견신승을 죽이는 것을 직접 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런 발칙한 놈! 그 당시 우리 공동오로는 운남(雲南) 점창파(点蒼派) 유대협의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광경을 볼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점이 중요하외다. 당시 운남에 있었다면 사 선배님이 공견신승을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게 분명하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소. 공견신승께선 공동파 칠상권에 목숨을 잃었소. 사 선배님은 공동파의 제자가 아니거늘 어째서 그 분께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구료!"

"이런....."

종유협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장무기는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뒤쪽에 서 있는 공지대사에게 시선을 주었다.

"공지대사, 영서형이신 공견신승이 공동파의 칠상권에 의해 살해당한 게 분명하죠? 그리고 금모사왕 사 선배님이 공동파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죠?"

공지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붉은 가사를 걸친 우람한 체구의 승인이 앞으로 뛰쳐나와 금광이 번뜩이는 선장을 쥔 채 우악스럽게 소리쳤다.

"이놈! 너는 어느 문파의 제자인데 감히 나의 스승님께 그 따위 방자한 말을 뇌까리느냐?"

장무기는 이 승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소림의 원음 화상이었다. 왕년에 무당산에서 한사코 장취산이 소림제자를 살해했다고 고집스럽게 증언한 장본인이었다.

그를 보는 순간 장무기는 왠지 모르게 분노가 끓어올랐으나 꾹 참았다.

"귀파에 원진대사가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오. 그에게 직접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소!"

원음은 멍해졌다.

"원진사형이라고? 네가 원진사형께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냐? 어서 비켜서지 못하겠냐? 넌 대관절 누구의 제자이냐?"

그는 우선 이 소년의 내력부터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장무기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나는 명교의 사람도 아니고 또한 중원 어느 문파의 제자도 아니외다. 이번에 육대문파가 명교를 협공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한 간교한 자의 계획적인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오. 나는 비록 보잘 것없는 존재지만 그 우여곡절을 잘 알고 있으므로 쌍방이 일단 싸움을 중단하기를 청하는 바이오. 우선 진상을 조사한 연후에 옳고 그른 점을 가려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바이오."

그의 말이 끝나자 도처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소롭다는 것이었다.

"이런 교활한 녀석, 원진사형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따위 허무맹랑한 잠꼬대를 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저승으로 간 무당의 장취산을 불러내 대질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가 비꼬는 말에 화산, 곤륜, 공동파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재미있다는 듯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단지 무당파만이 모두 분연한 표정으로 변했다.

원음은 서호에서 은소소에 의해 한 쪽 눈이 실명된 것이 아직도 장취산의 소행이라 생각하며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가 망부를 모독하는 언사를 발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장오협의 성함을 감히 멋대로 들먹거리다니..... 이.....!"
원음은 냉소를 날렸다.
"장취산은 스스로 타락하여 마교 요녀의 유혹에 빠져 결국 그 댓가를 받게 된 것이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무기는 몸을 번뜩여 이미 그의 허리춤을 잡아 번쩍 들어올리는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선장을 빼앗았다. 원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조차 모른 채 꼼짝없이 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 소림 승려 중에 두 사람이 동시에 뛰쳐나와 선장으로 장무기의 좌우를 협공해 왔다. 그들은 바로 원심과 원업이었다. 장무기는 왼손으로 원음을 나꿔잡고 오른손에 선장을 쥔 채 즉시 솟구쳐올라 두 발로 원심과 원업 수중의 선장을 걷어찼다.
"윽!"
"음.....!"
신음소리가 들리며 원심과 원업은 동시에 벌렁 나자빠졌다.
군호들의 놀란 외침이 터지는 가운데 장무기는 여전히 원음의 육중한 몸과 선장을 든 채 절묘한 자세로 사뿐히 땅에 내려왔다.
그 순간 육대문파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무당의 제운종(梯雲縱) 신법이다!"
장무기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과 태사부님, 여러 사백, 사숙을 따라 무당무학의 기초가 되는 설흔 두 가지 자세의 무당장권(武當掌拳)을 정식으로 배운 게 고작이지만, 듣고 보고 한 무당무학은 굉장히 많았다. 지금 건곤이위신공을 터득하자 어느 문파의 무공이든 쉽게 자신의 무공으로 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시적 가장 많이 보아온 제운종의 신법을 구사한 것이다.

이제 소림파 쪽에서 감히 선불리 나설 자가 없었다. 원음은 이미 혈도가 찍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장무기가 선장을 떨치면 즉시 내장이 파열돼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젠 공지와 공성을 비롯해 아무도 이 남루한 차림의 소년을 무시하는 자가 없었다.

장무기는 당장 원음을 때려죽여야 화가 풀릴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다.

'만약 내가 육대문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죽인다면 즉시 육대문파와 적대시하게 될 테니, 중간에서 화해를 주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원음의 혈도를 풀고 놓아주었다.

"원음대사, 당신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장오협이 아니니 더 이상 그에게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소. 더군다나 장오협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설령 어떠한 원한이 있다 해도 화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소? 대사는 속세를 떠난 불자로써 무욕무념을 추구해야 할 입장이거늘, 어찌 지난 일에 대해 그다지도 오매불망하는지 모르겠구료."

원음은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목숨을 새로 건진 느낌이었다. 그는 멍하니 장무기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무기가 선장을 건네주자 자석에 이끌리듯 손을 내밀어 받더니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다. 돌이켜 생각하면 자신이 그 동안 장취산에게 계속 원한을 품어온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다.

한편, 소림의 고승과 무당의 송원교 등은 장무기의 말을 듣자 모두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 제 4 권 4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5 장 구양신공(九陽神功)의 위력

종유협은 장무기가 원음을 가볍게 제압하는 걸 보자 몹시 경악했다. 그러나 자신도 장내에 있는 입장이라 어찌 이대로 호락호락 물러설 수가 있겠는가. 순간 큰 소리로 외쳤다.

"증가야,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나서는 것이냐?"

"난 오로지 육대문파가 명교와 화해하기를 바랄 뿐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소."

"흥, 우리보고 마교와 손을 잡고 화해를 바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은(殷)가란 도둑놈들은 나에게 칠상권의 삼기를 빚진게 있어 우선 내가 혼내 줘야 하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종유협은 말이 끝나자마자 소매자락을 걷어부쳤다.

"종 선배님은 자꾸만 칠상권, 칠상권 하시는데 후배가 보기에는 종 선배님의 칠상권은 아직 극치에 도달하도록 수련하지 못한 것 같소. 모든 사람의 몸에는 음양의 이기(二氣)와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행(五行)이 있소. 즉 심장은 화(火), 폐는 금(金), 신장은 수(水), 비장은 토(土), 간장은 목(木)에 속하오. 칠상권을 수련하면 이 일곱군데의 내장이 그만큼 상하게 되오니, 따지고 보면 먼저 자신이 상해야만 적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오. 그래도 다행히 종 선배님은 이 권법을 수련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구할 수 있는 약이 있소."

종유협은 장무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가 틀림없는 <칠상권보>의 총강(總綱)이었다. 권보에 경계하길, 만약에 내공이 기주저혈 수발자여(氣走渚穴收發自如)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수련했을 때는 절대로 이 권술을 수련치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칠상권은 공동파의 진상절기였다. 종유협은 내공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자 즉시 시련(試鍊)해 보였다. 막상 수련해 보자 권술의 무공무진한 위력에 도치해 버린 것이다. 그 땐 자신도 이미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권보총강의 말을 벌써 잊어 버렸던 것이다. 더구나 공동오로들도 수련하였고, 자신의 위치는 오로의 다음인데 어찌 남에게 뒤지겠는가. 지금 막상 장무기가 말을 꺼내자 그제서야 놀라워하며 물어 보았다.

"네가 어떻게 또 알게 됐느냐?"

"종 선배님의 어깨에 있는 운문혈을 눌러보면 경미한 통증을 느끼지 않소? 운문혈은 폐에 속하니 이는 폐맥을 상한 것이오. 당신의 상비(上臂)에 있는 청영혈은 자주 마비되고 가려워서 참지 못할 때도 있죠? 청영혈은 심장에 속하니 이는 심맥을 상한 것이오. 당신 다리에 있는 오리혈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쑤시고 아프지요? 오리혈은 간에 속하니 그건 간맥을 상한 것이오. 당신은 수련해 갈수록 이런 증세들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다시 팔, 구 년을 수련하게 되면 온몸을 가누지 못할 것이오."

종유협은 장무기의 말을 열심히 듣고 나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솟아났다.

본시 장무기는 사손에게 전수받아서 칠상권의 권리(拳理)를 통달하였다. 더구나 그는 의술을 깊이 연구하였기에 경맥 손상 후의 증세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다. 종유협의 몸에는 몇 년 새 확실히 그런 증세가 있었으나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지금 장무기에게 하나 하나 지적되자 그만 얼굴색이 변하고 한참 후에야 말을 했다.

"네..... 네가 어찌 알았느냐?"

장무기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후배는 의술을 약간 아는 바가 있소. 선배님이 만약 믿어 주신다면 여기의 일이 수습되고 나서 당신 몸에 있는 증세를 몰아내주겠소. 하지만 칠상권은 유해무익이라 다시는 수련해서는 아니

되오."

"칠상권은 우리 공동의 절기인데 어찌 유해무익이라 하느냐? 왕년에 우리 장문 사조이신 목령자(木靈子)께서 칠상권으로 천하에 명성을 떨치시며 구십 일 세까지 사셨는데 어찌 자신의 몸을 상한다고 하느냐? 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목령자 선배님께서는 필시 내공이 심후했을 것이오. 그러기 때문에 수련을 하셔도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부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후배가 보기에는 종 선배님의 내공이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하고 억지로 수련을 고집하면 아마 나중에는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오."

종유협은 공동의 명숙(名宿)이다. 비록 그가 말을 한 게 일리가 있다 해도, 각파의 고수들 앞에서 이 소년에게 지적받아 공동파의 진산절기가 쓸모없다 하니 어찌 화가 치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소리로 호통치며 말했다.

"네가 뭔데 우리 공동파의 절기를 쓸모있다 없다 노하느냐? 네가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한 번 시험해 보자."

"칠상권은 본시 신묘정오의 절기이기에 권력에는 강맹하면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운가 하면 날카로우며, 옆으로 비켜가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안으로 오므라들기도 하면서 변화무쌍하여 적이 막아내기 힘들고..... 방어하기도 힘들....."

종유협은 장무기가 칠상권의 신묘함에 갈채를 보내자 얼굴에 살짝 미소를 보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장무기는 다시 말을 이었다.

"..... 후배가 말하는 건 단지 내공이 부족한 상태에서 칠상권을 연마하게 되면 절대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오."

주지약은 여러 사저들 뒤에 숨어서 장무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소년의 장난기가 있는데도 억지로 노숙한 표정을 해가며 공동오로 중의 이로인 종유협을 가르치려 하는 걸

보자 우습게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위해서 걱정했다.
 공동파 중에 성격이 난폭한 젊은 제자는 장무기의 말이 점차 무례해지는 걸 듣자 참다못해 입을 열고 호통을 치려 했지만, 종유협이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소년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을 보자 금방 튀어나올 욕지거리를 다시 되삼켜 버렸다.
 "너의 말에 의하면 나의 내공이 아직 미숙하다는 거냐?"
 "선배님의 내공에 관해서 후배는 감히 망발을 할 수 없소. 하지만 선배님은 칠상권 때문에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되었으니 연마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등 뒤에서 한 자가 벼락같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형님은 뭣 때문에 저 녀석과 승강이 하는 거요? 그가 우리의 칠상권을 얕본다면 제가 본때를 보일 것이니 맛좀 보라고 하시오."
 그 사람의 소리가 그치자 주먹도 덩달아 다가왔다. 출수가 빠르면서도 악랄하여, 바람을 일으키면서 장무기의 등에 있는 영대혈에 정통으로 일권을 가했다. 장무기는 등 뒤에서 기습해 오는 줄 알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종유협에게 말을 건넸다.
 "종 선배님....."
 이때 갑자기 쇠사슬소리가 나면서 한 자가 급히 튀어나오며 교성(嬌聲)으로 호통을 쳤다.
 "비겁하게 암습을 가하다니!"
 그러면서 사슬을 뻗쳐서 그 자의 옷을 휘감으려 했다. 이 자는 소조였다. 그러자 그 자는 왼손을 뒤집어서 쇠사슬을 막아내면서 퍽 하며 일권을 장무기의 등에 무섭게 후려쳤다. 이 일권은 영대혈을 명중했으나 장무기는 전혀 느끼지 못한 듯이 소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조, 이같은 칠상권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소조는 숨을 한 번 몰아 쉬더니 백옥 같은 흰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난 그대가 수련한....."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얼른 입을 다물고 쇠사슬을 끌면서 물러갔다.

장무기는 몸을 뒤로 돌려서 기습해 온 자를 보니, 그는 머리가 크고 몸은 마른 노인이었다. 이 사람은 공동오로 중에 네째인 상경지였다. 그의 일권이 장무기의 급소에 명중하였는데도 그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 보자 몹시 의아해했다.

"너..... 너는 이미 <금강불괴체> 신공을 터득했구나! 그렇다면 소림파가 아니냐?"

'전 소림파의 제자가 아니....."

상경지는 알고 있었다. 모든 호신신공은 전부 진기를 모아서 형성되는 것이라 일단 입을 열고 말을 하게 되면 즉시 진기는 흩어지고 만다. 상경지는 미리 알고 있기에 그가 입을 다물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일권을 뻗어 그의 흉구에 후려쳤다.

그러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소. 칠상권은 내공의 뒷받침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말이오. 만약 당신이 그래도 못 믿겠다면 다시 일권을 후려쳐서 시험해 보시오."

그러자 상경지는 질풍처럼 팍팍 연거푸 이 권을 가했다. 그는 분명히 사 권을 상대방의 몸에 후려쳤는데, 장무기는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전혀 아프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다. 이 사초는 비석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맹한 위력을 지녔는데 그의 몸에 단지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상경지의 별명은 일권단악(一拳斷嶽)이다. 비록 과장은 했으나 권력의 강맹함은 무림의 대선배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그가 연거푸 사 권을 출수해도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결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자 종유협이 포권의 예를 취하며 말했다.

"증소협의 신공엔 정말 탄복했소. 이 몸도 삼 초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소?"

그는 자기의 칠상권 공력이 상경지보다 심후하다는 걸 믿고 있기에 자신을 갖고 말한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공동파의 절기인 칠상권을 진정으로 터득하였다면, 그 위력은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소. 소림파의 공견신승은 <금강불괴체> 신공을 몸에 지니고 계셨어도 결국에는 귀파의 <칠상권>에 목숨을 잃었지 않소. 저의 무공은 공견신승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어찌 막아낼 수가 있겠소. 그러나 염치를 무릅쓰고 당신의 삼 권을 받는다 해도 별 탈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오."

장무기의 말 뜻은, 칠상권은 본시 훌륭한 무공이지만 당신은 아직 그걸 쓸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다.

종유협은 그의 말뜻을 생각지도 않고 몰래 진기를 몇 모금 운기하여 한 발 내디디면서 팍 하며 일 권을 장무기의 흉구에 후려쳤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권면(拳面)과 흉구가 맞닿자 갑자기 그의 몸에는 한 줄기 강력한 흡인력이 있는 것처럼 일시에 끌어들일 수가 없었다. 몹시 놀라워하고 있는데 한 줄기 부드러운 열력(熱力)이 권면에서 자기의 단전으로 직접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흉복지간에는 말 할 수 없는 평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팔을 끌어들여서 다시 일 권을 후려쳤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하복부에 적중했는데 마치 절벽에 부딪친 것처럼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힘이 너머나 강해서 그는 뒤로 한 발자국을 물러나서야 몸을 똑바로 가눌 수가 있었다. 그런 다음 호흡을 다시 가다듬어서 다시 다가가 주먹을 쳐들고 맹렬히 공격했다.

상경지는 장무기의 옆에 서 있었다. 종유협의 얼굴이 울그락붉

으락 하는 걸 보자 이미 내상을 입은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제 삼 권을 후려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서 일권을 후려쳤다. 종유협은 앞 가슴을 공격하고 상경지는 등을 공격했다. 쌍권이 앞뒤로 협공하는 것은 모두 무시무시한 경력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권력이 장무기의 몸에 닿자 마치 허공을 대고 치는 느낌뿐 두 줄기 강경한 권력은 삽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상경지는 자기의 신분과 위치로는 맨 처음 기습한 것도 잘못인 줄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상대방이 공동의 절기를 모욕하였기에 화가 치밀어서 가한 거라고 어거지로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기습한 것은 분명히 소인배들의 비겁한 행동이었다. 그의 진짜 속셈은 두 사람이 칠상권의 위력을 합친다면 이 소년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일단 그가 죽게 되면 설사 나중에 옆 사람들이 군말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는 육대파를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녀석을 하나 제거해 줄 심산으로 기습을 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 벌어지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를 몇 번 긁적거렸다.

장무기는 미소를 지으며 종유협에게 말했다.

"선배님의 느낌은 어떠하죠?"

그러자 종유협은 깜짝 놀라더니 얼른 몸을 굽히면서 포권을 하며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증소협께서 내력으로 이 몸의 상처를 치료해 준 걸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오. 증소협의 신공의 놀라움은 말할 것도 없고, 덕망으로 원한을 갚는 대인대의한 처사에 이 몸은 더욱 감계무량하는 바이오."

그가 이 같은 말을 하자 모든 이는 한결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옆 사람들은 종유협이 연거푸 삼 권을 가격할 때 장무기가 구양진기를 끌어올려서 그의 체내에 주입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비록 잠깐 사이에 왔다 갔지만 그 구양진기는 종유협에게 대단한

도움이 되었다. 만약에 상경지가 장무기 뒤에서 기습해 오지 않았다면 제 삼권에 받은 도움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이다.
장무기가 말했다.
"대인대의한 말을 어찌 감당하겠소. 지금 종 선배님의 기경팔맥(氣經八脈)은 모두 심히 놀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즉시 운기조식 해야만 칠상권을 수련할 때 축재돼 있는 독을 이, 삼 년 안에 제거할수 있소."
중유협은 자신에게 있는 잔병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포권을 하며 말했다.
"감사하오, 감사하오."
말이 끝나자 즉시 앞으로 물러나서 좌정하여 운공하였다. 물론 이같은 행동은 불미스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생사안위에 관한 것이라 다른것들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장무기는 몸을 구부려서 당문량의 골절을 맞추면서 상경지에게 말했다.
"회양오룡고(回陽五龍膏)를 좀 주시겠소?"
상경지는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었다.
"수고스럽지만, 무당파에게서 삼황보랍환 한 첩을 얻어 오시고 화산파에게서 옥진산을 좀 얻어다 주구료."
상경지는 장무기가 시키는 대로 얻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귀파의 회양오룡고에 사용한 초오(草烏)는 아주 좋은 것이오. 무당파의 삼황보랍환에 있는 마황, 웅황, 등황, 삼황도 아주 쓸만 하오. 해서 앞에 있는 두가지와 옥진산을 보태서 치료하게 되면 상 선배님은 두 달 후면 사지가 종전과 같이 멀쩡해질 것이오."
장무기는 말을 하면서 뼈를 맞추고 약을 발라 주더니 금방 모든 일을 끝냈다.
그러자 상경지는 당문량을 안아들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물

러났다. 그러나 당문량은 갑자기 소리를 쳤다.
"증가야, 네가 나의 골절을 치료해 준 건 몹시 고맙게 생각한다. 나중에 잊지 않고 보답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파와 마교는 바다처럼 깊은 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네가 이런 작은 선심을 베풀었다고 이대로 손을 뗄 수가 있겠느냐? 네가 싸움을 말릴 속셈이면 우린 들어 줄 수가 없고, 네가 만약에 나보고 배은망덕하다고 말을 하면 얼마든지 나의 사지를 다시 절단시켜도 좋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자 모두 같은 생각을 하였다.
'같은 공동의 기숙(耆宿)인데, 이 당문량은 상경지보다 훨씬 골기(骨氣)가 있구나.'
장무기가 공손히 물었다.
"당 선배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만 권고를 받아들이시겠소?"
"너의 무공을 보여라. 만약에 공동파가 너를 따르지 못하면 너의 뜻을 따르겠다."
"공동파의 고수는 구름같이 많은데 후배가 어찌 다르겠소? 하지만 후배는 주제넘게 이 일을 꼭 말려야 하기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겠군요."
장무기는 말을 끝내고 사방을 둘러보니, 광장 동쪽에는 높이가 삼 장 정도 되는 큰 소나무가 있었다. 나뭇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마치 지붕 같았다. 그러자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면서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후배가 전에 귀파의 칠상권을 좀 배운 게 있소. 만약에 틀리게 하더라도 공동파 여러 선배님께서는 비웃지 마시기 바라오."
각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자 모두 놀라워 했다.
'저녀석이 공동파의 칠상권까지 할 줄 아는구나.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
장무기는 낭랑한 음성으로 칠상권의 총결을 외우고 나서 그 소나무 앞으로 다가가더니, 곽 하며 일 권을 후려쳤다. 갑자기 눈

앞이 번뜩거리더니 큰 소나무의 윗 부분이 잘라지면서, 곧바로 선 채 이 장 밖으로 날아가더니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내동댕이 쳐졌다. 지면에는 네 치 정도 되는 나무줄기만 남아 있고,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매우 깔끔했다.

그러자 상경지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이..... 이건 절대로 칠상권이 아니다."

칠상권이란 강중유연 연중유강을 강조한다. 큰 나무를 진단(震斷)한 권법의 위력은 놀라우나 그건 순강(純剛)의 힘이었다. 그는 다가가서 살펴본 순간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다. 그 나무의 줄기가 절단된 곳을 보니 맥락(脈絡)이 모두 울려서 부서져 있었다. 바로 칠상권을 깊이 수련해야만 이같은 공력이 나오는 것이다.

장무기는 이 상황을 위력으로 눌러 버리려는 속셈이었다. 만약 오직 칠상권으로 수맥(水脈)을 울려서 부수려 하면 열흘이나 보름 정도 기다렸다가 소나무가 시든 다음에야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칠상권의 경력을 발출하면서 바로 양강맹경(陽剛猛勁)으로 나무를 절단한 것이다. 이건 바로 왕년에 의부 사손이 빙화도에서 수맥을 진열(震裂)시키고 다시 도룡도로 나무의 줄기를 절단시키는 수법과 동일했다.

그러자 갈채를 보내는 소리가 들리면서 각파에서는 한참동안 술렁거렸다.

"좋다. 과연 대단한 칠상권법이다. 정말로 감탄했소. 하지만 증소협은 아무래도 이 권법의 출처를 말해 줘야겠소."

장무기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문량은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금모사왕 사손은 지금 어디에 있소?"

그는 신경이 예민해서, 어렴풋이 사손과 눈앞에 있는 소년지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짐작했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며,

'아차! 큰일이구나. 내가 칠상권을 과시하는 바람에 의부와의 관계를 노출시켰구나. 만약에 의부와의 관계를 밝힌다면 그건 육대파를 나의 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일을 말리려는 나의 계산은 빗나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귀파가 도난당한 칠상권보의 범인이 금모사왕이라는 거죠? 틀렸소, 틀렸소. 그날 밤 공동산의 청양관에서 권보 때문에 격투를 할 때 귀파의 사람 중에 혼원공(混元功)에 부상을 입어서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게 한 장본인은 바로 혼원벽력수 성곤이오!"

왕년에 사손이 공동산에 가서 권보를 탈취할 때 성곤은 명교에게 많은 적을 심어줄 속셈으로 오히려 몰래 도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원공으로 당문량, 상경지 이로를 격상한 것이다. 그 당시 사손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공견이 지적하자 그제야 그 연유를 알았던 것이다. 장무기는 성곤이란 사람은 평생 간사한 수법으로 남을 해쳐 왔기에 그의 수법으로 그를 모함하자는 속셈이었다.

당문량과 상경지는 이 십여 년 동안 의심을 해왔는데, 지금 장무기가 그 일을 들춰내자 그제서야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로 눈치를 주고 받을 뿐 금방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종유협이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증소협은 그 성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소?"

"혼원벽력수 성곤은 육대문파와 명교를 이간질시킬 속셈이었소. 나중에 소림파의 문하로 투입하여 법명을 원진이라 했소. 어제 밤 그는 명교의 내당에 잠입하여 명교의 수뇌급 인물에게 이 일을 자기의 입으로 실토했소. 양소 선생, 위복왕, 오산인 등 모두 다 알고 있소. 이 일은 절대 정확한 일이오.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하늘이 날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말이 너무나도 진지하였기에 모든 이는 그의 말에 수긍이 갔다. 그러나 오직 소림파의 승려들은 야유를 보냈다. 이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염불을 외우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몸에는 회색 승복을 입었고 용모는 위엄있었으며, 왼손에는 염주를 쥐고 있었다. 바로 소림 삼대신승 중의 하나인 공성이었다. 그는 광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말했다.

"증시주, 그대는 뭣 때문에 우리 소림의 문하를 모욕하는 거냐? 여기 계신 천하영웅들 앞에서 소림의 청명을 그대가 멋대로 더럽혀도 되는 것인가?"

장무기는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대사님께서는 노여움을 푸시고 원진 승을 불러내어 후배와 대질하게 되면 즉시 진상을 알게 될 것이오."

"증시주는 자꾸만 원진 사질의 이름을 들추는데, 그대처럼 젊은 사람이 어찌 마음이 그토록 험악하느냐?"

"소인의 뜻은 원진 화상을 나오게 해서 천하영웅들 앞에서 흑백을 가려내자는데 어찌 마음이 험악하다고 하오?"

"원진 사질은 우리 공견사형의 입실 제자기에 불학이 매우 심오하다. 이번에 여러 사람들을 따라서 명교를 원정하는 일 외에는 여러 해 동안 사문을 나간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혼원벽력수 성곤이라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원진 사질은 우리 육대문파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결국 역진원숙(力盡圓宿)하였다. 그가 죽은 다음의 청명을 어찌 네가 감히....."

장무기는 <역진원숙>이란 말을 듣자 귀에서 윙 하고 소리가 나더니 얼굴이 금방 창백해졌다. 공성이 나중에 한 말들은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 그 자가 정말 죽었소? 절..... 절대로 그럴 리 없소!"

공성은 서쪽에 있는 승려들의 시체더미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네가 직접 확인해라!"

장무기가 그 시체더미의 앞에 다가가 보니, 얼굴에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두눈은 뜬 채로 죽어있는 시체 한 구가 보였다. 과연 소림에 투입한 후 이름을 원진으로 바꾼 혼원벽력수 성곤이었다. 몸을 엎드려서 숨을 쉬나 확인하려는데 손에 닿은 얼굴의 근육이 얼음같이 차디찼다. 이미 죽은 지 몇 시간이 된 것이다. 장무기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자기 의부의 평생을 망친 원수가 드디어 악이 넘쳐서 여기에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보자 가슴에 뜨거운 피가 솟아올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고개를 들고 크게 웃어대면서 소리를 외쳤다.

"이놈아, 이놈아. 넌 평생 너무도 많은 나쁜 짓을 했다. 결국에는 너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 몇 마디의 큰 웃음소리는 산을 울려서 메아리처럼 멀리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모두 섬 찝한 느낌을 받았다.

장무기는 뒤로 머리를 돌려서 물었다.

"이 원진은 누가 살해한 것이오?"

공성은 옆눈으로 쳐다보면서 얼굴에는 찬 서리가 한 겹 씌워진 것처럼 보였을 뿐 대답해 주지 않았다. 은천정은 진작 한쪽에 물러나 있었는데 이때 그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나의 작은 아들 야왕과 장력을 겨루었는데, 결국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부상을 입었다."

장무기는 몸을 굽혀서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마 원진은 위복왕의 한빙면장(寒氷綿掌)을 맞고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우리 외숙부님의 장력도 대단하기에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외숙부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원수를 갚았으니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은야왕의 곁에 다가가서 그의 맥박을 재어보니 생명에

는 지장없다는 걸 알자, 즉시 마음을 놓고 말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성이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점점 화가 치밀었다. 순간 소리를 높여서 호통쳤다.

"이놈 죽어 봐라!"

장무기는 어이없다는 듯이 머리를 뒤로 돌리며 말했다.

"뭐라 했소?"

"너는 원진 사질이 죽었다 해서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구나! 이처럼 악독한데 어찌 널 용납할 수 있겠느냐! 노화상은 오늘 살계(殺計)를 열어 버릴 것이다. 네가 자진 하겠냐, 아니면 내가 죽여 줄까?"

그러자 장무기는 내심 망설였다.

'원진은 죄를 많이 범해서 마땅한 보답을 받은 건 매우 큰 경사인데, 그러나 앞으로는 대질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진상을 밝힐 수가 없게 됐으니 이건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하고 있을 때 공성은 몇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왼손으로 그의 정수리를 후려쳤다. 이 일조(一爪)는 손목에서 손가락까지 마치 붓대처럼 똑바로 세운것이라 그 경도의 예리함은 대단했다.

그러나 은천정이 소리쳤다.

"용조수(龍爪手)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장무기는 몸을 살짝 돌려서 가볍게 피해 버렸다. 공성은 일조가 실패되자 다시 일조를 공격했다. 이 일초는 더욱 신속하고 강맹했다. 장무기는 몸을 틀어서 다시 왼쪽으로 피해 버렸다. 공성이 제 삼조, 제 사조, 제 오조를 순식간에 발출하자 한 회포승(灰袍僧)이 마치 한 마리 회색 용으로 둔갑하면서, 용의 그림자가 공중에서 날으고 용의 발톱이 빠른 춤을 추면서 장무기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았다. 갑자기 찌직 하고 소리가 나더니 장무기는

몸이 누워 있는 상태로 날아갔지만 오른손 소매자락은 이미 공성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서 오른팔이 노출되면서 길다란 핏자국이 다섯 줄이나 되는 선혈을 뚝뚝 떨어뜨렸다. 소림의 승려들이 환호하는 소리에 섞여 한 소녀의 비명소리가 있었다.
장무기가 비명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자, 소조는 놀란 얼굴을 하면서 소리쳤다.
"장공자, 조..... 조심하세요!"
그러자 장무기의 마음에 약간 동요가 오면서, '저 낭자는 나에게 잘 대해 주는구나' 하며 생각했다.
공성은 유리한 고지에 서자 몸을 솟구쳐 올리더니 다시 맹렬한 위세로 덮쳐왔다. 이번의 조법(爪法)은 빠르면서도 악랄했다. 장무기는 생전 보지 못한 수법이라 일시에 막아낼 대책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뒤로 물러나서 몸을 튕겨서 그의 일조를 피했다.
공성의 용조수가 끊임없이 출수하자 장무기는 다시 몸을 튕겨서 뒤로 물러섰다. 공성은 연거푸 아홉 번이나 공격했으나 모두 헛탕이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두 치 정도의 간격을 유지했다. 비록 공성이 연석으로 급공해 왔으나 장무기는 전혀 반격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공의 조예는 명백히 고하를 갈라 놓았다. 공성이 아무리 빨리 다가서도 장무기를 따라잡지 못하니 경공으로는 그에게 패배한 것이다. 만약에 장무기가 뒤로 돌아서 몇 발자국만 뛰어가도 즉시 두 사람의 간격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다.
사실 장무기는 몸을 돌리지 않고 뒷걸음질만 해도 상대방의 공격을 뿌리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공성과 맞서지도 않고, 또 거리를 넓히지 않은 이유는 그의 용조수 초수에 있는 오묘한 것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막상 제 삼십 칠 초를 맞게 되었고, 또한 그는 왼손으로 공격하며 덮쳐오는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제 팔 초 노운식(駑雲式)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의 제

삼십 팔 초는 쌍장을 위에서 아래로 같이 찍는 것이다. 비록 위치는 변했어도 자세는 제 십이 초 창주식(창珠式)과 똑같았다. 장무기는 이런 초식의 명칭은 하나도 모르지만 출수의 자세는 매 초식마다 똑똑히 보았고 분명히 기억해 두었다.

그 용조수는 원래 삼십 육 초밖에 없었다. 요지(要指)는 오로지 예리하고 악랄하면서 많은 변화를 요하지 않았다. 공성이 종년시절에 여러번 강적을 만났어도 이 용조수만 사용하게 되면 항상 유리한 고지에 섰었다. 그것도 항상 십 이 초 안에 승리를 하였기에 제 십 삼 초부터는 자기가 평상시에 연습만 했을 뿐 적을 맞이하여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제 삼십 육 초까지 사용했으나 여전히 적을 제압하지 못하는 건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일이다. 막상 제 삼십 칠 초가 되자 하는 수 없이 전초(前招)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녀석이 경공만 믿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맞서게 되면 나의 십이 초 용조수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장무기는 이미 용조수 삽십 육 초 조법을 모두 다 보았다. 비록 자신은 빈틈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건곤이위심법은 상대방의 어느 권초(拳招)에서든 빈틈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내심 망설이고 있었다.

'지금 내가 그를 죽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성대사 저분은 소림사의 삼대기숙(三大耆宿)의 한 사람인데, 만약에 천하의 영웅들앞에서 패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소림파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 그를 조용히 물러나가게 한다는 건 나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다. 저 사람의 무공은 공동파의 저로(渚老)보다 한 수 위가 아니더냐.'

장무기가 주저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공성은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 녀석아, 이게 도망다니는 거지, 어디 무공을 겨루는 거냐?"

"무공을 겨루는 건....."

공성은 그가 입을 열자 진기가 흩어진 틈을 타서 연거푸 이초(二招)를 공격했다. 장무기는 몸을 튕겨서 피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 무방하나 만약에 제가 대사님을 꺾어 버리면 어찌되겠소?"

이 몇 마디를 하는데 전혀 끊어진 감은 없었다. 눈을 감고 들었다면 마치 편안히 앉아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누구도 그가 말을 하는 동안 공성의 오초(五招)를 피했다고는 믿지 않을 거다.

"너 비록 경공은 뛰어나도 권술에서는 나를 이기려 들지 마라!"

"무공을 겨룰 때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소. 후배는 나이기 어려서 대사님의 무공보다는 뒤질지 몰라도 기력(氣力)에서 만큼은 제가 덕을 보지 않을까요?"

"만약에 권술에서 내가 패하게 되면 죽이든 어찌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소. 후배가 패해서 대사님의 처분을 받는 건 당연하나, 후배가 요행으로 일초 반식을 이기게 되면 소림파가 광명정을 떠나 버리면 그만입니다."

"소림파의 일은 우리 사형 손에 달려 있어서 난 나 자신의 일에만 간여한다. 나의 이 용조수가 널 꼭 제압하리라고 믿고 있다."

"소림파의 용조수 삼십 육초는 전혀 빈틈없는 천하의 금나법 중에 무상절예이오. 그러나 대사님께서 수련한 것은 좀 틀린 것 같소."

"좋다. 네가 용조수를 파해(破解)하게 되면, 난 즉시 소림사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사문을 나오지 않겠다."

"그럴 것까지는 없소."

두 사람의 대화하는 도중에 사방의 사람들은 우뢰 같은 갈채를

보냈는데, 소리가 점차 더 커졌다.

 두 사람은 입으로 말은 하고 있어도 몸놀림은 전혀 쉬지 않았고, 오히려 싸울수록 빨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어조는 평상시와 똑같으며 전혀 흐트러졌다든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싸우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방관자들의 갈채소리는 그들의 말소리를 시종 덮어 버리지는 못했다.

 장무기의 몸이 착지되자 공성은 이미 그의 몸 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시작해 볼까?"

 "좋소. 대사님, 발초(發招)하시오."

 "너 여전히 뒤로 물러나기만 할 거냐?"

 "만약에 후배가 다시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패한 것으로 인정하겠소."

 장무기는 살짝 웃으면서 이 말을 하자, 명교에 있는 양소, 냉겸, 주전, 설불득, 이천환 등은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으나 그의 이 같은 말을 듣더니 모두 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모두가 견다식광(見多識廣)해서 공성승의 용조수 일초를 받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비록 장무기의 무공이 뛰어나서 그를 이긴다 해도 백여 초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공수추피(攻守趨避)하게 되는데 어찌 뒤로 물러나지 않는단 말인가! 모두다 이 말은 좀 건방지다고 생각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겨도 공평하게 이기고, 지게 되더라도 군말없이 져야 한다."

 공성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왼손을 허탐(虛探)하더니 오른손으로 장무기의 왼쪽 어깨에 있는 결분혈을 후려쳤다. 바로 노운식 일초였다.

 장무기는 그의 왼손이 살짝 움직이는 걸 보자 그가 이 초식을 사용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즉시 장무기도 왼손을 허탐하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결분혈을 후려쳤다. 두 사람이 사용한 초식은 전혀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은 초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장무기가 후발선지(後發先至)하였다. 공성의 손가락이 그의 어깨에 두 치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장무기의 다섯 손가락은 이미 공성의 결분혈을 움켜 잡았다. 순간 공성은 혈도가 마비되는 것 같으면서 오른손의 힘이 쭉 빠졌다. 그러나 장무기는 손가락에 힘을 더 가하지 않고 바로 거두어 들였다.

공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쌍장으로 창주식 일초를 전개하면서 장무기의 좌우 태양혈을 강타했다. 그러자 장무기는 이번에도 여전히 후발선지하면서 공성의 양 태양혈을 강타했다. 그러나 장무기의 손은 그의 양 태양혈을 살짝 스치더니 바로 용조수의 제 십칠 초인 노원식으로 변하며 공성의 뒷통수에 있는 풍부혈을 허나(虛拿)해 갔다.

그러자 공성은 즉시 뒤로 반 장 정도 물러나면서 호통을 쳤다.

"네..... 네가 어떻게 소림파의 용조수를 도둑질해서 배웠느냐?"

"천하의 무공은 본시 하나로 되었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파벌을 나눈 것이오. 그러니 그 용조수의 금나수법도 귀파의 독점이 될 수 없는 것이오."

장무기는 웃으면서 말을 했지만 내심 탄복했었다.

'이 용조수가 이토록 예리할 수가 있는 것은 소림파가 수 백 년 동안 전해온 절수일 것이다. 내가 만약에 용조수로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패색으로 몰아넣기엔 몹시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내가 배운 권법과 장법은 소림파의 이, 삼류급에 속하는데 어찌 소림의 삼대신승 중의 하나인 공성대사와 비교가 되겠는가.'

공성은 머리를 숙여서 생각을 해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용조수의 조예로 말할 것 같으면, 사형인 공문, 그리고 왕년의 공견사형도 자기만 못하였는데. 어찌 이 소년은 양초(兩招)를

연거푸 후발선지할 수 있고, 또 출초에서 수법의 경력, 방향, 부위마저도 안정되고 신속함이 겸비된 것이 마치 수십 년 동안 몰두해서 수련한 공력 같단 말인가!

공성은 멍청하게 서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자, 광장에 있는 천여 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를 주시했다. 그러자 공성은 갑자기 대갈일성하면서 몸을 솟구쳐서 앞으로 다가갔다. 쌍장은 마치 광풍호우처럼 포풍식, 조영식, 부금식, 고슬식, 피항식, 도허식, 포잔식, 수결식, 팔식을 돌아가면서 질풍처럼 공격해 왔다. 그러자 장무기도 여유있게 초식을 따라서 했는데 여전히 초초(招招)는 후발선지했다.

공성신승의 이 팔식연환의 용조수는 마치 일초에는 여덟개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신속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장무기는 그보다 더 빠르면서도 매 초식마다 모두 선수를 차지했다. 공성은 일초마다 출수할 때는 그의 공력에 눌려서 뒤로 한 발씩 물러갔다. 막상 일곱 발자국째 물러설 때는 포잔식과 수결식을 계속해서 전개했다. 이 두 식은 용조수의 마지막인 제 삼십 육초, 삼십 칠초의 초수였다. 얼핏 보기에는 빈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두 초의 빈틈은 모두 무섭기 짝이 없는 함정이 매복돼 있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포잔식, 수결식의 허식을 보이더니 갑자기 노운식으로 바꾸면서 곧장 중궁(中宮)을 공격해 들어갔다.

공성은 몹시 기뻐하며 자기의 함정에 걸렸다 하면서, 쌍장을 돌려가며 장무기의 팔꿈치를 공격했다. 그런데 쌍장의 장연(掌緣)이 그의 오른팔에 닿는 순간 갑자기 부드럽고 두텁고 무거운 경력이 그의 팔에서 발출하며 자기의 쌍장을 가로막았다. 바로 이때 장무기의 오른손 다섯 손가락은 공성의 가슴에 있는 담중혈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순간 공성의 마음은 몹시 허탈했다. 수십 년 동안 몰두해서 수련한 무공이 모두 일장춘몽 같았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증시주는 빈승보다 훨씬 고명하오."

왼손으로 오른손 다섯 손가락을 움켜쥐고 경력을 주입하여 꺾어 버리려는 찰나, 갑자기 왼쪽 손목이 마비되면서 경도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 바로 장무기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 혈도를 살짝 스친 것이다.

"후배는 소림파의 용조수로 대사님을 굴복시켰으니 소림의 위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후배가 만약 소림파의 절예로 대사님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대사님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공성은 순간의 수치심 때문에 손가락을 절단하여 평생 무공을 다시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듣자 몹시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거렸다.

"증시주의 대인대의에 빈승은 탄복을 금치 못하오."

"후배가 윗 사람에 불경(不敬)한 죄를 대사님께서는 용서해 주기 바라오."

"이 용조수가 증시주의 수중에서는 그토록 위력이 대단할 줄은 빈승도 정말 뜻밖이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폐사에 와서 지도해 주기 바라오."

공성이 웃으면서 말을 하자 장무기는 얼른 입을 열었다.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소림파의 무공은 박대정오(博大精奧)합니다. 후배는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도 없으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대사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이 몇 마디는 모두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이라 전혀 거짓이 없었다.

소림파의 공지일행은 공성의 행동을 보게 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장무기가 소림파의 체면을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해

서는 속으로 고마워했다.

공지대사는 육대파가 이번에 명교를 토벌하는데 수령이었다. 그런데 정세가 이처럼 도는 걸 보게 되자 마음이 몹시 난감했다. 마교를 소멸하는 일이 곧 이뤄지려는데 이름도 없는 이 소년에게 간섭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에 이대로 물러서게 되면 천하의 호걸들이 분명히 그를 비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슨 뾰족한 수도 없기에 옆눈으로 화산파의 장문인 신기자(神機子) 선우통(鮮于通)에게 눈치를 주었다.

선우통은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 또한 많아서 이번 명교를 공격하는데 군사(軍師)직을 맡고 있었다. 공지대사가 눈치를 주며 자기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을 보자 즉시 부채를 살며시 흔들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장무기는 다가오는 자가 사십여 세의 중년 문사며, 용모또한 준수하게 생긴 걸 보자, 마음에 호감이 생겼다.

"선배님께서는 무슨 가르침이 있으신지요?"

선우통이 말을 하려 하자 은천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화산파의 장문 선우통이다. 무공은 대수롭지 않지만 계략은 많다."

선우통은 일 장 앞으로 다가오더니 자세를 똑바로 취했다.

"증소협, 안녕하십니까?"

"선우 장문께서도 안녕하신지요?"

"증소협의 놀라운 신공에 몹시 탄복했소. 어느 고명하신 선배님의 문하인지요?"

장무기는 어디서 누구에게 그의 이름을 들은 걸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우통은 고개를 쳐들고 몇 번 웃더니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뭣 때문에 증소협께서는 자기의 사승내력을 숨기려 하는 거요? 고인(古人)의 말에는 <견현사제(見賢思齊) 견불현(見不賢)....."

장무기는 견현사제란 말을 듣자 갑자기 <견사불구(見死不救)>란 말이 생각났다. 오년 전 호접곡에서 호청우는 자기의 여동생이 화산파의 선우통에게 살해되었다고 그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장무기의 작은 마음 속에는 선우통이란 자는 나중에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었다. 그 일에 정신을 집중하다 호청우가 말한 것을 똑똑하게 기억해 냈다.

'한 소년이 묘강(苗疆)에서 금잠충(金蠶蟲)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걸 난 사흘 밤낮을 잠을 자지 않은 채 심혈을 다해서 그를 구해 주었다. 나중에 의형제를 맺었고 수족처럼 지내왔다. 그런데 나의 친여동생을 살해할 줄이야...... 불쌍한 여동생...... 우리 남매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어서 서로 목숨처럼 의지하고 살아왔다.'

호청우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온통 주름살진 얼굴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애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때 장무기는 너무나도 슬퍼했었다. 호청우는 그에게 복수를 하려고 여러 번 찾아갔으나 화산파에는 사람이 많고 세력도 막강하며, 또 선우통이 교활하고 계략 또한 많아서 오히려 호청우가 하마터면 그의 손에 죽을 뻔했었다.

장무기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무서운 눈초리로 선우통을 노려보았다.

그는 선우통의 제자인 설공원의 일이 또 생각났다. 그 자는 금화파파에게 부상을 당한 걸 자기가 살려 주었는데, 나중에 오히려 자기를 끓여 먹으려 했었다. 이 두 놈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는 파렴치하고 간악한 놈들이다. 설공원은 이미 죽었지만 눈앞에 있는 선우통 저놈은 단단히 벌을 좀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순간 장무기는 웃음을 살짝 조이며 입을 열었다.

"난 묘강에서 극독에 중독되지 않았고, 또 내 의형제의 여동생을 살해한 적이 없는데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게 있겠소?"

선우통은 그 말을 듣자 그만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등에는 식은땀이 솟아났다. 왕년에 그는 호청우에게 목숨을 구제받고는 호청우의 여동생 호청양을 사랑했었다. 나중에 호청양이 임신하자 선우통은 화산파의 장문 자리가 탐나서 호청양을 버리고 당시 화산파 장문의 외동딸과 혼인을 했다. 그러자 호청양은 분노하여 자진을 했는데, 한 시체에 두 생명이 우는 참사를 빚었다. 선우통은 그 일을 계속 숨겨 왔는데, 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소년에게 갑자기 들추어지게 되자 어찌 그가 당황하지 않겠는가!

'저 소년이 어찌해서 나의 비밀을 알았을까? 반드시 독수를 가하여 즉시 제거해야만 한다. 절대로 잠시도 살아 있게 할 수는 없다! 만약에 저놈이 떠벌이고 다니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다!'

선우통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장무기에게 말했다.

"증소협께서 사승내력을 말해 주지 않는다면 무공을 겨루어 봅시다!"

말이 끝나자 우장을 비스듬하게 세우고 좌장으로 장무기의 어깨를 후려쳤다. 그의 속셈은 장무기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자 장무기는 속셈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쳐들어서 살짝 막으면서 입을 열었다.

"화산파의 무예는 아주 고명하여 겨루어 보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소.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은망덕한 무공은 어느 누구도 선우 장문을 따를 수가 없소....."

선우통은 그의 입을 막으려고 즉시 덮쳐가더니 몸을 붙여서 화산파 절기의 하나인 응사생사박(鷹蛇生死博)을 전개하면서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부채를 접어서 오른손에 쥐었다. 부채 손잡이에는 뱀머리 형태를 새겼는데 몹시 예리하게 보였다. 왼손으로는 응조공(鷹爪功)을 사용했다. 오른손에 있는 뱀머리로 찍고 후려치고 찌르고 했지만, 왼손으로는 금나와 비틀고 갈구리로 찍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응사생사박은 화산파에서 전해 내려온 지 백여 년이나 되는 절기였다. 응사(鷹蛇) 쌍식을 함께 전개하기 때문에 일식에 동시 나타났다. 신속하고 민첩하고 악랄한 게 모두 겸비돼 있었다.

장무기는 몇 초를 막아내더니 상대방의 초수는 절묘하지만 경력이 부족한 걸 금방 알았다.

"선우 장문인, 소인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일이 있소. 왕년에 당신이 맹독에 중독돼 있을 때, 남은 사흘씩이나 잠을 안 자며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살려놓고, 또 당신과 의형제를 맺었는데, 뭣 때문에 당신은 그의 여동생을 죽게 만들었소?"

"허튼....."

선우통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 어거지로 <허튼소리>란 말을 하려는데 막상 <허튼>이라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한 줄기 대단히 무거운 장력이 다가와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순간 폐에 있는 기식(氣息)이 상대방 장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 나오려 했다. 그러자 내력을 잠운(潛運)하며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었다. 나중엔 질식해서 호흡이 끊기려고 하자 선우통은 급히 연거푸 삼 초를 공격했다. 장무기가 장력을 살짝 풀어주자 비로소 선우통의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얼른 긴 호흡을 한 번 했다.

"너....."

선우통은 장무기에게 호통을 치려 했지만 <너>란 말이 나오자 상대방의 장력이 다시 다가와서 가슴을 누르며 말문을 말아 버렸다.

"대장부가 하는 일은 항상 시비를 분명히 가려야 하오. 뭣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굴려하는 것이오! 의선 호청우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죠? 그의 여동생은 당신이 손수 살해했죠?"

장무기는 호청우의 여동생이 어떻게 살해됐는지 모르고 있기에 상세히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우통은 상대방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변명을 하지 못하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방관하는 사람들은 선우통의 말재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에는 야릇한 표정을 짓고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을 하지 못하자 모두 장무기의 말을 믿는 눈치였다. 장무기는 절정의 신공으로 그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으니 선우통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화산파의 명숙과 문인들은 장문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걸 보자 모두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 같은 무림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갚고 원한이 있으면 원수를 갚는다. 그 접곡의선은 명교의 사람이오. 당신은 명교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은인인 명교를 공격하다니! 남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당신은 오히려 은인을 해치려 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어찌 일파의 장문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는 너무나 통쾌하게 꾸짖었다. 만약에 호선생께서 오늘 여기서 직접 들었다면 가슴 속에 쌓인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목숨을 다치지 않기로 하고 즉시 장력을 거두어들이며 말했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니 당분간 너의 모가지를 보류하겠다."

선우통은 갑자기 숨이 탁 트이자 즉시 호통을 쳤다.

"이놈,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채 손잡이를 장무기의 면문(面門)에다 한 번 찍더니 얼른 옆으로 물러섰다. 그러자 장무기는 갑자기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 같으면서 바로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놈아, 화산의 절예인 응사생사박의 무서움을 맛좀 봐라!"

선우통은 말을 끝내자 몸을 튕겨서 앞으로 다가가서 왼손의 다

섯 손가락으로 장무기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있는 연액혈을 찍으려 했다. 그는 장무기가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줄 만 알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는 곳은 마치 미끄러운 생선 뱃가죽을 잡은 것처럼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살짝 웃더니 선우통의 코에다 숨을 한 모금 불어 넣었다. 선우통은 갑자기 달콤한 향기를 맡게 되자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놀래서 혼비백산하여 입을 열고 뱉어내려 했다. 장무기는 그의 양무릎 안쪽을 왼손으로 살짝 스치니, 선우통은 서 있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장무기의 면전에 엎어지고 말았다. 마치 절을 해가며 애걸하는 것 같았다.

이 갑작스런 변에 모두들 너무나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좀전만 해도 장무기가 중상을 입은 것처럼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했는데 순식간에 선우통이 그의 면전에 꿇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가 요법(妖法)을 할 줄 안단 말인가!

장무기는 허리를 굽혀서 선우통의 수중에서 부채를 빼앗아 들고 낭랑한 소리로 외쳤다.

"화산파는 명문정파라 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독을 가하는 절예를 지니고 있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꽃나무 한 그루 앞으로 다가가서 부채 손잡이로 선화에다 몇 번 흔들었다. 잠시 후 꽃송이는 시들어지면서 떨어지고 꽃잎마저 점점 노랑색으로 변해 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선우통이 무슨 독약을 숨겨 놓았길래 저토록 무서울까 하며 생각했다.

이때 선우통은 바닥에 엎어져 있으면서 되지 목따는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악, 아악, 하는 게 마치 예리한 칼로 그의 몸을 한 칼 한 칼 베일 때 지르는 비명소리 같았다. 그는 몇 번 소리를 지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빨리..... 빨리 날 죽여라..... 빨라 죽여다오....."

"난 너를 치료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너의 부채에는 무슨 독물을 숨겨 놓았느냐? 독원(毒原)을 알 수 없으면 구하기 힘들다."

"그건..... 그건 금잠(金蠶)..... 금잠충독이다..... 빨리 죽여다오..... 아..... 아....."

사람들은 <금잠충독>이란 말을 듣자 젊은이들은 그 무서움을 모르겠지만 각 파의 기숙(耆宿)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또 정직한 인사들은 큰 소리로 선우통을 호되게 나무랐다. 금잠충독이란 천하의 독물 중에서 으뜸이다. 무형무색이라 중독한 자는 마치 천만 마리의 누에가 동시에 온몸을 물어뜯는 것처럼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장무기는 다시 선우통에게 물었다.

"너는 금잠충독을 부채에 숨겨 놓았는데 어찌 네 자신을 해치게 했느냐?"

"빨리..... 빨리 죽여다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선우통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몸을 긁고 때리며 땅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했다.

"너는 부채 안에 있는 금잠충독을 방출하여 나를 해치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내력을 사용해서 그 독을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해서 아직도 넌 할 말이있느냐?"

"나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내가....."

선우통은 비명을 지르더니 양손으로 자기의 목을 누르면서 자진을 하려 했다. 그러나 이 금잠충독에 중독되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자 다시 머리를 땅바닥에 마구 박아도 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상처도 가할 수 없었다. 이 독물에 중독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자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정신 만큼은 분명하여 몸 구석구석의 고통을 배 이상으로 똑똑히 느끼게 한다. 그러니 그 무서움은 실로 말하기 어렵다.

왕년에 선우통이 묘강에 있을 때 묘가 여자 하나를 시란종기(始亂終棄)하자 그 여자는 그의 몸에다 금잠충독을 중독시켰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돌아서 준다면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적은 양을 투입하였다. 선우통은 중독된 채 즉시 도주를 했다. 도주할 때 그가 여자의 금잠 두 쌍을 훔쳐갔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마침 호청우가 바로 묘강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기에 그를 구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선우통은 금잠을 길러서 독분(毒粉)을 제조하여 부채에 숨겨 놓았다. 부채 손잡이에는 기관장치가 돼 있었다. 일단 장치를 풀고 다시 내력으로 뿜어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장무기의 내력이 심후하여 위험이 닥칠 때 호흡을 중단하여 독기를 되돌려서 뿜은 것이다. 만약에 그의 내력이 심후하지 못했다면 바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선우통이 아니라 장무기였을 것이다. 그는 왕난고의 독경을 자주 읽었기에 금잠충독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 막상 선우통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자, 그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의 입으로 자기가 왕년에 저지른 악행을 실토하게 해야 한다.'

"그 금잠충독의 구치법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묻는 대로 이실직고해야 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난 손을 떼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넌 칠 일 동안 밤낮으로 고생을 할 것이며, 그 때 가서는 살이 썩고 뼈가 보일 것이니 그 고통은 참기 어려울 것이다!"

장무기가 낭랑한 소리로 말을 하자 선우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왕년에 그 묘가 여자도 내 몸에 독을 투입하고는 내가 칠 일 동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다 살이 썩고 뼈가 보인 다음에 죽게 된다고 했는데, 저녀석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나 그는 접곡의선 호청우의 신기(神技)를 갖고 있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나..... 나를 구하지 못하....."
장무기는 살짝 웃더니 부채로 그의 요안(腰岸)을 가르키며 말했다.
"여기에다 구멍을 내서 약물을 투입하고 다시 꿰매버리면 충독을 몰아 낼 수 있다."
"맞다, 맞다. 너무나..... 너무 정확하다."
"그렇다면, 너의 일생 중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을 네가 직접 말을 해라."
"없.....없다....."
"그럼 실례하겠으니, 여기서 칠 일 동안 누워 있으시오."
"말.....말하겠다....."
선우통은 급히 말을 했으나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직접 말을 한다는 건 몹시 난처하게 여겨졌다. 그는 한참 동안 꾸물대며 말을 하지 않았다.
갑자기 화산파 중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몸을 솟구쳐서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키가 크고, 또 하나는 키가 작았다. 나이는 오십세 정도였고 수중에는 긴 칼을 번뜩거렸다. 그 중 키가 작은 노자(老者)가 입을 열었다.
"증가야. 우리 화산파는 죽으면 죽었지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이토록 선우 장문에게 모욕하는 건 절대로 영웅호걸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자 장무기는 포권을 하며 말했다.
"두 분의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너는 우리 사형제의 이름을 물어볼 자격이 없다!"
키 작은 노자가 화를 내며 말을 하고 나서 몸을 굽혀 왼손으로 선우통을 안으려 하자, 장무기는 일장을 후려쳐서 그를 한 발 뒤

로 물러서게 한 후 냉랭하게 말했다.

"그의 온몸에는 독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닿게 되면 그와 똑같이 되니 각하께서는 조심하는 게 좋겠소."

그 키 작은 노자가 깜짝 놀래서 온몸을 떨고 있는데 선우통이 다시 소리를 쳤다.

"빨리 구해 주쇼..... 빨리 구해 주쇼..... 백단 백사형은 내가 금잠충독으로 살해한 것이오. 이밖에는 없소."

그가 이 말을 하자 키가 크고 작은 이로(二老)와 화산파의 사람은 일제히 경악했다. 그러자 키 작은 노자가 선우통에게 물었다.

"백단을 네가 죽였냐? 그런데 넌 명교의 수중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백.....백사형..... 당신에게 부탁하오. 날 용서해 주시....."

선우통은 비명을 지르며 절을 연신하더니 그 때의 일을 실토했다.

"백사형..... 당신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소. 그러나 당신은 날 너무나 억압을 했소..... 당신이 호소저의 일을 말해 버리면 사부님은 절대로 날 용서치 않을 것이오. 나..... 난 할 수 없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소. 백사형..... 날 놓아 주시오..... 날 용서해 주오....."

선우통은 두 손으로 목을 힘껏 누르며 다시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살해하고 그 죄를 명교에게 뒤집어 씌웠소. 그러나..... 그러나..... 난 당신을 위해서 많은 지전을 태웠고, 또 많은 법사(法事)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의 생명을 앗으려 하는 거요? 당신의 처자식도 계속 돌보아 주고 있고..... 그들의 의식도 부족함이 없소."

광장에는 햇빛으로 덮여 있는데 선우통은 그 몇 마디 애걸하는 말을 하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백단의 혼백이 진짜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화산파 중에 백단을 알고 있는 자

는 더욱 경악했다.

장무기도 그의 말을 듣자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그는 단지 은혜를 원수로 갚은 호청우의 여동생을 죽게 한 일을 고백 받으려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자기의 사형을 살해한 일을 자백한 것이다. 당시 백단이 금잠충독에 중독되어서 고통을 받던 비참한 상황을 오늘 그가 일일이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머리 속에는 오직 <백단>이란 두 글자만 생각났다. 마치 백단의 혼백이 나타나서 목숨을 앗아가려는 것 같았다.

장무기도 그 백단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선우통이 백단을 살해한 후 그 죄행을 명교에게 뒤집어 씌워서, 화산파가 광명정 공격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화산파 여러분들은 들으시오. 백단 백사부는 명교가 해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키가 큰 노자가 갑자기 칼을 쳐들고 선우통의 머리를 쪼개려하듯 후려쳤다. 그러자 장무기는 부채를 내밀어서 그의 칼을 찍자 강도(鋼刀)는 비켜나면서 콱 하는 소리를 내더니 땅바닥에 한치 정도 깊이 꽂혔다. 그 키가 큰 노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저 자는 본파의 반도라 우리들이 우리의 문호를 정리하려는데, 네가 간섭할 게 무엇이냐?!"

"전 이미 그의 몸에 있는 충독을 완치해 준다고 약속했소. 귀파 문호의 분쟁은 나중에 화산에 다시 돌아간 다음에 천천히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키 작은 노자가 말했다.

"사제, 저 사람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몸을 날리더니 선우통의 등에 있는 대추혈을 걷어찼다. 그러자 선우통의 몸은 날아서 화산파의 사람들 면전에 떨어졌다.

선우통은 혈도를 걷어채여 비록 온몸의 고통은 감소되지 않았지만 이미 소리를 지를 수 없고 바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에게도 친신(親信) 제자가 있었지만 그의 몸에 극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가가서 구조하지 않았다.

그 키 작은 노자가 장무기에게 말했다.

"우리 사형제는 선우통 저놈의 사숙이오. 당신이 화산파를 도와서 문호 중에 큰일을 밝혀준 것에 대하여 우리 백단사질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오. 정말 고맙소."

그러면서 포권의 예로 인사했다. 그러자 그 키가 큰 노자도 따라서 읍을 했다.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장무기는 얼른 답례를 하며 말했다.

키 작은 노자가 칼을 쳐들고 일도를 후려치면서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우리 화산파의 명성도 네 녀석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몰골 사납게 훼손되었다! 우리 사형제는 늙은 목숨을 받쳐서 너와 사생결단을 할 것이다!"

키가 큰 노자도 말했다.

"우리 사형제는 목숨을 받쳐서 너와 사생결단을 할 것이다!"

비록 그의 체격은 크지만 키 작은 노자의 흉내만 내고 있었다.

"화산파의 여러분, 청자자청, 탁자자탁(淸者自淸 濁者自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 파렴치한 놈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귀파의 위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무림에 있는 못난 놈들은 육대문파에도 모두 있는 일인데 두 분께서는 뭣 때문에 그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오?"

키 큰 노자가 말했다.

"네가 보기에는 지장이 없느냐?"

"지장 없습니다."

"사형, 저 녀석이 지장없다는데 우리도 그만 둡시다."

그는 장무기를 두려워하고 있기에 그와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했다.

키가 작은 노자가 무슨 소리로 말했다.

"선제외모, 재청문호(先除外侮 再淸門戶), 화산파가 만약에 오늘 저 녀석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시 무림에 발을 들여 놓겠느냐?"

"맞습니다! 이봐 젊은이, 우리 둘이서 너와 싸우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얼른 졌다고 인정해라."

그러자 키가 작은 노자는 이마를 찌푸리며 호통쳤다.

"사제, 너....."

장무기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둘이서 나 혼자하고 싸우겠다? 그것 참 잘 됐군요. 만약에 당신들이 패하게 되면 절대로 명교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시오!"

키가 큰 노자는 몹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둘이서 너 하나와 싸우게 되면 넌 절대로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우리 사형제에게는 양의도법(兩儀刀法)이라는 게 있다. 그 도법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고 연도(聯刀)로 적을 공격하면 어느 누구도 막아 내지 못한다. 내가 걱정한 것은 일 대 일로 상대하는 건데, 네가 혼자서 우리 둘을 상대한다고 했으니 그건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가 한 말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노 선배님의 공격에서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난 절대로 사정을 안 봐준다. 우리의 그 양의도법은 전개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리해지는데, 어찌 사정을 봐줄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네 녀석이 그렇게 나쁜 인간도 아닌데 막상 내 칼에 죽게 되면 정말 불쌍한....."

그러자 키 작은 노자가 말했다.

"사제,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난 미리 그에게 힌트를 줘서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형제의 양의도법은 반양의(反兩儀)라서 식(式)마다 정상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러자 키 작은 노자가 무서운 소리로 호통치며 고개를 장무기에게 돌려서 받아랏! 하면서 칼을 들어 후려치며 다가갔다.

장무기는 선우통의 부채를 쳐들고 그의 칼 등에다 대어 보니, 키 큰 노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린 겨룰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부채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독될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이런 극독을 지닌 물건은 절대로 세상에 남겨 놓을 수 없습니다."

장무기는 말을 하며 오른손의 인지와 장지 사이에 부채의 손잡이를 끼어서 바닥 아래 던지자 땅 속으로 숨어 버리고 작은 구멍 하나만 남겨 놓았다. 이런 신공은 광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다. 순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쳤다.

키가 큰 노자는 단도를 겨드랑이에 끼고 힘껏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넌 빨리 가서 병기 한 가지를 갖고 오너라!"

장무기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무공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의 상황이 특수했다. 만약에 신공을 보여서 이 국면을 슬기롭게 제압하지 않으면 육대문파가 이대로 손을 떼고 중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선배님께서 보기에는 제가 무슨 병기를 쓰면 좋을 것 같소?"

그러자 키가 큰 노자는 그의 어깨를 두 번 토닥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너 매우 재미있구나! 네가 쓰고 싶어하는 병기를 어찌 나에게 묻는 거냐?"
장무기는 그가 몇 번 토닥거린 것은 노인네들이 젊은이들을 좋아해서 하는 표시인 줄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관하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랬다. 두 사람이 대적하여 싸우는 판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적수의 어깨를 토닥거렸는데 상대방은 피하지 않았다. 키가 큰 노자가 손에 힘을 쓰거나 또 틈을 타서 그의 혈도를 찍어 버리면 무공을 겨룰 필요도 없이 승패는 판가름 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 장무기에게 신공이 몸을 보호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설사 키가 큰 노자가 암수를 쓴다 해도 절대로 그를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
키가 큰 노자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보고 무슨 병기를 쓰라면 넌 내 말을 들을 것이냐?"
"가능합니다."
"넌 무예가 뛰어나서 십 팔 번 병기를 모두 쓸 줄 안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빈 손으로 우리 두 늙은이하고 겨루게 하면 그건 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빈 손으로도 무방합니다."
키가 큰 노자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제일 형편없는 병기를 한 가지 찾아서 그에게 주려 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은 광장 왼쪽에 놓여 있는 큰 바위 몇 개 위에 멈추었다.
"너에게도 덕을 주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병기를 쓰는 게 좋겠다."
그는 말을 하면서 큰 바윗돌을 가리키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 바위 하나의 무게는 무려 이, 삼백 근은 족히 되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다. 더구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의자 대용품으로 앉아서 사방이 모두 매끄러워서 손잡이가 없는데 어떻게 병기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장무기는 미소

를 지으며 말했다.
 "저 병기야말로 좀 거북한 데가 있는데, 노 선배님께서 제 무공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는 말을 하면서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왼손을 내밀어 바위 한 개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조심하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위와 함께 솟구쳐서 두 노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갈채를 보내는 것도 잊은 채 입만 크게 벌리고 있었다. 키가 큰 노자는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소리쳤다.
 "그..... 그건 좀 망칙하구나!"
 키 작은 노자는 오늘이야말로 평생에 최고 적수를 만났다는 걸 알고는, 자세를 바로하면서 상대를 주시했다. 갑자기 파란 빛이 번득거리더니 장무기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공격했다.
 "사형, 진짜 싸우는 겁니까?"
 "그럼 장난하는 줄 아느냐!"
 강도(鋼刀)를 반 바퀴 돌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장무기의 어깨를 옆에서 후려쳤다.
 장무기는 옆으로 물러서면서 피했다. 그러자 키가 큰 노자의 칼이 다시 다가왔다. 그는 바위로 막으면서 바로 칼이 오던 길로 바위를 밀어갔다.
 "아니, 이건 순수추주(順收推舟)가 아니냐?! 넌 큰 바위를 사용해도 초수가 있는 거냐?"
 "사제, 혼돈일파(混沌一破)!"
 "태을생명, 양의합덕(太乙生命 兩儀合德)!"
 "일월매명(日月每明)!"
 두 노자는 입으로 외쳐대면서 도초(刀招)를 쉴새없이 전개했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전개해서 큰 바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 노자는 반양의도법(反兩儀刀法)을 전개하자, 몹시 맹

렬하였으나, 장무기 수중에 있는 바위는 너무나 커서 살짝 돌리거나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이로(二老)의 초수를 모두 막어 버렸다. 그러자 키가 큰노자가 말했다.

"너는 병기에서 너무나 많은 덕을 보고 있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럼 이 둔하고 무거운 병기를 사용하지 않겠소."

장무기는 웃으면서 말을 하더니 갑자기 큰 바위를 공중으로 던져 버렸다. 그러자 두 노자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쳐들고 쳐다보는 순간 뒷덜미의 혈도가 동시에 장무기에게 잡혀서 꼼짝 할 수 없었다. 장무기는 몸을 뒤로 튕겨서 물러나자 큰 바위는 두 노자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놀래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장무기는 몸을 튕겨 앞으로 다가가서 장풍을 뻗어 큰 바위를 일 장 정도 밖으로 밀어내자 쾅 하고 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 다음 손을 내밀어서 두 노자의 어깨를 몇 번 두드리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후배가 장난 좀 했습니다."

그가 몇 번 두드리자 두 노자의 혈도는 즉시 풀어졌다. 키 작은 노자는 잿빛 얼굴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두자, 그만둬."

키가 큰 노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무효다!"

"어째서 무효란 말입니까?"

"넌 힘이 세서 큰 바위를 움직인 것뿐이지, 초수에서 우리 형제를 이긴 건 아니다!"

"그럼 다시 겨루어 봅시다."

"다시 겨루는 것도 괜찮지만 좀 신선한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더라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소조는 장중(場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손을

내밀어 얼굴을 훑으면서 소리쳤다.
"창피하다. 창피해! 자기네들이 항상 덕을 보고 있으면서 오히려 손해라 하는구나!"
그녀의 손이 아래 위로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은 찰랑찰랑 하며 소리가 났다.
키가 큰 노자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먹은 소금도 네가 먹은 쌀보다는 많고, 내가 지나간 다리도 네가 걷던 길보다도 길다. 조그만 계집이 뭣 때문에 종알종알대는 거냐?"
고개를 장무기에게 돌려서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만약에 원치 않으면 그만 두어라. 어차피 이번 시합에서는 서로가 승패를 판가름하지 못했으니, 삼 십년 후에 다시 겨뤄도 늦지 않는....."
키 작은 노자는 그의 말이 점점 더 엉뚱해지자 즉시 호통을 쳤다.
"증가야, 우리는 패배를 인정한다. 네가 처치하는 대로 따르겠다."
"두 분 편리할 대로 하시오. 소인은 단지 명교와 귀파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했을 뿐 절대로 다른 속셈은 없습니다."
그러자 키가 큰 노자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건 안 된다. 아직 신선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뭣 때문에 회피하려는 거냐?"
키 작은 노자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입을 열지 않았다.
"선배님의 뜻은 어찌하면 타당한 것 같습니까?"
"우리 화산파의 반양의도법의 절예신공은 너도 맛을 봐서 잘 알고 있지만, 곤륜파에도 정양의검법이라는 게 있는 것은 넌 모를 것이다. 그 변화의 정기오묘함은 화산파의 도법과 각기 다른 장점이 있다. 만약에 도검이 합쳐서 양의를 사상(四象)으로 변화시

키고 다시 사상에서 팔괘(八卦)가 생겨나고, 음양을 서로 조절하고 주화를 서로 배제하면, 아유....."

그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연신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다시 말을 이었다.

"위력이 너무나 강맹하여 넌 절대로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곤륜파 쪽으로 돌려서 말했다.

"곤륜파 중에서 어느 고인께서 나오시겠습니까?"

키가 큰 노자가 얼른 입을 열었다.

"곤륜파 중에서 철금(鐵琴) 선생 부부 외에는 어떤 사람도 우리 형제와 연수(聯手)할 자격이 없소. 하지만 하(何) 장문인께서는 담력이 있는지 모르겠구료."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

'저 노인네는 멍청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똑똑하군. 그는 곤륜파의 양대 고수를 충동질해서 자기들을 도와 달래려는 속셈이구나'

하태충과 반숙한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저 두 노자가 어떤 사람인 줄은 몰랐다. 단지 선우통의 사숙이고, 평소에 강호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 생각했다. 더구나 자기들은 서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 까닭이 없었다. 이때 키가 큰 노자의 말소리가 들렸다.

"곤륜파의 하씨 부부는 너와 겨루는 것을 꺼려한다. 그들의 정양의검법은 비록 그런대로 위력이야 있지만, 화산파의 반양의도법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망설일 수 밖에 없지."

반숙한은 화가 치밀자 몸을 튕겨서 장안으로 들어오더니 키 큰 노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각하의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도 성이 하가요, 하부인 시작하실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반숙한은 곤륜파의 태상장문(太上掌門)이다. 하태충마저 그녀를 무서워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곤륜산 일대 수백 리 안에서 여왕처럼 군림해 왔는데 어찌 자기를 놀려 대는 걸 보고만 있겠는가, 순간 검을 뽑아들고 바로 키 큰 노자의 왼쪽 어깨를 찌르러 갔다. 검을 뽑아서 출초한 수법이 너무나 빨라서 눈깜짝할 사이에 검끝이 키 큰 노자의 어깨에 불과 반 치 정도에 다가갔다. 그러자 키 큰 노자는 깜짝 놀라며 얼른 칼을 눕혀 그녀의 일검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다. 반숙한이 사용한 것은 금침도겁(金針渡겁) 일초였고, 키 큰 노자가 사용한 것은 만겁불복(萬겁不復) 일초였다. 일정일반(一正一反)은 모두 양의술수(兩儀術授) 중의 극치를 전개한 것이다. 비록 키 큰 노자는 장무기의 수중에는 손발이 묶인 것처럼 무공을 멋대로 전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의 도법의 조예는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도검이 맞부딪치자 각각 뒤로 일보씩 물러섰다. 서로가 상대방의 그 일초의 정묘함을 몹시 감탄했다. 두 사람의 파벌이 다르고, 무공도 다르고,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마치 평생 혼자서 고독하게 살다가 갑자기 마음이 통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즐거워했다. 그러자 반숙한은 잠시 생각을 굴렸다.

'저 자의 화산파 반양의도법은 과연 대단하구나. 만약 그와 연수공적(聯手攻敵)한다면, 천하의 모든 병기 초수 중의 극치를 발휘할 수 있다.'

'화산파의 이 두 늙은이는 저 소년의 적수가 아니다. 우리 곤륜파가 저 소년하고 겨루게 되더라도 꼭 이간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이대로 장안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는 곤륜, 화산 양파의 사대고수가 한 무명 소년과 합전(合戰)하는 꼴이다. 비록 체면을 깎이는 일이지만 이건 화산파에서 생각해 낸 방법이다.'

그녀는 뒤로 머리를 돌려서 하태충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이리로 오세요!"

하태충은 부인의 명을 감히 거역하지는 못해도 여러 눈동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여전히 장문인다운 거드름을 피우면서, 흥! 하고 콧방귀를 뀐 다음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동자 네 명이 앞에서 인도하였다. 하나는 장검을 안았고, 하나는 철금을 안았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불진(佛塵)을 들었다. 광장 중심에 다섯 명이 들어서자 검을 안고 있는 동자가 두 손으로 검을 받쳐들고 몸을 굽혀서 올려바쳤다. 하태충이 검을 받아들자 그제서야 동자 네 명은 몸을 굽히면서 물러났다.

반숙한이 말했다.

"화산파의 반양의도법의 초수도 그런 대로 쓸 만하오."

그러자 키 큰 노자는 능글맞게 말했다.

"칭찬해 주어서 고맙소."

반숙한은 그에게 눈을 흘기면서 다시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이 저 꼬마를 데리고 곤륜, 화산 양파의 무공을 한 번 전개해 봅시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그에게 돌리자 갑자기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너....."

그녀와 장무기는 오 년 전에 헤어졌다. 비록 그가 오 년 사이에 꼬마에서 소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얼굴은 아직도 그때와 많이 닮았다.

장무기가 말했다.

"우리들의 과거 일을 모두 얘기해 버릴 겁니까? 나는 증아우라 합니다."

반숙한은 그의 저의를 알았다. 그는 진짜 이름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싫은 것이다. 만약 자기가 그의 비밀을 밝히게 되면 그들

부부가 은혜를 원수고 갚은 여러 가지 일들을 군중들 앞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즉시 장검을 쳐들고 말했다.

"증소협의 무공이 몹시 진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그러니 출수하여 가르침을 주기 바라오."

그녀의 말뜻은, 우린 무예만 겨룰 뿐 지난 일들은 발설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자 장무기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현부처(賢夫妻) 검법이 신통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들어왔으니, 무예를 겨룰 때 아무래도 사정을 봐줘야겠소."

하태충이 말했다.

"증소협, 무슨 병기를 쓰겠소?"

장무기는 그를 보자 독을 빨 줄 아는 금관은관(金冠銀冠) 한 쌍의 작은 뱀이 생각났다. 그가 절벽 밑으로 떨어진 후에 그 한 쌍의 작은 뱀은 먹을 독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굶어 죽었다. 바로 또 생각난 것은 그가 무당산에서 자기의 부모를 억압하여 죽게 한 것과, 자기와 양불회를 억압하여 독주를 마시게 하고 자기를 때려서 눈과 코에 시퍼런 멍이 들게 하고는 절벽 밑으로 던져 버렸던 일이다. 만약에 양소가 옆에서 때마침 출수하여 구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지금쯤 시체가 벌써 썩어 없어졌을 테니 어떻게 지금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는 좋은 뜻으로 그의 애첩 생명을 구해 줬는데, 그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수차 자기에게 해꼬지 한 것이다. 그는 이것 저것 생각을 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하태충 이놈아, 그날 너에게 당한 분풀이로 오늘 널 죽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너를 실컷 두들겨서 그날의 사무친 한을 풀 것이다!"

하태충 부부와 화산파의 두 노자는 각각 사각(四角)에 나누어서 서 있었다. 양도와 쌍검이 햇빛 아래서 번뜩거렸다.

장무기는 갑자기 양팔을 한 번 진동시키자 몸이 똑바로 솟구치더니 공중에서 살짝 한 번 몸을 돌려서 서쪽에 있는 매화나무 쪽으로 덮쳐갔다. 왼손을 내밀어서 매화가지 하나를 꺾은 다음에 그제서야 몸을 돌려서 착지했다.

그는 매화를 손에 들고 천천히 네 사람 중간으로 들어갔다.

"소인은 이 매화가지를 병기로 사용할 것이오."

그 매화가지는 십여 송이의 매화가 달려 있었고, 반수 이상은 미처 피지 못한 꽃봉오리였다. 사람들은 그가 이같은 말을 하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매화가지는 부딪치기만 하면 부러질 것인데 어찌 상대방의 보검과 보도하고 겨룰 수가 있겠는가?!'

반숙한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넌 화산, 곤륜 양파의 무공을 아주 우습게 보았구나!"

"전 선친에게서 들은 적이 있소. 왕년에 곤륜파의 선배인 별건가 선생님의 금, 검, 기 삼절을 세칭 <곤륜삼성>이라 하였소. 하지만 우리가 너무 늦게 태어나서 그 선배님의 풍범을 전망하지 못한 건 몹시 안타까운 일이오."

이때 갑자기 곤륜파 중의 한 사람이 마치 징 깨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도적 종자 같으니, 네가 얼마나 큰 재주가 있기에 감히 나의 사부님과 사숙님에게 무례하는 거냐?!"

호통치는 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얼굴에 온통 털투성이로 된 도인 한 사람이 군중 틈에서 달려나오며 검을 쳐들고 장무기의 배심(背心)으로 찔러갔다. 이 도인의 신법은 매우 신속했다. 비록 사전에 경고를 했지만 검초가 너무나 빨라서 마치 암습해가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오히려 몸을 돌리지 않고 검끝이 등에 있는 옷에 닿으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왼발을 들어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검을 발로 밟아서 바닥에 눌러 놓았다. 그 도인이 힘껏 끌어 보았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자 이 도인은 바로 그가 중원에 처음 돌아갈 때 배에서 만났던 서화자(西華子)였다.

이 사람은 성격이 포악해서 장무기의 모친인 은소소에게 몹시 무례했었다. 순간 장무기의 마음에 찡하고 와 닿는 것이 있었다.

"당신은 서화자 도장이 아니오?!"

서화자는 상기된 얼굴로 대답은 하지 않고 힘껏 검을 뽑아 내려 안간힘을 썼다. 장무기는 갑자기 왼발을 놓아주고 발바닥으로 검에다 한 번 찍었다. 서화자는 뜻밖에 일어난 일이라 힘을 너무나 가해서 휘청하더니 뒤로 주저앉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무공으로 견주어 봐서는 비록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즉시 몸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 그가 천근추(千斤墜)를 막 사용하려는데 갑자기 검을 통해서한 줄기 강력한 역도(力道)가 전해 오면서 그의 몸을 뒤로 밀어 버리자 즉시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따라서 탱탱..... 하며 몇 번 경쾌한 소리가 나더니 수중에 있는 장검이 한 토막씩 절단되더니 손바닥 안에는 검자루만 남아 있었다.

서화자는 경악과 창피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반숙한의 친전 제자라 반숙한을 사부라 부르고 하태충을 장문사숙이라 불렀다. 이때 사부의 화난 얼굴을 보게 되자, 자기가 사문의 체면을 훼손했기에 나중에 문책을 면치 못하는 줄 알고 있어서 더욱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얼른 몸을 튕겨서 일어나더니 호통을 쳤다.

"이런 도적 종자 같으니.....!"

장무기는 이대로 그를 돌아가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가 욕을 하는 건 부모님까지 모욕했기에 수중에 들고 있는 매화 가지로 그의 몸을 스치니, 이미 그는 흉복지간의 급소를 세 군데나 찍히고 말았다. 그런 다음에 두 노자와 하씨 부부에게 말했다.

"자, 시작하시죠."

반숙한은 서화자에게 낮은 소리로 호통쳤다.

"물러서라. 그만큼 창피를 당해도 아직 부족하느냐?"

"네."

그러나 서화자는 발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자 반숙한은 또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네, 네, 사부님, 네."

말은 몹시 공손하게 해도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반숙한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속으론 저 녀석이 뭣 때문에 자기 말을 듣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녀의 안력이 비록 뛰어나도 장무기의 불혈(拂穴) 수법이 너무나 빨랐기에, 또 부드러운 물건을 빌려서 경력을 전달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장무기가 매화가지로 살짝 한 번 스친 게 마치 판관필로 혈도를 연거푸 찍은 것 같았다. 순간 그녀는 서화자의 어깨를 무겁게 한 번 밀면서 말했다.

"여기서 창피당하지 말고 물러서라!"

"네, 사부님, 네."

서화자는 대답하면서 몸은 서 있는 채로 옆으로 수치 정도 옮겨졌지만 수족의 자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 마치 석상 한 개가 사람의 일장에 의해 밀려난 것 같았다. 그러자 반숙한과 하태충은 그제야 그가 모르는 사이에 장무기에게 혈도를 찍힌 것을 알아채고 몹시 놀라와 했다. 하태충은 손을 내밀어서 서화자의 요혈(腰穴)을 몇 번 주무르면서 그의 혈도를 풀어 주려 했다. 그러나 경력이 투입되어도 서화자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양소의 몸을 기대고 있는 양불회를 가르키며 말했다.

"이 낭자는 오 년 전 그대들이 혈도를 봉해 놓고 독주를 억지로 먹이려 한 사람이오. 난 그녀를 풀어주는 방법이 없었소. 오늘

당신들의 제자도 똑같이 된 것이오. 귀아(貴我) 양파의 점혈 수법이 다르다는 건 이상하게 여길 것 없소."

군중들은 그의 말을 듣자 시선을 모두 양불회에게 쏟았다. 지금도 별로 크지 않은 소녀인데, 오 년 전이면 더욱 어린애가 아니더냐. 그런데 하태충 부부는 일파의 장문 신분으로 저토록 작은 낭자를 대했다는 것이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며 몹시 분개했다.

반숙한은 군중들의 눈빛이 이상해지는 걸 보자, 옛일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자 검을 쳐들어서 그의 미심(眉心)을 찌르려 했다. 바로 이때 하태충은 장 검으로 장무기의 배심(背心)을 공격하고 화산파의 두 노자도 따라서 공세를 전개했다.

장무기는 몸을 흔들거리더니 도검 사이에서 빠져나오면서 매화가지로 하태충의 얼굴을 살짝 스치었다. 하태충은 검을 비스듬히 세워서 그의 요협(腰脅)을 찔렀다. 무기는 왼손 식지로 키 작은 노자의 단도를 튕기고 매화가지로 하태충의 장검을 쓸어갔다. 하태충의 검신이 살짝 돌려지면서 검날은 매화가지를 향해 자르려 했다.

속으론, 내가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다 해도 목질의 나뭇 가지로 어찌 나의 검날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무기의 매화가지도 따라서 살짝 돌려지더니 그대로 검날에 와 닿으면서 한 줄기 연화한 경력을 내보내며 하태충의 장검을 막아냈다. 순간 탱 하는 소리가 나더니 키 큰 노자의 일도를 하태충의 검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키 큰 노자는 소리쳤다.

"아하, 하태충! 너는 오히려 적을 돕는 것이야?"

하태충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기의 검초가 적의 내경(內勁)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인정치 않았다.

"허튼 소리!"

라고 말을 하면서, 일검에 죽여 버리겠다는 것처럼 장무기를 찌

르려 했다.

하태충이 출초하여 적을 공격할 때 반숙한은 마침 장무기의 퇴로를 막고 있었고, 두 노자는 따라서 반양의도법을 전개했다. 정양의검법과 반양의도법은 비록 정반유별(正反有别)하였지만 모두 팔괘 중에서 변화해서 나온 것이고, 다시 팔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수초가 지나자 네 사람의 호흡이 갈수록 맞았고 양도와 쌍검의 배합은 더욱 날카롭고 전혀 빈틈이 없었다.

장무기도 네 사람이 연수하게 되면 몹시 상대하기 힘들 줄은 예상했지만 과연 정, 반 두 무공이 함께 합해지니까 음양이 서로 보안되어 전혀 빈틈이 없었다. 그가 몇 번씩이나 위험한 초수에 몰려 있을 때, 만약에 수중에 들고 있는 게 병기였다면 운경(運勁)을 하기만 하면 충분히 상대방의 도검을 진단(塵斷)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건방지게 매화가지를 하나 들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키 작은 노자의 강도가 땅에서부터 후려쳐오자 장무기는 옆으로 피했다. 그러나 반숙한의 장검이 뻗어 오면서 그의 대퇴를 찔러오더니 그의 바지통을 가르고 말았다.

장무기가 손을 돌려서 찍으려 하자, 하태충의 장검은 또 다시 다가오고, 두 노자의 단도도 아래위로 공격해 왔다. 일시에 장무기는 막아내기가 힘들었다. 순간 뭔가 생각난 듯 얼른 서화자의 등 뒤로 미끄러져 갔다. 그러자 반숙한은 따라 붙으면서 일검을 찔러 왔다. 초수의 악랄함과 경력의 강맹함은 마치 장무기를 죽여 버려야겠다는 속셈이다. 장무기는 서화자의 등뒤에서 몸을 살짝 움츠리자 반숙한의 그 일검이 하마터면 제자의 몸을 찌를 뻔했다. 그러자 서화자는 아이구 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태충이 왼쪽에서 공격해 오자 장무기는 다시 서화자의 몸 옆으로 피해 버렸다.

그는 일시에 그 정반양의 무공의 요지(要旨)를 찾아내지 못했다. 파해(破解)의 방법도 생각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서화자

를 방패로 삼아서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였다.

'장무기야, 장무기야, 넌 너무나도 천하 영웅을 과소 평가했다. 교자필패(驕者必敗)란 말은 오늘부터 분명히 마음 속에 새겨 놓아야겠다. 비록 세상에서 건곤이위신공보다 더 무서운 무공이 없고 구양신공보다 더 심후한 내경이 없다 해도, 사람은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늘 밖에 하늘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때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화자는 마치 인형처럼 꼼짝하지 않고 장무기는 그의 등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할 때마다 서화자는 아이구! 아! 으잉! 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화산파의 키 큰 노자가 소리쳤다.

"하부인, 당신이 손을 쓰지 않는다면 내가 손을 쓸 것이오!"

"내가 어찌 당신을 간섭하겠소."

키가 큰 노자는 칼을 휘두르면서 서화자의 허리 쪽을 후려쳤다.

순간 그는 속으로 큰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일도가 만약에 서화자를 베게 되면 자기에게는 병기를 막아 줄 방패가 없어지고, 또 서화자의 죽음 때문에 다시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왼손의 소매자락으로 한 줄기 경풍을 불출(拂出)하면서 키가 큰 노자의 일도를 막아냈다.

키 작은 노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단도를 그의 목덜미를 향해서 옆으로 후려쳤다. 장무기는 오른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노자의 일도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서화자의 어깨로 후려쳐왔다. 마치 자세를 거두어 들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의 몸을 베일 것 같이 입으로는 <서화도형, 조심하시오>라고 하며 다가왔다.

장무기는 몸을 돌려서 노자의 가슴에다 일장을 후려쳤다. 그러자 노자는 숨을 잠깐 멈추더니 좌장을 밀어내면서 수중의 단도는 여전히 서화자를 향해서 후려쳐갔다. 쌍장이 맞닿는 순간 노자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게 되고,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서화자는 장무기가 두 번씩이나 출수하여 자기를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몹시 고마워했다.

'오늘 만약에 생명을 보존하게 되면 화산파의 두 늙은 도적놈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다.'

하태충, 반숙한 부부는 장무기가 서화자를 보호해 주는 걸 보면서도 구도지덕(救徒之德)에 고마워하지 않고 도리어 검초가 갈수록 더욱 예리하고 악랄해졌다.

키가 크고 작은 두 노자의 출도(出刀)도 더욱 빨라졌다. 그들은 장무기까지 다치게 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서화자를 공격하게 되면 그의 신법에서 빈틈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렇게 되자 강도 두 자루는 오히려 서화자의 몸을 공격하는 횟수가 더 많아진 것이다.

소림, 무당, 아미 각파의 고수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내심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떨구었다. 만약 그들 네 사람이 장무기를 죽이기라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장무기는 갈수록 전세가 불리하다는 걸 느꼈다.

'내가 그들에게 패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건 무방하나, 구태여 이 도인까지 다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자 즉시 일장을 후려쳐서 키 큰 노자를 접근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있는 매화가지로 서화자의 혈도를 풀어 주었다.

바로 이때 키 작은 노자의 일도가 다시 서화자의 하반(下盤)으로 공격해 왔다. 장무기는 발을 날려서 그의 손목을 차려 하자 노자는 얼른 손을 뒤로 끌어들였다. 뜻밖에 서화자의 혈도가 풀려 있어서 갑자기 퍽 하고 일권을 노자의 콧잔등에 정통으로 가

격했다. 순간 선혈이 낭자했다. 키 작은 노자의 무공은 서화자보다 한 수 위였지만 그가 그토록 오래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군중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반숙한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서화자, 어서 물러나라!"

"네! 저 키 큰 도적놈이 아직도 나에게 일권을 빚진 게 있소!"

서화자는 출권하여 키 큰 노자를 후려치자 키 작은 노자는 좌권으로 뒤를 공격하고 일도로 허식(虛式)을 보이더니 팍 하고 소리를 내며 왼팔의 팔꿈치로 그의 흉구를 호되게 가격했다. 이 연환삼식(連環三式)이 바로 화산파의 절기다. 서화자는 몸을 몇 번 휘청거리더니 선혈을 한 모금 토해 냈다.

하태충의 좌장이 그의 허리 뒤를 받쳐주면서 장력을 토해 내자, 그의 비대한 체구가 선 채로 수 장 밖으로 보내졌다. 그런 다음 키 작은 노자에게 말했다.

"멋진 화악삼신봉(華악三神峯)이었소!"

수중의 장검은 칙 하고 소리를 내며 장무기에게 공격해 갔다. 크고 작은 두 노자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장무기에게만 공격해 갔다. 막상 서화자란 장애물이 없어지자 네 사람의 도법과 검법의 배합이 더욱 빈틈이 없어지면서 마치 팔이 여덟 개 달리고 다리도 여덟 개 달린 고수를 방불케 했다.

화산, 곤륜 양파의 정반양의도검술을 중국 고유의 하도낙서(河圖洛書)와 복희문왕(伏義文王)의 팔괘방위에서 얻어낸 것이다. 그 오묘함과 정철(精撤)한 곳을 극치에 도달토록 깊이 연구하게 되면 서역의 건곤이위심법보다도 더 위력이 막강하다. 그러나 하태충 부부와 크고 작은 두 노자는 이,삼 성(成) 정도밖에 터득하지 못했다. 설사 장무기에게 심후한 내력이 있다 해도 그들이 만약에 그 무공의 극치에 도달했더라면 벌써 그들의 도검에 죽었을

것이다.

 장무기는 자기의 경공을 전개하면 포위망을 빠져나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도망가게 되면 명교의 일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비태세를 강화하여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 다음 다시 기회를 포착하여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 네 사람은 모두 내력이 심후한 사람들이었다. 장무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억지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하태충 등은 비록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모두 착잡했다. 그들의 신분으로 더구나 네 사람이 연수(聯手)하였는데 삼백여 합(合)이 지났는데도 아직 장무기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었다.

 이때 방관하고 있는 각파의 장노명숙(長老名宿)들은 손짓을 해가며 자기파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 제 4 권 5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6 장 광명정(光明停)의 환난(患難)

 아미파의 장문인 멸절사태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비록 저 소년의 무공이 몹시 괴이하지만 곤륜, 화산 네 사람의 초수에 이미 그의 수족은 묶여 버리는 형편이 되었다. 서역의 무공이 제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중원의 박대정심(博大精深)함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양의(兩儀)는 사상(四象)으로 변하게 되고, 사상은 다시 팔괘로 변한다. 정변(正變)은 팔 팔 육십 사 초의

배가 되므로 모두 사천 구십 여섯 가지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 천하무공의 변화도 거의 그 안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약은 장무기의 일거일동을 처음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미파 문하에 있으면서 멸절사태의 총애를 받고 있어서 이미 그녀에게 역경원리(易經原理)의 심전(心傳)을 받았다.
이때 낭랑한 소리로 물어 보았다.
"사부님, 정반양의 초수가 아무리 많아도 태극(太極)이 음양양의의 원리로 변한 것이 아닙니까? 제자가 보기에 네 분 선배님의 초수가 과연 정묘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밑에 딛고 있는 보법의 방위(方位)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단전의 기(氣)로 천천히 토해 낸 것이어서 소리가 몹시 컸다.
장무기는 비록 그들과 역전(力戰)하고 있으나 그녀가 하는 말들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순간 그는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뭣 때문에 이토록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을까? 아마 날 지적해 주려는 속셈일 거다.'
멸절사태가 말했다.
"선배 무공의 핵심을 파악하다니, 너의 안력도 대단하구나!"
주지약은 혼자 중얼거렸다.
"양(陽)은 태양(太陽), 소음(小陰)으로 나누어지고, 음(陰)은 소양(小陽), 태음(太陰)으로 나누어진다. 그 네 가지를 사상(四象)이라 한다. 태양은 건열(乾悅)이고, 태음은 간곤(艮坤)이고 소양은 손감(巽坎)이고, 태음은 간곤(艮坤)이다. 건남(乾南), 곤북(坤北), 이동(離東), 감서(坎西), 진동북(震東北), 열동남(열東南), 손서남(巽西南), 간서북(艮西北), 진에서 건까지가 순(順)이고, 손(巽)에서 곤까지가 역(逆)이다."
"사부님, 곤륜파의 정양의검법은 진위(震位)부터 손위(巽位)까지가 순(順)이고, 화산파의 반양의도법은 손위(巽位)부터 곤위

(坤位)까지가 역(逆)입니다. 그렇죠?"

멸절사태는 제자가 지적해 낸 걸 듣자 내심 몹시 기뻐했다.

"넌 내가 평소에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멸절사태는 기뻐한 나머지 주지약의 말소리가 너무 컸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주지약은 많은 사람의 눈빛이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걸 보자 일부러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며 몹시 좋아하는 표정을 지었다.

장무기는 팔괘방위(八卦方位)란 학문을 어려서 부친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막상 주지약이 사상순역(四象順逆)에 대해서 말을 하자, 그제서야 하씨 부부와 두 노자의 보법 초수를 살펴보니 과연 사상, 팔괘에서 변화시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건곤이위심법이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장무기가 여지껏 버티고 있는 것은 그가 서역 무공을 최고 경지까지 수련한 것이고, 하씨 부부와 두 노자의 중토 무공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순간 그의 머리가 번쩍하더니 칠, 팔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러나 일시에 사용하기를 망설였다.

'만약에 내가 지금 전개하게 되면 멸절사태가 주낭자를 나무랄 것이다. 그 노사태의 심성이 악독하여 무슨 일이든 능히 할 수 있는 위인이다. 그렇게 되면 주낭자가 다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자 그는 초식을 바꾸지 않고 네 사람의 초수를 눈여겨 관찰했다.

주지약은 그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매우 초조했다. 더구나 하씨 부부의 공격이 더욱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제자인 제가 보기에는 철금선생님의 다음 위치는 귀매(歸妹) 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어찌 보시는지요?"

멸절사태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반숙한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호

통쳤다.

"아미파의 꼬마 아가씨! 저 녀석이 너의 무슨 사람이냐? 우리 곤륜파를 그렇게 호락호락 넘볼 수 없는 것을 모르느냐?"

주지약은 그녀가 자기의 속셈을 알아채는 걸 알자 그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됐다.

"지약아, 더 이상 물어 보지 마라. 그들 곤륜파는 아무나 넘볼 수 없다는 걸 못 들었느냐?"

멸절사태의 말은 자기의 제자를 감싸주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큰 소리로 웃어대며 말했다.

"나는 아미파의 수하폐장이고, 멸절사태의 포로가 된 적이 있소. 그러니 아미파가 그대의 곤륜파보다는 훨씬 고명하오."

그러면서 왼쪽으로 두 걸음 내딛더니 오른손에 있는 매화로 한 줄기 경풍을 일으켰다. 그 경풍은 바로 키 작은 노자의 후심을 덮쳐갔다.

장무기의 이 일초는 바로 건곤이위심법을 사용한 것이다. 방위와 시각이 안성맞춤이었다. 키 작은 노자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강도는 반숙한의 어깨로 후려쳐 갔다. 그러나 반숙한은 얼른 검을 돌려서 막아냈다. 훅 하고 소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키 큰 노자의 강도가 다시 공격해 왔다.

하태충은 급히 달려가서 검을 쳐들고 키 큰 노자의 만도(彎刀)를 막아냈다. 장무기는 다시 장풍을 보내서 키 작은 노자의 칼끝이 하태충의 하복부를 찌르게끔 유도했다. 반숙한은 몹시 화가 났다. 순간 휙휙 삼 검을 연거푸 공격해서 키 작은 노자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자 키 작은 노자가 소리쳤다.

"저 녀석의 술수에 넘어가지 마라!"

하태충은 금방 알아챘다. 장검을 되돌려서 그에게 공격했다. 장무기는 다시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하자 하태충의 검은 도중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순간 푹 하고 소리가 나면서 키 큰 노자의 왼

팔이 적중됐다. 그러자 키 큰 노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칼을 쳐들고 하태충의 머리를 후려쳤다. 키 작은 노자는 칼을 막아 내면서 호통치며 말했다.

"사제, 덤비지 마라. 모두 저 녀석의 술수다. 아이구....."

바로 이때 장무기는 다시 반숙한의 검초 방향을 바꿔놓자 키 작은 노자의 어깨 뒤를 적중한 것이다.

삽시간에 화산 이로는 선후로 검을 맞고 부상을 입자, 방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왕좌왕했다. 비록 그들도 장무기가 중간에서 네 사람의 검법과 도법의 방향을 바꿔 놓은 줄 알고 있지만, 그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오직 양소가 전에 건곤이위심법의 초보적인 것을 배운 것이 있어서 대강 눈치를 챘지만, 저 소년이 그러한 신공을 터득했다는 것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순간 장중에서는 부부끼리가 싸우고 동문끼리가 싸우는 양상이 되었다. 그러자 반숙한이 소리를 쳤다.

"전기망(轉기妄), 진몽위(進蒙位), 창명이(창明夷)!....."

그러나 건곤이위심법 무공이 사면팔방에서 감싸고 있기에 그들이 아무리 방위를 변환시키고 몸부림쳐 봐도 막상 도검을 쓰게 되면자기도 모르게 자기편의 몸쪽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키 큰 노자가 소리쳤다.

"사형, 출수할 때 좀 살살 할 수 없소?"

"난 저 소적(小賊)을 치려는 것이지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과연 그의 예상대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에 있는 강도가 비스듬하게 키 작은 노자의 허리쪽으로 후려쳐 갔다.

하태충이 말했다.

"부인, 저 소적이....."

탱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반숙한은 손에 들고 있는 장검을 땅바닥에다 던져 버렸다. 키 작은 노자가 생각해 보니 그녀의 행동이

맞는 것 같았다. 만약에 권장으로 상대하게 되면 장무기가 그런 사법(邪法)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자 그도 따라서 단도를 버리고 출권하여 장무기의 흉구를 향해 후려쳤다. 그런데 획 하고 소리가 나더니 하태충의 장검이 얼굴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키 작은 노자의 수중에는 병기가 없어졌기에 얼른 고개를 숙여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

반숙한이 소리쳤다.

"병기를 버려라!"

그러자 하태충은 힘껏 던져 장검을 멀리 보냈다.

키 큰 노자도 따라서 칼을 놓고 금나수로 장무기의 뒷덜미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손아귀에 뭔가 쥐어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 자기의 강도를 다시 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무기가 주워서 다시 그의 수중에 쥐어 준 것이다. 그러자 키 큰 노자가 말했다.

"난 병기를 안 쓴다!"

그러면서 힘껏 던져 버렸다. 장무기는 몸을 옆으로 해서 그의 강도를 잡더니 다시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봐도 키 큰 노자의 병기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자신도 이상한지 그만 큰 소리로 웃어버리고 말았다.

"빌어먹을 네 녀석이 마법을 쓰는 거냐?"

이때 키 작은 노자와 하씨 부부는 권각(拳脚)을 함께 써가며 장무기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화산, 곤륜의 권장지학(拳掌之學)도 병기만큼 위력이 대단했다. 그러나 장무기는 마치 미끄러운 물고기처럼 요리저리 피해다니면서 이따금 일초 반식을 반격하면 세 사람 모두 쩔쩔매었다.

이쯤되자, 승패는 판가름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네 사람의 무공으로는 장무기를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키 큰 노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네 이놈, 암기다!"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짙은 가래 한 모금을 장무기에게 뱉어냈다. 장무기는 옆으로 물러나서 피하자 키 큰 노자는 얼른 등 뒤로 강도를 던지더니 웃으며 말했다.

"네가 또..... 아유..... 안돼....."

순간 장무기는 좌장을 반인(反引)하여 반숙한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자. 키 큰 노자의 가래침이 그녀의 양미간에 적중한 것이다.

반숙한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순간 열 손가락을 빳빳하게 세워서 장무기에게 공격했다. 키 작은 노자는 마침 그의 퇴로를 막고 있으니 키 큰 노자와 하태충은 기회가 왔다 하고는 동시에 덮쳐갔다. 그러자 장무기는 양손으로 동시에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했다. 순간 그는 몸을 솟구치더니 공중에서 살짝 회전한 후에 일 장 밖으로 날아가서 착지했다.

그러자 하태충은 자기 부인의 허리를 안고 있고 반숙한은 남편의 어깨를 잡고 있고, 키가 크고 작은 두 노자는 서로 힘껏 부둥켜 안으면서 네 사람 모두 땅바닥에 넘어졌다.하씨 부부는 잘못된 것을 알고 얼른 손을 놓고 일어섰다. 큰 노자가 외쳤다.

"잡았다. 이번에 어디로 도망가겠냐? 아이구, 아니다....."

키 작은 노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빨리 놓아라!"

"먼저 손을 놓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놓겠습니까?"

"한 마디라도 덜 할 수 없느냐?"

"한 마디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 작은 노자가 두 팔을 풀고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일어나거라!"

키 큰 노자는 사형이 몹시 무서운 눈치였다. 얼른 손을 놓고 같이 일어났다.

키 큰 노자가 다시 소리치며 말했다.

"네 녀석은 무예를 겨루지 않고 사법(邪法)만 쓰고 있는데, 그건 어느 문파의 영웅적인 행실이냐?"

키 작은 노자는 장무기를 더 이상 물고 늘어져 봤자 창피만 당할 것임을 알고는 포권을 하면서 말했다.

"각하의 개세신공(蓋世神功)은 이몸이 평생 처음 보는 것이니, 화산파는 패배를 인정하겠소."

장무기는 답례를 하면서 말했다.

"후배가 요행으로 이긴 것이니 선배님들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키 큰 노자가 즐거워하며 말했다.

"그렇지, 너도 요행으로 이겼는 줄 아는구나."

"두 분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

"내 사형은 위진....."

"닥쳐라!"

키 작은 노자는 사제에게 호통치더니 장무기에게 말했다.

"패군지장은 몹시 창피한 일인데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소?"

말을 하면서 화산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승패란 병가지상사라, 난 그런 건 개의치 않는다."

키 큰 노자는 웃으며 말을 하고는 땅에 있는 두 자루 강도를 줏어 들고서 느린 걸음으로 돌아갔다.

장무기는 선우통에게 다가가서 그의 혈도를 두 군데 찍으면서 말했다.

"여기 일이 마무리 짓게 되면 당신의 독을 치료해 주겠소. 우선 독기가 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오."

바로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찬 바람이 몸을 기습해 오면서 약간 통증을 느꼈다. 장무기는 깜짝 놀랬다. 순간 그는 발끝에 힘을 가해서 몸을 솟구치게 하더니 옆으로 날아서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푹푹 두 번 소리가 나면서 윽! 하는 소리가 따라서 나더니 긴 비명 소리가 났다. 그가 공중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하태충과 반숙한의 장검 두 자루가 나란히 선우통의 흉구에 꽂혀 있었다.

그들 부부는 장무기가 선우통의 혈도를 찍고 있는 걸 보자, 서로 눈치가 오고 가더니 갑자기 <무성무색> 일초를 써서 동시에 그의 등 뒤를 공격한 것이다.

이 무성무색 초식은 곤륜파 검학 중의 절초(絶招)였다. 필히 두 사람이 같이 사용해야 하고 내경도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만 검초가 나갈 때 두 자루 장검에 발생하는 탕격지력(탕檄之力) 파공지성(破空之聲)을 서로 무마시킬 수 있다. 이 검초는 본시 야전에 사용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상대방이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식별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낮에 등 뒤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또한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다행히 장무기에게는 구양신공이 몸을 보호하고 있고 초식을 번개처럼 변화시켰기 망정이지, 정말 너무나도 아슬아슬 했었다. 그래도 입고 있던 옷 등에는 긴 칼자국이 두 개나 나 있었다. 하씨 부부는 미처 초식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여 화산파의 장문인을 죽이게 된 것이다.

장무기가 착지하자 군중들은 몹시 웅성거리고 있었다. 하씨 부부의 쌍검이 일제히 장무기를 공격했다. 그들의 속셈은 내친김에 아주 죽여 버리려는 것이다.

장무기는 몇 검을 피하고 나서 뭔가 생각난 듯이 몸을 살짝 구부리더니 왼손으로 땅에서 한 줌의 흙을 집었다. 한편으로 검초를 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심의 땀으로 손에 쥔 흙을 두 개의 작은 환약으로 반죽했다. 하태충이 왼쪽에서 공격해 오고 반숙한이 오른쪽에서 공격해 오는 걸 보자, 그는 얼른 선우통의 시체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두 번 뒤적거리는 시늉을

하고 난 다음, 몸을 돌려서 쌍장으로 두 사람에게 가격했다. 이 쌍장은 육, 칠 성(成)의 공력을 사용했기에 하씨 부부는 그만 숨통이 막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입을 벌려서 숨을 쉴려는 찰나, 장무기는 손을 들어서 두 개의 환약을 두 사람의 입으로 각각 하나씩 던져 넣었다. 그 환약은 강렬한 힘으로 목구멍으로 돌진해 갔다.

하씨 부부는 기침을 여러번 해 보았으나 그 환약을 토해지지 못했다. 막상 선우통의 몸에서 꺼낸 걸 보고는 몹시 놀랐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아까 선우통이 금잠충독에 중독되어 괴로워하는 참상을 생각하자 반숙한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장무기는 담담하게 말했다.

"선우장문의 몸에는 랍환(蠟丸)에 싸여 있는 금잠을 키우고 있고, 두 분께서는 이미 한 알씩 삼키었소. 만약에 급히 토해내서 랍환이 미처 녹지 않았다면 혹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이쯤되자 하씨 부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급해 내력을 운용하여 랍환을 토해내려 했다. 그들 두 사람의 내공이 뛰어나서 몇 번 위를 누르더니 바로 위 안에 있는 랍환을 토해냈다. 이때는 이미 위분비물과 범벅이 된 흙으로 변해 있었고, 랍환이란 것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화산파의 그 키가 큰 노자가 다가와서 웃으며 말했다.

"아하, 이건 금잠의 똥이다. 금잠이 뱃속에 들어가서 똥을 쌌구나."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있는 반숙한은 마침 발설할 때가 없는 차에 잘 됐다. 하며, 손을 되돌려서 무겁게 일장을 후려쳤다. 키 큰 노자는 머리를 숙여서 피한 다음 도망가면서 한 소리로 외쳤다.

"곤륜파의 여편네야, 네가 본파의 장문을 살해한 일은 화산파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니라."

하씨 부부는 그가 소리치는 걸 듣자 마음이 더욱 심란했다. 비록 선우통의 인품이 간악해도 화산파의 장문인은 틀림없다. 자기 부부가 실수하여 그를 살해한 것은 이미 무림에도 드문 큰 화를 저지른 것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금잠충독이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판에 다른 일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당장에는 장무기 저 녀석만이 독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부부가 옛날에 그처럼 그를 대해 줬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생명을 구해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장무기는 살짝 웃어 보이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소. 비록 금잠이 뱃속에 들어갔어도 독성이 발작하려면 여섯 시간이나 더 있어야 하오. 그러니 여기 일이 끝나는 대로 후배가 꼭 방법을 찾아서 구해 주겠소. 단지 하부인께서는 다시는 저에게 독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하씨 부부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차마 하지를 못하고 조용히 물러나기만 했다.

장무기가 말했다.

"두 분께서는 공동파에게서 오동흑석단 네 알을 얻어 복용하시오. 그래야만 독성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소."

하태충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소."

즉시 큰 제자를 보내서 공동파에게 단약(丹藥)을 얻어 와서 복용했다. 장무기는 속으로 몹시 우스웠다. 그 옥동흑석단은 해독하는 약물임엔 틀림없지만, 복용하게 되면 두 시간 동안 배가 뒤틀리면서 고통이 온다. 잠시 기다리자 하씨부부는 즉시 복통이 시작됐다. 그들은 금잠충독이 발작한 줄만 알지 장무기의 속임수에 넘어간 줄은 몰랐다.

이때 다른 쪽에서 멸절사태가 송원교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송대협, 육대파 중에 귀파와 우리만 남았소. 더구나 이 몸은 여자의 몸이니 송대협의 책임이 막중하오."

"난 이미 은교주와 겨루어 봤지만 그를 이기지 못했소. 사태의 검법이 신통해서 필시 저 후배를 제압할 것이오."

멸절사태는 냉소를 한 번 날리더니 등에서 의천검(倚天劍)을 뽑아들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무당파의 이협(二俠) 유연주는 장무기의 동태를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다. 그의 무공이 이상한 점에 대해서 자신은 몹시 경이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때 그는 잠시 생각을 굴렸다.

'멸절사태의 검법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곤륜, 화산의 사대고수가 연수한 임에는 미치지 못한다. 만약에 그녀가 이번에도 패하게 된다면 육대문파는 모두 그에게 패하는 것이다. 더구나 무당파에서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다. 그러니 내가 우선 그의 허실(虛實)을 좀 시험해 봐야겠다!'

그는 즉시 빠른 걸음으로 장중에 들어 가면서 말했다.

"사태, 우리 형제 다섯 사람이 먼저 저 소년과 무공을 겨루게 해 주겠소? 우리가 그의 공력을 소모시켜 버리면 최후의 일전은 사태가 꼭 승리할 것이오."

멸절사태는 그의 저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네 아미파가 무당파의 도움으로 저 소년에게 이기게 되더라도 그건 영광스런 일이 아니다. 아미파가 어찌 그런 비겁한 수단으로 후생소배(後生小背)를 상대해서 무공을 겨루겠는가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교만한 성품이라 항상 안하무인격이었다. 더구나 장무기가 전에 그녀에게 손쉽게 잡힌 적도 있지 않은가! 그러자 옷소매를 한 번 흔들더니 말했다.

"유이협은 돌아가시오. 이몸의 의천검이 출수하게 되면 절대로 그냥 검집에 꽂을 수 없소!"

유연주는 그녀의 말을 듣자 하는 수 없이 포권을 하며 말했다.
"알겠소."
그리고 물러갔다. 멸절사태는 검을 쳐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장반(場畔)이 있던 교중(敎衆)이 그녀가 나오는 걸 보자 모두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다. 그러자 멸절사태는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웬 소란이야? 내 저 녀석을 요리한 다음에 너희들을 하나하나씩 처치하겠다. 빨리 죽지 못해서 환장을 했구나!"
은천정은 그녀의 의천검이 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교의 많은 고수가 일합(一合)도 견디지 못하고 병기가 절단되어 그녀의 검에 죽어 갔었다.
"증소협, 그대는 무슨 병기를 사용하겠소?"
은천정이 장무기에게 물었다.
"나는 병기가 없소. 그러니 어떻게 그녀의 보검을 상대했으면 좋겠소?"
의천검은 아무리 단단한 물건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었다. 막상 생각하니 온몸이 섬찍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은천정이 신변에 있는 봇짐에서 장검 한 자루를 꺼내며 말했다.
"이 백홍검(白虹劍)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 검은 의천검보다 유명하지는 않아도 강호에서는 보기드문 병기라 할 수 있소."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검을 한 번 튕기자, 그 검은 갑자기 구부러지더니 바로 똑바로 펴지면서 웡웡.....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장무기는 아주 공손하게 받아 들고 나서 말했다.
"노인장,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검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소. 그러나 근래 십 여 년 동안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소. 오늘 만약에 그 검이 저 도적같은 늙은 비구니의 목에 있는 선혈을 마시는 걸 보게 되면 노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장무기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난 절대로 사태를 다치게 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하며 백홍검을 집어들었다. 몸을 뒤로 돌려서 몇 발자국 다가갔다. 검 끝은 아래를 향하게 하고 양손으로 검을 쥐면서 멸절사태에게 말했다.

"후배의 검법은 너무나 평범하여 절대로 사태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선배님은 명교의 예금기 아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살려주셨으니 저에게도 선심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멸절사태는 긴 눈썹을 밑으로 떨구면서 냉랭하게 말했다.

"예금기의 도적놈들은 네가 구해준 것이다. 멸절사태는 절대로 용서해 주는 법이 없다! 네가 내 수중에 있는 장검을 이기게 되면 그 때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명교의 예금, 거목, 홍수, 열화, 후토, 오행기에 있는 교중(教衆)은 모두들 야유를 보내며 소리쳤다.

"도적같은 늙은 비구니야! 재주가 있으면 육장(肉掌)으로 증소협과 상대해라."

"너의 검법은 형편없다. 모두가 그 보검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증소협의 검법은 너보다 고명하다. 내가 보통 장검으로 증소협의 삼초를 막아낸다면 너의 아미파가 고명하다고 인정하겠다."

"삼초라니? 아마 일초 반식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멸절사태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에게 야유를 보내는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진초(進招)하라!"

그러나 장무기는 검법을 수련한 적이 없었다. 이때 갑자기 진초란 말을 듣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까 하태충의 양의검법 초수가 몹시 정묘하다고 생각되자 그걸 흉내내서 옆으로 일검을 찔러

보았다.
멸절사태는 이상하다며 말했다.
"화산파의 초벽단운(조壁斷雲)이 아니냐?!"
의천검을 살짝 옆으로 비스듬히 세우더니 상대방의 초수를 막아내지 않고 검 끝을 똑바로 그의 단전에 있는 급소를 찔러갔다. 출수의 악랄함은 마치 도적 무리의 행실 같았다.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순간 걸음을 미끄러뜨려 피했으나 갑자기 멸절사태의 장검이 번뜩거리더니 검 끝은 인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장무기는 몹시 놀랐다. 얼른 땅에 엎드리면서 한 번 뒹굴더니 막 일어나려는 찰나 갑자기 뒷덜미에 섬 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오른쪽 발 끝에 힘을 가하여 몸을 비스듬히 해서 날아갔다. 그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숨을 건진 것이다. 방관하는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려 하자, 멸절사태는 몸을 솟구치더니 궁중에서 검을 들어올리며 위로 찔러갔다. 그가 미처 착지하기도 전에 검공은 이미 그의 몸둘레 수 치 밖을 봉쇄했다. 장무기의 몸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피할 방도가 없었다. 만약에 몸이 밑으로 한 치 정도만 내려가도 멸절사태의 보검에 즉시 양발이 잘릴 것이다. 만약에 세 치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때는 허리가 잘려서 두 동강이 나게 될 것이다.
순간 그는 최고의 위기에 놓였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장검을 뻗어서 백홍검의 검 끝을 의천검의 검 끝에 포개놓았다. 그러자 백홍검이 구부러지더니 툭 하고 살짝 소리 나면서 검신이 튕겨졌다. 그는 그 탄력을 이용해서 다시 높이 솟구쳤다.
멸절사태는 얼른 따라가서 휙휙 하며 삼검을 연거푸 공격했다. 제 삼검이 공격될 때는 장무기는 몸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하는 수 없이 검을 휘둘러서 막아야 했다. 순간 팅 하고 소리가 나더니 수중의 백홍검이 반 토막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우장을 후려치면서 비스듬히 멸절사태의 정수리를 공격했

다. 그러자 멸절사태는 검을 휘둘러서 그의 손목을 치려 했다. 장무기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검신을 한 번 튕기더니 몸을 반대로 날려서 나갔다. 그러자 멸절사태의 팔이 마비되는 것 같으면서 손아귀가 몹시 아팠다. 하마터면 장검을 놓칠 뻔 했다. 그녀는 몹시 경악했다. 장무기를 보니, 그는 이 장 밖에 떨어져 있으며 반 토막의 단검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몇 번의 공방전은 정말 전광석화 같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멸절사태는 연거푸 여덟 번 쾌초(快招)로 공격하며, 매 초마다 치명적인 악랄한 독수였다. 장무기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공격하는 것도 정묘무쌍했지만 피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왔다. 이 눈깜짝 할 시이에 사람들의 심장이 모두 가슴 밖으로 뛰어 나올 것만 같았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한참 지난 후 그제서야 하늘을 찌르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멸절사태가 말했다.

"병기를 바꾼 다음에 다시 겨루자."

그러자 장무기는 수중의 단검을 쳐다보며 잠시 생각했다.

'외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보검인데, 내가 못쓰게 만들어 버렸으니 그 노인장에게는 정말 면목 없구나. 이 보검도 막아내지 못하는데 또 무슨 보검이 의천검의 일격을 막을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주전(周顚)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에게 보도 한 자루가 있으니 이걸로 저 늙은이하고 겨루어 봐라. 자 가져가라."

"의천검이 너무나 예리하기에 선배님의 보도도 못쓰게 될지 모릅니다."

"못쓰게 되면 그만이다. 네가 그녀에게 패하게 되면 우리들의 생명도 그만인데 보도가 무슨 필요 있겠냐?"

장무기가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옳은 것 같았다. 그러자 다가가

서 보도를 받아 들었다.

양소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장공자, 그대는 필히 속공을 가해야 하오. 다시는 얻어 맞아서는 아니 되오."

장무기는 그가 자기를 <장공자>라고 부르는 것을 듣자 약간 놀라와했다. 그러나 즉시 알아차렸다. 양불회가 이미 자기를 알아보았기에 자연히 그녀의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이다.

"선배님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위일소도 작은 소리로 말했다.

"경공을 전개할 때 반 발자국도 주춤해서는 아니 되오."

그러자 장무기는 몹시 기뻐하며 다시 말했다.

"선배님의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광명사자 양소와 청익복왕 위일소 두 사람의 무공은 멸절사태와 한판을 겨루어도 만만찮은 적수들이지만 애석하게도 원진의 공격을 당했다. 중상을 입은 후 몸에 지닌 무공은 전혀 전개할 수 없었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있기에 두 사람은 각자 한 가지씩 중요한 관점을 지적해 준 것이다. 이는 바로 멸절사태가 가진 보검의 쾌초를 대적하는 중요한 공식과 같은 것이다.

장무기는 몸을 뒤로 돌리면서 말했다.

"사태님, 후배가 공격하겠소."

그러더니 경공을 전개하여 마치 연기처럼 멸절사태의 몸 뒤로 돌아갔다. 그녀가 미처 몸을 돌리기도 전에 좌우로 한 번씩 몸을 흔들더니 바로 한 바퀴 돌고 반대로 다시 한 바퀴 돌더니 연거푸 양도(兩刀)를 후려쳤다.

멸절사태는 검을 눕혀서 막아내고 막 검을 뻗어 출초하려는데 장무기는 이미 어디론지 가 버렸다. 그가 건곤대나이법을 연마하기 전에도 경공은 멸절사태보다 높았다. 시간이 갈수록 빨랐다. 마치 바람 같기도 하고 번개 같기도 했다. 평소에 경공에 자부심

을 갖고 있는 위일소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는 사방을 돌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일검씩 공격했다. 그러나 의천검의 예리함 때문에 감히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가 공격을 할 때는 멸절사태는 전혀 반격할 기회가 없었다. 그가 수십 바퀴를 돌자 체내의 구양진기가 발동되어 땅을 딛지 않고 마치 비행하는 것처럼 빨랐다.

아미파의 제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몹시 불안했다. 이렇게 나가다간 사부님에게 불리할 것 같았다. 그러나 정현이 소리치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마교를 쳐부수려 하는 거지 무공을 겨뤄서 승리를 따내려는 것이 아니오! 사제, 사매 여러분, 우리가 일제히 다가가서 저 녀석을 막읍시다. 그가 잔재주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진실한 무공으로 사부님하고 겨루게 합시다!"

그러면서 검을 쳐들고 다가갔다. 그러자 아미파의 남녀 제자들도 일제히 몰려갔다. 손에는 병기를 들고 팔면방위를 지키고 있었다. 주지약은 서남쪽에 서 있었다.

정민군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사매, 막아 내든가 피해 주든가는 너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자 주지약은 화가 치밀면서도 부끄러워했다.

"뭣 때문에 나에게만 그러는 것이오!"

바로 이때 장무기는 이미 그들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정민군이 일검을 찔러 보았으나 장무기가 왼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장검을 빼앗아 버리더니 바로 멸절사태에게 던졌다. 그러자 멸절사태는 검을 휘둘러서 다가오는 검을 두 동강이로 잘라 버렸다. 그러나 장무기가 던진 힘은 너무나 강경하였다. 비록 감은 부러졌어도 경력이 울려서 그녀의 손목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주춤하지 않고 즉시 왼손을 내밀어서 빼앗고, 빼앗은 다음 던져 버렸다.

아미파의 제자들 중 이번에 서역에 온 사람들은 모두 파에 있는 고수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내밀어서 검을 빼앗으려 해도 전혀 피할 여지가 없었다. 순간 수십 자루의 장검은 흰 빛을 번뜩거리며 계속 멸절사태에게 날아갔다.

멸절사태는 얼굴에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오는 검을 일일이 잘라 버렸다. 나중에는 오른팔이 시큰거렸다. 그러자 검을 바로 왼손으로 옮겼다. 그녀의 왼손 검솜씨도 오른손에 못지 않았다. 얼마 후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빈손이었으나 오직 주지약 수중의 장검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장무기는 아까 그녀가 자기를 도운 것을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 그녀의 입장만 난처하게 만든 것이다. 순간 주지약은 얼굴을 붉히며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정민군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사매, 과연 그는 너를 다르게 대하는구나."

이때 아미파의 제자들이 비록 장무기를 막고 있어도 그는 하나도 거북하게 생각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멸절사태의 급소를 공격해 갔다. 멸절사태는 이미 반격할 수 없는 국면에 놓여 있어서 몹시 초조해하고 있는 판국에 정민군의 말소리가 귀에 전해 왔다.

"넌 사부님께서 저 녀석의 급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어찌 도우려 하지 않느냐? 넌 손에 검을 쥐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저 녀석이 사부님을 제압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러자 멸절사태는 잠시 생각을 굴렸다.

'뭣 때문에 저 녀석이 지약의 검만 뺏지 않았을까? 혹 둘이서 몰래 내통하는 게 아닐까? 내가 한 번 시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약, 넌 감히 기사멸조(欺師滅祖)하려느냐?"

말이 끝나자 검을 쳐들고 주지약의 가슴으로 찔러갔다.

주지약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감히 검을 들어올려서 막지 못했다.

"사부님, 전....."

그녀가 '전'이란 말이 떨어지자 멸절사태의 장검은 이미 그녀의 가슴에 다가왔다.

장무기는 멸절사태가 시험하는 줄 모르고 얼른 몸을 튕겨서 다가가더니 주지약을 끌어안고 일 장 밖으로 날아갔다.

멸절사태는 오랫만에 주객의 입장이 뒤바뀌어졌다. 즉시 장검을 쳐들고 그의 후심을 똑바로 찔러갔다. 장무기의 내력이 비록 강해도 한 번도 제대로 경공을 연마한 적이 없어서 위일소같이 사람을 안고 가볍게 달릴 수는 없었다. 막상 등 뒤의 바람소리를 듣자 할 수 없이 칼을 돌려서 다가오는 검을 막았다. 순간 탕 하는 소리가 나더니 수중의 보도가 다시 반 토막이 잘려 나갔다. 멸절사태의 장검이 바로 따라서 공격해 왔다. 그러자 장무기는 손을 되돌려서 운경하여 반 토막 보도를 멸절사태에게 던졌다. 이는 구 성(成)의 공력을 사용했기에 멸절사태는 즉시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려 피했다. 반 토막 보도는 그녀의 머리위로 스쳐갔지만 경풍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녀의 얼굴을 몹시 아프게 했다. 장무기는 찬스를 포착하자 주지약을 내려 놓지 않고 즉시 앞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을 뻗어 일장을 후려쳤다. 멸절사태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있었기에 검을 쳐들어서 그의 손목을 공격했다. 장무기는 후려치는 자세를 잡는 자세로 변하더니 손을 되돌려서 가볍게 의천검을 빼앗았다.

이처럼 순식간에 화강위유(化剛爲柔)하는 수법은 건곤이위심법의 제 칠 층 신공에 속한다. 멸절사태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해도 상대방의 강맹한 장력이 몸에 기습해 올 때는 절대로 경연한 금나수법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비록 장무기가 승리를 했어도 멸절사태 같은 막강한 적수에게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방심도 하지 않고 즉시 의천검을 그녀의 인후에 갖다 댔다. 혹 그녀가 다시 괴상한 초수를 펼칠까봐 천천히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주지약은 몸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빨리 날 내려 줘라!"

"아, 네."

장무기는 얼굴을 붉히면서 얼른 그녀를 내려 놓았다. 비록 그녀의 표정은 두려운 것처럼 보였으나 눈빛은 좋아하는 듯이 나타났다.

멸절사태는 천천히 몸을 똑바로 일으키더니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주지약을 쳐다보고 다시 멸절사태를 쳐다보더니 얼굴색은 갈수록 시퍼렇게 변했다.

장무기는 검을 돌려서 검 끝을 잡고 주지약에게 말했다.

"주낭자, 귀파의 보검이니 당신이 존사에게 돌려주시오."

주지약은 고개를 돌려 사부를 쳐다보니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순간 그녀는 잠시 생각을 굴렸다.

'오늘의 국면은 너무나도 난감했다. 장공자가 그처럼 나에게 대해 줬으니 사부는 필시 나와 그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 것이다. 앞으로 나는 아미파의 버려진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망망한 대지 위에 나더러 어디로 가란 말인가. 장공자가 나에게 잘 대해 주지만 난 절대로 사문을 배반할 수 없다.'

갑자기 멸절사태가 무섭게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약, 일검에 죽여 버려라!"

주지약은 장삼봉을 따라서 무당산에 갔던 해, 장삼봉은 무당산에 여자가 없어서 모든 일이 불편하다고 하며, 즉시 추천서를 써 주었다. 그래서 멸절사태의 문하에 투입한 것이다. 그녀는 몹시 영특하고 또 어려서 부모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참변을 당했기에 이를 악물고 무예를 닦았다. 그래서 진보가 몹시 빨랐고 사부의

총애도 듬뿍 받고 있었다.

지금까지 칠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면서 사부의 일언일동(一言一動)을 그녀는 마치 진리처럼 느껴왔다. 마음 속으로 한번도 위배하고 또 무시한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이때 사부의 갑작스런 호통소리를 듣자 엉겁결에 의천검을 받아들고 바로 장무기의 가슴으로 찔러갔다.

장무기는 그녀가 자기에게 출수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전혀 피하려 하지 않았다. 순간 검 끝이 가슴에 와 닿는 걸 느끼자 이미 때는 늦었다. 주지약은 손을 떨면서 생각을 굴렸다.

'내가 정말 그를 죽이려 하는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손목을 약간 옆으로 하고 장검을 살짝 비스듬히 해서는 척 하고 가벼운 소리를 내더니, 의천검은 장무기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했다.

주지약은 비명을 한 마디 지르며 장검을 뽑아내보니 검 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장무기의 오른쪽 가슴에는 선혈이 마치 샘솟듯 했다. 순간 사방에서 놀라는 외마디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 장무기는 손을 내밀어 상처 부위를 눌렀다. 몸을 휘청거리면서 얼굴에는 괴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네가 진정으로 날 죽이려 했느냐 하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자 주지약이 말했다.

"나..... 나....."

얼른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살펴보고 싶지만 용기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뛰어 돌아갔다.

소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얼른 다가가서 장무기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당신..... 당신....."

그러자 장무기는 소조에게 말했다.

"네..... 네..... 네가 뭣 때문에 날 죽이려 했느냐.....?"

이 일검은 다행히 살짝 빗나가서 심장을 피해갔다. 그러나 우측 폐엽을 상했다. 그가 몇 마디 말을 하더니 폐에 숨을 들이마실 수 없기에 허리를 굽히고 심한 기침을 했다. 그는 중상을 입어서 소조와 주지약을 분간하지 못했다. 선혈이 너무 많이 흘려서 소조의 상의를 반이나 빨갛게 물들었다.

방관하는 군중들은 육대파나, 명교, 천응교 할것없이 일시에 모두 조용히 지켜 보기만 했다.

소조는 그를 부축하면서 천천히 앉으며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최고로 좋은 금창약(金創藥)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자 소림파의 공성신승이 잽싸게 다가가서 품에 있는 약분 한 봉지를 꺼내면서 말했다.

"비파의 옥령산(玉靈散)은 상과의 성약이오."

손을 내밀어서 장무기의 앞가슴 옷을 찢어보자 상처는 무려 몇 치의 깊이에 달했다. 얼른 옥령산을 상처 부위에다 덮었으나 흘러나오는 선혈에 의해서 약분은 씻기고 말았다. 그러자 공성은 속수무책이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태충 부부는 더욱 조급했다. 그들은 금잠충독을 복용한 줄만 알고 있으니 만약에 이 사람이 중상으로 죽게 되면 자기 부부들은 독을 제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죽게 되는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자 하태충은 얼른 장무기에게 다가가서 급히 물었다.

"금잠충독은 어떻게 제거하느냐?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하라니깐!"

소조는 울면서 말했다.

"비켜 서시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장공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모두가 죽게 될 것이오."

그래도 하태충은 연신 물어보았다.

그러자 공성이 화를 내며 말했다.

"철금선생, 그래도 비켜서지 못하겠다면 빈승은 가만 있지 않겠소!"

바로 이때 장무기는 눈을 뜨고 약간 정신을 가다듬더니 왼손 식지로 자기의 상처 주위에 있는 일곱 군데 혈도를 찍자, 즉시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늦어졌다. 공성은 몹시 기뻐하면서 옥령산을 다시 그의 상처에 붙여 주었다. 소조는 옷자락을 찢어서 그의 상처를 감싸주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 버리며 전혀 핏기가 없는 걸 보자, 내심 말할 수 없이 초조하고 두려워했다.

장무기의 정신이 약간 돌아왔다. 내식(內息)을 암운(暗運)하여 유전(流轉)시켜보니 오른쪽 가슴에 와서 바로 막히는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육대파가 명교 사람을 죽이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이러한 생각을 하고 진기를 왼쪽 흉복간에 몇 번 운전(運轉)하더니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아미, 무당 양파에서 만약에 소인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나오셔서 저와 겨뤄 보시죠?"

그가 이같은 말을 하자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멸절사태가 냉랭하게 말했다.

"아미파는 오늘 패배를 인정한다. 만약에 네가 죽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계산하자, 우리는 무당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육대파의 승패는 모두 무당파의 손에 달려 있소!"

육대파가 광명정을 위공(圍攻)해서 공동, 소림, 화산, 곤륜, 아미 오(五) 파의 고수는 모두 장무기에게 패했지만, 유독 무당 일파만 아직 그와 겨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몸에는 중상을 입고 있는 터라 일류 고수는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자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한동안 싱갱이하면 제풀에 지쳐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무당오협 중에 어느 한 분이 다가가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계획대로 명교를 섬멸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당파는 예로부터 협의를 매우 중시했다. 그들에게 몸에 중상을 입은 소년을 상대해서 출수하라 하면 아마 무당오협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무당파가 출수하지 않는다면 <육대파위공광명정>이라는 무림의 일대 거사는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육대파는 강호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송원교, 유연주, 장송계, 은이정, 막성곡 다섯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모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갑자기 송청서가 말했다.

"아버님, 네 분 사숙님, 소자가 그를 요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유연주가 말했다.

"안 된다. 우리가 너에게 출수하라고 허락하면 우리가 손수 출수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

장송계가 말했다.

"둘째 형님, 아우가 보기에는 대국이 중요하지 우리 오 형제의 명성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막성곡이 말했다.

"명성은 몸 밖에 있는 물건이오. 단지 우리가 중상을 입은 소년을 상대해야 하니 양심에 미안할 따름이오."

일시에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각자는 송원교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의 지시를 받기로 했다.

송원교는 은이정이 시종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분노해 있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약혼자인 기효부가 명교의 양소에게 몸을 더럽힌 후 목숨까지 잃은 것이다. 실로 일생일대의 치욕이고 원한이다. 만약에 명교를 섬멸하지 않고 간악음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의 분노를 어디에다 발설할 것인가. 그러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교의 잔악무도 하였기에 제악무진(除惡務盡)하여야 하오. 이거야 말로 우리 협의도(俠義道)의 대절(大節)이오. 명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큰 일을 택하는 수밖에 없소. 청서, 몸조심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송청서는 허리를 굽혀서 대답한 다음, 장무기에게 다가가더니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증소협, 만약 그대가 명교의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여길 떠나가서 상처를 요양해도 좋소. 육대파는 오직 마교의 사도들을 섬멸할 뿐 그대와는 무관하오."

장무기는 왼손으로 상처를 누르며 말했다.

"송형의 호의는 대단히.....대단히 고맙소. 하지만 이몸은..... 이몸은 명교와 동존공망(同存共亡)하기로 작정했소."

그러자 명교와 천응교의 사람들은 모두가 외쳐 댔다.

"증소협, 이쯤 됐으니 그만 두는 게 좋겠소!"

은천정은 완만한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송가야, 노부가 너의 고초(高招)를 받을 수 있게 해다오."

그러나 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여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송청서는 장무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증형, 소제는 대국을 위해서 실례를 범하는 수밖에 없겠소."

소조가 장무기의 몸을 가로막고 소리쳤다.

"나 먼저 죽여라!"

"소조,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당신..... 몸에는 상처가 있잖아요?"

"소조, 당신은 뭣 때문에 이처럼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오?"

"그건..... 그건 당신이 날 잘 대해주기 때문이예요."

장무기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내심 생각을 굴렸다.
'설사 내가 지금 죽더라도 진정으로 나를 잘 대해주는 지기(知己)가 있어서 후회하지는 않겠다.'
송청서는 소조에게 호통쳤다.
"물러서라!"
장무기가 분연히 말했다.
"그대는 이 낭자에게 너무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는구나!"
송청서는 소조의 어깨를 밀어서 몇 걸음 밖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말했다.
"요녀사남(妖女邪男)들 같으니! 빨리 일어나라!"
장무기가 말했다.
"영존 송대협께서는 천하가 인정하는 군자신데, 각하는 몹시 거칠구료. 당신 같은 인간하고 싸움을 하는데 일어..... 일어설 것까지는 없겠소."
사실 그는 내경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일어설 힘이 없는 것이다. 장무기가 중상을 입은 후 허약무력한 상황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연주가 낭랑한 목청으로 외쳤다.
"청서야, 그의 혈도를 찍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된다. 구태여 그의 목숨을 상하게 할 것까지는 없다."
"알겠습니다!"
송청서는 대답하고 나서 왼손을 허인(虛引)하더니 오른손을 뻗어서 장무기의 어깨를 향하여 찍어갔다. 장무기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견정혈에 찍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력을 사인하여 그의 지력을 옆으로 옮겨 버렸다. 그러자 송청서의 인지는 마치 물 속에 빠진 것처럼 전혀 힘을 가할 곳이 없었다. 너무 뜻밖에 당한 일이라 몸을 정지하기가 힘들었다. 하마터면 장무기의 몸을 부딪칠 뻔했다. 순간 몸을 급히 고정시켰으나 그래도 다소나마 불안정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오른발을 날려 장무기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 일격은 육, 칠 성의 공력을 사용했다. 비록 유연주가 그 보고 장무기의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웬지 모르게 그의 마음은 눈앞의 이 소년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진 것이다. 아마 이는 주지약에 대한 그의 질투심에서 일어난 것 같았다.

송청서는 문무쌍전(文武雙全)하여 무당파 제 삼 대 제자중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의 사람 됨됨이도 의를 편중하는 외골수였다. 그러나 정(情)이란 걸 부딪치게 되면 감정을 가눌 수가 없었다.

군중이 보기에는 송청서의 이 일격을 장무기가 피하려면 몸을 튕겨서 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하여 받아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일어서기 조차 힘든 판국에 이 일격은 아마 그의 목숨을 앗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발 끝이 가슴에 닿으려는 찰나 장무기는 오른손 다섯 손가락을 살짝 흔들자 송청서의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그의 몸에서 세 치 거리나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이 일격도 헛치고 만 것이다. 송청서는 이런 자세에서 발을 거둬들일 수 없어서 바로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면서 뒷꿈치로 장무기의 배심(背心)을 공격하였다. 이 일초는 너무나 빠르고 악랄하여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손가락을 다시 살짝 흔들어서 그의 발뒷꿈치 공격을 또 막아냈다.

삼초가 지나자 방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됐다. 그러자 송원교가 소리쳤다.

"청서, 그의 몸은 전혀 경력이 없다. 그건 네 냥으로 천근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역시 그의 안목은 대단했다. 그는 장무기가 이미 경력을 전부 상실하였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비록 사용하는 무공이 괴이

하지만 기본 도리는 무학 중에서 차력타력(借力打力)에 불과한 것이다.

송청서는 부친의 깨우침을 받자 갑자기 초수를 바꿔 쌍장을 살포시 후려치면서 공격했다. 이는 바로 무당절학 중의 하나인 면장(綿掌)이었다. 차력타력은 원래 무당파 무공의 근본이었다. 그가 사용한 면장은 자신의 경력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하는 것도 같아서 상대방은 전혀 힘을 빌릴 수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건곤이위신공을 이미 제 칠 층 경지까지 연마해서 제아무리 면장이 가볍다 해도 역시 유형유경(有形有勁)했다. 그는 왼손으로 가슴에 있는 상처를 누르고 오른손 다섯 손가락은 마치 가야금을 연주하듯 갑자기 튕기고 뜯고 하며, 상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삽시간에 송청서의 삼십 육초 면장 장력을 모두 막아냈다.

송청서는 내심 몹시 경악했다. 얼핏 고개를 뒤로 돌리자 갑자기 주지약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녀가 몹시 염려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자, 그만 가슴에는 시샘과 분노가 엇갈렸다. 그녀가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장무기란 걸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러자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왼손으로 일장을 후려쳐서 장무기의 오른뺨을 맹격했다. 오른손으로는 그의 왼쪽 어깨의 결분혈을 찍어갔다. 이 일초는 화개병제(花開병帝)라고 하는 것이다. 이름이야 듣기 좋아도 초수는 몹시 예리했다. 양 손을 거둬들인 다음 바로 우장으로 그의 왼뺨을 후려치고 왼손 식지로 그의 오른쪽 어깨 뒤에 있는 결분혈을 찍어갔다. 화개병제 양초를 일초로 묶어서 연속 사 식을 공격하기를 마치 광풍폭우처럼 전개했다. 군중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약속한 듯 앞으로 한 발씩 다가갔다.

순간 팍팍 하고 맑은 소리가 두 번 나더니 송청서의 왼손 일

장은 자기의 왼빰을 후려치면서 오른손 식지는 자기의 왼쪽 어깨에 있는 결분혈을 찍었다. 바로 오른손 일장은 자기의 오른빰을 후려치고 왼손 식지는 자기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결분혈을 찍었다. 그의 화개병제 사 식을 장무기는 건곤이위 무공으로 한꺼번에 그의 몸에다 옮긴 것이다. 비록 그의 왼쪽 어깨에 있는 결분혈은 찍혀도 수족은 아직 마비되지 않았다. 그가 나중의 화개병제 이 식을 전개한 후 그제서야 수족이 마비되면서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뒤로 넘어졌다. 몇 번 몸부림을 쳐보았으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그러자 송원교는 얼른 다가가서 왼손으로 몇 번 주물러서 아들의 혈도를 풀어 주었다. 그의 양쪽 빰을 보니 몹시 부어 있었고 손가락자국 다섯 개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비록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아들의 성품으로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서 본파로 돌아갔다.

이때 사방에서는 환호성이 끊임없이 울렸고 말소리가 몹시 소란스러웠다. 갑자기 장무기는 입을 벌리더니 몇 모금 선혈을 토해 내면서 상처를 누르고 다시 기침을 하였다. 군중들은 그를 눈여겨 보면서 몹시 염려했다.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였다.

'그가 중상을 입은 몸으로 송청서의 급공을 막아내면서 비록 승리는 했으나 내력은 너무나 많이 소모했을 것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를 쳐다보다가 다시 무당파의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무당파가 이대로 패배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겨룰지 모두 다 궁금해 하고 있었다.

송원교가 말했다.

"오늘 일에 무당파는 이미 전력을 다했소. 아마 하늘에서 이 괴상한 소년을 보내면서 마인을 섬멸치 못하게 하는 것 같소.

우리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면 명문정파와 마교는 뭐가 다를 게 있겠소!"

유연주가 말했다.

"큰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린 즉시 산으로 돌아가서 사부님의 가르침을 더 받읍시다. 나중에 무당파가 다시 오게 될 때는 이 소년의 상처도 완쾌될 줄 믿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승부를 가립시다."

그러자 장송계와 막성곡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은이정이 장검을 뽑아 들었다. 두 눈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장무기에게 칼 끝을 들이대며 말했다.

"증가야, 난 너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다. 지금 다시 너를 상하게 하면 나 은이정은 <협의>란 두 글자를 다시는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양소와 나는 바다처럼 깊은 원한이 있어서 나는 그를 꼭 죽여야 한다. 그러니 물러서라!"

장무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당신들이 절대로 명교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난 너부터 죽여야겠구나."

그러자 장무기는 선혈을 한 모금 토해 내면서 희미한 소리로 말했다.

"은육숙(殷六叔), 절 죽여 주세요."

은이정은 <은육숙>이란 말을 듣자 몹시 귀에 익은 듯했다.

'무기가 어렸을 때 나에게 자주 이렇게 불렀다. 그렇다면 이 소년.....?'

자세히 그의 용모를 살펴보니 볼수록 무기와 닮은 것 같았다. 비록 구 년이나 헤어져 장무기는 어린애에서 건장한 소년

으로 성장해 용모도 매우 달라졌지만, 기억 속의 무기의 용모가 조금씩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네가 무기냐?"

장무기의 몸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숨기려 들지 않고 소리치며 말했다.

"은육숙,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은이정은 눈물을 흘리며 장검을 떨어뜨렸다. 얼른 그를 안으며 소리쳤다.

"네가 바로 무기구나. 네가 우리 다섯째 형님의 아들 장무기구나!"

송원교, 유연주, 장송계, 막성곡 네 사람도 일제히 무기를 둘러싸면서 경악과 기쁨이 엇갈리고 있었다. 순간 기쁜 마음이 충만되어 육대문파와 명교의 일은 모두 잊어 버렸다.

은이정이 소리치자 하태충 부부, 주지약, 양소 등 몇 사람은 놀라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명교를 보호하려는 소년이 무당파 장취산의 아들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은이정은 장무기가 혼절하는 걸 보자, 얼른 천왕호심단(天王護心丹)을 한 알 꺼내 그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를 유연주에게 안으라 하고 장검을 주워 들고 양소에게 돌진해 가더니 칼 끝으로 그의 목에다 대면서 욕을 했다.

"양가야, 이 개돼지만도 못한 음도야! 내.....내.....!"

그러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순간 장검을 뻗쳐서 양소의 가슴을 향해 찔러갔다.

양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살짝 웃음을 보이더니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갑자기 한 소녀가 달려와서 양소의 몸을 막고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

은이정은 검을 멈추고 그 소녀를 자세히 바라본 순간, 그만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이 싸늘해졌다. 이 소녀의 몸매며 눈동자는 영락없는 기효부였다. 그가 기효부와 혼인을 약속한 후부터는 여가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효부의 모습을 회상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양소에게 납치돼서 그에게 몸을 버리고 목숨까지 잃어 버리게 되자 가슴에는 원한으로 사무쳐 있었다. 갑자기 지금 그녀를 다시 보게 되자 몸이 휘청거렸다.

은이정은 소리치며 말했다.

"효부, 당신..... 당신 죽지.....!"

그 소녀는 양불회였다.

"전 성이 양입니다. 기효부는 저의 어머님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 됐습니다."

은이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다.

"아, 맞다. 참 나도 멍청하구나. 넌 물러서라. 오늘 난 너의 어머니의 한을 풀어 줄 것이다."

그러자 양불회는 멸절사태를 가리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은육숙, 그렇다면 당신은 저 늙은 비구니를 죽이세요!"

은이정이 말했다.

"뭣..... 뭣 때문이냐?"

"우리 어머님은 저 늙은 비구니가 일장으로 후려쳐서 죽인거예요."

"허튼소리 마라.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양불회는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그날 호접곡에 있을 때, 저 늙은 비구니가 우리 어머님을 시켜서 우리 아버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을 듣지 않자 늙은 비구니는 우리 어머님을 타사(打死)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고 장무기 오빠도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

시겠다면, 직접 저 늙은 비구니에게 물어보세요."

은이정은 멸절사태에게 고개를 돌려 의문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사태, 말해 주시오, 기 낭자는....."

"그렇소. 그처럼 염치를 모르는 인간을 뭣 때문에 세상에 남겨 놓겠소. 그녀는 양소와 정을 통하고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문을 배반했고, 사부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음도 악적(淫徒惡賊)을 죽이려 하지 않았소. 은육협, 당신의 체면 때문에 난 도저히 입을 열 수 없었소. 흥, 그러한 여자를 당신은 뭣 때문에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오?"

"난 믿을 수 없소, 난 믿을 수 없소!"

"그렇다면, 당신은 저 여자아이의 이름을 물어 보시오."

"내 이름은 양불회예요. 어머님께서는 그 일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탕! 하고 소리가 나더니 은이정은 장검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순간 그는 몸을 뒤로 돌리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산밑으로 질주했다. 그러자 송원교와 유연주는 크게 소리쳤다.

"여섯째 아우! 여섯째 아우!"

그러나 은이정은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갑자기 실족을 하여 한 번 넘어지더니 바로 일어나 눈깜짝할 사이에 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와 기효부의 일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가 이처럼 상심하는 걸 보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착잡했다.

이때, 송원교, 유연주, 장송계, 막성곡 네 사람은 각각 사각에 나누어 앉았다. 각자 일장을 내밀어서 장무기의 가슴, 복부, 등, 허리 네 곳에 있는 대혈(大穴)을 누르면서 일제히 내력을 운용하여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사 인의 내력이 장

무기의 체내로 투입되자, 즉시 그의 체내에서 한 줄기 강한 흡인력이 사 인의 내력을 계속 빨아들였다. 순간 네 사람은 몹시 놀랬다. 이처럼 빨아들이면 한 두 시간만 지나면 자기들의 내력은 모두 잃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숨이 걸려 있는 판국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잠시 후 장무기는 천천히 눈을 뜨고 외마다 소리를 질렀다. 송원교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그의 장심에 한줄기 아주 따스한 열력이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구양신공이 응화(應和)를 일으키면서 네 사람의 체내로 내력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송원교가 소리쳤다.

"안 된다. 너 자신을 정양하는게 급하다!"

네 사람은 급히 철장(撤掌)하며 일어섰다. 그러나 마치 한줄기 흐르는 물이 온몸을 스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편안한 느낌이었다. 이는 그가 흡입한 내력을 네 사람에게 돌려 주면서, 동시에 그의 체내에 있는 구양진기로 네 사람의 내공을 더욱 강하게 해준 것이다. 송원교 등 네 사람은 서로 번갈아 쳐다보면서 내심 놀라워했다.

이때 장무기의 외상은 여전히 심했으나 내식(內息)은 이미 자유롭게 운전되었다. 무기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송대백, 유이백, 장사백, 막칠숙, 조카의 무례를 용서하시오. 태사부님께서는 옥체 안녕하십니까?"

유연주가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안녕하시다. 무기야, 너..... 너 많이 컸구나.....!"

백미응왕 은천정은 생명의 은인이 자기의 외손자란 걸 알고 몹시 기뻐했지만, 끝내 일어서지는 못했다.

멸절사태는 얼굴을 붉히면서 손을 흔들고 나서 아미파 제자들

을 이끌고 하산했다. 주지약은 고개를 숙이고 몇 걸음 옮겼으나 끝내 참지 못하고 돌아서서 장무기를 바라보았다. 마침 장무기도 그녀의 뒷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주지약의 창백한 얼굴에는 금새 붉은 구름이 끼인 것 같았고, 눈빛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그처럼 중상을 입혀서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 부디 몸조심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장무기도 마치 그녀의 의사를 아는 양 살짝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주지약은 금방 밝은 얼굴을 하며 고개를 돌려 얼른 일행을 뒤쫓아갔다.

무당파와 장무기가 서로 알아보고, 더구나 아미파까지 떠났으니, 육대문파가 마교를 섬멸하는 일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공동, 화산 양파도 사상자들을 끌고 곧 떠나버렸다.

하태충이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젊은이, 당신들의 친인(親人)이 알아 본 것을 축하하오."

장무기는 그가 말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품에서 피장기와 거수악 환약을 두 개 꺼내더니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하태충 부부께서는 각자 한 일씩 복용하시면 금잠충독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오."

하태충은 환약을 받아들고 보니 거무스름한 게 아주 볼품이 없었다. 이걸로 천하 제일의 극독인 금잠충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 장무기가 다시 말했다.

"소인이 제거된다고 말했으니 부디 믿어 주시오."

'설사 그가 날 속인다 해도 무당 사협이 곁에 있는데, 어찌 그를 협박하여 진짜 약을 달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소림파의 저 공성 중놈도 이녀석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래도 오늘은 이대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

순간 그는 억지 웃음을 띄며 말했다.

"대단히 고맙소."

말을 마친 그는 반숙한과 환약을 하나씩 복용한 후, 제자들을 지휘해 죽은 자의 시신을 정리하고 하산하였다.
유연주가 말했다.
"무기야, 넌 중상을 입어서 하산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 요양하는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여기 남아서 널 돌봐주지 못하겠구나. 부디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무당산으로 한 번 오너라. 그래야 사부님께서도 기뻐할 게 아니냐?"
장무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는 많은 걸 물어보고 싶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의 연약한 표정을 보자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말았다.
갑자기 소림파 중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원진사형의 시신이 안 보인다!"
막성곡은 호기심이 일어 얼른 다가가 살펴보니, 칠, 팔 명의 소림승들이 본문의 전사자 법채를 수습하고 있는데 유독 원진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원음은 명교의 무리들을 가르키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우리 원진사형의 법채를 빨리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 모두 태워 죽이겠다!"
주전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 정말 우습고 괴이한 일도 다 있구나. 너처럼 살이 있는 중놈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데, 죽은 화상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를 소나 돼지처럼 잡아먹기라도 할 수 있느냐?"
소림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즉시 십여 명의 승인이 사방으로 수색해 보았으나 역시 원진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소림과 무당 양파 사람들은 모두 하산하였다. 장무기는 앞으로 몇 걸음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전송했다.
송원교가 말했다.

"무기야, 오늘의 일전에서 넌 천하에 이름을 떨쳤고 명교로서는 태산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앞으로 명교는 네가 충고를 많이 해줘서 명문정파로 인도하기 바란다."

"소자, 사백님의 교훈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송계가 말했다.

"부디 몸조심하고 항상 잔악한 소인배들을 조심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당 사협과 무기는 오랫만에 만났는데 또다시 헤어지게 되니, 다섯 사람은 모두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양소와 은천정은 육대파 사람들이 모두 떠나 버리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다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명교와 천응교의 전체 교중들은 장대협의 호교 구명의 대은을 감사드리는 바이오."

삽시간에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러자 장무기는 어쩔 줄 몰랐다. 더구나 그 중에는 외할아버지, 외삼촌 같은 사람들도 있기에 얼른 무릎을 꿇고 답례를 하였다. 그는 급히 무릎을 꿇는 바람에 가슴의 상처가 파열되어 선혈을 몇 모금 토해 내면서 즉시 기절해 버렸다.

소조가 얼른 다가가서 일으켰다. 그러자 명교 중에서 부상을 입지 않은 두목 두 사람이 그를 들어서 침대에다 눕혀 주었다. 양소가 말했다.

"빨리 장대협을 나의 방으로 모셔가서 정양토록 해드려라."

그 두 목 두 명은 허리를 굽혀 대답한 후, 장무기를 양소의 방으로 데리고가 눕혔다.

소조가 양불회의 앞을 지날 때 양불회는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소조, 넌 잘도 흉내내는구나. 난 벌써 알고 있었다. 단지 너처럼 못생긴 것이 천교백미(千嬌百媚)한 미인일 줄은 정말 뜻

밖이다."

소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요 며칠 동안 명교도들은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몹시 분주하였다. 지옥같은 대전을 치르고 난 그들은 모두들 한 번씩 반성해 보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장무기의 상처를 염려하며 누구도 얽히고 설킨 원한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검상은 심했지만 장무기는 이미 구양신공을 수료한 터라 칠, 팔 일 정도 정양하게 되자 상처는 차츰 아물어갔다. 은천정, 양소, 위일소, 설불득 등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매일 사람들에게 들려서 장무기를 방문했다. 그가 날이 갈수록 회복이 순조롭자 모두들 몹시 기뻐했다.

팔 일째 되던 날 장무기는 일어나서 앉을 수 있었다. 그날 밤도 양소와 위일소는 문병을 오자 장무기가 물어 보았다.

"두 분께서 당하신 현음지(玄陰指)는 좀 어떠하십니까?"

양, 위 두 사람은 날로 증세가 더욱 심해져 뼈를 깎는 듯이 아팠지만, 그가 걱정을 할까 봐 많이 좋아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장무기는 두 사람의 얼굴에 흑기가 서려 있고 말할 때도 기력이 없는 걸 보자 다시 입을 열었다.

"저의 내력이 육, 팔 성(成)이나 회복했으니, 제가 두 분을 치료해 보겠소."

그러자 양소가 급히 말했다.

"아직은 안되오. 나중에 그대가 완쾌된 다음에 치료해도 늦지 않소. 만약에 힘을 많이 써서 상처가 다시 재발되는 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오."

위일소도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소. 장대협께서 귀채를 정양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저의 외할아버지인 백미응왕과 의부 사왕은 두 분하고는 같

은 항렬입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는 저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대협>이라고 칭하십니까? 다시 그렇게 부르신다면 저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양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장래에 모두 그대의 부하가 되고 그대의 앞에서는 감히 앉을 수도 없는데, 무슨 선배 평배를 따지겠소?"

장무기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양백백,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일소가 말했다.

"장대협, 이명교 교주의 중책을 당신이 맡지 않으면 누가 그 중책을 맡겠소?"

장무기는 양손을 마구 흔들면서 말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동쪽 멀리에서 호각소리가 몇 차례 들려왔다. 이는 바로 광명정 산하에 경계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양소와 위일소는 깜짝 놀랐다.

"육대문파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양소가 말했다.

"어제 잡수신 인삼은 괜찮지요? 소조, 네가 약실로 가서 인삼을 더 꺼내와서 장대협에게 달여드려라."

서쪽, 남쪽에서 동시에 호각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가 물었다.

"외적의 침공입니까?"

"본교와 천응교에도 고수가 많으니 장대협은 안심하시오."

순식간에 호각소리가 가까와졌다.

"제가 나가서 지시를 할 것이니, 위형은 장대협과 여기에 계십시오. 허허, 명교가 약해지니까 아무나 와서 넘보려 하는구나."

그는 비록 상처를 입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말 속에는 여전히 호기(豪氣)가 충만했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림, 아미 같은 명문정파들은 절대로 신의를 저버리고 다시 오지는 않는다. 온 자들은 분명 잔악한 무리들일 것이다. 광명정의 모든 고수들은 중상을 입었다. 이 칠, 팔 일 동안에 한 사람도 완쾌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 절대로 외적을 막아낼 수 없다. 만약에 이대로 출전하게 되면 목숨만 헛되이 버리는 꼴이다.'
갑자기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얼굴은 피투성이고 가슴에는 단도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적들이 삼면에서..... 산 위로 공격..... 형제들이 적을 막지..... 못해서....."
위일소가 물었다.
"어떤 자들이냐?"
그 자는 밖을 가리키며 말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다.
곧이어 호각소리가 여기저기서 몹시 다급하게 들려왔다. 또다시 두 사람이 실내로 뛰어들었다. 맨 처음 들어온 자는 홍수기의 장기부사였다. 그의 온몸은 피로 목욕한 것 같고 안색은 마치 귀신 같았다. 그래도 안간힘을 다해 침착한 자세로 살짝 몸을 구부려 아뢰었다.
"장대협, 양좌사, 위법왕님, 산 밑에서 공격해 오는 건 거경방, 해사파, 신권문의 인물입니다."
양소는 콧방귀를 한번 뀌더니 말했다.
"그런 오합지졸들이 감히우리를 넘보려 하느냐?"
"적들은 대단치 않지만 우리 형제들 대다수가 상처를 입고 있

어서....."

그가 여기까지 말을 하자 냉겸, 철관도인 장중, 팽영옥, 설불득, 주전 등 오산인이 각각 사람에게 들린 채 들어왔다.

주전은 식식거리며 큰 소리로 소리쳤다.

"개방 이놈들, 잘 놀고 있구나. 우리 명교가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삼문방과 무산방을 끌어들여서 공격해 오는구나. 나 주전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그들과 영원히....."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은천정 부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은천정이 말했다.

"무기야, 너는 잠을 자거라. 제기랄! 그 <오봉도>와 <당혼창> 같은 작은 문파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 중에서 양소가 명교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은천정은 천응교의 교주고, 팽영옥은 지계(智計)가 제일 풍부했었다. 이 세 사람은 평생 동안 수많은 풍파를 만났어도 항상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기사회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정세는 실로 절벽에 부딪친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은 중상을 입었으며 적은 대거 공격해 왔다. 다른 방회나 문파들은 별거 아니지만 개방은 강호에서 제일 큰 방이다. 방내에 고수들이 구름 같이 많아서 그 위세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그러니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장무기를 바라보았다. 그가 갑자기 기계(奇計)를 생각해 내서 이 위기에서 모면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그는 자기의 무공이 양소, 외할아버지, 위일소들보다 높은 줄은 알고 있지만, 견식계모(見識計謀)로 따지자면 그 고수들이 당연히 그보다는 높았다. 그들조차 별 대책이 없는데 자기가 또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한

참 망설이고 있던 장무기는 순간적으로 뭔가 생각난 듯 소리치며 말했다.
"빨리 비도(秘道)에 들어가서 잠시 적을 도피하면 적들은 우릴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발견되더라도 금방 공격해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무기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웬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도무지 찬성하지 않았다. 마치 이 방법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자 장무기는 다시 말했다.
"대장부는 굽힐 땐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피신을 하자는 것은 상처가 완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적들과 승부를 겨루자는 것이니,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양소가 말했다.
"장대협 말대로 이 방법이 묘책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소조에게 다시 말했다.
"소조, 넌 장대협을 부축해서 비도로 들어가거라."
"여러분들도 함께 갑시다."
"먼저 가시오. 곧 뒤따라서 가겠소."
장무기는 그의 말투에서 그들은 절대로 오지 않으리라는 걸 느꼈다. 단지 자기만 피신시키려는 게 분명했다. 그러자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선배 여러분, 전 비록 귀교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대로 귀교와 일장 환난을 함께 겪었으니, 생사지교(生死之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버려두고 혼자 피신하겠습니까? 제가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자 양소가 말했다.
"장대협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오. 명교에는 역대로 전해 내려온 엄한 규칙이 있소. 이 광명정의 비도는 교주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소. 들어가는 자는 죽음만 있을 뿐이오. 당신과 소조는 본교에 속하지 않으니 그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소."

이때 사면 팔방에서는 죽이라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다행히 광명정의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지세가 험한데다가 도처의 관문에는 철갑(鐵閘) 석문이 있었다. 비록 명교에서 맹렬하게 저항하지는 못해도 공격자는 쉽게 다가올 수 없었다. 더구나 명교의 이름이 평소에 널리 퍼져 있어서 기습해 온 적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감히 깊숙하게 파고들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발씩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피하지 않는다면 아마 명교의 사람들은 한 시간 내에 모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장무기는 이러한 생각이 들자 즉시 입을 열었다.

"비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칙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양소는 엄숙한 표정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 제 4 권 6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7 장 천응교(天鷹敎)의 반본귀종(返本歸宗)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장대협은 무공이 개세(蓋世)하고 의박운천(義博雲天)하여 본교에게는 끊을 수 없는 대은을 베풀었소. 우리는 장대협을 본교의 제 삼십 사 대 교주로 추대 합시다. 만약에 교주의 명이 있으면 사람들을 호령하여 비도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오. 교주의 명을 준수하는 건 규칙에 어

긋나는 게 아니오."
 양소, 은천정, 위일소 등은 벌써부터 장무기를 교주로 추대하고자했던 터라 막상 팽화상이 말을 듣자 모두들 찬성했다.
 장무기는 얼른 손을 흔들며 말했다.
 "소자는 젊고 무식하고 무덕무능(無德無能)한데, 어찌 그같은 중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의 사부 장진인께서도 제게 명하기를 명교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은천정이 말했다.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다. 내가 너보고 명교에 가입하라고 하겠다. 설사 외할아버지가 너의 태사부보다는 못하지만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나와 장진인의 말은 모두 못 들은 걸로하면 되지 않느냐? 명교에 가입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네 자신이 결정해라."
 은야왕이 말했다.
 "외삼촌을 하나 더 보태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옛말에도 외삼촌을 보면 어머니를 본 것 같다고 했다. 너의 어머니가 안 계시니 나는 마치 너의 친어머니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장무기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말을 듣자 내심 괴로웠다.
 "왕년에 양교주님께서는 한 통의 유서를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비도에서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상처가 완쾌된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양교주님의 유명(遺命)은 저의 의부인 금모사왕에게 교주의 자리를 물려 주셨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품안에 있는 그 유서를 꺼내 양소에게 건네주었다.
 팽영옥이 말했다.
 "장대협, 대장부의 신변에 큰일이 닥쳤을 때는 작은 귀절에 급급할 수 없소. 사사왕은 당신의 의부이니 마치 친부와 같은 것이오. 예로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사사왕께

서는 여기에 안 계시니, 당신이 양교주님의 유언을 따라 교주의 존위를 승계하시오."

"옳소! 옳소!"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장무기는 살성(殺聲)이 점차 가까이 들려오자 내심 다급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게 시급하다. 다른 일은 천천히 상의해도 된다.'

장무기는 이런 생각을 하자, 즉시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들의 의사가 그러하니, 소자가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명교의 대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자 장무기가 잠시 명교 교주의 직위를 승계하면서 오늘의 난관을 헤쳐 나가겠으니,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른 현능(賢能)을 선택 하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비록 대적이 가까이 다가오고 화가 눈앞에 닥쳐왔지만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모두들 기뻐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은천정과 은야왕은 비록 존친(尊親)이었지만 예외 될 수 없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얼른 무릎을 꿇고 답례를 하면서 말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양좌사님, 당신이 호령을 전하십시오. 본교의 상하 모든 사람은 일제히 후퇴해서 비도로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네, 교주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교주님께 아뢰오, 우린 열화기에게 불로 적을 막으라 명하였는데, 그들은 광명정에 있는 가옥을 모두 태우고 말았소. 적은 우리가 도주한 줄 알고 있소. 어찌 하면 좋겠소?"

"이 계책은 아주 묘합니다. 양좌사께서 명을 전하시오. 이 방법은 왕년에 주장령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계책 자체는 본시 좋은

건데, 그는 이 방법으로 나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양소는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각처를 수비하고 있는 교도들을 철수시키고 홍수와 열화기에게 명하여 뒤를 차단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비도로 후퇴하라고 명했다. 명교는 주인 입장이고 천응교는 손님 입장이므로, 천응교의 교중을 먼저 후퇴하라고 명했다. 따라서 천지풍뢰 사문과 광명정에 있는 사람들과, 예금, 거목, 후토 삼기, 그리고 오산인과 위일소 등도 선후로 후퇴해 들어갔다. 장무기와 양소가 퇴입한 지 얼마 후 홍수기 사람들이 나누어서 들어오자 동서 양면의 불빛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불길은 타오를수록 왕성했다. 열화기의 사람들은 손에 분통(噴筒)을 들고 끊임없이 서역의 특산인 석유를 분사했다. 그러자 공격해 온 각 문파의 사람들은 불이 무서워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다. 단지 사방을 몇 겹으로 포위해서 명교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뿐이었다. 열화기 사람들이 비도에 들어가고 곧이어 철문을 잠그어 버리자, 가옥들이 쓰러지면서 비도의 입구를 화염 밑으로 감추어 버렸다. 이 화재는 계속 이틀 밤낮을 타도 꺼지지 않았다. 광명정은 명교의 청단으로서 백여 년의 역사와 함께 수백 칸의 아름다운 청당 가옥들이 모두 초토로 변해 버린 것이다.

공격해 온 적들은 불길이 약해지자 화장으로 다가가 뒤적거리며 수색해 보았다. 많은 명교도의 전사자 시체들을 발견했지만 모두가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명교도들이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해서 모두 자진한 줄 알고 있었다. 양소, 위일소 등도 모두 화장 안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천응교와 명교 사람들은 비도의 지도가 지시한 대로 나누어서 석실에 입주했다. 그곳은 깊은 지하였기 때문에 비록 위에는 큰 불이 활활 타고 있었지만 비도 안에는 전혀 아무런 소리도 들리

지 않고, 또 하나도 더운 느낌이 없었다. 사람들은 충분한 양식과 물을 휴대하였기에 한두 달은 나가지 않아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염려는 없었다. 명교와 천응교의 사람들은 이 비도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성지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 교주의 은전으로 들어와서 피난하게 되니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떠들거나 행동하지 못했다.

양소 등 수뇌급 인물들은 모두 양정천의 유해 옆에 모여서 장무기가 어떻게 양교주의 유서를 발견하고 어떻게 건곤이위심법을 연성하게 되었는지를 듣고 있었다. 그는 말이 끝나자 심법을 기록해 놓은 양피지를 양소에게 넘겨 주었다. 양소는 받지 않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양교주님의 유서에 분명히 적혀 있소. <건곤이위심법은 잠시 사손이 보관하고 있으니 나중에 신교주에게 전송하여라> 그러니 이 심법은 당연히 교주님께서 보관하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양정천의 유서를 돌려보면서 모두들 개탄하며 말했다.

"양교주님 같은 인물이 부부의 정 때문에 목숨을 잃을 줄 몰랐소. 우리가 만약에 진작 이 유서를 보게 되었더라면 오늘 같은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오."

모두는 죽음을 같이한 동료가 참변을 당하는 것과 자신들이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걸 생각하자 모두 이를 갈면서 성곤에게 욕을 했다.

양소가 말했다.

"그 성곤은 비록 양교주 부인의 사형이고, 금모사왕의 사부였지만, 우리는 전에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소.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소? 수 십년 전부터 그는 본교를 섬멸하려고 작심하였던 것이오."

주전이 말했다.

"양좌사, 위복왕, 당신들은 모두 그의 계략에 빠져들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 정말 무능하구료."

그는 은천정까지 함께 말하려 했지만, 교주의 체면을 생각해서 <백미응왕> 네 글자를 도로 삼켜 버렸다. 그러자 양소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성곤 악적은 결국 야왕 형의 장력에 죽고 말았다."

열화기의 장기사는 이를 갈며 말했다.

"성곤, 그 악적은 그렇게 큰 죄악을 범했는데, 어찌 그처럼 곱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토론을 끝마치고 나누어 앉아서 내력으로 상처를 치료했다.

비도에서 칠, 팔 일이 지나자 장무기의 검상은 거의 완쾌되었다. 그러자 그는 외상을 입은 형제들을 치료해 주었다. 비록 약품은 많이 부족했으나 그의 침술과 마사지 기술은 그야말로 착수성춘(着手成春)이었다. 사람들은 단지 이 소년 교주의 무공의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줄만 알았는데, 그가 의도에도 이처럼 깊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마치 왕년의 <접곡의선> 호청우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장무기의 검상은 완쾌되었다. 즉시 구양신공을 운용하여 양소와 위일소, 그리고 오산인에게 체내에 있는 현음지의 한독을 몰아내 주었다. 삼 일 동안에 여러 고수들은 내상이 모두 완쾌되었다. 한결같이 의기풍발(義氣風發)하여 비도를 박차고 나가서 공격해온 적을 모조리 토벌하려고 했다. 그러자 장무기가 말했다.

"여러분들의 상처는 이미 완쾌되었으나 내력은 아직 부족하오. 이왕 많은 날을 참아왔으니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내공을 연마하였다. 무공이

얕은 사람은 도검을 갈고, 무공이 깊은 사람들은 연기운경(練氣運勁)하였다. 육대문파가 광명정에 위공(圍攻)해 올 때부터 명교는 시종일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 그 원한이 얼마나 뼈에 사무쳐 있겠는가.

그날 밤 양소는 명교의 교의종지(敎義宗旨), 교도들에게 역대로 전해 내려온 규칙이며 각지에 있는 명교의 지단(支壇)의 세력, 교도들의 수요(首要) 인물의 재능, 성격 등등을 하나하나 장무기에게 상세히 아뢰었다.

찰랑찰랑하는 쇠사슬 소리가 들리더니 소조가 쟁반에 차 두 잔을 갖고 왔다. 장무기가 말했다.

"양좌사, 근래 이 어린 낭자는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사슬을 풀어 주어서 그녀를 놓아 주시오."

"교주님의 명이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즉시 양불회를 불러 말했다.

"불회야, 교주님께서 분부하셨으니 네가 소조의 사슬을 풀어 주어라."

"그 열쇠는 제 방에 있는 서랍에 있는데, 미처 갖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됐소. 열쇠는 불에 타지 않으니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소."

양소는 딸과 소조가 물러나간 후 다시 말했다.

"교주님, 소조란 계집은 비록 나이는 어려도 몹시 이상한 아이입니다. 그녀에게 약간의 경계는 하는 게 좋겠소."

"저 작은 낭자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반 년 전, 불회하고 하산하여 놀러다니는데 그녀 혼자 사막에서 두 구의 시체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보게 되었소. 우리가 다가가서 연유를 묻자, 그녀는 죽은 사람이 자기의 부모라고 했소. 그녀의 아버지는 중원 사람인데 관부에게 잘못보여 일가구가 종

군하며 서역까지 오게 되었소. 며칠 전에 몽고 관병의 등살에 못 이겨서 도망나왔는데, 결국 그녀의 부모는 상발력진(像發力盡)되어 한꺼번에 죽게 된 것이오. 난 그녀가 어린 나이에 홀로 된 것도 안쓰러웠고, 비록 용모는 추악해도 말하는 것은 둔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녀의 부모를 묻어 주고 나서 그녀를 데리고 와 불회의 시중을 들라 하였소."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소조의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구나. 가련한 신세가 나와 똑같군.'

양소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소조를 데리고 광명정에 돌아온 후, 하루는 내가 불회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있는데 소조도 옆에서 듣고 있었소. 그런데 내가 육십 사 괘(卦) 방위(方位)를 설명해 주고 있을 때, 불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소조의 눈빛은 이미 정확한 방위를 쳐다보고 있었소."

"아마도 그녀의 머리가 영특하여 깨우침이 불회 누이보다는 조금 빠른 게 아닙니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몹시 기뻐했지요. 다시 생각해보니 의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불회에게 가르치지 않은 어려운 구결(口訣) 몇 마디를 하면서 일부러 방위를 틀리게 말을 하자 그녀는 이마를 약간 찌푸리며 나의 틀린 점을 발견한 것이오. 그 후부터는 난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소. 이 어린 낭자가 필시 어떤 고인의 전수를 받고 몸에 상승무공을 지니고 있으며, 광명정에 오게 된 것은 무슨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었소."

"혹시 그녀의 부친이 역리(易理)를 정통하였고, 그건 가전비학인 줄도 모르지 않소?"

"문사가 배운 역경은 무공 안에 있는 역리와는 다른 곳이 많습니다. 만약에 소조가 배운 게 그녀의 부모에게서 전수받은 것이

라면 그녀의 부모는 필시 무림에서는 일류 고수일 텐데, 어찌 몽고 관병의 등살에 못 이겨서 죽게 되었겠소? 그 때는 그냥 지나치고 며칠 지난 후에야 그녀의 부모 이름과 신세를 물어 보았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혀 흔적을 보이지도 않았소. 난 화를 내지 않고 단지 불회에게 몰래 살펴보라고 당부하였소. 하루는 내가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불회가 깔깔대며 크게 웃자 옆에서 듣고 있던 소조도 참다못해 웃어 버렸소. 그 때 그녀는 우리 부녀 두 사람의 등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볼 수 없는 줄 알았던 모양이오. 마침 불회는 수중에 비수한 자루를 갖고 있었는데, 그 비수가 그녀의 웃는 모습을 비추어 주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녀는 불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소. 그런데 내가 고개를 뒤로 돌리자 그녀는 즉시 눈을 이상하게 하고 입이 비틀어진 괴상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소."

장무기는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온종일 그런 괴상한 모습으로 위장하려면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양소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난 참고 말을 하지 않았소. 하루는 모두 잠들고 조용한 밤에 난 살며시 딸아이 방에 가서 소조의 행동을 염탐하였는데, 그 계집애가 마침 불회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소. 그녀는 동쪽에 있는 가옥을 지나면서 뭘 찾고 있었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녀에게 다가가서 뭘 찾고 있는지, 누가 보내서 광명정에 잠복하였는지를 물어 보았소. 그녀는 몹시 침착해 전혀 당황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자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지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걸 즐길 뿐이며 호기심 때문이라고 했소. 난 여러 방법으로 호통을 쳐보고 유도를 해 보았으나, 그녀는 시종일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었소. 그래서 난 그녀를 칠 일 동안 굶기면서 캐물었으나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난 교중에서 옛

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현철(玄鐵) 사슬로 그녀를 묶어 버린 것이오. 그녀가 행동할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나니까, 몰래 불회를 해칠 염려를 없게 한 것이오. 내가 그녀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내력을 알아 내기 위함이오. 교주님, 그 계집은 적이 보내온 염탐꾼이 틀림없을 것이오. 그녀가 팔괘방위(八卦方位)에 정통한 걸 보면 곤륜파가 아니면 바로 아미파일 것이오."

장무기는 웃으면서 일어나더니 말했다.

"우리 모두 지하 감옥에서 오랫 동안 갇혀 있었으니, 이제 나가 볼 때도 된 것 같소."

"당장 나갈 것입니까?"

"상처가 완쾌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완쾌된 사람들만 모두 나갑시다. 좋습니까?"

양소가 나가서 명을 하달하자 비도에는 즉시 환호성이 우뢰 같았다.

사람들이 비도에 들어올 때는 양불회의 방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뒷산으로 통하는 옆문으로 나갔다. 장무기는 맨 먼저 나가 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었다. 그리고는 나올 만한 사람들이 다 나오자 다시 바위를 밀어서 막아 놓았다. 후토기의 장기사 안원(顔垣)은 명교 중에서 제일가는 신력지사였다. 그도 운경하여 그 거대한 바위를 밀어 보니, 마치 잠자리가 돌기둥을 미는 것처럼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혀를 내두르며 젊은 교주에게 더욱 탄복했다.

사람들은 비도를 나간 후 적에게 발각될까 봐 기침소리도 내지 않았다.

장무기는 큰 바위 위에 서 있었다. 달빛을 빌어 아래를 바라보니 천응교 사람들은 서쪽의 빈위(貧位)에 나란히 서 있었다. 천미(天微), 자미(紫微), 천시(天市) 삼당과 신사(神蛇), 백호(白虎), 청룡(靑龍), 주작(朱雀), 현무(玄武)단은 각각 통솔자에 의

해 질서정연하게 나란히 서 있었다. 동쪽에는 명교 오기인 예금(鋭金), 거목(巨木), 홍수(洪水), 열화(烈火), 후토(厚土), 각기의 장기사가 본기의 형제들을 이끌고 오행 방위에 나누어 버티고 있었다. 중간에는 양소의 부하인 천, 지, 풍, 뢰 등 사문 문주가 통솔한 광명정 무리들도 보였다. 그 천자문에 속해 있는 것은 중원의 남자 교도들이고, 지자문의 소속은 여자 교도들이고, 풍자문의 소속은 석가, 도가 등 출가한 교도들, 그리고 뢰자문의 소속은 서역 변방 인씨의 교도들이었다. 위일소, 냉겸 등 오산인은 장무기의 뒤에 서서 그를 호위하면서 모두들 조용히 교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천천히 말을 했다.

"본인은 살생을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응교는 은교주께서 이끌고 서쪽에서 공격하십시오. 오행기는 거목기의 장기사 문창송(聞蒼松)이 통솔하여 동쪽에서 공격하십시오. 양좌사께서는 천자문, 지자문을 이끌고 북쪽에서 공격하십시오. 오산인은 풍자문, 뢰자문을 이끌고 남쪽에서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위복왕과 본인은 중앙에서 책응(策應)하겠소."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명에 순순히 따랐다.

장무기는 왼손을 한 번 흔들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가십시오."

네 패의 교도들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광명정 사방을 포위했다.

장무기는 위일소에게 말했다.

"복왕님, 우리 두 사람은 비도로 나가서 그들의 허를 찌릅시다."

위일소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묘책이오."

두 사람은 다시 비도로 들어간 다음 양불회의 방에 있는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많은 기와며 타다 남은 나무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어서 빠져 나오기가 힘들었다. 이때 명교의 사람들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광명정 위에 남아 있는 적들은 이미 그들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채 소리를 지르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장무기와 위일소는 서로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저 녀석들이 저토록 의아해 하고 있으니, 싸울 필요도 없이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났소."

두 사람은 반이나 쓰러진 돌담 뒤에 숨어 있었으나, 달빛아래 검은 그림자가 왔다갔다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얼마 후, 설불득과 주전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먼저 다가왔다. 이미 남쪽에서 공격해온 것이다. 그들은 적의 무리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마치 호박을 자르고 야채를 쓸 듯 적을 죽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은천정, 양소, 오행기 사람들도 일제히 다가와서 적을 공격하니 마치 호랑이가 양떼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광명정에 공격해 온 것은 원래 개방, 무산방, 해사파 등 십여 개 크고 작은 방회였다. 그런데 광명정이 잿더미로 변하고 명교 사라들을 한 병도 잡지 못하자 이미 전승을 얻은 줄만 알고 있었다. 개방, 거경방 등 반수 이상의 방회들은 요 며칠 사이에 모두 하산해 버려서 광명정에는 오직 신권문, 삼강방, 무산방, 오봉도 네 개 방회 문파만 남아 있었다. 명교 교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이 네 개 문파에도 고수가 몇몇 있긴 했으나 어찌 양소, 은천정 등의 적수가 되겠는가! 잠깐 사이에 사상자는 반 이상이나 되었다.

장무기가 몸을 타나내며 낭랑한 목청으로 말했다.

"명교의 고수들은 지금 광명정에 모두 모여 있다. 여러 방회, 문파는 들어라. 다시 싸워 봤자 그대들에게는 불리하니 일제히

병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너희들 목숨을 살려주겠다!"

신권문, 삼강방, 무산방, 오봉도 중에 있는 고수들은 이미 반이상 사상되었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투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들은 병기를 버리고 모두 투항했다. 이 십여 명의 용감한 무리가 맹렬하게 저항했으나 순식간에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

십여 일 동안에 무산방 등의 사람들은 이미 산 위에다 많은 오두막을 짓고 잡시 거주하였다. 거목기 밑에 있는 교중은 다시 벌목을 하여 오두막을 지었다. 지(地)자 문하에 있는 여신도들은 서둘러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광명정 위에는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을 피워 명존화성(明尊火聖)이 보호해 줌을 감사했다.

백미응왕 은천정이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천응교의 교하 사람들은 들어라! 본교와 명교는 본시 일맥이다. 이 십여 년 전 본인은 명교의 동지들하고 불화가 있었기에 멀리 떨어진 동남쪽으로 가서 문호를 자립한 것이다. 지금 명교는 장대협께서 새로운 교주가 되었으니 <천응교>란 이름은 오늘서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교중이며 우리 모두 장교주의 호령을 들어야 한다. 만약에 복종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빨리 산 밑으로 꺼져 버려라!"

그러자 천응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천응교의 근본은 명교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 우리는 반본귀종(返本歸宗)하는 것이오. 우리가 모두 명교에 가입하는 건 대단히 영광스런 일입니다. 은교주나 장교주는 친척간이니 어느 분 교주의 명령을 들어도 모두 같은 것이오!"

은천정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부터는 오직 장교주만 존재한다! 누구든 나에게 <은교주>라 부르면 범상반역(犯上叛逆)이다!"

장무기는 포권을 하며 말했다.

"천응교와 명교가 다시 합쳐진 것은 실로 하늘만큼 큰 경사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세에 눌려서 하는 수 없이 잠시 교주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도 제거했으니 우리는 다시 교주를 선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명교인 중에는 많은 영웅호걸이 계신데, 본인은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찌 감히 오래 동안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주,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주의 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당신을 선출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마다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교주를 하라고 하시오. 흥! 누구든 간에 나 주전이 먼저 불복할 것이오. 만약 나 주전더러 교주를 맡으라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불복할 것이오."

팽영옥이 말했다.

"교주, 만약에 또다시 옛날 같은 비참한 길을 갈 것이라면, 그때 가서 당신이 다시 구하려 올 것입니까?"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이 사람들의 말이 옳다. 이러한 정세에 놓여 있으니 나로서는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난 교주의 자격도 없거니와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여러분들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본인도 더 이상 마다하지 않고 잠시 교주의 중임을 맡아 보겠소.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죽어도 교주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교주의 명인데 세 가지가 아니라 삼 십가지 일지라도 감히 위반하지 못합니다. 그 세 가지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들은 본교를 사마외도(蛇魔外道)라 보고 있습니다. 비록 명교 외의 사람들이 본교의 진상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지만, 본교의 교도들 수가 많아지면 행실이 방종한 자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일은 지금부터 본인 이하 여러분들은 모두 본교의 규칙을 엄수하여야 하고, 선을 행하되 악을 물리쳐야 하며, 협의지심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본교의 형제지간은 필히 화목하게 지내서 마치 수족과 같이 되어야 하고, 서로 투쟁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장무기는 주전을 한 번 쳐다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입씨름하며 욕지거리하는 건 무관하지만 손을 쓰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은 냉겸 냉면 선생이 형당집법의 직책을 맡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자는 일제히 중벌로 다스릴 것이며, 설사 본인의 외할아버지나 외삼촌 등 존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옳소!"

냉겸은 한 걸음 다가가서 말했다.

"봉명(奉命)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일은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본교와 중원의 각 문파와는 이미 깊은 원한 관계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각 문파를 찾아가서 원한을 갚으려 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그의 이 말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주전이 말했다.

"만약에 각 문파가 다시 와서 시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 때가서 임기응변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자꾸만 억압하면 우리도 가만히 앉아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어차피 우리의 목숨은 모두 교주께서 구해 주셨으니, 교주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팽영옥이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중원의 각 문파는 우리의 동도들을 많이 살해했지만 우리도 각 문파의 사람을 많이 죽였소. 만약 쌍방에서 서로 복수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이 죽게 될 것이오. 교주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옳다고 대답하였다.

장무기는 몹시 기뻐하며 포권의 예를 취하고 말했다.

"여러분의 하해 같은 도량은 실로 무림의 복입니다."

그는 즉시 오행기의 각 기사에게 명하여, 신권문, 무산방 등 문파방회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에게 명교는 중원의 각 문파들과 다시는 적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주고, 포로들의 뜻대로 광명정을 떠나라 했다.

"다음 세 번째 일은 양교주의 유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양 교주의 유서에 따르면, 성화령(聖火令)을 찾아온 자를 제 삼 십 사대 교주로 승계하고 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 교주의 자리는 금모사왕 사법왕에게 승계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해외로 나가서 사법왕을 맞아들여서 그에게 교주의 자리를 승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화령을 찾는 방도를 강고해야 합니다. 그 때 가서 본인이 교주직을 물러나면 여러분은 절대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소가 말했다.

"양 교주의 유언은 이 십여 년 전에 쓴 것이오. 그 때의 시국은 지금과 아주 달랐습니다. 금모사왕은 당연히 모셔와야 되고 성화령도 마땅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교주의 직을 맡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장무기는 양교주의 유명을 절대로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고수하자, 모두는 하는 수 없이 그의 뜻을 따랐다.

이 세 가지 일은 장무기가 십여 일 동안 계속 생각해 온 것인

데, 사람들이 모두 이를 따르자 장무기는 매우 기뻤다. 즉시 사람을 시켜서 소와 양을 잡고는 절대로 이 세 가지 일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교중들과 피로 맹세하였다.

장무기가 말했다.

"본교의 제일 시급한 큰 일은 해외에 나가서 금모사왕 사법왕을 영접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본인이 직접 가야 하니 어느 분께서 동행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말했다.

"교주를 따라서 해외로 같이 나가겠소!"

장무기는 소리를 낮추어서 양소와 잠시 상의한 후 그제서야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나가게 되면 많은 큰 일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양좌사께서는 천, 지, 풍, 뢰 네 문을 이끌고 광명정을 지키면서 총단을 중건하십시오. 금목수화토 오기는 각지로 나누어 나가서 본교의 분산된 사람들을 모집하여, 우리가 아까 약속한 세 가지 일을 전해 주십시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께서는 천응교를 이끌고 적이 아직도 본교와 시비할 의사가 있는지 염탐하시고, 광명우사와 자형룡왕, 두 분의 행방을 알아 보십시오. 그리고 위복왕께서는 육대파 장문인의 거처로 가서 본교의 의사를 말해 주십시오. 설사 적을 친구로 만들지 못해도 우리의 도리는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위복왕께서는 반드시 성사시키시리라 믿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법왕을 영접하는 일은 본인과 오산인이 동행하겠습니다.

양불회가 말했다.

"아버님, 저도 해외에 나가서 만년빙산의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교주에게 부탁하거라. 난 결정할 수 없다."

양불회는 입을 삐쭉거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살짝 웃더니 수년 전 양불회를 서쪽으로 데리고 오던 일이 생각났다. 그녀는 떼를 쓰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라 댔다. 그래서 자기는 빙화도에 있는 여러 기경과 백곰, 바다 표범, 괴어 등 각종 진기한 동물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주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가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불회 매자, 바닷길은 몹시 험난하다. 그래도 겁나지 않는다면 양좌사께서도 안심하고 보낼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좌사와 불회 매는 함께 나를 따라서 해외로 갈 수 있는 거지."

양불회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난 두렵지 않아요. 아버님, 우리 둘이서 모두 무기 오빠를 따라서..... 아니, 교주님을 따라갑시다."

양소는 대답하지 않고 장무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의사를 따르기로 했다.

"정히 그러하다면, 냉 선생의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냉 선생님은 광명정에 남아서 잠시 천, 지, 풍, 뢰 네 문을 통솔하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전은 박수를 치며 발까지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묘합니다, 정말 묘합니다."

설불득이 말했다.

"주형, 뭐가 묘하다는 것이오?"

"교주께서 이토록 냉겸을 의중하시는 것은 우리 오산인의 체면 때문이오. 다시 말해서 망망대해에서 며칠 밤낮을 항해 하게 될지 모르는데, 양좌사 부녀가 따라가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얼마나 즐겁겠소? 만약에 냉겸이 같이 가게 된다면 그건 입을 열지 않는 나무토막이 하나 더 많아진 것이 아니오."

사람들은 일제히 웃어 댔다. 하지만 냉겸은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는 것이 마치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날 사람들은 양껏 배를 채우고 나서 각자 휴식을 취했다. 장무기는 양불회에게 소조의 현철사슬을 풀어 주라고 하였지만, 열쇠를 화장의 초옥 기왓장더미에 잃어 버려서 다시는 찾지를 못했다. 소조가 담담하게 말했다.

"난 이 찰랑찰랑하는 쇠사슬을 달고 있으면 걸어다닐 때 오히려 듣기 좋아요. 그러니 그대로 차고 있는 게 좋겠어요."

"소조,넌 안심하고 광명정에서 기다려라. 내가 의부를 영접해 돌아오면 그의 도룡보도를 빌려서 너의 사슬을 풀어 주겠다.

소조는 고개를 흔들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장무기는 사람들을 이끌고 냉겸에게 작별을 했다. 그러자 냉겸이 말했다.

"교주, 몸조심 하십시오."

"냉 선생님, 총단을 맡아 수고해 주십시오."

냉겸은 주전에게 말했다.

"괴어가 널 잡아먹을지 모르니 조심해라."

주전은 그의 손을 쥐고 내심 몹시 감동하였다. 오산인의 정은 마치 형제 같았다. 냉겸이 오늘 예상을 뒤엎고 이처럼 말을 길게 한 것은 혹시라도 바다에 있는 괴어가 형제를 잡아 먹을지 몰라 몹시 걱정스러워서 말한 것이다.

냉겸과 천, 지, 풍, 뢰 네 문의 수령들은 광명정의 밑까지 배웅해 주고 다시 그제서야 작별을 했다.

일행은 백여 리 길을 걸어와 바로 산막에서 야영을 했다. 장무기는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 끝에서 달그락달그락하고 금속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잠이 깨어 살며시 소리나는 곳으로 가 보니, 달빛에 작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더욱 빨리 달려갔다.

"소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역시 소조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장무기를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장무기의 품에 안기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훌쩍훌쩍 우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울지 마라, 착하지."
소조는 그 동안 많은 설움을 당하고 이제서야 발산할 곳을 찾았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울어 댔다.
"어딜 가시든 저도 따라갈 거예요."
'이 어린 아가씨는 부모를 모두 잃고 거기다 양좌사(陽左使) 부녀에게 의심마저 받고 있었으니 정말 가련하구나. 아마 내가 그 동안 잘 대해 주어서 나를 이렇게 따르는 모양이구나.'
장무기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말했다.
"그래, 이제 그만 울어라. 해외에 너도 데리고 가마."
소조는 고개를 들어 웃음을 보였다.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자그마한 얼굴을 비추자 반짝거리는 그녀의 눈망울엔 아직 눈물이 고여 있고, 입가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무기도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소조야, 넌 앞으로 크면 정말 아름다울 거야."
"어떻게 아세요?"
장무기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동북쪽에서 말발굽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적어도 백여 명이 되는 인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위일소와 양소가 달려왔다.
"교주님, 깊은 밤에 이 많은 인마가 달려가는 것을 보니, 아마 본교의 적인 것 같습니다."
장무기는 소조를 팽영옥 등과 함께 있으라고 하고는 위일소와 양소를 데리고 말발굽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달려가 보니, 사막 한 가운데 말 발자국이 나 있었다. 위일소가 몸을 낮춰 모래 한 줌을 쥐어 보면서 말했다.
"핏자국이 있군."

장무기도 모래를 한 줌 주워 냄새를 맡아 보니, 피 비린네가 물씬 풍겼다. 세 사람은 말 발자국을 따라 몇 리를 쫓아갔다. 양소가 갑자기 모래 위에서 두 동강이 난 칼을 주워 자세히 살펴 보니, 손잡이에 풍원성(풍遠聲)이란 세 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자는 공동파의 인물이야. 교주님, 아마 공동파가 여기에서 말들을 준비하고 중원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일소가 다시 말했다.

"광명정에서 내려온 지 벌써 반 달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다니 무슨 수작들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군."

세 사람은 공동파라는 것을 알자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다시 돌아와 잠을 청했다.

이 일째 되는 날이었다. 앞쪽의 초원에서 일행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대부분이 여승들이었는데, 약 칠, 팔 명의 남자도 끼어 있었다. 쌍방이 서로 가까와지자 한 여승이 외쳤다.

"마교의 도적들이예요!"

그들은 그 말에 모두 병기를 뽑아 들고 흩어져 공격 태세를 취했다. 장무기는 이들이 모두 아미파 사람들인데, 어째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이상했다. 더구나 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아미파 사람들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아미파 문하의 사태님들입니까?"

몸이 가냘픈 중년 여승 한 명이 뛰쳐 나와 날카롭게 외쳤다.

"마교의 도적들아, 뭘 물어 볼 게 있느냐? 어서 죽을 각오나 해라!"

"사태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이 도적들아, 네놈들이 감히 내 이름을 알려고 하다니! 넌 누구냐?"

위일소가 잽싸게 뛰쳐나와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남제자 두

명의 혈도를 찌르고는 목덜미를 움켜잡아 멀리 던져 버리고는 제자리로 잽싸게 돌아왔다. 그의 동작은 정말 번개와 같았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분은 바로 당세 무공의 제일인자이시고 담력이 천하무쌍이신 기남자이시며, 좌우광명사 사대호교법왕(四大護敎法王) 오산인, 오행기를 통솔하시는 명교의 장교주이시다. 지금 막 아미파를 하산시키고 멸절사태의 의천검을 뺏은 훌륭한 인물이시니, 너의 이름을 물어본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아라!"

위일소가 한참 소리치고 나자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그만 겁에 질렸다.

조금 전에 믿기 어려운 위일소의 무공을 한 수 본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중년 여승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물었다.

"귀하께선 누구신지요?"

위일소가 웃으며 말했다.

"나의 성은 위요, 별명은 청익복왕이라 하오."

아미파 제자들은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모두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그들 중 네 명이 조금전에 위일소에게 던져진 동문을 구하러 달려갔다.

위일소는 다시 말했다.

"장교주님의 호령에 따라 명교와 육대문파는 무기를 거두고 우호를 맺었다. 귀동문께서는 이번에 운이 좋아 나 청익복왕이 그들의 피를 빨지 않았소!"

위일소는 장무기의 구양신공에 의해 치료를 받은 후론 현음지한독(玄陰指寒毒)을 말아 낸 것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였던 독도 반이상이나 없어져, 매번 무공을 펼쳐 경력을 소비한 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피를 빨아 먹을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다. 네 사람이 두 동문을 안고 와 점혈을 당한 혈도를 풀어 주려고 방법을 생각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휙! 휙! 하고 두 개의 작은 돌맹이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와 두 사람의 혈도를 때렸다. 순간 두 사람은 즉시 혈도가 풀렸다. 그것은 바로 양소가 탄지신통(彈指神通)으로 정석점혈(挺石點穴)을 펼쳐 보였던 것이다. 중년 여승은 상대의 인원수가 적지도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잠깐 보인 신수를 보자 무공이 정말 기괴하리 만치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만약 섣불리 공격을 했다간 크게 다칠 것이 뻔한 사실이라, 무기를 거두면서 우호를 맺었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아랑곳 없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빈니의 법명은 정공(靜空)이라 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저의 사부님을 보셨습니까?"

그 말에 장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존사께서는 광명정을 내려가신 지 반 달이 훨씬 넘었는데, 제 생각엔 지금쯤 옥문관(玉門關)까지는 가셨으리라고 생각되는군요. 혹 여러분이 이쪽으로 오면서 그분과 엇갈린 게 아닙니까?"

정공 뒤에 서 있던 약 삼십여 세로 보이는 한 여자가 외쳤다.

"사저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세 갈래로 나눠 마중을 했고 연락을 취하는 불화살이 있는데, 어떻게 길이 어긋납니까?"

주전이 그녀의 무례한 말에 몇 마디 나무라고 싶어 입을 열었다.

"그래요? 그거 이상하군."

그러자 장무기가 낮은 소리로 그를 타일렀다.

"주 선생, 저 여자와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네 스승을 못 찾아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공은 크게 의심을 하고 있었다.

"우리 스승과 동문들이 모두 명교에게 당한 게 아닌가요? 대장부라면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어째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 말에 주전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사실은 아미파에서 자기 주재도 모르고 광명정을 공격하려다, 멸절사태와 그의 문하들은 모두 생포당해 지금 감방에 갇혀 있고.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친다 해도 칠, 팔 년 지나면 그 때가서 풀어줄까 말까 하오."

팽영옥이 잽싸게 주전의 앞을 가로 막았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 주형께서 농담을 한 겁니다. 멸절사태의 신공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의 문하들의 무예도 하나 같이 다 고강한데 어떻게 명교에 생포 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귀하는 이미 단합을 했으니, 아미로 돌아가시면 자연히 만나실 겁니다."

정공은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위일소는 웃으며 그녀를 나무랐다.

"우리 주형께서 농담을 하기 좋아해서 한 말이지만, 당당지존(堂堂之尊)이신 우리 명교 교주께서 당신네 같은 소인배들을 어찌 속이겠소?"

"마교에서는 항상 간사하고 교활한 계략을 많이 써 왔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마자 갑자기 홍수기 장기사 당양(唐洋)이 왼손을 쳐들었다. 순간 거목기는 동쪽으로, 열화는 남쪽, 예금기는 서쪽으로, 홍수는 북쪽, 후토기는 주위에서 맴돌며 아미파 사람들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은천정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노부가 바로 백미응왕이다. 나 혼자 너희들을 상대해도 너의 같은 소인배들쯤은 모조리 해치울 수 있다. 오늘은 명교에서 너희들을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외침은 벼락과도 같이 울렸다. 아미파 제자들은 귀가 쨍쨍 울렸고, 그의 백발과 흰 수염의 당당한 위세에 눌려 모두 겁에

질려 버렸다. 장무기는 읍을 하며 말했다.
"존사에게 전해 주십시오. 명교의 장무기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장 서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당양은 위일소, 은천정 등 일행이 모두 지나가자 그제서야 손짓을 하며 오행기를 불러 들였다. 아미파 제자들은 그들의 성세에 눌려 겁에 질린 채 장무기 등의 일행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멍청하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팽영옥이 이상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교주, 제가 보기엔 여기에 무슨 영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멸절사태와 저들의 길이 어긋날 리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각 문파에서 모두 연락을 취하는 신호가 있는데, 전혀 그림자도 보지를 못했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며 걸어가면서, 아미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막에서 종적을 감춘 것을 이해할 수 가 없었다. 더욱이 장무기는 주지약이 걱정됐으나 누구와 의논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 날은 날이 저물 때까지 걸었는데, 후토기 장기사 인원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느꼈다.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숲으로 뛰어가 동정을 살폈다. 그는 한 부하의 손에서 삽을 받아 땅을 파기 시작했다. 조금 파 들어가자 시체 한 구가 보였는데,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옷차림으로 보아 곤륜파 제자가 틀림없어 보였다. 후토기 부하들이 달려들어 같이 삽질을 하자 웅덩이 속에서 여섯 구의 시체가 더 나왔다. 모두 곤륜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장무기는 시체를 모두 다시 안장 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모두 서로 쳐다보며 누가 한 짓인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었다. 팽영옥

이 의혹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 일은 꼭 진상을 알아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누명을 쓰게 될 거야."

설불득이 다시 말했다.

"모두들 듣게나. 만약 상대가 정정당당히 나선다면 우리는 교주님의 인솔하에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상대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제부터는 물을 마실 때나 야영을 할 때나 항상 적의 기습을 조심해야 된다."

명교인들은 그 소리에 모두 네! 하고 한결같은 대답을 했다. 다시 한참을 걸어오자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밑으로 내리치더니 다시 하늘로 치솟았다. 순간 날개에서 털 몇 개가 떨어져 휘날리며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에게 몸에 무엇으로 적중당한 것이 분명했다. 예금기의 장기사 장정이 의천검에 목숨을 잃은 후, 부기사 오경초는 장무기의 명령으로 장기사로 승진됐었다. 이때 그는 독수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부하 두 명을 데리고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따라갔던 한 명이 먼저 돌아와 장무기에게 보고했다.

"교주님께 보고 드립니다. 무당파 은육협이 저 모래 계곡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뭣이! 육협이 크게 다쳤는가?"

"중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오기사께서 그를 구하러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무기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갔다. 양소와 은천정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적어도 십여 장 깊이는 되는 큰 모래 계곡이었다. 오경초는 왼팔로 은이정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우 힘겨워하며 올라오고 있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달려가 귀를 가슴에 대로 자세히 살펴보니 숨은 아직 쉬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오경초의 팔에서 은이정을 뺏어 안고 몇 번 몸을 날려 올라와 그를 눕히고 자세히 살펴본 순간,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은이정은 사지의 뼈마디 마디마다 다 부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숨은 희미하게 쉬고 있었으나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누가 이런 잔인한 수법을 쓰다니, 정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은이정은 아직 기절하지는 않아 장무기를 보자 얼굴에 회색이 감돌았다. 그러면서 입에서 작은 돌맹이 두 알을 내뱉었다. 그는 계곡 밑으로 떨어져 아직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를 물어 뜯으려 덤벼들자 그는 자신의 정순한 내력으로 옆에 있던 돌을 입에 물고 덤벼드는 독수리를 격퇴시켰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이미 며칠이 됐던 것이다. 공중엔 아직도 네 마리의 독수리가 사람들이 은이정을 버리고 가면 다시 그를 쪼기 위해 빙빙 돌고 있었다. 양소가 돌맹이 네 개를 들어 던지자 꽥! 꽥! 하고 소리내며 모두 머리통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장무기는 먼저 그에게 지통호심단(止痛護心丹)을 먹이고 다시 자세히 보니, 전신 이십여 곳의 뼈마디가 부러져 있었다. 상처마다 모두 무서운 지력에 뼈마디가 부러져 있어 더 이상 접골할 방법이 없었다. 은이정이 신음소리를 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삼사형과 마찬가지로 소림파..... 금강지력에 당한....."

장무기는 갑자기 옛날에 삼사백 유대암이 당했던 일이 뇌리를 스쳤다. 그도 역시 소림파 금강지력에 의해 뼈마디가 모두 부려져 가루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십 여 년이 지난 지금 또 한분의 사숙이 소림 금강지에 당한 것이다.

"육숙, 괴로와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이 조카에게 맡기십시오. 누구든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소림파 중에 어떤 인물

이 한 짓인지 육숙님은 아십니까?"

은이정은 고개만 흔들더니 그만 기절해 버렸다. 그는 며칠 동안 이를 악물고 버티어오다 이젠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장무기는 자기 부모가 자살한 이유도 바로 삼사백에게 미안한 생각에서 저지른 것인데, 오늘 육사숙이 또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자 더 이상 소림파에 죄인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유삼백이나 은육숙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 허무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도 생각했다. 은이정은 기절을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부러진 뼈를 접골하지 못해 유대암과 똑같은 운명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장무기는 경력이 짧고 또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언제나 신중을 기하였다. 그는 훌쩍 멀리 걸어와 작은 모래 언덕에 앉아서 곰곰히 생각했다. 그의 마음엔 두 가지 생각이 서로 교차했다.

소림사에 가 죄인을 찾아 부모와 유삼백, 은육숙의 원한을 갚아야 할 것인가? 만약 소림사에서 순순히 죄인을 내놓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교와 무당파가 합심하여 소림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미 여러 형제들에게 앞으로 절대로 원한을 갚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사건이 직접 나에게 부딪치자 맹세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통솔할 것인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원한이 원한을 낳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인가? 그는 너무도 괴로웠다.

이때 날을 이미 어두워, 명교인들은 모두 불을 피우고 솥을 걸고 밥을 짓느라 부산을 떨었다. 장무기는 혼자서 외롭게 언덕에 앉아 새벽이 되어 해가 뜨려고 할 때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소림사에 가서 장문인 공문(空門) 신승(神僧)을 만나 원

인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에게 정당한 대답을 들어야겠다. 그러나 서로 말다툼이 생겨 꼭 손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는 장탄식을 토하며 일어서면서 괴로운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대임을 맡자, 바로 이런 큰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구나. 전쟁을 막으려고 해도 이런 사건들만 자꾸 터지다니..... 명교의 교주라는 중임을 맡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고민이 그칠 날이 없을 거야. 교주 노릇을 안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무기가 돌아와 보니 모두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직 밥을 들지 않고 있었다. 장무기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를 기다리지 말고 어서들 드십시오."

은이정을 쳐다보니 양불회가 뜨거운 물로 그의 상처를 씻어 주고 미음을 먹이고 있었다.

은이정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갑자기 두 눈을 부릅뜨고 양불회를 멍하니 쳐다보며 헛소리를 했다.

"효부매(曉芙媒),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시오?"

양불회는 얼굴이 빨개지며 매우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다시 미음을 떠 먹였다.

"몇 모금만 좀더 드세요."

"이젠 다시 내 곁은 안 떠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양불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이제는 미음이나 좀 더 드세요."

은이정은 매우 기쁜 듯이 미음을 받아 먹었다.

다음날 장무기는 모두 숭산의 소림사로 같아 가서 은이정을 타

상시킨 원인을 알아 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위일소나 주전 등 모두는 은이정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있었는데, 교주가 소림사로 따지러 간다고 하자 모두 즐거워했다.양소는 기효부의 일로 항상 은이정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닥치자 그는 꼭 은이정을 위해 복수를 할 것을 다짐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려는 마음이었다.

소림사로 향하는 장무기 일행에겐 별달리 이상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 은이정은 잠이 들었다 깼다 했다. 장무기는 그에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물었다. 은이정은 아무 설명 없이 망연히 대답만 했다.

"소림사 화상 다섯 명이 나를 협공한 거야. 소림파의 무공이 틀림없어."

이날 이들은 옥문관에 당도하자 낙타를 팔아 버리고 다시 말로 바꾸었다. 그들은 남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장사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몇 명은 노새를 사서 마차를 끌게 한 후 차에다 약재 같은 짐을 싣고 장사꾼 행세를 했다.

다음날 새벽, 그들은 깊을 재촉했다. 그들은 감량(甘凉)의 큰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뜨거운 햇살로 날씨가 매우 덥기 시작했다. 그들이 두 시간 남짓 달려오자 앞에 이십여 그루의 버드나무가 보였다. 그들은 나무 그늘에서 쉬려고 말에 채찍질을 가했다. 가까이 가자 버드나무 밑엔 누군가 아홉 명이 앉아 있었다. 여덟 명의 대한들은 모두 사냥꾼 차림새에다 허리엔 칼을 차고 등 뒤엔 활통을 메고 있었고, 거기다 사냥할 때 필요한 배가 대여섯 마리 있었다. 모두 흑색 털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위세가 당당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젊은 공자였다. 남색 비단 옷에 접선(摺扇)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부귀스러운 모습이었다.

장무기는 말에서 내려 그를 훔쳐 보니, 그의 얼굴이 매우 아름

다와 보였다. 총명한 눈동자엔 흑백이 분명하였고, 백옥으로 된 부채 손잡이를 든 손으로 얼마나 흰지 백옥 손잡이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모두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허리에 찬 장검에 눈길이 쏠렸다. 그의 검집에 의천(倚天)이라는 두 자가 새겨져 있었다. 검의 모양이나 길이로 봐서 바로 멸절사태가 명교인들을 일대 도살했고, 주지약이 그 검으로 장무기를 죽일 뻔하게 중상을 입혔던 의천검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전이 참지 못하고 물어보려고 하자, 바로 그 때 동쪽 큰 길에서 말발굽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한 무리가 요란스럽게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원나라 병사들이었고 약 오, 육십 명은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 뒤엔 백여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이 묶여 말 꼬리에 끌려오고 있었는데, 모두 잘은 발에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말에 끌려 뛸 수 있겠는가! 어떤 부녀자는 쓰러진 채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이 부녀자들은 모두 한족(漢族)들이었다. 모두 이 원나라 병사들에게 체포돼 그중 반 이상은 이미 옷이 땅에 끌려다 떨어져 반 이상이나 알몸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매우 처절했다. 병사들은 술병을 들고 마시며 어떤 자는 이미 취하여 부녀자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었다. 원래 몽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 위에서 자라 그들의 채찍질은 매우 훌륭했다. 채찍질 할 때마다 부녀자의 옷이 찢겨져 나갔고, 그들은 모두 기뻐 날뛰었다.

몽고인..... 중국을 점령한 지 이미 약 백 년이 되었다. 그들은 한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밝은 대낮에 부녀자들을 학살하고 희롱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명교인들은 화가 치밀어 장무기의 명령만 떨어지면 모두 뛰쳐나가 그들을 모두 죽이고 싶었다.

갑자기 그 공자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왔다.

"오육파, 네가 가서 저 부녀자들을 풀어 주라고 해.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그의 음성은 여자의 목소리 같이 들렸다. 원병 무리들 중에서 한 군관이 타고 있는 말 위에서 뛰쳐 내려오더니 취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면서 외쳤다.

"하! 하! 하! 죽고 싶어 환장한 모양이구나. 어른신네가 하는 일을 간섭하다니....."

오육파가 그를 나무랐다.

"야, 이놈아! 대낮에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빨리 풀어 주지 못할까?"

그 군관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쳐다 보며, 그들의 당당한 기세에 의아해 했다. 그러면서 그 소년 공자의 두건에 두 개의 큰 구슬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크게 웃었다.

"어이 상공! 이 어르신네를 따라오면 좋은 구령을 시켜 주지."

그 공자는 원래 원병들의 이런 난폭한 행동을 보고도 별로 화내지 않고 안색이 부드러웠으나, 이 무례한 말에 그만 눈을 치켜 뜨며 화를 냈다.

"한 명도 살려 보내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획! 하고 한 개의 화살이 날아가 그 군관의 가슴을 뚫고 날아갔다. 바로 그 공자의 옆에 있던 사냥꾼 차림의 한 남자가 쏜 것이었다. 그의 놀랍도록 빠른 화살 쏘는 수법과 그 강한 경력은 무림의 일류 고수와 같았다.

연이어 획! 획! 하는 소리와 함께 여덟 명이 모두 화살을 쏘아댔다. 정말 그들은 백발 백중이었다. 한 개의 화살도 빗나가지 않았다. 원병들은 갑자기 변이 생기자 모두 당황해 하며 그들도 화살로 응수했다. 그러나 잠깐 사이에 원병은 삼십여 명이나 죽어갔다. 그러자 남은 원병들은 부녀자들을 내동댕이치고 달아났다. 여덟 명의 남자들이 탄 말들은 모두 훌륭한 말들이라 번개같

이 쫓아가 곧 원병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러자 소년 공자는 말에 올라 여덟 명을 이끌고 떠나 버렸다.
 "여보시오, 잠깐 할 말이 있소!"
 주전이 외쳤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덟 명의 호위를 받고 이미 멀리 달려가 버리고 말았다.
 장무기와 위일소는 자신들의 경공(勁功)을 시전(施展)하여 그들을 따라가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었으나, 그 여덟 명의 신기와 같은 화살로 적들을 죽인 협기가 가상해 내심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실례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양소가 말했다.
 "저 공자는 분명 여자가 틀림이 없어. 그리고 저 사냥꾼 차림의 여덟 명은 모두 고수들인데 그녀에게 그렇게 공손하다니! 그 여덟 명은 궁술이 저토록 신묘한데, 중원의 어느 문파인지 모르겠군."
 양불회와 후토기 등 여러 사람들은 부녀자들을 안심시키고 물어보니, 근처 촌마을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죽은 시체들 품속에서 금은 재물들을 찾아 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 돌려 보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며칠간 그들은 항상 그 원병들을 무찌른 아홉 명의 얘기를 나누며, 그들과 친분을 맺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 했다.
 주전이 양소에게 물었다.
 "양형, 당신 딸도 사실 미녀인데 그 남장을 한 아가씨와 비교하니, 정말 비교가 안 되는군."
 "맞어. 만약 그들이 우리 명교에 가입한다면, 그 여덟 명은 아마 지위가 오산인 위가 될 거야."
 "허튼 소리! 말타고 화살쏘는 무공이 뭐 별건가? 나 주전과 한번 겨뤄 보라고 해 봐!"
 "음! 그러나 무공으로 따지면 냉겸형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은

데.....!"

명교 오산인 중에서 냉겸(冷謙)의 무공이 제일 뛰어났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양소는 주전과 평소 불목하고 지내왔다. 서로 겉으로 싸우지는 않았으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전이 양소에게 말싸움을 걸곤 했었다. 그런데 양소가 여덟 명의 무공을 냉겸보다 높다고 비교하면서 오산인들을 놀리자 화가 치밀어 무슨 말로 다시 대꾸하려고 했는데, 팽영옥(彭營玉)이 웃으며 말했다.

"주형, 또 양좌사에게 당했군요.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주전이 크게 웃었다.

"내가 화를 절대로 안 내면 어쩔 수가 없겠지."

잠시 후, 주전은 또 양소의 기마술이 뒤떨어졌다고 비꼬았다. 사람들은 웃음을 멈추고 그들의 말다툼을 말렸다.

은이정은 매일 장무기의 치료 덕택에 정신이 많이 맑아져, 그날 광명정에서 내려온 후 생겼던 일들을 얘기했다.

그날 그는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그만 사막에서 길을 잃어 버렸다. 황사가 날리는 망망한 사막에서 팔, 구 일을 헤매다 다시 원래의 길을 찾았을 땐 이미 무당파 사람과 연락이 끊겼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섯 명의 소림사 중들이 나타나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도전을 한 것이다. 다섯 명의 무공은 모두 매우 고강했다. 은이정이 그 중 두 명을 쓰러뜨렸으나 여전히 숫적으로 당해 내지 못해 그만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틀림없이 소림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명정에서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후원을 온 자들인지는 모르나, 왜 갑자기 자기에게 독수를 뻗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은이정이 먼저 자신을 소개한 터라 사람을 잘못 알아 볼 리도 없었다.

----- 제 4 권 7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제 8 장 녹류산장(綠柳山莊)의 괴소녀(怪小女)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양불회는 모든 정상을 다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녀는 자기 부모들이 은이정에게 진 빚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은이정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매우 측은한 생각마저 들었다.

이날 황혼 무렵, 그들은 영등현(永登縣)을 지나 강성자(江城子)까지 가서 투숙하기 위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며 앞의 큰길에서 두 필의 말이 나란히 달려오고 있었다. 십여 장 거리까지 달려오더니 말에서 내려 매우 공손하게 길 옆에 서는 것이었다. 그 두 사람은 사냥꾼 차림이었고 바로 원병들을 화살로 쏴 죽였던 팔웅(八雄)중의 두 인물이었다. 군호들은 기뻐하며 모두 말에서 내려 그들을 맞았다. 두 사람은 장무기의 앞에 오자 허리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희 주인님께서 장교주님의 의협심을 양모해 오셨고, 거기다 여러 영웅호걸분들의 대단함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저희 주인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뜻에서 소인들에게 저희의 장으로 모셔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귀주인을 어떻게 칭호해야 하는지.....?"

"성은 조씨(趙)이나 구명은 저희가 감히 부를 수가 없군요."

여럿은 그들이 자기 주인이 남장한 것을 얘기하자 모두 솔직한

태도에 마음이 기뻤다.

'여러분의 신기와 같은 궁술을 본 후론 그저 매일 칭찬해 왔습니다. 이렇게 친구로 맺을 수 있다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폐를 끼쳐 드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선 당세의 영웅들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 고장을 지나가는 마당에 술 몇 잔이라도 대접하고 주인된 도리로 예를 갖출까 합니다."

장무기는 마침 이 영웅 인물들과 사귀고 싶었고, 또한 의천검이 어떻게 그녀 수중에 들어갔는지도 알고 싶었다.

"그러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희색이 만면하여 말 위로 올라 앞장서 길을 안내했다. 얼마가지 않아 여덟 명 중의 또 다른 두 명이 말을 타고 달려와 말에서 내려 길가에 공손히 서서 그들을 영접했고, 또 얼마를 가자 다시 남은 세 명이 말을 타고 달려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었다. 명교의 군호들은 그들의 빈틈없는 예의에 모두 마음 속으로 흡족해 했다.

청석으로 깔린 큰길을 따라 어느 댁 장원 앞에 당도했다. 장원의 주위는 도랑물이 흐르고 물가엔 푸른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감량 일대에서 이런 감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장문이 열리자 다리가 놓여 있었다. 조소저라는 주인 아가씨는 여전히 남장을 하고 성문에 서서 이들을 영접했다.

조소저는 앞으로 나서서 포권의 예를 올리며 인사를 했다.

"명교의 여러 군웅 호걸분들이 이렇게 저희 녹류산장(綠柳山莊)에 왕림해 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장교주님, 그리고 양좌사, 은 노선배, 위복왕....."

그녀는 명교의 인물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도 명교에서 지위 고

하를 따라 순서대로 부르니,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전은 도저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소저, 어떻게 저희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점치는 재주라도 있습니까?"

조소저는 미소를 지었다.

"명교의 군호들의 협명은 강호에 소문난 것인데, 누군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명정에서 장교주께서 절세의 무공으로 육대문파를 위압한 사실은 더욱 무림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중원으로 가시는 도중에 많은 무림 친구들의 접대를 받으실 것인데, 어찌 이 소녀가 접대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명교 군호들은 그녀의 말에 옳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으면서도 겉으론 매우 겸손해 하며 신궁(神弓) 팔웅(八雄)들의 성함을 물었다. 그러자 한 키 큰 남자가 나서서 일일이 소개했다.

"소인은 조일상(趙一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이패(錢二敗), 손삼훼(孫三毁), 이사최(李四催), 그리고 저쪽 넷은 주오수(周五輸), 오육파(吳六破), 정칠멸(鄭七滅), 왕팔쇠(王八衰)라고 합니다."

명교 군호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기가 찼다. 여덟 명의 성이 백가성(百家姓)에 조, 전, 손, 이, 주, 오, 정, 왕의 순서대로 돼 있는 것도 괴이하지만 이름까지도 모두 불길하지 않은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러나 강호에서는 가끔 화를 막고 원수를 피하기 위해 가짜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 군호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조소저가 직접 이들을 대청으로 안내했다. 대청 위에는 <녹류산장>이라는 네 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고, 중당에는 조맹조가 그린 팔준도(八駿圖)라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다. 여덟 마리의 말의 자태는 모두 각각이었고 위세가 당당했다. 왼쪽 벽에는 시 한

수가 씌어져 있었고, 지은이의 이름은 조민(趙敏)이라고 씌어 있었다. 장무기는 서예에 대해선 별로 조예가 없지만, 그러나 주구진에게 글씨를 배운 적이 있어서 잘 쓰고 못 쓰고는 조금 알 수 있었다. 시를 보니 글씨가 조금 힘이 약한 것으로 보아 여자가 쓴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의서외엔 별로 읽은 책이 없었으나, 시의 뜻은 대략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소저의 이름이 민(敏)이고 변량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가씨께선 중주구경세가(中州舊京歲家) 출신이군요. 정말 문무(文武)를 겸한 인재이십니다."

조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교주의 존대인(尊大人)은 은구철획(銀鉤鐵劃)이라는 호칭을 지니신 서예의 명가가 아니십니까?"

그 말에 장무기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열 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나, 아버지에게서 서예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다. 그 뒤 무공을 익히고 의술을 배우긴 했으나 서예에 대해선 지식이 천박하였다.

"아가씨께서 저에게 서예를 부탁한다면, 저는 사실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선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배우지 못한 것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인들이 찻잔을 올렸다. 찻잔엔 연하고 푸른 용정차(龍井茶)가 떠 있었고, 그 은은한 향기는 코를 찔렀다. 이곳은 강남과 수천 리나 떨어졌는데 신선한 용정차가 있다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장무기는 이 낭자의 모든 것이 기괴하다고 생각했다. 조민은 먼저 찻잔을 들어 차를 마신 후, 군호들이 모두 차를 마시고 나자 입을 열었다.

"먼길을 오시느라 피로가 쌓였을 것인데, 별로 준비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술과 안주를 좀 드시지요."

그러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군호들을 안내하여 복도를 지나

어느 큰 화원으로 데리고 갔다. 화원에는 기괴한 모양의 바위 덩어리가 널려 있었고 연못의 물은 무척 맑았다. 꽃은 별로 많지 않았으나 매우 우아해 보였다. 장무기는 화원의 운치에 대해선 잘 몰랐다. 그러나 양소는 내심 고개를 끄덕이며 화원의 주인이 용속(庸俗)한 인물이 아니며 큰 뜻을 품고 있는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자에는 이미 주석이 마련돼 있었다. 조민은 장무기를 자리에 안내하고 신궁팔웅들은 명교 군호들을 안내했다. 은이정은 몸을 일으킬 수 없어서 한 방에서 양불회가 음식을 먹이며 시중들고 있었다.

조민은 큰 잔에다 술을 채우고 먼저 한 잔을 들이켰다.

"이 술은 십팔 년이나 묵은 소흥여정진주(紹興女貞陳酒)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술맛 좀 보세요."

양소, 위일소, 은천정 등은 조소저가 의협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심성을 갖고 술잔이나 술주전자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조소저가 다시 술 한 잔을 들이키자 그만 의심을 풀고 마음껏 먹으며 술을 마셨다.

명교 교칙에는 원래 육식을 하지 못하고 술을 마실 수가 없었으나, 총단을 곤륜산으로 옮긴 후로는 이런 음식상의 금기는 없애 버렸다. 서역(西域)에선 야채를 구하기 힘들었고 육류보다 더 귀하였다. 그리고 기후가 추운 곳이라 소나 양의 기름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내력이 약한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웠던 이유에서였다.

정자 주위의 연못엔 수선화 모양 같은 화초가 칠, 팔 그루가 있었는데, 수선화보다는 크고 꽃은 흰색이었다. 향기가 아주 우아했다. 군호들은 꽃향기 속에서 좋은 술을 마시며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조소저는 술을 마시며 중원 무림의 각파에서 있었던 옛날 애기

를 했는데, 놀랍게도 은천정 부자까지도 알지 못하는 일까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림, 아미, 곤륜의 무공에 대해선 별로 칭찬을 하지 않았으나, 장삼봉과 무당칠협 얘기가 나올 땐 무척 추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명교의 군호들의 무공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쓰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일일이 칭찬을 빠뜨리지 않았다. 군호들은 매우 기분 좋아하는 한편 그녀에게 탄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스승이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려 버렸다.

조민은 오는 술잔마다 단번에 다 마셨고, 술이 몇 순배 돌고 안주가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먼저 먹어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며 취기가 약간 돌자 더욱 아름다와 보였다. 미인이란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지 않았다면, 교태적인 요염한 아름다움 그 두 가지가 아닌가! 그러나 이 조소저는 아름다움에 어딘가 영웅 호걸적인 자태가 숨어 있었고, 동시에 매우 부귀 티가 나 단정하고 근엄한 태도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이 우러나 감히 쉽게 쳐다볼 용기를 주지 않았다.

장무기가 그녀에게 물었다.

"조소저, 이렇게 후대해 주셔서 폐교 상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마 입이 열리지가 않는군요."

"장교주, 뭘 그렇게 미안해 할 게 있습니까? 강호 사람이라면 모두 형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높이 봐 주신다면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사양마시고 물으십시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묻겠습니다. 조소저께서는 이 의천검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조민은 미소를 지으며 허리에 찬 의천검을 탁자에 놓으며 다시 물었다.

"여러분과 만난 후로 모두들 날카로운 눈초리로 이 검만을 쳐다보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이 검은 원래 아미파 장문 멸절사태의 검이었습니다. 그 검에 폐교의 많은 형제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 검이 나의 가슴을 뚫은 적이 있어서 모두 그 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듣자하니, 장교주께서는 무적의 신공을 지녀 건곤이위심법으로 멸절사태의 손에서 이 검을 탈취했었다는데, 이 검에 다치시다니요? 그리고 장교주를 찌른 사람은 무공이 별로 대단치 않은 아미파의 어느 젊은 여제자라고 들었는데, 소매(小妹)는 그 점을 정말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장무기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을 듯 말듯하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장무기의 얼굴이 빨개졌다.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조민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 주지약이란 언니가 아름답게 생겨서 당한 것이 아닙니까?"

장무기의 얼굴은 더욱 홍당무가 됐다.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그녀는 술잔을 들어 난처한 입장을 넘기려고 술을 마시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왼손이 떨리며 옷깃에다 그만 술을 몇 방울 흘렸다.

조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소매는 이제 취한것 같습니다. 벌써 횡설수설 한 것 같아요. 들어가 옷을 갈아 입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동안 사양 마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말을 마친 그녀는 포권의 예를 올리고 나서 정자 밖으로 나갔

다. 그러나 그 의천검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다.
하인들은 부지런히 안주를 올렸다. 군호들은 한참 지나도 조민이 돌아오지 않자, 주전이 입을 열었다.
"우리를 의심하지도 않고 의천검을 그대로 여기 두고 가다니....."
말을 마친 주전은 자연스럽게 검을 손에 들더니 이상하다는 듯 이엇! 하고 소리쳤다.
"왜 이렇게 가볍지?"
검을 뽑자 군호들은 모두 놀라 일어섰다. 그 검은 모든 것을 잘라 대던 날카로운 의천보검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목재검이었다. 군호들은 그 목재검에서 은은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 검은 엷은 황색인 단향목(壇香木)으로 만든 것이었다.
주전은 당황하여 검을 검집에 다시 넣었다.
"양좌사.....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지?"
그는 평소 양소와 말다툼을 잘했지만, 사실 그는 내심 양소의 넓은 식견에 탄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당황스런 일이 생기자 자기도 모르게 양소에게 물어본 것이다.
양소는 정색을 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교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조소저가 무슨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한 것 같으니, 어서 빨리 여기를 떠납시다."
주전이 장무기가 말하기도 전에 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까짓것 어린 소녀인데 두려울 것 없어. 감히 무슨 행동을 저지르진 못할 걸세. 우리 같은 고수들이라면 그들쯤은 모조리 해치울 수 있다구!"
양소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녹류산장에 발을 들여놓은 후론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여

기에 갇혀서 항상 그들의 공격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합니까?"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좌사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배도 채웠으니 이제 그만 떠납시다."
그러면서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철관도인이 장무기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교주께서는 그 진짜 의천검에 대해 알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팽영옥이 그의 물음에 나서서 대답을 했다.
"제가 보기엔 이 조소저가 일부러 무슨 의혹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무슨 곡절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녀를 찾지 않아도 필시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린 지금 할일이 있으니 다른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다시 해결해도 됩니다."
그들은 정자를 나와 대청으로 돌아와서는 푸짐한 대접에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는 작별인사를 고했다.
조민이 바쁜 걸음으로 뛰어나왔다. 그녀는 벌써 엷은 노랑색 비단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더욱 아름다와 보였다.
"벌써 가시다니요! 이 소녀가 대접을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린 급한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 훗날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조민은 웃을 듯 말 듯 하면서 장원 밖까지 배웅을 했고 신궁팔웅들은 길 옆에 서서 공손히 손님들을 보냈다.
군호들은 아무 말 없이 포권의 예를 올리고는 말에 올라타 쏜살같이 달렸다. 산장과 멀리 떨어지자 사방이 평야로 둘러싸여 아

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주전이 큰 소리로 비꼬았다.

"그 조소저가 무슨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지는 않았네. 그저 목검으로 교주와 장난치려고 한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이번엔 양좌사가 잘못 본 것 같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저 무조건 이상한 느낌이 든 것은 사실이오."

주전이 크게 웃었다.

"쟁쟁하던 양좌사께서 광명정에서 한바탕 싸우고 나더니, 이런 겁장이가 되다니....."

그는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몸이 비틀하더니,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설불득이 그와 제일 거리가 가까워 재빨리 말에서 내려 그를 부축했다.

"주형, 왜 그러시요?"

"별것 아닙니다.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러워 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그 말에 군호들은 서로 마주 보며 안색이 변했다. 그들도 녹류산장을 나와 말을 달리면서 모두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술기운에 그런가 하고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런데 주전의 높은 무공과 큰 주량에 술 몇 잔 마셨다고 말에서 떨어질 정도라니 필시 무슨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고개를 쳐들고 내심 생각을 굴렸다. 왕난고(王難姑)의 독경(毒經)에 의하면, 일종의 무색, 무미, 무취의 독약이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그런 독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군호들과 마찬가지로 마실 만큼 마셨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번개와 같이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는 그만

크게 당황을 했다.
"정자 안에서 같이 술 마셨던 분들은 모두 말에서 내리시오. 그리고 조용히 정좌를 하시오. 절대 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행기와 천응기 형제들은 사방을 둘러싸고 여러 수령들을 보호하시오. 누구든 가까이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처치해 버리시오."
교주의 엄숙한 명령이 내리자 모두는 병기를 들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내가 돌아오기 전엔 절대로 자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군호들은 다만 머리만 좀 어지러운 것뿐이고 별다른 이상도 없는데, 교주가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눈치들이었다. 장무기는 다시 당부를 했다.
"아무리 어지러워 괴롭다 해도 절대 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독이 퍼져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독이 걸렸지?"
장무기가 몸을 슬쩍 날리자 이미 십여 장 밖에서 달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타면 느릴 것 같아 경공을 펼치며 녹류산장으로 달려갔다. 장무기는 마음이 너무 조급했다. 이번엔 극독에 당한 것이라 발작하게 되면 한 시간도 넘기지 못하고 즉사하는 독이었다. 절대로 현음지와 같이 시일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해약을 구하지 못하면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십 리 길이나 되는 거리를 눈깜짝할 사이에 달려와 장원 앞에 당도했다. 그는 몸을 날려 쏜살같이 안으로 날아들었다. 문지기들은 그저 눈앞에 그림자가 획! 하고 지나간 듯 했으나 아무도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장무기는 곧 바로 후원까지 와 정자 안으로 뛰어들자, 파란색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왼손엔 찻잔, 오른손엔 책을 들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바로 조민이었다. 이때 그녀는 벌써 여장으로 갈

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장무기의 발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리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조 낭자, 소저에게 화초 몇 뿌리를 얻고 싶소!"
 그러면서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몸을 튕겨 반듯이 날으며 연못 위를 지나 정자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는 눈깜짝할 사이에 벌써 연못 속의 수선화 같은 칠, 팔 그루의 화초를 모두 뽑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가 발을 수각(水閣)에 딛는 순간 획! 획! 하는 소리와 암기가 그를 향해 날아왔다. 장무기는 오른손을 휘둘러 암기를 모두 소매 안으로 거둬들이고 다시 손을 휘둘러 암기를 조민을 향해 날렸다.
 조민이 몸을 들어 피하자 바람소리와 함께 탁자 위에 주전자, 찻잔, 과일 접시들이 모조리 그의 소매 바람에 연못 너머로 날아가 떨어졌다. 장무기는 몸을 세우고 화초를 살펴보니, 뿌리에 짙은 자색의 긴 수염들이 달려 있으며, 수염마다 진주알만한 둥그런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것은 파란색이었는데 꼭 비취와 같았다. 그는 이미 해약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품속에 넣었다.
 "해약을 주서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떠나겠습니다."
 조민이 살며시 웃었다.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울 걸요?"
 그녀는 책을 팽개치고 잽싸게 책 속에서 종이장과 같이 얇고 서리와 같이 흰 단검을 뽑아 들고 그를 덮쳤다.
 장무기는 군호들의 생명이 위급해 그녀와 싸울 시간이 없어 오른쪽 옷소매를 뻗어 소매 안에 박혔던 십여 매의 금침을 그녀를 향해 날렸다. 조민은 몸을 날려 수각 밖으로 피하며 다시 발끝을 튕겨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기를 수차례, 장무기의 금침은 모두 연못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훌륭한 신법이군."

장무기가 그녀를 추켜올리자 그녀는 두 손을 휘두르며 장무기를 향해 두 개의 단검을 뻗었다.

'이 계집아이가 이토록 악랄하고 잔인하다니, 만약 내가 구양진경을 터득하지 않고, 왕난고의 독경을 익히지 않았다면, 명교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두 팔을 벌려 그녀의 검을 빼어 버릴 자세를 취했다.

조민은 잽싸게 팔을 들어 쌍검으로 번개와 같이 장무기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휘둘렀다. 장무기는 그녀의 검을 뺏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러나 그의 무공의 변화는 얼마나 오묘한가! 그녀의 검을 뺏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녀의 양팔의 혈도를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을 쥐고 있을 힘이 없자 쌍검을 장무기의 머리를 향해 힘껏 팽개쳤다. 장무기가 잽싸게 피하자 두 검은 수각의 기둥에 꽂혀 떨고 있었다.

장무기는 내심 놀랐다. 조민의 무공이 양소나 은천정, 위일소 같은 인물에는 훨씬 뒤떨어졌지만, 매우 기민하고 영리한 것은 사실이었다. 검을 잡을 힘을 잃고 떨어뜨리면서도 사람을 향해 해치려고 하다니, 장무기가 조금만 늦게 피했어도 그는 이미 이 두 검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랐다.

조민은 단검을 잃자 잽싸게 몸을 틀어 목재 의천검이 든 칼집을 잡아들었다. 그러나 검을 뽑지는 않았다. 그녀는 장무기를 향해 칼집을 휘둘렀다. 장무기는 잽싸게 그녀 왼쪽 어깨의 견정혈을 찌르고 그녀가 몸을 피하려고 할 때 바로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재검을 빼앗아 버렸다. 어찌 그의 건곤이위심법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조민은 몸을 가누고 나서 가볍게 웃었다.

"장공자, 그게 무슨 무공입니까? 바로 그 건곤이위신공입니까?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장무기가 왼손 손바닥을 벌리자 그의 손엔 한 송이 꽃이 있었다. 바로 그녀가 머리에 꽂았던 장식이었다. 조민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장무기가 자기의 그 장식을 뽑은 것을 조금도 느끼지를 못했던 것이다. 만약 장무기가 그것을 뽑지 않고 바로 자기의 태양혈을 찔렀다면 그녀는 지금 이미 죽어 있어야 했다. 그녀는 재빨리 정색을 하고 가볍게 웃었다.

"나의 그 주화(珠花)가 탐나세요? 그렇다면 강제로 뺏지 말고 얘기했으면 제가 그냥 드렸을 텐데....."

장무기는 그녀의 말에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됐다. 그는 왼손을 뻗어 주화를 내던졌다.

"자, 돌려 주겠소."

그러면서 그는 수각 밖으로 걸어갔다.

조민은 주화를 받으며 그를 불렀다.

"잠깐!"

장무기가 등을 돌리자 그녀는 웃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어째서 내 주화에 꽂혀 있던 제일 큰 진주 두 알을 훔쳤죠?"

"쓸데없는 소리! 당신과 농담할 여유가 없소."

조민은 주화를 쳐들어 보이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것 보세요. 두 알이 없어졌잖아요?"

장무기는 그녀가 일부러 떼어 버리고 무슨 간계를 부리는 줄 알고 더 이상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기 싫었다.

조민은 탁자를 잡고 서서 날카롭게 외쳤다.

"장무기, 용기가 있으면 내 앞으로 삼 보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네 꾀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으로 다시 걸어갔다.

조민은 그가 자기 꼬임에 넘어가지 않자,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만 두세요. 오늘 제가 완전히 졌어요. 더 이상 우리 스승을 뵐 면목도 없어졌군요."

그녀는 팔을 젖혀 기둥에 박힌 단검을 하나를 뽑아 들며 외쳤다.

"장교주, 고맙습니다. 나를 이 꼴로 만들어 주어서....."

장무기는 잽싸게 고개를 돌려 보니 그녀는 이미 검을 쳐들고 자기의 가슴을 찔러 버렸다.

"당신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소?"

그러나 그녀는 이미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비명을 지르며 탁자 모서리에 쓰러지고 있었다. 장무기는 이 소녀가 이렇게 까지 성격이 악랄할 줄은 정말 몰랐다. 몇 초식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자 바로 검을 들어 자진을 하다니, 장무기는 내심 심장을 바로 찌르지 않았다면 아직 살릴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려 그녀의 상처를 살피려고 걸어갔다.

장무기가 탁자와 삼 보 가까이 걸어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다리 밑이 허전해지면 자기의 몸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앗! 큰일 났구나."

장무기는 운기를 하여 위로 치솟으려고 힘을 쓰며 몸이 공중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팔을 잽싸게 옆으로 뻗었다. 장무기가 손가락 끝이라도 탁자를 건드릴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시 위로 뛰어오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민은 자살한 척하고 연극을 꾸민 후 이미 장무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장무기가 탁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장풍을 뻗은 것이다.

순식간에 생긴 일이었다. 쌍장이 부딪치자 장무기의 몸은 이미 반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급한 나머지 팔을 돌려 조민의 손가

락을 잡은 것이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미끄러워 빠지려고 하는 찰나, 장무기는 벌써 그 힘을 빌려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자칫하면 그의 몸이 밑으로 떨어지는 강한 힘으로 두 사람이 함께 밑으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순간 쿵! 하고 위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몸은 순식간에 컴컴한 밑으로 떨어졌다.

사, 오장 길이가 되는 함정이었다. 장무기는 발끝이 바닥에 떨어지는 즉시 몸을 날려 벽호유장공(壁虎游墻功)의 초식을 이용하여 뚜껑가지 올라가 뚜껑을 열려고 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철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건곤이위신공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몸이 허공에 떠 있어 땅에 서 있는 자세와는 달리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철판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의 몸은 이미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조민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것은 여덟개의 철근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그걸 열진 못할 거예요!"

장무기는 그녀의 간계에 속은 것이 화가 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빠져 나갈 방법만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을 살펴봐도 차가운 느낌뿐, 조금도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호! 호! 호! 장공자, 당신의 벽호유장공은 정말 대단하군요. 이 함정은 순전히 강철로 만들어서 빈틈없이 사방이 미끄럽기만 한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정말 놀랍군요. 호! 호.....!"

장무기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도 나와 같이 떨어졌는데 뭐가 그리 우습소?"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이 계집은 너무 교활해. 함정에 필시 나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 계집만 혼자 빠져 나가게 할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왜 이러세요?"

"혼자 빠져 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살고 싶으면 어서 빨리 뚜껑을 열어!"

"그렇게까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그들이 내가 산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이 함정엔 다른 출구가 없소?"

"생기시기는 똑똑하게 생기셨는데 왜 그리 답답하세요. 이 함정은 우리가 살려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출구가 있겠어요? 적을 잡으려고 한 것인데, 일부러 적을 도망가게 다른 출구를 만들겠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함정에 빠졌는데 밖에서 모를 리가 있겠소? 빨리 뚜껑을 열게 하시오!"

"내 부하들은 모두 밖으로 내보냈어요. 조금 전에 수각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내일 이때면 돌아올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푹 쉬세요. 조금 전에 배불리 잔뜩 드셨으니까 배가 고플 리는 없을테니."

장무기는 화가 치밀었다. 그가 여기에 오래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러나 외할아버지나 군호들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그는 이성(二成)의 힘을 들여 손에 힘을 주며 외쳤다.

"나를 즉시 여기서 내보내지 않으면, 먼저 당신을 죽여 버리겠소!"

"나를 죽인다면 영원히 여기서 나갈 생각을 마세요. 여보세요. 어째 여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놓으세요!"

장무기는 그 말에 그녀의 손을 놓고 벽에 기대고 앉았다. 이 함정은 사방이 몇 자 되지 않아 그녀와의 거리는 한 발짝 사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조급하기도 하고 화도 치밀었다.

"우리 명교와 당신은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하는거요?"
"당신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처음부터 말씀 드리지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는 그녀의 내력과 목적을 알고 싶었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를 하게 되면 군호들의 목숨은 부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인지도 의심스럽고, 만약 이 여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거짓을 꾸며 대도 별도리 없지 않은가! 그는 그녀를 협박해서, 뚜껑을 열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누군지 지금 들을 여유가 없소. 어서 빨리 사람을 불러 나를 내보내지 않겠소."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리쳐 봤자 위에들리지도 않아요. 못 믿으시겠다면 당신이 소리를 쳐보세요."
장무기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왼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다. 조민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옆구리에 혈도를 찍히고 말았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목을 눌렀다.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이면 너는 죽은 목숨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녀가 숨을 쉬기 어려워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조민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장무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뚜껑을 열게 할 목적이었지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요!"
"문을 안 열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아요, 사람을 부르겠어요! 거기 누구 없느냐? 뚜껑을 열어라! 내가 이 안에 갇혔어!"
아무리 목청을 높여 외쳐도 조용하기만 했다.
"이것 봐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장무기는 정말 울화통이 터졌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다가 웃다가 그게 무슨 꼴이오!"
"당신이야말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약한 여자를 괴롭히다니요!"
"약한 여자? 교활한 간계를 따지면 남자 열 명보다 더 무서운 여자야!"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무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매우 조급했다. 만약 이대로 있다간 명교 전군이 멸망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손을 뻗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치마가 한 쪽 찢겨 나갔다. 조민은 장무기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당황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라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
"어째서요?"
장무기는 아무 말도 않고 찢겨진 옷자락에 침을 적셨다.
"죄송합니다. 이럴 수밖에....."
그는 옷자락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았다. 조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잠시 지나자 가슴이 막혀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끝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잠시 뒤 그녀는 몸을 꿈틀거리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그녀의 손목을 짚어보니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장무기는 할 수 없이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았던 옷자락을 떼어 버렸다. 조민은 곧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맛이 어떻소? 자, 이래도 나를 내보내지 않겠소?"
조민은 이를 악물었다.
"백 번을 기절해도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예 나를 죽이세요!"
그녀는 자기의 입을 닦았다.

"퉷! 당신의 침 냄새가 지독하군."

장무기는 그녀가 이렇게 버티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졌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무례를 저질러야겠소. 용서하시요!"

그는 그녀의 왼발을 잡아 신발과 양말을 벗겼다. 조민은 놀라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이놈아,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장무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그녀의 오른발을 벗겼다. 그리고 나서 두 손의 중지로 그녀의 발바닥 용천혈(湧泉穴)을 누르고 구양신공을 운공했다. 뜨거운 기운이 그녀의 용천혈에서 움직였다.

용천혈은 발바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기점이라 감각이 제일 예민한 곳이었다. 장무기는 의술에 통달해 이치를 모를 리가 없었다. 평소 어린애와 장난칠 때도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참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장무기는 구양진공의 뜨거운 기운으로 그녀의 발바닥을 간지럽히니 조민은 깔깔 웃어 대며 참지를 못했다. 그러나 혈도를 찔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어떤 고통보다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깔깔 웃다 그만 참지를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장무기는 그녀가 가엾지만 별 수가 없어 계속 간지럽혔다.

"이놈아, 이 도적놈아..... 언제던..... 내가 꼭 너를 찔러 죽일 것이다. 좋다, 그만 나를 용서해 줘. 장..... 장공자..... 장교주..... 엇.....엇!"

"내보내 줄 것이요. 안 내보내 줄 것이요!"

"어서 멈추..... 세요!"

"나를 용서하시요."

장무기는 그제서야 멈추고 나서 그녀의 등을 주물러 혈도를 풀

어 주었다. 조민은 씩! 씩! 거리고 있었다.

"신발을 신겨 주세요!"

장무기는 그녀의 왼발을 잡고 신발을 신기며, 조금 전엔 별 생각이 없이 한 짓이지만 이번엔 그녀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발의 감촉이 오자 그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민은 다리를 오그리며 수줍음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다행히 어두워 장무기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고 나자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생겼다. 장무기가 다시 자기의 발을 만져 주었으면 하는 충동이었다. 그러나 장무기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어서 빨리 나를 내보내라!"

조민은 아무 말도 않고 벽에 그린 동그란 원을 찾아 검을 거꾸로 들어 손잡이를 거기다 대고 몇 번을 가볍게 쳤다. 그러자 스르르 빛이 스며들며 뚜껑이 열렸다. 원이 그려진 곳에 작은 구멍이 있어 그녀가 암호에 따라 신호를 하니, 기관의 책임을 맡은 자가 즉시 문을 연 것이다.

장무기는 그녀가 약속대로 곧바로 문을 열어 주는 솔직함에 또 한 번 놀랐다.

"자 같이 나갑시다."

조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옆에 서 있었다. 장무기는 자기가 한 소녀를 그렇게 괴롭힌 것이 못내 미안했다. 그는 읍을 올리며 사과를 했다.

"조소저, 조금 전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민은 몸을 돌려 벽을 보며 어깨를 움찔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잔인하고 교활할 때는 장무기는 그녀와 별생각 없이 상대를 했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미안한 감이 들었다. 그녀의 가냘프고 부드러운 뒷모습, 그리고 백옥과 같이 흰 피부, 늘어진 머

리카락..... 그는 그녀가 가련한 생각마저 들었다.

"조소저, 그만 가겠소. 실례가 많았습니다."

조민은 어깨를 살짝 움직였지만 역시 돌아서지는 않았다.

장무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벽호유장공을 펼쳐 기어올라가 몸을 밖으로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행여나 누가 밖에 숨어 있다가 갑작스런 기습이라도 할까 봐 대비한 것이었다. 사방을 둘러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는 또 다른 일이 생길까 봐 담을 넘어 명교 군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그는 함정서 한참을 지체해 해는 벌써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장무기는 은천정 등 군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조급해 하며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했다. 잠깐 사이에 그들에게 가까이 온 그는 그만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몽고의 기병들이 원을 그리고 달리며 명교 군호들을 포위하고 군호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교의 수령들이 모두 중독당해 명령을 내릴 자가 없으니 어떻게 저들을 막아낼 것인가. 장무기는 당황하며 쏜살같이 달려갔다.

좀더 가까이 접근하자 맑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예금기는 동북쪽을 공격하고, 홍수기는 서남쪽으로 그들을 포위하세요."

바로 소조의 음성이었다. 곧 예금기는 동북쪽으로 공격하고 홍수기가 서남쪽을 공격하자 원병들은 양쪽으로 나눠 그들과 맞섰다. 그러자 갑자기 중앙에서 황기를 든 후토기와 청기를 휘두르는 거목기 부하들이 한복판을 뚫고 나가는 것이었다. 두 마리의 청룡과 황룡이 용솟음치는 것 같이 보였다. 원병들은 그만 혼란을 일으키며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몸을 몇 번 날려 군호들 앞에 떨어졌다. 모든 교인들은 교주가 나타나자 사기가 크게 올라 소리를 지르며 병기를 마

구 휘둘렀다. 은천정, 양소, 주전 등 군호들과 오행기 장기사 모두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오히려 소조가 깃발을 들고 호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작은 언덕 위에 서서 교도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행기, 천응기 교도들의 무예는 모두 높지만, 수령들이 모두 중독(中毒)을 당하자 일시에 당황을 하고 혼란이 생겼는데, 소조가 팔괘진으로 그들을 지휘하자 원병들이 쉽게 공격을 못했던 것이다. 소조는 장무기를 보자 기뻐하며 외쳤다.

"장공자, 빨리 와서 지휘하세요!"

"나보다도 네가 더 잘하는구나. 나는 군관이나 몇 명 처치 해야겠다."

획! 획! 하고 화살이 장무기를 향해 날아왔다. 장무기는 한 교도의 손에서 긴 창을 뺏어들었다. 그리고는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막아내며 긴 창을 화살과 같이 날리자, 그 긴 창은 한 명의 원병 수령의 가슴을 뚫고 날아가 떨어지며 원병의 앞에 꽂혀 버렸다. 원병들은 모두 놀라 다시 뒤로 수십 보를 후퇴했다.

갑자기 멀리서 십여 명의 기병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맨 앞에서 달려 오는 자는 바로 조민의 밑에 있던 신궁팔웅이었다.

'이 팔인의 궁법은 매우 높은데, 만약 저들이 화살을 날린다면 많은 교도들이 당할 것이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만 된다.'

장무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웅 중에 우두머리격인 조일상이 금색으로 된 짧은 용머리 지팡이를 휘두르며 외쳤다.

"주인의 명령이다! 즉시 군사를 철수시켜라."

원병을 통솔하던 대장이 뭐라고 몽고 말을 지껄이더니 그만 말머리를 돌려 달려가 버렸다.

전이패가 큰 쟁반을 안고 장무기의 앞에 걸어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저희 주인께서 장교주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쟁반에는 황금색으로 된 상자가 놓여져 있었다. 장무기는 그것을 손에 쥐면서 그녀가 또 무슨 수작을 벌이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전이패는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고 뒤로 물러서 말에 올라 되돌아갔다.

장무기는 상자를 소조에게 건네주고는 군호들의 병세가 위급해 상자 속에 무슨 물건이 들었는지 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깨끗한 물을 떠오게 하고 가져온 해약을 물 속에 넣어 휘젓고 나서 중독된 사람들에게 나눠 마시게 했다. 수각에서 술을 마신 사람은 구양신공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무기만 중독되지 않았고 모두 독에 걸린 것이다. 다만 양불회는 은이정의 시중을 드느라 중독되지 않았고, 소조 역시 교도들과 다른 방에 있어서 독을 피할 수 있었다.

반 시간쯤 지나자 군호들은 체내의 독이 해독되어 머리가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았다. 다만 전신이 피로했다. 그들은 중독된 원인과 해약을 얻게 된 원인을 물었다.

"우린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음식에 독이 들었었다면 즉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조 낭자가 독을 쓴 방법은 나도 기가 찰 노릇이었소. 이 수선화와 같은 이것은 이름이 취선영부(醉仙靈夫)라고 합니다. 구하기는 힘들지만 독은 없습니다. 그 가짜 의천검은 바닷속의 기준향목(寄駿香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에도 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향기가 어울리게 되면 극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전이 자기의 다리를 탁 쳤다.

"모두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 검을 뽑아 이런 화를 당하다니!"

"그런 함정을 미리 계획했던 것이라,주형이 만지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하인을 시켜서 검을 뽑았을 겁니다."

"갑시다. 가서 녹류산장을 불태워 버립시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이 보였다. 바로 녹류산장이 불에 타고 있었다.

군호들은 서로 마주 보며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조 낭자가 벌써 우리의 생각을 예측하고 자기가 먼저 불에 태워 버렸구나. 나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우리의 강적이라니!'

주전이 다시 외쳤다.

"불을 질렀어도 빨리 쫓아가 그들을 모조리 해치웁시다!"

양소가 말렸다.

"그녀가 장원까지 태워 버릴 정도면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았을 텐데, 우리가 쫓아가도 별 수 없을 거요."

"양형, 당신의 무공이야 별 것 아니지만, 계략 술수라면 그래도 이 주전보다는 한 수 위가 아니요?"

양소는 웃으며 다시 말을 되받았다.

"천만에, 주형의 신기묘상을 소제(小弟)가 어찌 따르겠소?"

장무기는 웃으며 두 사람의 입씨름을 말렸다.

"두 분 그만 참으십시오. 다행히 이번에는 큰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여 명이 화살에 다쳤으니, 하늘이 도운것으로 알고 이만 길을 떠납시다."

그들은 길을 재촉하며 어떻게 중독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자 장무기는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위일소가 말을 했다.

"소조, 그 어린 계집아이한테 이런 기공(奇功)이 있었다니 정말 뜻밖이오. 그 애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크게 당했을 텐데....."

양소는 여지껏 소조를 적이 보낸 첩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싸움에서 오히려 명교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들은 조민의 내력에 대해 말하며 모두 아리송해 했다. 장무기는 그녀와 같이 함정에 빠져 그녀의 발바닥을 간지럽힌 것이 별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웬지 그 일을 군호들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을 자기 위해 객점을 찾았다.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절간이나 사당을 빌려 하룻밤을 신세지기로 했다. 소조는 세수물을 떠서 장무기 방으로 갖고갔다.

"소조, 소조는 오늘 큰 공을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

소조는 가볍게 웃었다.

"종이든 하인이든 저는 공자의 시중을 드는 일이 제일 기쁩니다."

그가 세수를 끝내지 소조는 황금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혹시 이 상자 속에 독벌레나 독약, 암기 같은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조심해야 돼."

상자를 탁자에 놓고 장무기는 소조와 함께 멀찌감치 떨어져 동전 한 닢을 꺼내 상자를 향해 던졌다. 띵똥! 상자 뚜껑이 곧 열렸지만 아무 이상도 없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안에는 한 송이의 주화(珠花)가 들어 있었다. 바로 조민의 머리에서 뺏었던 그것이었다. 조민이 빼버렸던 진주로 된 노리개 두 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보내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난 남자라 이런 여자들의 노리개는 필요없으니, 소조 네가 갖고 가거라."

소조는 웃으며 손을 연신 흔들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민이 공자께 준 정표인데 제가어찌 감히....."

장무기는 주화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빙긋이 웃으며 가볍게 던져 소조의 머리에 꼽았다. 소조는 손을 들어 그것을 떼려고 하자 장무기가 말렸다.

"그래, 너한테 선물을 주면 안 되느냐?"

소조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소저가 보면 화를 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가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 양좌사 부녀가 너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소조는 크게 기뻐하였다.

"공자가 떠난 지 오래 되도록 안 돌아오자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원병이 또 공격해 오자 어찌 할 줄 몰라 그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된 겁니다. 그 때 저도 무척 무서웠습니다. 공자께서 오행기와 천응기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소조가 무례한 행동을 저지른 것을 용서 하시라구요."

그들은 어느새 벌써 하남성(河南省) 경내에 접어들었다. 그 당시 천하가 혼란하여 사방에서 군호들이 반란을 일으켜 놓고 관병들의 검문이 무척 삼엄했다. 명교의 많은 교도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 불편해서 뿔뿔이 흩어져 숭산 아래서 다시 모이기로 결정하고 소실산을 향해 떠났다. 거목기의 장기사 문창송이 장무기와 군호들의 명첩(名帖)을 들고 먼저 소림사로 떠났다.

이번에 소림사로 가게 되면 다시 서로 병기를 들고 싸우는 일이 없길 바랐으나, 결과가 어떻게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만약 소림사 승려들이 경우를 따지지 않고 무력을 동원한다면, 명교에서도 상대를 안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장무기는 각 수령들로 하여금 먼저 소림사에 들어가게 하고 오행기와 천응기의 교도들

은 모두 절 주위를 지키라고 했다. 자기가 휘파람소리를 세 번 불면 즉시 안으로 쳐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교도들은 명령을 받고 서로 자기의 방향대로 길을 떠났다.

소림사에 당도하자 사내에서 한 늙은 승려와 문창송이 걸어나왔다. 늙은 승려가 입을 열었다.

"본사 장문인과 여러 장로들께선 폐관정수(閉關靜修)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군호들은 모두 난처해 했다. 주전이 버럭 화를 냈다.

"이분은 명교의 교주이시며 직접 불원천리 소림사를 방문 오셨는데, 노화상들이 만나 주지 않다니 너무 안중무인이 아니요!"

늙은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전은 더욱 노하여 냅다 스님의 멱살을 움켜잡으려고 하자 설불득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주형,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스님은 합장을 하며 냉랭하게 말했다.

"만나지 못할 거라 말하지 않았소?"

팽영옥이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그럼 달마당 수좌나 나한당 수좌께서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은천정이 참다못해 벼락같이 외쳤다.

"만나 줄 건가, 안 만나 줄 건가?!"

그는 쌍장을 다짜고짜 한쪽으로 밀어 붙였다. 순간 꽝! 하고 길옆의 큰 소나무가 반으로 뚝 부러졌다. 그 스님은 그제서야 두려운 기색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여러분께서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니 응당 예절로 맞아들여야 할 터인데, 여러 장로께서도 지금 좌선을 하고 계시

므로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오십시오."
 말을 마친 노승은 합장을 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위일소의 몸이 번뜩이는 것 같더니 벌써 그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사의 칭호가 어떻게 되는지요?"
 "소승의 법명은 밝히고 싶지 않소이다."
 위일소는 그의 어깨를 두 번 툭툭치며 웃는 낯으로 다시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 주지."
 위일소가 그 노승의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그 스님은 어깨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가슴까지 스며들어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노승은 억지로 참으며 위일소 옆을 지나 연신 몸을 떨며 산으로 올라갔다. 위일소가 그의 뒷통수를 향해 크게 외쳤다.
 "저놈은 무예를 지니고 소림사에 들어간 거야. 소림파의 내공이 아니야!"
 장무기는 즉시 원진이 떠올랐다. 그도 자신의 무예를 숨긴 채 다시 소림에 입문하지 않았던가! 소림사에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위복왕께서 그의 어깨에 한빙면장(寒氷綿掌)을 전개했으니, 그의 사조(師祖)나 사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자, 올라가 봅시다! 그래도 노화상들이 안 만나 주면 한바탕 벌이는 도리밖에 더 있겠소!"
 모두는 일장 악투를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소림파하면 무림의 태산북두가 아닌가! 천 년을 내려오면서 강호에 장승불패문파(長勝不敗門派)라는 칭호까지 얻고 있었다. 오늘 만약 일장 대전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명교와 소림파 어느쪽이 강한지 판가름 날 것이다. 모두들 가벼운 흥분마저 느끼며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소림사에는 고수들이 구름과 같이 많은데 이번 대전은 격렬할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그들은 소림사 앞 석정(石亭)에 당도했다. 장무기는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전에 태사부를 따라 이 석정에서 소림사 삼대 신승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여기에 온 것이다. 비록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 때는 약하고 병이 든 어린 소년이었는데 반해, 오늘은 당당한 명교 교주라는 높은 신분이라 격세지감이 들었다.

석정의 두 기둥은 부러져 있었고 석탁도 쓰러져 있었다. 설불득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림 화상들은 정말 싸움꾼들만 모인 모양이군. 부러진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아 아마 며칠 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아직 수리를 하지 못한 것 같군."

주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잠시 후에 승전을 하고나서 이 정자를 모두 부숴 버립시다."

군호들은 석정에서 기다리며 소림사에서 많은 고수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오면 먼저 예절로 상대한 수, 은이정을 이렇게 만든 죄를 문책하기로 했다. 만약 화상들이 무례하게 나오면 그 땐 부득불 병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반나절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또 한 참이 지나자 멀리서 사람들이 소림사 뒷산으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흥! 저들이 무슨 매복을 하는 건가?"

장무기가 외쳤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양소, 위일소, 은천정, 은야왕, 철관도인, 팽영옥, 주전, 설불득, 사신인 모두는 장무기를 따라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이 대웅보전에 와보니, 불상 앞의 공탁(供卓)이 넘어지고 향로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하게 널려져 있었으나 사람

은 보이지 않았다. 설불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림사에서 우리가 온 것을 알고 향로까지 쓰러뜨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니 정말 우습구나."
장무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명교의 장무기가 소림사의 방장대사를 만나뵈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의 외침은 별로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그의 내력이 웅후하여 대웅전 옆의 큰 종마저 내력에 울려 윙! 윙! 하고 울렸다.
양소와 위일소는 서로 마주 보며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주의 내력은 실로 무섭구나. 당년 양교주가 살아 있다해도 장교주를 따를 수는 없을 거야. 보아하니 오늘은 우리 명교가 이길 것 같군.'
그러나 누구 한 명 나타나지를 않았다.
주전이 다시 크게 외쳤다.
"소림사의 화상 형제들, 어째서 숨어 있기만 하오?"
그의 말소리는 장무기보다는 더 컸으나 종이 울리지는 않았다.
군호들은 또 잠시를 기다렸으나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팽영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안은 어딘지 음침하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주전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요?"
철관도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엇! 여기 부러진 선장(禪杖)이 있습니다."
설불득이 앗! 하고 놀랐다.
"여기에는 핏자국이 있군."
주전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 광명정에서 일전을 치른 후, 교주의 위세가 사방에 떨쳐 소림파에서 면전패(免戰敗)를 내건 모양이군. 황급하게 도망치느라 병기마저 다 버리고 가더니."

철관도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전이 다시 물었다.

"어째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요?"

"이 핏자국은 왜 있습니까?"

"아마 겁이 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손을 잘라 버렸나.....?"

자신도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주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이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소매가 날렸다.

"시원하군."

하고 말하자 갑자기 서쪽에서 뿌드득! 하고 소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군호들은 모두 놀라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 소나무는 한쪽 마당의 동남쪽 끝에 있었으나 마당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분명 누군가 심후한 수법으로 부러뜨린 사람의 짓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부러진 곳이 이미 건조되어 있어 조금 전에 한 짓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군호들은 사방을 살펴보았다. 역시 마당엔 격렬한 전투를 한 자국이 역력했다. 돌상이나 나뭇 가지, 그리고 벽에는 부러진 병기나 장풍에 맞은 흔적이 많았다. 사방에 핏자국도 널려 있었다. 일장의 악투를 벌인 게 틀림없었다. 땅에는 발자국마저 보였다. 그것은 고수들이 내공을 겨룰 때 생긴 것 이었다.

장무기가 크게 외쳤다.

"빨리 그 스님을 잡아오십시오!"

위일소와 설불득이 양쪽으로 나눠 그를 찾아나섰다. 그러나 그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았다. 살피러 나갔던 오행기 교도들이 돌아와, 이 사원 안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며 사방에 격투를 벌인 흔적이 있다고 보고를 해왔다. 사방에 싸웠던 흔적이 있고 핏자국이 널려 있었으나, 시체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양좌사,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격투는 이삼 일 전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림파가 전군이 섬멸당한 것일까요?"

설불득이 다시 말했다.

"조금 전에 수십 명이 뒷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소?"

"그것은 아마 소림파의 적들이었을 겁니다. 여기 남아 있다 우리가 오자 그만 도망을 간 모양입니다."

팽영옥이 입을 열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스님도 가짜였을 겁니다. 그런데 소림파와 맞설 이런 무서운 방파가 있습니까? 혹시 개방이 아닐까요?"

주전이 다시 말했다.

"아무리 개방의 세력이 크고 고수들이 많다 해도, 일거에 소림파를 모조리 해치우지는 못할 거요. 명교 외엔 그런 실력을 가진 파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명교가 한 짓은 아니고....."

철관도인이 입을열었다.

"주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그래 우리가 한 짓을 우리가 모르겠나?"

후토기 장기사 안원이 보고를 올렸다.

"교주께 보고드립니다. 나한당의 십팔존(十八尊) 나한 불상을 누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호들은 안원이 토목 건축학에 일가견이 있는지라 그가 의심이

생겼다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한당에 와보니 벽에 핏자국이 있고 사방에 계도(戒刀)와 선장(禪杖)이 널려 있었다.
 주전이 물었다.
 "안형, 이 십팔 나한상이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요?"
 안원이 대답을 했다.
 "누가 움직인 것 같아 뒤에 무슨 비밀 통로가 있는가 하고 제가 살펴보니, 그런 비밀 통로는 없었습니다."
 양소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안원이 다시 십팔나한상을 움직였으나 뒷벽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 양소는 신상 위로 뛰어올라 나한상을 살펴보더니 엇! 하고 이상하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나한 등에 글씨가 씌어져 있군."
 그러면서 나한상을 뒤로 돌려 놓았다.
 군호들은 커다란 멸(滅)자를 볼 수 있었다. 깊이 새겨져 흙이 보일 정도였다. 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했다. 주전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멸자라..... 무슨 뜻이지? 아! 그렇구나! 아미파에서 소림을 쳐부수고 멸절사태가 자기의 위세를 알리려고 멸자를 새겨 놨구나!"
 그의 엉뚱한 얘기에 모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는 사이 군호들은 십팔 나한상 전부를 뒤로 놀려놓았다. 그러고 보니 양쪽 맨 끝 두 나한상 외엔 모두 등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차례로 읽어 내려가자 모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다.
 ----- <선주소림(先珠少林) 재멸무당(再滅武當) 유아명교(惟我明敎) 무림칭왕(武林稱王)> -----

은천정, 철관도인, 설불득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것은 죄를 우리 명교에 덮어 씌우려는 계략이다."

소림사 군승들이 이런 처참한 횡액을 당한 것을 모두 명교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군호들은 모두 일일이 걱정스럽다는 표정들이었다.

"빨리 이 글들을 지워 버려야 된다. 누명을 쓰기 전에....."

주전이 이렇게 외치자 양소가 그의 말을 받았다.

"모든 악랄한 수법을 다 쓴 것같군. 아마 이 열 여섯 자를 지워 버린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을 걸세."

이번엔 양소의 말이 일리가 있는지 주전이 그와 더 이상 입씨름을 벌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이번엔 설불득이 그의 말을 받았다.

"이 열 여섯 자가 바로 증거가 되는 걸세. 그러니 우리에게 누명을 씌운 놈을 잡아 이 열 여섯 자와 대질시키는 거지."

양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팽영옥이 다시 물었다.

"소승 한 가지 이해 못할 일이 있어서 양좌사의 가르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 열 여섯 자를 새긴 자가 소림파를 궤멸시킨 누명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했다면, 밖으로 보이게 새기지 않고 왜 하필 나한상의 등 뒤에다 새긴 것입니까? 만약 안기사께서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 누가 나한상 등 뒤에 글자가 새겨진 것을 알겠습니까?"

양소는 침울한 표정을 하며 대답했다.

"내 생각엔 누군가 다시 이 나한상을 돌려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소. 아마 몰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겠지요. 우린 그 사람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소."

그 말에 군호들은 양소에게 또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양좌사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응! 무슨 우여곡절이 있는지 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하고 장무기가 외쳤다.

"선주소림 재멸무당이라..... 아마 무당파에서 지금 위험이 닥치고....."

위일소가 말을 이었다.

"빨리 무당파를 도우러 갑시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은천정이 뒤따라 말했다.

"늦기 전에 빨리 출발하세. 그 도적놈들은 벌써 이틀 전에 그곳으로 떠났으니까."

장무기는 송사백 등 일행이 서역에서 무당산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들의 소식은 전혀 들은 바 없었다. 만약 그들이 도중에서 무슨 변고라도 생겼다면 무당산을 지키고 있는 건 태사부님과 약간의 제 삼대 제자들뿐일 것이다. 삼사백 유대암은 불구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텐데, 강적들이 갑자기 당도하게 되면 어찌 대항을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자 더욱 조급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윽고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선배 여러분, 무당파는 선친의 출신지고 태사부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는 산처럼 무겁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구병(救兵)은 마치 불을 끄는 것처럼 한시라도 빨리 당도하면 그만큼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이오. 우선 위복왕과 본인이 앞서 가서 구원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양좌사와 외할아버지의 지시대로 곧 뒤따라 오십시오."

이윽고 포권의 예로 인사하고 나서 급히 산문(山門)을 나왔다.

위일소는 경공을 전개해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렸다. 군

호들의 대답하는 소리가 미쳐 나오기도 전에 두 사람은 이미 소림사 밖으로 나왔다. 이 두 사람의 경공 실력은 당세에 그들을 따를 자가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단숨에 수십 리를 달렸다. 위일소는 처음에 전혀 장무기에게 낙후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자 내력이 점점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무당산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계속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다. 더구나 강적이 앞에 있으니 전력을 너무 허비하면 안 되겠다.'

이윽고 장무기는 위일소에게 말했다.

"우리 앞에 있는 시진(市鎭)에 가서 말을 두 필 산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갑시다."

위일소는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교주, 말을 구입하는 일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후, 앞에서는 오, 육 명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자 위일소는 몸을 솟구치더니 두 명의 말 탄 자들을 들어올려서 살짝 땅에 내려놓고 소리쳤다.

"교주, 올라오시오!"

장무기는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다. 길을 막고 말을 뺏는 일은 강도의 소행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일소가 다시 소리쳤다.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는 것이오. 뭣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오!"

그는 호통을 치면서 또다시 두 명을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 자들도 약간의 무공을 할 줄 알았다. 저마다 욕을 퍼붓더니 병기를 뽑아 들고 공격하려 했다. 위일소는 양손으로 말 네 필을 멈추게 하더니, 발을 날려서 그들의 병기를 모두 걷어차 버렸다.

그러자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막고 강도질하는 건 어떤 호한(好漢)의 행실이냐? 어서 말을 돌려 줘라!"

장무기는 그들을 붙들고 늘어져 봤자 못된 짓만 더할 것 같아서 얼른 몸을 튕겨 말에 올라타더니, 위일소와 각각 한 필씩 끌고 달려갔다. 그 자들은 욕을 마구 퍼부었으나 감히 쫓아오지는 못했다.

장무기가 말했다.

"비록 우리가 급한 나머지 이런 짓을 했지만, 그들도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교주, 그러한 작은 일에 뭣 때문에 연연해 하는 겁니까? 옛날에 명교가 저지른 일이야말로 방자하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행동한 게 마치 무법천지 같았습니다."

위일소는 말을 하면서 껄껄 크게 웃었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이 명교를 사악한 이단(異端)으로 보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지만 도대체 어떤 자가 올바르고 어떤 자가 사악한 것인지는 실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장무기는 자기가 교주란 중임을 맡고 있는 것을 생각했으나 견식이 얕아서 많은 일을 자기 주장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금방 말을 빼앗는 일만 해도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비록 무공은 고강하나, 천하의 일들을 어찌 무공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자 내심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오직 하루속히 사손을 영접해 돌아오기만을 바랬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가 번뜩거리더니, 두 사람의 수중에 모두 강장(鋼杖)을 쥔 채 길을 막아섰다.

위일소가 소리쳤다.

"비켜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허리를 후려치며 말을 몰고 돌진했다. 그러자 한 사람은 강장을 들어서 채찍을 막아내고, 또 한 자는 소리를 한 번 지르면서 왼손을 한 번 흔들었다. 위일소의 말이 놀라서 사람처럼 일어섰다. 순간, 숲 속에서 또 다시 네 명의 흑의 남자가 뛰어나왔다. 각자의 신법을 보니 보통들이 아니었다. 그러자 위일소가 소리치며 말했다.

"교주께서는 멈추지 마시고 가시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은 제가 맡겠소."

이 사람들의 저의는 무당파의 원병을 막아서 끊어버리려는 것 같았다. 그러니 무당파의 처지는 실로 극도로 위험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위일소의 경공과 무공이 모두 뛰어나서 이들을 물리치리라 믿고 있었다. 설사 이길 수는 없어도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리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양발로 말을 한 번 차더니 앞으로 질주해 갔다.

흑의인 두 명은 강장을 몸 앞에 가로 세우면서 길을 가로막았다. 장무기는 몸을 밖으로 구부려서 그 자들의 강장을 탈취하여 즉시 던져 버렸다. 그러자 악! 악! 하고 비명소리와 함께 흑의인 두 명은 강장에 맞아 대퇴골이 부서지면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위일소를 감싸고 있는 그 네 명의 무공을 살펴보니 정말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니 자기가 가게 되면 위일소에게는 더욱 불리할 것 같아서 즉시 그를 도와서 두 명을 처치해 주었다.

숭산(崇山)과 무당산은 비록 예(豫), 악(顎) 양성(兩省)에 나뉘어져 있었지만, 하나는 예서에 있고 하나는 악북에 있어서 거리가 그다지 멀지는 않았다. 마산구(馬山口)를 지나자 남쪽으로는 모두 평야라서 말이 달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점심때가 되자 내향(內鄉)을 지나갔다. 장무기는 허기가 저서 시장통에 있는 빵 파는 곳에서 요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 있는 말이 괴롭게 울부짖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보니 말의

배에는 반짝거리는 칼이 한 자루 꽂혀 있었다. 순간, 그림자 하나가 길모퉁이에서 번뜩거리더니 즉시 사라졌다.

장무기는 급히 몸을 날려서 그 자를 잡아 보니, 역시 또 흑의의 남자였다. 앞깃에는 말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장무기는 소리치며 다그쳤다.

"넌 누구의 수하냐? 어느 방회 문파냐? 너희들의 인마(人馬)들은 이미 무당산에 당도했느냐?"

연거푸 몇 번 물어 보았으나 그 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장무기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모든 건 무당산에 도착하면 자연히 밝혀진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대추혈(大推穴)을 폐하였다. 그는 온몸이 말할 수 없이 아프면서 삼일 동안 밤낮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장무기는 즉시 말을 달렸다. 단숨에 삼관전(三官殿)으로 달려가서 한수(漢水)를 건너 남쪽으로 계속 갔다.

배가 중류에 접어들자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니, 그날 태사부가 자기를 대동하여 소림사에서 구의(求醫)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한수에서 상우춘(常遇春)을 만나고 또 주지약을 구해 준 일들이 생각났다. 순간 뇌리에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광명정 위에서 끊임없이 주목하는 안파(眼波)가 나타나자 그만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한수를 지난 후, 말을 재촉해서 계속 남쪽으로 쉬지 않고 달렸다. 이때 하늘을 벌써 어두워져서 앞이 몽롱하게 보였다. 다시 한 시간 정도 달리자 더욱 어두워졌다. 말도 너무나 지쳐서 서 있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말등을 몇 번 두드리고 말했다.

"말아, 말아, 넌 여기서 쉬고 싶은 대로 쉬었다가 네 갈 길로 가거라."

그리고는 경공을 전개하여 질주하기 시작했다.

사경(四更)쯤 되자 갑자기 앞에서 말굽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이윽고 그는 발길을 재촉하여 그 사람들 몸 옆으로 스쳐갔다. 그의 신법은 신속하고 가벼웠다. 더구나 야밤이라서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한패의 사람들의 행방도 역시 무당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십 여 인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아서 신분이나 내력을 탐지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병기를 휴대한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들도 역시 무당파의 적임을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당도하면 무당파는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반 시간 정도 걷고 나니 앞에는 또다시 한패의 사람들이 무당산으로 가고 있었다. 이처럼 전후로 해서 모두 다섯패 씩이나 만났다. 한패에 작으면 십여 명이었고 많으면 삼 십여 명이었다. 다섯 패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는 갑자기 또 걱정이 되었다.

'이미 몇 패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구나. 혹시 본파의 사람들과 이미 격전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비록 무당파의 제자는 아니지만 부친이 근본이기 때문에, 항상 무당파를 자기의 문파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자, 달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얼마 후 무당산에 당도했다. 다행히 적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산중턱에 오르게 되자 갑자기 앞에서 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대머리에 넓은 옷자락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그는 승인인 것 같았다. 경공의 실력이 실로 놀라웠다. 장무기는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의 뒤를 밟으며 동태를 살펴보았다.

그 승인이 단숨에 산에 올라가 막 산꼭대기에 도착하려는 순간 한 사람의 외침이 들려왔다.

"어디에서 온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찌 심야에 무당을 광림하

는 것이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위 뒤에서 양도양속(兩道兩俗) 네 사람이 섬출(閃出)했다. 바로 무당파의 제 삼, 사대 제자들이었다.

그 승인은 합장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소림 승인 공상이 무당 장진인에게 급한 용무가 있어서 찾아왔소."

장무기는 의아했다.

'그는 소림파의 공(空) 자배(字輩)의 선배대사였구나. 그렇다면 공문, 공지, 공성 삼대신승과는 사형제 배(輩)일 것이다. 그가 고생을 무릅쓰고 무당산에 온 것은 소식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구나.'

무당파의 도인 한 명이 말했다.

"대사께서 먼길에 수고하셨으니, 걸음을 폐관(폐觀)으로 옮기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말이 끝나자 즉시 앞으로 길을 안내했다. 공상(空想)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계도를 풀어내더니 다른 한 명의 도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는 병기를 후대하고 감히 관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의의 표시다.

장무기는 그 도인이 공상을 자소궁에 있는 삼청전(三淸殿)에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얼른 창문 밖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이윽고 공상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도장께서 즉시 장진인께 알리시오! 사정이 워낙 다급해서 잠시도 지체해서는 아니되오."

"대사께서 오신 게 공교롭지 못하십니다. 폐사조께서 세좌관(歲坐關)에 가신 지 벌써 일 년이 넘어서 본파의 제자들도 그 어르신네를 못 본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송대협에게 통보해 주시오!"

"대사백께서는 가사(家師)와 여러 사숙님을 대동하고, 귀파와

연맹하여 명교를 원정하러 가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장무기는 <명교를 원정하러 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내심 놀라웠다. 그렇다면 송원교 일행은 도중에서 사고를 당한 게 분명했다.
 이윽고 공상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무당파도 우리 소림파처럼 오늘의 이 폭행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료."
 "지금 폐파의 사부는 곡허자(谷虛子)사형께서 주치하고 있으니, 소도(小道)가 즉시 통보하여 대사님을 참견하시라 하겠습니다."
 "곡허자는 어느 분의 제자지요?"
 "유삼숙의 문하입니다."
 "유삼협께서는 수족에 상처가 있지만 노승의 이 몇 마디는 알아들이실 것이오."
 "알겠습니다. 대사의 분부를 따르겠소!"
 이윽고 그 도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공상은 대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몹시 초조한 것 같았다. 간간이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는 게 적이 산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 도인은 빠른 걸음으로 나와서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유삼숙께서 들어오시라 하십니다. 나와서 영접하지 못한 죄 대사께서 용서하시라고 하시더군요."
 이때 그 도인의 태도가 아까보다 더욱 공손해졌다. 아마 유대암이 <공(空)>자배의 소림승이므로 그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분부한 것 같았다. 이윽고 공상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그를 따라서 유대암의 와방(臥房)으로 갔다.
 '삼사백은 사지가 불구가 됐으니 귀와 눈은 배로 영민(靈敏)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의 창 밖에서 도청하면 아마 그에게 발각

될지도 모른다.'

장무기는 유대암의 와방에서 수장(數丈) 떨어진 곳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차 한 잔 끓이는 시간이 지난 후, 그 도인은 황급히 유대암의 방에서 나오더니 소리를 낮추어서 불렀다.

"청풍, 명월, 이쪽으로 오너라!"

그러자 두 명의 도동(道憧)이 그에게 다가가면서 대답했다.

"네, 사숙님."

"연의(軟椅)를 준비해라. 삼사숙께서 나오실 거다."

두 명의 도동은 대답하고 나서 급히 준비하러 갔다.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여러 해를 지냈지만 그 지객도인(知客道人)은 유연주가 새로 맞이한 제자라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청풍, 명월 두 도동은 알아보았다. 그 도동들이 연의가 놓여 있는 상방(廂房)으로 다가가자 살며시 뒤를 따라갔다. 도동들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소리쳤다.

"청풍, 명월,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겠느냐?"

두 도동은 깜짝 놀랐다. 장무기를 눈여겨보자 얼굴이 어디서 본 듯은 했지만 금방 식별하지 못했다. 그러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무기 막내 사숙이다. 너희들은 날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두 도동은 즉시 옛일을 회상하면서 몹시 기뻐하며 소리쳤다.

"아, 막내 사숙님! 돌아오셨군요. 병은 완쾌되었습니까?"

이 세 사람은 나이가 비슷해서 전에 자주 같이 놀았었다.

"청풍, 내가 너로 가장해서 삼사백을 모시러 가면 날 알아 보겠느냐?"

"그건..... 그건 곤란합니다."

"삼사백께서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걸 보게 되면, 절대로 널 나무라시지는 않을 것이다."

장삼봉 조사(祖師) 이하 무당육협들은 이분 막내 사숙을 몹시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도동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건 하늘만큼 큰 경사였다. 더구나 그가 이같은 작은 장난을 하는 건 유대암의 병에는 약이 되는 것이라 과히 나쁜 일이 아니었다.

명월은 웃으며 말했다.

"막내 사숙님의 맘대로 하세요."

그러자 청풍은 즉시 낄낄거리며 도포와 신발, 양말을 벗어서 장무기에게 주었다. 명월은 그의 머리를 도인의 머리처럼 빗겨 주었다. 잠시 후, 영락없는 작은 도동으로 변했다.

명월이 말했다.

"막내 사숙님은 청풍의 얼굴을 닮지 않았으니, 관중에 새로 온 소도동이라고 하세요. 청풍은 다리를 다쳐서 대신 왔다고 하십시오."

"잘 알겠다....."

그 도인은 방 밖에서 짜증을 부리고 있었다.

장무기와 명월은 혀를 몇 번 내밀더니 연의를 들고 유대암의 방으로 얼른 갔다. 두 사람은 유대암을 부축해서 연의에 앉혔다. 유대암은 몹시 정중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를 들고 있는 게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말했다.

"뒷산의 소원(小院)에 계신 조사 어르신네를 만나뵈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명월은 대답하고 나서 연의의 앞을 들었고 장무기는 뒷부분을 들었다. 유대암은 명월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고 장무기는 볼 수 없었다. 공상도 연의의 옆에 붙어서 함께 뒷산으로 갔다. 그러나 그 지객도인은 유대암이 부리지 않아서 감히 동행하지 못했다.

장삼봉이 폐관정수(閉關靜修)하고 있는 수원은 뒷산 죽림(竹林)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대밭이 울창하게 우거져서 새소리

외에는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명월과 장무기는 유대암을 들고 수원 앞까지 와서 연의를 내려놓았다.
유대암이 막 장삼봉을 부르려 하는데, 갑자기 문을 사이에 두고 장삼봉의 창로한 음성이 들려왔다.
"소림파의 어느 고승께서 한거(寒居)를 왕림해 주셨소? 노도가 멀리 나가서 영접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기 바라오."
곧이어 소리가 나더니 죽문이 열리면서 장삼봉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공상의 얼굴은 의혹으로 가득했다. 그는 장삼봉이 어떻게 방문자가 소림승인 것을 알고 있을까, 몹시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아까 그 지객도인이 사람을 보내서 미리 통보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대암은 사부의 무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정심해지는 걸 알고 있었다. 공상의 발소리만 들어도 그의 무학과 문파 무공의 깊고 낮음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윽고 공상은 합장하며 말했다.
"소승은 소림의 공상입니다. 무당의 선배님인 장진인을 참견합니다."
장삼봉도 답례를 하고 나서 말했다.
"별 말씀을..... 자,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다섯 사람은 함께 소원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주전자 하나 찻잔 하나가 있었고,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었으며, 벽에는 목검 한 자루가 걸려 있었다. 탁상 위와 바닥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공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진인, 소림파는 천 년 만에 크나큰 참변을 당했습니다. 마교가 갑자기 기습해 오는 바람에 본파의 방장인 공문사형을 비롯해 전사하지 않으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직 소승 한 사람만 죽음

을 무릅쓰고 도망 나왔습니다. 마교의 대 부대는 지금 무당으로 오고 있으나, 오늘 중원 무림의 존망영욕(存亡榮辱)은 모두 장진인 한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무기는 몹시 놀랬다. 그는 소림파가 이미 화를 당한 건 알고 있었으나 이처럼 전파가 복몰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장삼봉도 백 년이란 수위가 있다 해도 갑자기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교가 이처럼 당돌하다니, 하지만 소림사에는 고수가 구름같이 많은데 어찌 마교의 독수에 당한 것입니까?"

"공지, 공성 두 분 사형께서는 문하의 제자를 이끌고 중원의 오대파와 결맹하여 광명정을 위공(圍攻)하러 가셨고, 산사를 지키고 있는 제자들은 날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원정갔던 사람들이 대승하여 돌아온다는 소식을 산 밑에서 보고해 왔습니다. 방장 공문사형께서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제자들을 대동하여 산문 밖으로 영접하러 갔습니다. 과연 공지, 공성 두 분 사형께서 서정(西征)제자들을 이끌고 산사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로 수백 명의 포로도 끌고 왔지요. 사람들이 대원(大院)에 당도하자 방장은 승리하게 된 과정을 물어 보았는데 공지사형은 자꾸 더듬 거렸습니다. 갑자기 공성사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형, 조심하시오! 우리는 포로가 되었소. 저 자들은 모두 적.....!" 이 찰나 포로들은 병기를 뽑아들고 갑자기 달려 들었습니다. 본파의 사람들은 뜻밖에 당하는 일인데다 많은 고수가 서정에서 적의 포로가 되었으니, 본사를 지키고 있는 세력은 자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원자(大院子)의 앞뒤 출로는 이미 적들이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연 격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모두 당하고 만 것입니다. 공성사형은 거기서 순난(殉難)....."

여기까지 말한 그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마교가 이처럼 악독한 계략을 감행하니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소."

공상은 등에 메고 있던 노란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자 기름천에 쌓여 있는 수급 한 개가 나타났다. 두 눈을 부릅뜨고 몹시 격분되어 있는 얼굴이었다. 바로 소림 삼대 신승 중의 한 사람인 공성대사였다.

장삼봉과 장무기는 모두 공성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보는 순간 그만 아! 하고 일제히 소리쳤다.

공상은 곡을하며 말했다.

"전 죽음을 무릅쓰고 공성사형의 법체를 빼앗아 왔습니다. 장진인,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성의 수급을 정중하게 탁자에 올려놓더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장삼봉도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여 인사했다.

장무기는 광명정에서 무공을 겨루던 생각을 하였다. 공성의 너그러운 성품과 슬기롭고 뛰어난 도량은 실로 당당한 소림의 일대종사(一代宗師)였다. 그러나 불의의 참변을 당해서 신수(身首)까지 분리되었으니 몹시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삼봉은 공상이 땅에 엎드려서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손을 내밀어 부축하며 말했다.

"공상사형, 소림과 무당은 본시 한 집안이오. 이 원수는 꼭 갚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펑! 하고 일성이 나더니 공상의 쌍장이 그의 하복부를 후려쳤다.

갑자기 닥친 변고라서 제아무리 무공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장삼봉이라도 이 일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공상이 너무나 비통해서 자기를 적으로 착각했다는 생각을 해보았으

나, 즉시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하복부에 적중된 장력은 소림파의 외문신공(外門神功)인 <금강반야장(金剛般若掌)>이었다. 더구나 공상은 전신의 경력으로 장력을 끊임없이 촉진시켜 왔다.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가에는 사나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장무기, 유대암, 명월 등 세 사람은 갑자기 일어난 변고를 보자 모두 놀라서 멍청해졌다. 유대암은 몸이 불구라서 사부를 도와주지 못했다. 장무기는 나이가 어리고 견식 또한 부족하여 순간적으로 공상이 일장으로 태사부를 죽여버리겠다는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 두 사람은 비명만 한 마디씩 질렀다.

장삼봉은 즉시 좌장을 휘둘러 팍! 하고 가볍게 소리를 내면서 공상의 천령개(天靈蓋) 위를 후려쳤다. 이 일장의 부드러움은 마치 솜 같았고 단단함은 마치 무쇠 같았다. 이윽고 공상은 즉시 뇌골이 분쇄되어 마치 젖은 흙처럼 주저앉았다. 전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즉사한 것이다.

유대암은 급히 물었다.

"사부님, 괜찮....."

그러면서 얼른 입을 다물었다. 장삼봉은 눈을 감고 좌정(坐正)하였다. 잠시 후 머리 위로 가느다란 백기(白氣)를 뿜어내면서 갑자기 입을 벌리더니 몇 모금의 선혈을 토해 냈다.

장무기는 몹시 놀랐다. 태사부가 중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토해 낸 것이 검붉은색의 피라면 그의 심후한 내력으로는 삼, 사일이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토한 건 선혈이고 더구나 급히 뿜어낸 듯해서 필시 장부(臟腑)에 중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은 또다시 망설여졌다.

'즉시 신분을 밝히고 태사부님을 구해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바로 이때였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람이 문 밖에 당도했

다. 그의 급한 걸음걸이를 들어보면 몹시 다급한 것 같았다. 그러나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또 소리도 감히 내지 못했다.

그러자 유대암이 물었다.

"영허냐? 무슨 일이냐?"

그 지객도인 영허가 말했다.

"삼사숙님께 아룁니다. 마교의 대대가 문 밖에 당도해서 조사 어르신네를 뵙자고 합니다.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무당파를 평정한다고 하면서....."

"닥쳐라!"

유대암은 소리쳤으나 장삼봉의 정신이 흐트러질까 봐 몹시 조심스러웠다.

이윽고 장삼봉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말했다.

"소림파의 금강반약장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아마 삼 개월간 정양(靜養)해도 상처가 완쾌되지 않을 것이다."

'태사부님의 상처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하구나.'

장삼봉은 다시 말을 이었다.

"드디어 명교가 대거 산으로 올라왔구나. 그건 그렇고 원교와 연주 등이 무사한지 모르겠다. 대암아, 네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유대암은 묵묵히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산사에 남아 있는 사부와 자기 외에 삼, 사 대 제자의 무공으로는 억울한 죽음만 당할 뿐 절대로 적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의 일은 오직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적들과 대항하는 동안 사부는 피신하여 상처가 아문 다음 다시 복수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영허,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내가 그들을 만나 볼 것이니 삼청전에서 기다리라고 해라."

영허는 대답하고 나서 즉시 달려갔다. 장삼봉과 유대암은 오랫

동안 같이 지내서 심의가 상통되었다. 그가 이처럼 말을 하는 걸 듣자 이미 저의를 눈치챘다.

"대암, 생사승부에 너무 마음을 쓸 것 없다. 하지만 무당파의 절학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십 팔개월 동안 좌관(坐關)하면서 무학의 정요인 태극권(太極拳)과 태극검(太極劍)을 터득한 게 있다. 지금 너에게 전수하겠다."

그러자 유대암은 멍해졌다. 자기는 불구가 된 지 오래 되었는데 무슨 권법 검술을 배우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강적들이 이미 관에 들어왔는데 무슨 여가가 있어서 무공을 전수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사부님만 부를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장삼봉은 지그시 한 번 웃더니 말을 했다.

"나의 이 태극권과 태극검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무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건 이정제동(以靜制動) 후발제인(後發制人)을 강구한다. 너의 사부의 나이는 백 세가 넘어서 설사 강적은 만나지 못해도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나마 기쁜 일은 죽기 전에 이 무공을 창재해 낸 것이다. 원교, 연주, 송계, 이정, 성곡 모두 곁에 없고 제 삼, 사 대 제자들 중에는 유독 청서만 걸출한 인재인데, 그도 역시 산에 없지 않느냐. 대암, 넌 내가 평생 연마한 절예(絶藝)를 전수하는 중요한 책임을 짊어졌다. 무당파 하루의 영욕(英辱)을 뭐하러 따지느냐? 이 태극권이 후대(後代)에 전할 수 있다면 우리 무당파의 대명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윽고 장삼봉은 손등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서 양발을 벌리더니 바로 일초일식을 시전해 보였다. 입으로는 초식의 이름들을 불렀다. 람작미(攬雀尾), 단편(單鞭), 제수상세(提手上勢), 백학량시(白鶴亮市), 루슬구보(樓膝拘步), 수휘비파(手揮琵琶), 진보반난추(進步搬欄錘), 여봉사폐(如封似閉), 십자수(十字手), 포호귀산(抱虎歸山)........

장무기는 잠시도 눈을 굴리지 않고 열심히 관찰하였다. 처음에는 태사부가 일부러 느리게 연출하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제 칠초 <수휘비파>를 보자, 그의 좌장은 양(陽) 우장 음(陰)으로 해서 눈을 왼쪽팔을 주시하더니 쌍장을 천천히 합장했다. 마치 산처럼 무겹고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윽고 장무기는 갑자기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았다.

 '이건 느린 동작으로 빠른 걸 제압하는 이정제동(以靜制動)의 상승(上乘) 무학이다. 세상에 이처럼 고명한 무공이 있을줄이야. 정말 뜻밖이다.'

 그는 본시 무공이 뛰어나서 막상 깨우치게 되니 볼수록 넋을 잃고 있었다. 이윽고 장삼봉은 양손을 돌렸다. 매 초식마다 모두 태극식의 음양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실로 무학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신천지를 개발한 것이다.

 잠시 후 장삼봉은 양손으로 태극식의 원을 그리면서 말했다.

 "이 권술의 촛점은 <허령정경(虛零頂經), 함흉발배(涵胸拔背), 송요수둔(송腰垂臀), 침견추주(沈肩墜주) 열 여섯 글자에 있다. 모두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힘을 사용하는 건 금기이다. 행신(行神) 합일(合一)이 이 권법의 요지다."

 그러면서 상세히 해설해 주었다.

 유대암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때가 다급하여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록 중간에 이해 못하는 곳이 많았으나 억지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사부에게 예측 못할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구결(口訣) 초식들은 자기가 전해 내려서 나중에 다시 총명한 재지지사(才智之士)가 그 안의 정오함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많은 걸 깨우쳤다. 장삼봉의 매 구결과 매 초식마다 초문대도(初聞大道)라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장삼봉은 유대암의 얼굴에서 이해 못하는 당혹한 표정을 발견하

고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얼마나 이해했느냐?"

"제자가 우둔하여 겨우 삼,사 성(成)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식과 구결은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만한 것도 다행이다. 만약에 연주가 여기 있다면 아마 오성(成)은 이해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오사제의 깨우치는 능력이 최고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다. 만약에 그에게 삼 년만 열심히 지적해 주면 나의 이 절기는 전할 수가 있을 텐데....."

장무기는 자기의 부친을 들먹이자 그만 가슴이 찡했다.

장삼봉이 말했다.

"이 권경은 우성 사송비송(似송非송) 장전미전(將展未展) 경단의불단(勁斷意不斷)....."

계속해서 해설해 주려는데 앞에 있는 삼청전에서 한 늙은이의 음성이 들려왔다.

"장삼봉 노도가 정히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그의 제자 제손들을 먼저 처치해 버리자."

다른 소리가 또 들려왔다.

"좋다. 우선 이 도관(道觀)을 불질러 버리자!"

"노도(老道)를 화형시키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니, 우리가 그를 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각처에 있는 문파에게 구경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무학태두(武學泰斗)가 늙어도 죽지 않는 모양을 볼 수 있게 된다."

----- 제 4 권 8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4 권 끝